2017
한국유교레포트

한국학계의 유교연구 성과분석 및 전망

* 이 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아 간행하였습니다.
(사업명: 2018년 율곡학 콘텐츠 개발 및 사회적 · 국제적 확산 사업)

2017 한국 유교 레포트
한국 학계의 유교 연구 성과 분석 및 전망

2018년 12월 25일 인쇄
2018년 12월 25일 발행

펴낸곳 (사)율곡연구원 율곡학 콘텐츠 개발 및 사회적 · 국제적 확산 사업단
주소 강원도 강릉시 죽헌길 124(죽헌동)
전화 033 642 4982 ● 팩스 033 647 4046
홈페이지 www.yulgok.or.kr
전자우편 yulgokee@hanmail.net

* 이 책은 무단으로 복제 또는 전제하실 수 없습니다.
* 비매품

2017
한국유교레포트

한국학계의 유교연구
성과분석 및 전망

율곡연구원
율곡학 콘텐츠 개발 및 사회적 · 국제적 확산 사업단

발 간 사

율곡 이이 선생은 한국 유교를 대표하는 학자로서 문(文) · 사(史) · 철(哲)을 겸비하여 동방의 대현(大賢)으로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선생은 49년이란 비교적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철학, 정치, 교육, 역사 등 각 방면에 걸쳐서 방대하고도 심오한 저술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계승하기 위해 설립한 우리 율곡연구원은 그동안 다양한 학술활동과 출판사업 등을 통해 율곡 선생의 사상과 업적을 재조명해 왔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고 지원을 받아 전담 사업단을 발족하여 율곡학 콘텐츠 개발, 율곡 문집을 활용한 한자 · 한문교육 교재 개발, 인성교육 지도자 양성, 대중강연회 실시, 나아가 해외에 율곡의 학문과 사상을 널리 알리는 홍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한국유교 레포트는 율곡학을 포함한 한국 유교의 연구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한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국내적으로는 우리 학계에 보다 풍성한 한국유교 연구 성과가 나

오길 기대하며, 국제적으로는 우리 유교에 대해서 해외학자들이 보다 깊이 있는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연구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모쪼록 이러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우리의 학문과 사상이 재평가되고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을 희망합니다.

2018년 12월 25일

사단법인 율곡연구원 이사장 윤사순

서 문

유학이 처음 한국에 수용된 시기에 대하여는 아직 정설은 없습니다. 그러나 삼국시대 이전인 것만은 분명하며, 유학이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한국사회를 주도한 것 또한 분명합니다. 특히 조선 중기 주자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조선성리학이 정립되고 17세기 이후 사림파가 정권을 장악하여 주자학이 강력한 통치이념으로 작동되면서 유학사상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17세기부터 160여 년에 걸쳐 『주자대전』에 대한 주석 작업이 진행되어 19세기 이항로(李恒老)에 의하여 『주자대전차의집보(朱子大全箚疑輯補)』가 집대성된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유학사상은 치열한 논쟁을 통하여 발전하였습니다. 16세기의 사단칠정논쟁, 18세기의 호락논쟁, 19세기의 심설논쟁이 그 대표적입니다. 이 논쟁의 주역들은 자신의 학설을 정당화하고 논적의 주장을 비판하기 위하여 사서오경 등 유교경전과 주자학에 대하여 치밀하게 분석하고 재해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전통은 현대 유학연구자들에게 계승되어 한국학계에는 유학사상에 대한 수준 높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으며 매년 새로운 논문과 저서가 발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학에 대한 연구 성과를 분석 · 비판하고 정리하여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시도는 극히 드문 실정입니다. 각 논문과 저서들은 개별적으로 발간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몇몇 전공자들에게만 읽힐 뿐, 학계와 사회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사업단은 지난해 한국에서 이루어진 유학 연구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물을 한국어와 중국어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본 사업단은 개별 논문과 저서라는 구술을 꿰어 한국유학이라는 보배로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는 치열한 논쟁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레포트를 계기로 연구자들의 연구물들이 사장되지 않고 학계와 사회의 이슈로 부각되어 생산적인 논쟁의 공간이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의 중국어판 발간을 계기로 한국 유학의 현주소

와 연구 성과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보고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것입니다.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12월 15일

율곡학 콘텐츠 개발 및 사회적 · 국제적 확산사업단 단장

최영진

차 례

발간사 · 윤사순 4

서문 · 최영진 6

제1부 중국유학

제1장 **선진 · 한당시기 유학 연구** · 김동민 13

제2장 **송대 유학 연구** · 박지훈 45

제3장 **명청대 유학 연구** · 선병삼 73

제4장 **근대 중국 유학 연구** · 김현우 101

제2부 한국유학

제5장 **한국 성리학 연구** · 배제성 등 123

제6장 **한국 양명학 연구** · 선병삼 179

제7장 **한국 실학 연구** · 허종은 199

제8장 **한국 경학사상 연구** · 김유곤 219

제9장 **한국 근대유학 연구** · 김현우 241

제10장 **'한류와 유교' 연구** · 임태홍 261

제1부 중국유학

제1장

선진·한당시기 유학 연구

김동민

1. 머리말

본 보고서는 2017년도 한국에서 발표된 학술 논문과 박사학위논문 중에서 〈중국: 선진 및 한당〉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논문 색인의 대상은 2017년 국내 대학에 제출된 박사학위논문과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에 정식으로 수록된 논문(KCI)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전체 논문 중에서 본 조사의 분석 대상은 유학이나 유교와 관련된 논문으로 제한하였다. 선별 논문의 발표 시기는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의 기간이다. 본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논문집은 모두 22개의 철학 전문 학술지이다.

학술지를 분석한 결과, 〈중국: 선진 및 한당〉 시기의 유학과 유교 관련 논문은 총 73편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에서 박사학위논문이 18편이고, 일반논문이 55편이다. 총 편수에서는 2015년도 71편, 2016년도 65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선진시기가 총 67편, 진한시기 6편, 한대 이후부터 수당시대까지가 0편이다. 2015년도에는 총 71편의 논문 중에서 선진시기가 67편, 진한시기 4편이었으며, 2016년에는 총 65편의 논문 중에서 선진시기가 55편, 진한시기가 10편이었다. 이전의 두 해와 마찬가지로 선진시기의 논문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진한시기의 논문도 꾸준히 발표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논문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분류 방식에 따라 나누어보았다. 첫째, 인물별 분류, 둘째, 주제별 분류이다. 인물별 분류에서는 유가 사상을 대표하는 공자 · 맹자 · 순자 세 인물을 대표적으로 살펴보고, 유가 이론과 관련된 인물들을 함께 묶어서 기타

인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주제별 분류에서는 첫째 경학사상, 둘째 철학, 셋째 정치 및 경제, 넷째 종교, 다섯째 교육, 여섯째 기타로 분류하였다.

2. 인물별 분류

전체 73편의 논문 중에서 인물과 관련된 주제를 다룬 논문은 모두 41편이다. 인물별로 보면, ① 공자: 15편, ② 맹자: 6편, ③ 순자: 14편, ④ 기타 인물: 6편이다. 선진 유가를 대표하는 공자 · 맹자 · 순자와 관련된 논문이 35편이고, 기타 인물은 모두 한대의 유가 사상가로서 동중서(董仲舒) 2편, 환담(桓譚) 1편, 중장통(仲長統) 1편, 왕부(王符) 1편, 경방(京房) 1편이다. 전체 논문의 편수는 2015년도의 33편과 2016년도의 30편과 비교해보면 소폭 늘어났다. 2016년도에 비해, 공자 관련 논문은 소폭 늘었고, 맹자와 기타 인물은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순자 관련 논문이 2015년 11편에서 2016년 5편으로 대폭 줄었다가, 올해에는 14편으로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 올해 인물별 분류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리고 순자 관련 논문 중에서 박사논문이 5편이나 발표되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한대의 유가 사상가 관련 논문도 2015년도에는 3편에 불과했으나, 2016년도에는 8편, 올해는 6편으로 꾸준히 성과가 나오고 있다. 2016년도에는 육가(陸賈) 관련 논문이 5편이고, 가의(賈誼) · 동중서(董仲舒) · 왕충(王充) · 정현(鄭玄)이 각각 1편이었다. 올해는 동중서 이외에도 환담(桓譚) · 중장통(仲長統) · 왕부(王符) · 경방(京房) 등 새로운 인물에 대

한 연구가 소개되어, 한대 사상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2017년도에는 순자에 대한 연구가 크게 활성화되었고, 한대의 주요 사상가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요한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다만 한대 이후부터 송대 이전까지의 유학 사상이나 주요 사상가에 대한 연구가 몇 년 동안 계속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학계에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공자 관련 논문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신각균	孔子의 人性 硏究	박사학위논문	군산대학교
2	김성인	공자의 교육철학과 그 실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3	박인선	공자가 꿈꾸던 행복국가	박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4	이수빈	孔 · 孟의 美育思想에 관한 硏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5	김재경	공자의 사유방식과 창의성의 관계	유교사상문화연구 70	한국유교학회
6	김재경	공자의 뒷담화와 그 피드백 효과	동양철학연구 91	동양철학연구회
7	김용재	제주석(諸註釋)을 통해 본 『논어(論語)』 경문(經文)의 해석학적(解釋學的) 이해(理解) [7-1] – 「술이(述而)」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89	동양철학연구회
8	임명희 김세원	동 · 서양 고전에 나타난 도덕적 통념에 관한 비판적 해석 – 『논어』와 『에우티프론』에 나타난 아버지를 고발한 아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	동양철학연구 89	동양철학연구회
9	윤민향	공자(孔子)의 문명론에서 정서적 억압 문제의 부재(不在)에 관한 시론(試論)	유학연구 40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0	이희재	공자의 행복관 연구 –『논어』를 중심으로 –	공자학 33	한국공자학회
11	손흥철 박용석	老子와 孔子의 道개념과 社會正義 고찰	동양고전연구 66	동양고전학회
12	박승현	공자의 인(仁) 사상과 공감능력회복	동서철학연구 84	한국동서철학회

13	박영진	義利 문제에 대한 공자와 맹자의 인식 연구	동양고전연구 68	동양고전학회
14	임태승	"공자적위(孔子適衛)"의 본말과 그 행정(行程)의 재구성	대동문화연구 10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5	김경희	『논어』에 나타난 죽음 인식과 불멸성의 추구	공자학 33	한국공자학회

2017년도의 공자 및 『논어』 관련 논문은 모두 15편이다. 2015년도는 16편, 2016년도 11편으로, 꾸준히 10편 안팎의 편수를 유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먼저 박사논문이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4편인데, 공자의 철학이나 이론을 전문적으로 다룬 논문은 보이지 않는다.

신각균과 김성인, 이수빈의 논문은 모두 교육과 관련된 주제를, 나머지 박인선의 논문은 정치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신각균의 논문은 현대사회가 오로지 경쟁에 의한 승리만을 추구함으로써 비도덕이고 비윤리적인 사회로 전락했다는 문제의식에 출발하였다. 필자는 공자의 인성교육이 인간중심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를 중시함으로써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제반의 문제들을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성인도 현대사회가 물질만능주의의 팽배로 인해서 개인의 자기 수양보다는 경쟁과 출세, 명성만을 위한 위인지학(爲人之學)을 추구함으로써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진단하였다. 필자는 공자의 공부가 타인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자기 수양을 추구하기 때문에 공자의 교육을 통해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공자의 교육철학을 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으로 세분화하여 오늘날 교육 현장에 적합한 실현 방한을 모색하였다.

일반 논문은 모두 11편인데,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경학의 측

면에서 『논어』의 경문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김용재의 논문을 제외하면, 나머지 논문들은 다른 학문 분야와의 비교나 교육, 심리학 등에 기반한 융복합적인 성격을 띤 논문이다. 이러한 연구 형태는 최근의 학문적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2) 맹자 관련 논문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정선	孟子 人性論의 硏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	예수백	맹자의 성선설과 정치이론	박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3	전병욱	『孟子』「告子」편의 性善論에 대한 주자의 해석	유교사상문화연구 70	한국유교학회
4	고재석	맹자 성선의 의미에 대한 연구 –본성현현과 본성실현의 특성 분석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90	동양철학연구회
5	김세종	『맹자(孟子)』 동심인성(動心忍性) 장(章)의 이질감 고찰	동양철학연구』92	동양철학연구회
6	김혜수	맹자의 '적자지심(赤子之心)'에 대한 도덕형이상학적 해명	유학연구 39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7년도 맹자 및 『맹자』 관련 논문은 모두 6편으로, 2015년 · 2016년과 동일한 편수이다. 2014년의 13편 이후로 이 분야의 연구는 계속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박사논문은 모두 2편으로, 2015년도 1편, 2016년도 2편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두 편의 박사논문은 모두 맹자의 핵심 이론인 인성론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그 중에서 이정선의 논문은 맹자 인성론의 도덕 가치를 규명함으로써 그것이 인간의 도덕적 수양의 이론적 근거됨을 밝히고, 나아가 인간의 도덕적 행위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현되는지 밝히려는 시도이다. 필자는 맹자의 인성론이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현대사회에서 인간

성 회복을 위한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일반논문 4편도 각각의 제목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맹자의 인성론을 주제로 한 논문들이다. 전병욱의 논문에서는 맹자의 성선론에 대한 주자의 해석이 하나의 고유한 학문분야라고 규정하고, 주자는 맹자 성선론의 한계를 지적함과 동시에 자신의 이론을 바탕으로 보다 완벽한 형태의 성선론의 구조를 완성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고재석의 논문에서는 중국 송명시기와 조선조에 맹자의 성선설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전개되었지만, 이러한 이론들이 '본성현현'과 '본성실현'이라는 동일한 이론 구조를 그 근저에 깔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두 논문 모두 맹자의 성성론에 대한 기존의 연구 방법론과는 다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맹자 인성론 연구의 외연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순자 관련 논문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정희	중국 유가철학 발전사에서 순자철학의 전개와 수용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2	윤태양	순자 도덕철학의 구조적 특징과 한계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3	이광영	순자(荀子) 예론의 교육학적 해석: 메타프락시스적 관점	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4	최진규	순자의 예법철학에 관한 연구: 욕망과 분배의 문제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5	배기호	『순자』에서의 혼란과 그 해결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6	이해영	순자의 이상사회론	유교사상문화연구 68	한국유교학회
7	김세종	순자 성론(性論) 재검토 – 성악(性惡)이론은 순자의 사상인가 –	동양철학연구 89	동양철학연구회
8	이해영	순자사상의 분합(分合)논리	동양철학연구 90	동양철학연구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9	양순자	순자(荀子)의 마음의 자율성에 대한 재고찰	동양철학연구 92	동양철학연구회
10	안영석	순자사상의 도덕적 인식과 실천	유학연구 39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1	정재상	감정은 내가 소유한 것인가 –순자 성정론의 인식론적 지평과 의의–	유학연구 39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2	김정희	『순자』에 있어서 '통류(統類)'의 의미 분석	동서철학연구 84	한국동서철학회
13	윤태양	이기적 욕망을 인정하는 도덕이론의 문제 – 순자철학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54	한국철학사연구회
14	서세영	순자의 '악(惡)' 개념과 악인(惡人)에 관한 연구	온지논총 51	온지학회

2017년도 순자 및 『순자』 관련 논문은 모두 14편이다. 2015년 11편, 2016년 5편에 비해서 매우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특히 박사논문이 5편이나 나와서 향후 이 분야 연구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박사논문의 주제도 유가철학에서 순자철학의 학술사적 가치를 다룬 논문을 비롯하여, 도덕철학과 예론, 사회철학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어서 순자 철학에 대한 연구가 매우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논문의 경우에도 순자의 인성론을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함으로써 성악설이 지닌 철학적 의미를 독창적으로 해석하려고 시도하였다. 또한 순자 철학의 중요한 개념들을 심도 깊게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화된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먼저 김정희의 논문은 「중국 유가철학 발전사에서 순자철학의 전개와 수용」이라는 논문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순자 철학의 형성과정에서부터 그 전개 양상까지 순자철학에 대한 학술사적 검토를 시도하였다. 즉 이 논문은 선진시대 순자 사상이 형성된 과정, 진한시대를 거쳐 송명시대까지 순자의 이론이 중국철학에 끼친 영향과 그 철학

사적 의미 등 순자에 대한 사상사적인 종합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 연구를 통해 순자의 학문이 유가철학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밝히고, 나아가 유가 경학의 전승자로서 순자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려고 시도하였다. 한편 최진규의 논문에서는 순자의 철학 중에서도 예법철학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예법철학의 구조를 욕망과 분배라는 측면에서 탐색함으로써 순자의 예법철학이 가진 철학적 가치를 밝히려고 시도하였다. 특히 필자는 순자철학이 인간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욕망,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는 분배, 그리고 공평한 분배를 집행하는 군자라는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된 일종의 예법 시스템이라는 점을 단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순자의 예법철학이 가진 논리성과 체계성을 부각시켰다. 이 두 논문은 기존의 연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순자 철학의 독창성과 사상사적 가치를 제고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논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4) 기타 인물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황용호	京房易學의 思惟와 宇宙觀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2	조원일	왕부(王符)의 경제사상(經濟思想) 연구	동양철학연구 91	동양철학연구회
3	조원일	중장통(仲長統)의 천인관계론 연구	유학연구 40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4	이연승	『춘추번로(春秋繁露)』에 나타난 효(孝) 담론	퇴계학보 142	퇴계학연구원
5	김상래	동중서(董仲舒)의 천인합일설(天人合一說)과 그 윤리적 함의	퇴계학논총 30	퇴계학부산연구원
6	조원일	환담(桓譚)의 천도론(天道論) 사상(思想) 연구	퇴계학논총 30	퇴계학부산연구원

2017년도 기타 인물과 관련된 논문은 모두 6편이다. 2015년 4편, 2016년 8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연구 대상 인물은 2016년도와 마찬가지로 모두 한대의 유가 사상가이다. 동중서(董仲舒)에 대한 연구는 매년 꾸준히 발표되고 있으며, 2016년도의 연구 대상이었던 육가(陸賈)·가의(賈誼)·왕충(王充)·정현(鄭玄)은 보이지 않지만, 경방(京房)·왕부(王符)·중장통(仲長統)·환담(桓譚) 등의 새로운 인물이 연구되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2016년도에 조원일이라는 한 명의 연구자에 의해 육가·가의·왕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올해도 그에 의해 왕부·중장통·환담 연구가 진행됨으로써 한 연구에 의해 한대의 주요한 사상가에 대한 연구를 거의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6편의 논문 중에서 조원일의 「중장통의 천인관계론 연구」는 한국학계에서는 지금까지 거의 소개되지 않았던 인물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대 사상사 연구에서는 동중서와 왕충 등 몇몇의 주요 사상가만이 주로 연구 대상이었는데, 왕부나 순열 등과 함께 한대를 대표하는 비판사상가인 중장통에 대한 이 연구는 향후 한대 사상의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필자의 말처럼, 한대의 천인관계론이 주로 동중서의 천인감응론(天人感應論)과 왕충의 천도자연론(天道自然論)의 대립적인 구도에서 연구되어 왔고, 중장통의 천인관계론도 이러한 구도와는 무관하지 않은 이론이다. 본론에서 다룬 중장통의 천인관계론은 왕충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왕충과 중장통의 이론이 그 구조나 사상적 특징 등에서 어떠한 차이가 보이는지 드러나지 않는 점이 다소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왕충의 천인관계론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의 연구 성과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중장통의 이론을 다루면서 왕충과의 차이를 비교해준다면, 중장통

사상의 특징이 보다 명확하게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3. 주제별 분류

주제별 분류는 ① 경학사상 20편, ② 철학 37편, ③ 교육 7편, ④ 정치 및 경제 3편, ⑤ 기타 4편이다. 2016년과 비교해보면, 경학사상 분야와 철학 분야, 교육 분야는 소폭 증가했다. 정치 및 경제 분야는 반으로 줄어들었고, 기타 분야는 동일하다. 전년도 대비 조사 대상 전체 논문이 65편에서 73편으로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경학사상과 철학, 교육 분야는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정치 및 경제 분야의 논문은 대폭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경학사상 분야에서는 『주역』이 13편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논어』와 『맹자』 각각 1편, 『춘추』 2편, 『예기』 1편, 그리고 기타 2편이다. 2016년에 『주역』이 5편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경학 분야의 전체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그리고 작년에 발표되었던 『상서』·『시경』·『주례』 등에 대한 연구가 올해에는 보이지 않는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3편의 출토문헌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 이 분야의 연구 성과가 매년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에는 보이지 않던 경방(京房)의 역학(易學)에 대한 박사논문이 발표되어, 앞으로 역학 분야의 연구 영역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춘추』와 『예기』 분야는 연구자와 연구 성과가 매우 부족한 실정인데, 작년과 올해에 각각 3편이 발표되어 경학 연구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있다.

1) 경학사상 연구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안승우	『周易』 直觀的 思惟의 道德化 過程에 관한 硏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	김영	사서삼경에 나타난 명덕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3	김용재	제주석(諸註釋)을 통해 본 『논어(論語)』 경문(經文)의 해석학적(解釋學的) 이해(理解) [7-1] -「술이(述而)」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89	동양철학연구회
4	전병욱	『맹자』 「告子」편의 性善論에 대한 주자의 해석	유교사상문화연구 70	한국유교학회
5	황용호	京房易學의 思惟와 宇宙觀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6	원용준	역류 출토문헌을 통한 고대 주역의 형성과 전개	유교사상문화연구 70	한국유교학회
7	이현중	중천건괘(重天乾卦)와 중지곤괘(重地坤卦)를 중심으로 살펴본 주역의 수행론	유학연구 39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8	조우진	『주역』에서 '신뢰[부(孚)]'의 의미	공자학 32	한국공자학회
9	천승민 유흔우	백서(帛書) 『주역(周易)』 『역전(易傳)』의 괘기설(卦氣說)에 관한 연구	공자학 32	한국공자학회
10	조우진	고난(苦難)에 대한 역학적 고찰 -감괘(坎卦)를 중심으로-	공자학 33	한국공자학회
11	임병학	『주역(周易)』의 하도(河圖)·낙서(洛書)와 「계사상(繫辭上)」 제9장 고찰	동서철학연구 83	한국동서철학회
12	권호용	『주역(周易)』 구덕괘(九德卦)의 원의(原義) 분석	동서철학연구 84	한국동서철학회
13	김만산	역학(易學)의 수(數)에 관한 연구(硏究)	동서철학연구 85	한국동서철학회
14	심의용	『주역』 읽기에서 서사적 방식에 대한 고찰	동서철학연구 85	한국동서철학회
15	최인영	『주역』의 괘체와 해석 -호호체(互互體)·호체(互體)·본괘(本卦)의 상관성과 『주역』 해석-	한국철학논집 53	한국철학사연구회
16	황병기	『주역』의 상징성과 그 역사적 기원	『온지논총』 52	온지학회
17	서정화	『春秋』王曆② -周代의 曆法 一考察	『동양철학』 47	한국동양철학회
18	서정화	『春秋』왕력(王曆)③ -주력(周曆)에서 하력(夏曆)으로, 그리고 공자의 "행하지시(行夏之時)"	한국철학논집 54	한국철학사연구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9	정병섭	『예기(禮記)』 제례관(祭禮觀)에 나타난 존왕사상(尊王思想)적 예제(禮制)의 특성에 대한 연구	동양철학연구 90	동양철학연구회
20	홍성민 유흔우	竹帛『五行』의 聖智觀 연구	유교사상문화연구 68	한국유교학회

2017년도 경학사상 분야의 연구는『주역』분야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주역』분야는 기존의 연구 성과가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의 내용도 더욱 세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박사 논문 중에서는 김영의「사서삼경에 나타난 명덕 연구」가 기존의 경학사상 연구 성과와는 달리, '명덕(明德)'이라는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사서삼경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찰한 점이 눈에 띈다. 이 논문에서는 '명덕'이라는 개념을 사서삼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으로 설정하고, 그 개념의 정확한 기원과 의미, 각 경전 속에 담긴 '명덕' 개념의 분석, 나아가 시대에 따른 이 개념의 정치적이고 철학적인 효용을 밝히고 있다.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해 '명덕' 개념이 정치적인 측면의 덕목에서 철학적인 경향의 개념으로 발전하였고, 이후에는 성리학의 중요한 개념으로 이론화되고 철학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철학의 주요한 철학 개념의 변천과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논증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논문으로 평가된다.

『주역』이외의 논문 중에서는『춘추』분야의 논문이 주목할 만하다.『春秋』의 王曆을 다룬 논문은 필자가 몇 편에 걸쳐서 시리즈로 다루고 있는 연속 논문의 일부분에 해당된다. 필자는『춘추』의 경문에 기록된 왕력의 분석을 통해, 전국시대에는 주력(周曆)과 하력(夏曆)이 혼용되어

사용된 것과는 달리, 춘추시대에는 주력(周曆)을 사용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기존의 『춘추』 연구에서는 주로 『춘추』의 기록과 관련된 역사적인 사실과 철학적인 담론을 주요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과는 달리, 당시 왕력의 정확한 실체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독창적인 영역의 연구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철학 연구 분야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정선	孟子 人性論의 硏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	예수백	맹자의 성선설과 정치이론	박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3	김정희	중국 유가철학 발전사에서 순자철학의 전개와 수용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4	윤태양	순자 도덕철학의 구조적 특징과 한계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5	최진규	순자의 예법철학에 관한 연구 : 욕망과 분배의 문제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6	배기호	『순자』에서의 혼란과 그 해결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7	박재갑	儒學의 天人觀에 關한 硏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8	정우영	儒家 '中' 사상의 철학적 考察: 『中庸』·『周易』·『論語』에서의 특성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9	윤민향	공자(孔子)의 문명론에서 정서적 억압 문제의 부재(不在)에 관한 시론(試論)	유학연구 40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0	박승현	공자의 인인(仁) 사상과 공감능력회복	동서철학연구 84	한국동서철학회
11	김경희	『논어』에 나타난 죽음 인식과 불멸성의 추구	공자학 33	한국공자학회
12	손흥철 박용석	老子와 孔子의 道개념과 社會正義 고찰	동양고전연구 66	동양고전학회
13	박영진	義 문제에 대한 공자와 맹자의 인식 연구	동양고전연구 68	동양고전학회
14	임명희 김세원	동·서양 고전에 나타난 도덕적 통념에 관한 비판적 해석 –『논어』와 『에우티프론』에 나타난 아버지를 고발한 아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89	동양철학연구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5	손세제	자로(子路)의 인물됨과 사승(師承) 관계 고찰	동방학 37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16	고재석	맹자 성선의 의미에 대한 연구 –본성현현과 본성실현의 특성 분석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90	동양철학연구회
17	김세종	『맹자(孟子)』 동심인성(動心忍性) 장(章)의 이질감 고찰	동양철학연구 92	동양철학연구회
18	김혜수	맹자의 '적자지심(赤子之心)'에 대한 도덕형이상학적 해명	유학연구 39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9	이해영	순자의 이상사회론	유교사상문화연구 68	한국유교학회
20	김세종	순자 성론(性論) 재검토 –성악(性惡)이론은 순자의 사상인가–	동양철학연구 89	동양철학연구회
21	이해영	순자사상의 분합(分合)논리	동양철학연구 90	동양철학연구회
22	양순자	순자(荀子)의 마음의 자율성에 대한 재고찰	동양철학연구 92	동양철학연구회
23	안영석	순자사상의 도덕적 인식과 실천	유학연구 39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4	정재상	감정은 내가 소유한 것인가 –순자 성정론의 인식론적 지평과 의의–	유학연구 39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5	김정희	『순자』에 있어서 '통류(統類)'의 의미 분석	동서철학연구 84	한국동서철학회
26	윤태양	이기적 욕망을 인정하는 도덕이론의 문제 –순자철학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54	한국철학사연구회
27	서세영	순자의 '악(惡)' 개념과 악인(惡人)에 관한 연구	온지논총 51	온지학회
28	김상래	동중서(董仲舒)의 천인합일설(天人合一說)과 그 윤리적 함의	퇴계학논총 30	퇴계학부산연구원
29	이연승	『춘추번로(春秋繁露)』에 나타난 효(孝) 담론	퇴계학보 142	퇴계학연구원
30	조원일	환담(桓譚)의 천도론(天道論) 사상(思想) 연구	퇴계학논총 30	퇴계학부산연구원
31	조원일	중장통(仲長統)의 천인관계론 연구	유학연구 40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32	김도일	유가(儒家)의 시중(時中)과 법가(法家)의 시세(時勢)	중국학보 80	한국중국학회
33	송재국	유가(儒家) 사상(思想)에 있어서 명(命)의 문제(問題)	동서철학연구 83	한국동서철학회
34	김종석	유가 사상과 신화적 사유의 상호 관계성 연구 –성인 관념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53	한국철학사연구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35	이상익	유교의 중화사상(中華思想)과 동아시아의 화해 협력	한국철학논집 54	한국철학사연구회
36	이향준	陰陽인가? 陽陰인가?: '음양의 신화'에 대한 인지적 접근	동양철학 47	한국동양철학회

철학 연구 분야는 모두 36편으로, 대부분이 선진시대와 공자 · 맹자 · 순자와 관련된 논문이다. 그 외에는 한대의 대표적인 사상가인 동중서 · 환담 · 중장통 등의 인물을 다룬 논문이 보이고, '시중(時中)'이나 '음양(陰陽)', '성인(聖人)' 등과 같이 철학 개념을 주제로 삼은 논문도 보인다. 박사 논문 중에서는 예수백의 논문이 눈에 띈다. 맹자의 인성론을 다룬 기존의 논문과는 차별화되는 논지의 구성과 논의의 전개 방식이 주목할 만하다. 필자는 맹자의 성선설과 왕도정치의 관련성에 주목하면서, 성선설이 맹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다양한 사상가의 논쟁을 통해 만들어진 과정을 밝히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성선설을 다루면서 주로 맹자와 고자의 논쟁만을 다룬 것에 비해, 양주(楊朱)를 비롯한 전국시대의 다양한 학파들과의 비교를 통해 성선설이 형성되는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맹자의 인성론이 지닌 시대적 의미와 가치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나아가 성선설의 기본 구도를 밝히는 과정에서도 마음에 대한 맹자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마음의 이중 구조에 근거한 맹자의 성선설이 왕도정치라는 정치 이론으로 확장되는 논리 구조를 분석하여, 맹자의 성선론과 왕도정치가 동일한 사상 체계 속에서 형성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한대 철학을 다룬 논문은 연구 실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발표

자체만으로도 매우 소중한 연구 성과로 평가를 받는다. 다만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연구에 비해, 연구의 깊이는 상대적으로 얕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동중서의 천인합일설을 다룬 김상래의 논문을 살펴보면, 현재 학계에서 한대 사상과 관련된 연구가 다른 시대에 비해서는 매우 적은 편이지만, 동중서에 관한 연구는 다른 한대 사상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특히 동중서의 천인감응론에 담긴 윤리적 의미에 관한 연구는 동중서 연구에서 대표적인 분야에 해당된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동중서 천인합일론의 윤리적 함의가 기존의 연구 성과를 뛰어넘거나 혹은 기존의 연구 성과와는 차별화되는 점이 무엇인지 발견하기가 그다지 쉽지 않다. 동중서의 천인감응론이 단순히 천인(天人)의 관계를 철학적으로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통치의 정점에 있는 군주권의 강화 또는 억제를 위한 이론 장치였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논문이 이와 같은 기존의 일반화된 논의와 차별화되는 점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는 기존 연구 성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나아가 이 논문만의 독창성이 담긴 연구 방법론이나 내용 구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교육 분야 연구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신각균	孔子의 人性 硏究	박사학위논문	군산대학교
2	김성인	공자의 교육철학과 그 실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3	이광영	순자(荀子) 예론의 교육학적 해석: 메타프락시스적 관점	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4	조분례	선진유학에 기초한 미적 삶의 교육철학적 함의	박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5	김재경	공자의 사유방식과 창의성의 관계	유교사상문화연구 70	한국유교학회
6	김재경	공자의 뒷담화와 그 피드백 효과	동양철학연구 91	동양철학연구회
7	신순정	『대학』의 공부론과 인성교육 –'격물치지'와 '성의정심'을 통한 '지(知) · 정(情) · 의(意)' 통합의 문제–	동양철학연구 92	동양철학연구회

2017년 교육 분야의 연구는 2016년의 3편에 비해서는 두 배가 늘어났다. 2016의 3편은 모두 공자의 교육 방법과 인성교육을 다룬 논문이었는데, 올해는 선진유학과 순자, 그리고 『대학』과 관련된 논문이 포함되어, 논의의 내용이 작년에 비해 확대된 점이 고무적인 현상이다. 김재경은 작년에 공자의 피드백과 부정 평가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고, 올해에도 뒷담화와 창의성이라는 주제로 공자 교육의 특징을 밝히는 데 주력하였다.

박사 논문 중에서는 교육학적 측면에서 순자의 예론을 다룬 이광영의 논문이 주목할 만하다. 동양의 교육에 관한 연구가 주로 공자나 『논어』에 치중한 한계가 있었는데, 순자를 통해 동양적 교육의 특징을 밝히려고 시도한 점에서 매우 독창적인 논문으로 평가할 만하다. 필자는 기존의 순자 예론에 대한 교육학적 연구에서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교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교육을 강조하기 때문에 항상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즉 기존의 연구는 교육이라는 인위적인 수단이 가해지기 전의 인간의 본성은 항상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상태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순자의 관심이 교육을 통한 본성의 처방의 아니라고 주장한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에

는 예(禮)를 알아보고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여, 순자의 예론이 현재의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에 어떠한 교육학적 의미가 있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즉 필자는 순자의 예론이 학문적 지식을 공부하고 전통적으로 내려온 의례에 참여함으로써 심성을 함양하는 것을 강조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순자의 예론이 단순히 악한 본성을 교정하는 수단이라는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화되는 해석 방법이라는 점에서 매우 독창적이고 의미 있는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다.

4) 정치 및 경제 분야 연구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박인선	공자가 꿈꾸던 행복국가	박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2	김경미	儒家의 全人的 指導者像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3	조원일	왕부(王符)의 경제사상(經濟思想) 연구	동양철학연구 91	동양철학연구회

2017년도의 정치 및 경제 분야의 연구는 모두 3편으로, 작년의 6편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작년에는 6편이 모두 정치 분야에 치중되었지만, 올해에는 경제 분야도 한 편 포함되어 있어서 균형을 맞추고 있다. 박사논문 중에서는 박인선의 논문에서 현대의 국가가 추구해야 행복국가의 모델을 찾는 과정에서, 공자가 꿈꾸었던 행복국가를 재구성하여 국가 행정에서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시도하였다. 필자는 공자의 『논어』가 행정 권력에 관한 최초의 저서라는 기본 인식을 바탕으로, 공자의 행복국가를 한국의 국가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지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한편 조원일의 「왕부(王符)의 경제사상(經濟思想) 연구」는 기존의 연구 성과가 드문 한대 사상가 왕부를 다루었다는 점과 왕부의 사상 중에서도 경제사상을 주제로 삼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왕부의 경제 사상 중에서 '무본(務本)'의 경제 정책을 핵심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필자는 동한(東漢) 사회의 경제 문제가 발생한 원인과 그 문제의 해결책을 왕부의 경제 사상을 통해 찾음으로써 당시 지식인의 시대에 대한 문제의식과 현실 참여 방법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였다.

5) 기타 연구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수빈	孔 · 孟의 美育思想에 관한 硏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	이희재	공자의 행복관 연구 –『논어』를 중심으로 –	공자학 33	한국공자학회
3	임태승	"공자적위(孔子適衛)"의 본말과 그 행정(行程)의 재구성	대동문화연구 10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4	이동아	『주역』에서 배우는 처세술(處世術) –음식연락(飮食宴樂), 음주유수(飮酒濡首)의 괘사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92	동양철학연구회

2017년도 기타 연구 분야는 모두 4편으로, 1편은 공자의 미학 사상을 다룬 박사 논문이고, 나머지 3편은 공자의 행복관과 주유열국(周遊列國)의 행적, 『주역』의 처세술을 다룬 논문이다. 먼저 이수빈의 논문은 공자와 맹자의 미학 사상을 비교한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공자와 맹자의 사상을 통해서, 감성교육에 기반한 심미교육, 즉 미육(美育)의 중요성을 주제로 삼고 있다. 필자는 공자와 맹자가 추구하는 군자의 양성이 인격 도야와 덕성 함양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 육예(六藝)와

예악(禮樂) 교화 등의 미육(美育)을 중시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미육이 곧 수신제가치국평천하와 수기치인을 완성하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것이 필자의 주요한 논지이다.

한편 임태승의 논문은 기존의 연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소재를 다루고 있다. 공자가 자신의 이상을 펼치기 위해 10여 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녔던 행적을 일반적으로 주유열국(周遊列國)이라고 한다. 필자는 공자의 이 행적이 단순한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춘추시대의 사회 · 정치 · 역사 등의 여러 요인들이 종합된 결과물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즉 공자는 치국평천하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주유열국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군주를 만나서 설득하거나 자신이 직접 현실 권력을 얻고자 노력하였다. 결과적으로 공자의 목표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의 이러한 행적은 후세에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4.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이상에서 인물과 주제로 나누어 논문들을 분류하고, 각 영역별 논문의 주요한 특징과 대표 논문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진행하였다. 본 보고서에 기록된 73편의 논문은 모두 연구자들의 전공 지식과 역량이 집중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각 연구자들의 소중한 업적이자 한국 학술계의 중요한 자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술 조사 보고서에 각 논문 하나하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분석을 통해 논문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면의 관계상 여기에서는 박사논문 1편과 일반

논문 1편 등 2편의 논문만을 별도로 선별하여 그 논문에 대한 분석과 학술적 의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 번째 논문은 안승우의 박사 논문 「『周易』 直觀的 思惟의 道德化 過程에 관한 硏究」이다. 현재 한국 학계에서 『주역』과 관련된 논문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다. 이 논문은 『주역』의 직관적 사유가 도덕화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직관적 사유와 분석적 사유가 종합되어 있는 『주역』 도덕 체계의 특징을 논증한 논문이다. 현재까지 학계에서 『주역』의 직관적 사유의 구조나 『주역』 도덕 체계의 특징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는 이루어졌지만, 직관적 사유가 어떠한 도덕화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유형화된 도덕 형식으로 체계화되었는지는 논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주역』이 유가의 도덕 법칙을 체계화한 경전임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 논문이 보다 완결된 형태의 학술 논문이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첨언한다.

먼저 주요 개념의 정의와 상호 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서 개념의 이해에 많은 혼란이 초래한다. 필자는 인간의 사유 체계를 '직관과 이성'로, 직관적 사유의 기제를 '감정과 은유'로 규정했다. 그리고 『주역』의 직관적 사유를 '神', 『주역』의 직관적 사유의 인식 과정을 '觀' 또는 '見', 감정을 통한 직관적 사유의 표출 방법을 '感' 또는 '通'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개념들이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글의 논지를 파악것이 쉽지 않다. 본격적으로 논의를 전개하기에 앞서, 『주역』의 직관적 사유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도덕화되고, 그것이 『주역』의 도덕 체계 형성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주요 개념을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제시해주는 선행 작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필자는 선행 연구의 분석에서, 기존의 연구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파악했다. 즉 철학사적 관점과 철학적 관점이 그것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연구 성과를 세 가지 들고 각각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사실 선행 연구 분석은 필자의 연구가 지닌 독창성과 학술사적 가치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이다. 기존의 연구 성과를 단지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 이론들이 가진 장단점, 특히 미진한 부분들을 필자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필자의 새로운 연구방법론이나 연구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세 가지 연구의 소개와 함께 그 연구가 지닌 한계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필자의 연구가 이 한계점들을 어떠한 내용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언급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 연구 성과들과 차별화되는 필자의 연구 방법론이 학술사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도 함께 밝혀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필자의 연구가 『주역』에 관한 기존의 성과와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이론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부각될 수 있다.

연구 방법에서는 직관적 인식에서 '은유'라는 표현 방법을 주요한 연구 내용으로 삼고 있다. 필자는 '은유'가 『주역』을 이해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개념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기존의 연구에서는 '은유'와는 다른 방법으로 직관적 인식의 실체를 밝히려고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그러한 연구가 어떠한 점에서 문제점과 한계가 있는지 밝혀주어야만 필자가 사용한 '은유'의 개념이 직관적 인식의 실체를 밝히는 새로운 개념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유'가 인간의 사고와 행위를 표현하는 방식의 하나로 인정되기는 하지만, 필자의 말처럼 그것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지는 의문이 든다.

사실상 '직설'이나 객관적 언어를 통한 철학적 탐구가 중심에 있고, 은유가 그것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은유가 인간의 사고와 행위의 실체를 밝히는 핵심적인 기준이라고 말한다면, 그와는 기존의 다른 접근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부정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만 한다.

인지과학이나 신경생물학 등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연구 분야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정설로 수용되는 단계까지는 아닌 것으로 안다. 그러한 최신의 연구 성과를 철학과 접목하는 시도는 매우 신선한 연구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가설을 토대로 논지를 전개할 경우에는 매우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주장이나 논리의 토대가 되는 이러한 이론이나 시각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리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가 연구방법론의 토대로 삼고 있는 '은유'에 기초한 접근이나 인지과학, 신경생물학 등이 학술적 연구의 방법적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관련 분야의 성과를 찾아서 보여주는 작업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논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몇 가지 의문을 간단하게 제기해보면, 먼저 필자가 말하는 직관 체제는 과연 현실의 세계를 설명하는 데 유효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필자는 최초에 의식적으로 접근했던 것들이 훈련을 통해 자동적인 직관의 내용을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직관도 또한 그 원천이 의식에 의한 이성적 분석적 체계가 볼 수 있지 않는가? 경험을 통해 직관의 내용을 채워간다면, 그 경험도 또한 의식의 밖의 것이 아니라, 의식에 의해 진행되는 과정이다. 결국 직관도 또한 의식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는 일종의 의식의 변종이

라고 볼 수 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경험의 반복에 의해 전혀 새로운 형태의 무엇인가가 나온다면, 그 새로운 무엇인가, 즉 직관은 경험과는 전혀 무관한 새로운 형태의 세계, 예를 들어 활연관통 등과 같은 체험을 통해 획득되는 전혀 새로운 세계인가? 그렇다면 그렇게 직관에 의해 획득된 내용물들은 현실의 경험 영역을 벗어나 있고, 현실의 경험의 세계와는 무관한 새로운 세계가 된다. 그것이 과연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의 장을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또는 가치 있는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가?

다음으로 필자는 경험적 직관적 체계가 이성적 분석적 체계보다 인간의 사유를 더 잘 표현한다고 생각하는가? 필자가 경험적 직관적 체계를 『주역』 사유를 설명하는 방법론으로 채용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성적 분석적 체계가 접근하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경험적 직관적 체계가 접근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주역』의 사유 체계를 설명하는 데는 이성적 분석적 체계가 아닌, 경험적 직관적 체계가 더 좋은 방법론이 된다는 등 필자의 주장과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된 합리적인 이유를 미리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본론의 내용들을 그러한 방향에 맞추어 읽어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역』에 한정해서 볼 경우, 이성적 분석적 사유와 경험적 직관적 사유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사례나 두 가지 『주역』적 사유의 특징을 명확하게 언급해준다면, 글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감정과 은유는 인간의 이성적 사고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고 말한다. 이것은 이성적 사유와 직관적 사유가 선후 관계의 설정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그런데 필자는 앞에서 "이

성적 사유에 의해 의식적으로 접근했던 것들이 훈련을 통해 자동적인 직관의 내용을 형성한다"고 말했다. 이 말에 따르면, 시간적 선후 관계로 따지면, 이성적 사유 · 훈련 · 직관적 사유의 순서가 된다. 그런데 직관적 사유가 이성적 사고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면, 최초의 인간의 사유는 직관적 사유이고, 그것이 인간의 이성적 사유에 일정 정도 영향을 끼친다는 말인가? 아니면, 이성적 사유-훈련- 직관적 사유-이성적 사유와 같은 형식이 되는가?

다음으로 살펴볼 논문은 이연승의 「『춘추번로(春秋繁露)』에 나타난 효(孝) 담론」이다. 이 논문은 유교 문화권의 전통적 가치 중의 하나인 효 개념이 철학적이고 정치적인 사상과 문화로 자리매김하게 된 이론적 토대를 탐색한 논문이다. 현대사회에도 효사상이 서구와 차별화되는 동양의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고, 최근 한국과 중국 등에서 효사상의 현대적 재해석과 가치 정립이 시도되고 있기 때문에 효 담론의 기원을 다룬 본 논문은 학술적인 가치와 함께 동양철학의 현재적 가치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필자의 말처럼, 효 개념의 기원을 따져보면 조상에 대한 제사나 부모에 대한 자식의 역할이라는 의미로 그 영역이 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한대 유교 국가의 출현과 함께 효는 단순한 가족 윤리의 영역을 뛰어넘어, 국가를 위한 공동체의 윤리, 나아가 효치(孝治)라는 이름으로 국가 통치의 이론으로까지 그 의미가 확대되었다.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이와 같은 효의 외연 확장이 이루어졌지만,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동중서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동중서가 효라는 개념을 이론화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을 『춘추번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밝히고 있다. 논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음양오행 이론의 구조 속에서 효 개념을 우주론적 의미를 함축한 철학 이론으로 구성하는 과정. 둘째,『효경』의 논리를 기초로 삼아, 효 개념을 지배자의 통치 이론으로 정식화하는 과정이다.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해, 동중서가 효의 우주론적 해석에 기반하여 정형화된 효의 이론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를 공동체의 윤리뿐만 아니라 통치의 원리로까지 확대하고, 나아가 지배자에 의한 효치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밝히려고 시도하고 있다.

동중서의 효 관련 연구는 필자의 언급처럼 국내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연구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비록 중국이나 일본에 이미 선행 연구가 있지만, 국내에는 소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향후 국내의 효 관련 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토대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을 읽고 느낀 점을 간단하게 두 가지로 압축하여 질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중서가 음양오행론적 관점을 도입하여 효 개념의 우주론적 해석을 시도한 것은 동중서 사상체계 내에서도 중요한 시도일 뿐만 아니라, 사상사적인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필자는 효를 오행에 배속하는 동중서의 논리 구조에 대한 분석에만 천착하고, 그의 새로운 해석이 지닌 독창성이나 사상적 의미 등에 대해서는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다. 특히 필자는 동중서의 효 담론이 천인상관적(天人相關的) 사유의 산물임을 인정하면서도 천인상관적 사유가 동중서만의 고유한 사고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천인상관적 사유 자체가 동중서 효 사상의 특징은 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그렇지만 오히려 동중서가 천인상관론적 관점에서 효 개념을 이론화한 것이 그의 효 담론의 가장 큰 특징이자 사상사적 의미라고 평가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시대 말기부터『여씨춘추』나『회남자』등에

천인상관적 사유가 원시적인 형태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음양오행의 구조와 결합하여 체계적으로 이론화한 것은 동중서라고 할 수 있다. 동중서의 재이설이나 삼통(三統)과 사법(四法)에 기초한 왕조교체설 등의 대표적인 이론들은 모두 음양오행이라는 자연 법칙을 인간사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천인상관적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효과 관련된 이론도 『효경』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동중서에 의해 우주론적 의미로 체계화됨으로써 한대 효치 사상의 이론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었다. 즉 동중서가 효 개념을 천인상관적 관점에서 해석함으로써 효는 단순한 가족 윤리의 영역을 넘어서 인간과 자연 전체를 관통하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로 인식되었고, 천자에 의한 효치의 당위성도 자연스럽게 확보될 수 있었다. 따라서 동중서의 천인상관적 사고에 기초한 효 담론이 유교 국가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며, 그 이론에 기초하여 예교(禮敎) 국가의 실현도 가능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것은 그의 이론이 후대의 수많은 비판 철학자들의 주요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환담(桓譚) · 장형(張衡) · 왕충(王充) · 왕부(王符) · 중장통(仲長統) · 공융(孔融) · 예형(禰衡) 등 한대의 대표적인 비판철학자들이 공통의 비판 대상으로 삼았던 것 중의 하나가 예교(禮敎) 도덕이며, 그 이론적 토대 중의 하나가 바로 천인상관설에 기초한 동중서의 효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왕충은 "천지(天地)가 기(氣)를 서로 합하여 만물이 저절로 생기니, 마치 부부가 기를 서로 합하여 자식이 저절로 생기는 것과 같다"(『論衡』「自然」: 天地合氣, 萬物自生, 猶夫婦合氣, 子自生矣.)거나, "정욕이 움직여서 서로 기를 합하고, 기를 합하여 우연히 자식이 생긴다"(『論衡』「物勢」: 夫婦合氣, 非當時欲得生子, 情欲動而合, 合而子生矣. 且夫婦不故生子, 以

知天地不故生人也.)고 하여, 동중서의 천인상관론을 겨냥한 기계론적인 천도자연관(天道自然觀)을 전개했다. 그리고 중장통(仲長統)은 효 자체를 부정하면서 예교 국가의 지배를 거부하기도 했다. 이들의 반예교적인 비판 사상은 동중서의 천인상관적 효 담론이 당시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를 역으로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논문은 동중서의 효 개념에 대한 국내 최초의 연구답게 『춘추번로』에 보이는 효 개념이나 『효경』 관련 내용의 출전이나 문장 구조 등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의 분석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 그렇지만 본론의 세 개의 장이 모두 개별적인 분석에 치중한 나머지, 세 개 장의 상호 관련성이나 글 전체의 방향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아쉬움이 남는다. 필자는 서론에서 『효경』의 형성이나 효치의 실현이 한대 유교의 국교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동중서의 효와 효치의 담론도 그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와 역할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동중서가 효 개념을 철학적으로 이론화하는 과정과 그것을 바탕으로 효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논리를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주요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논문의 구성도 〈효의 음양오행적 해석〉 →〈『효경』에 기반한 효 이론의 체계화〉 →〈통치 이론으로서의 효치의 정립〉 등과 같은 단계로 논지를 전개한 것으로 파악된다. 만약 필자의 논문 집필 의도를 제대로 파악했다면, 이 논문은 한대 사상사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 성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대 사상사 연구의 핵심 주제 중에서도 유교 국교화와 관련된 문제는 아직까지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분야인데, 필자의 연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유교 국교화의 문제는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 그리고 그 영향이 중국 전역

으로 퍼져서 지방의 향촌 사회 구석구석까지 미친 시기가 언제이며, 그것을 실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등 많은 부분에서 연구가 미진하다. 그런데 동중서의 효 담론이 유교 국교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향후 필자의 연구가 좀 더 깊이 있게 확대된다면 이 분야 연구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평가와 전망

2017년도의 선진시대부터 한당시대까지 국내의 유학 및 유교 관련 논문 편수는 모두 73편이다. 2015년도 71편, 2016년도 65편과 비교해보면 편수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 시대별로는 선진시대가 전체 73편 중 67편으로 압도적인 분량을 차지했고, 진한시기는 6편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진한시기 이후의 논문이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2편과 3편이 발표되었으나, 올해에는 한 편도 보이지 않는다. 진한시대의 논문이 적은 숫자이지만 그래도 매년 발표된 것은 다행이지만, 진한 이후부터 송대 이전까지의 연구는 연구 대상에서 거의 제외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제고되어야 할 문제로 여겨진다. 올해의 분석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전체 73편의 논문 중에 박사 논문이 예년에 비해서는 월등히 많은 18편이나 발표되었다는 점이다. 학문 후속 세대가 꾸준히 배출되고 있어서 향후 이들 신진 학자의 역할과 활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석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인물별 분류에서는 예년

과 마찬가지로 선진 유학을 대표하는 공자와 맹자, 순자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인물별 연구에서 가장 큰 특징은 순자에 대한 연구가 14편으로 대폭 상승했으며, 내용면에서도 순자 철학의 사상사적 의미를 밝힌 거시적인 연구로부터 핵심 개념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미시적인 연구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의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14편 중에서 박사 논문이 5편을 차지한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향후 이들 신진 학자들이 본격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경우 순자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비록 적은 편수이지만, 동중서로 대표되는 한대 유가 사상가들의 연구가 끊어지지 않고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인 현상이다. 한대 철학은 선진 유학과 송대 이후 유학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연구 영역이다.

주제별 분류에서는 경학사상, 철학, 교육 분야가 예년에 비해 소폭 상승한 반면, 정치 및 경제 분야가 작년에 비해 반으로 줄어든 3편에 그쳤다. 경학사상 분야에서는 『주역』 관련 연구가 작년의 5편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13편이 발표되었다. 논문의 주제도 『주역』의 괘효나 주요 개념의 의미를 천착한 연구나 『주역』 관련 출토 문헌을 분석한 연구까지 매우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주역』 연구가 이처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춘추』와 『예기』 등과 같은 기타 경전에 대한 연구는 소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그 명맥만 겨우 유지하고 있어서 다양한 연구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전은 유학의 사상적 토대가 되는 원형 텍스트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유학 연구를 위해서는 『주역』뿐만 아니라 기타 경전에 대한 연구 활성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철학분야의 연구는 주로 선

진시대, 그 중에서도 공자와 순자, 맹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구의 영역이나 방향이 보다 광범위하게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최근 학문의 융복합이나 인성교육, 4차 산업혁명 등과 같은 시대적 추세에 맞춘 연구의 다변화가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학 사상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유학 사상이 가진 현대적 의미를 끊임없이 드러내야만 유학이 현재성을 지닌 학문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2장

송대 유학 연구

박지훈

1. 들어가는 말

본 보고서는 2017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한국학계에서 발표된 학술 논문 중에서 중국 송대 유학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논문의 색인의 대상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수록된 논문과 각 대학의 박사학위 논문을 기준으로 삼았다. 논문의 출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한국연구정보서비스(KCI)에 나타난 논문을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박사학위논문 2편과 일반논문 64편 등 총 66편의 논문이 조사되었다.

정리방법으로는 첫째, 북송시대, 남송시대, 원대의 학자들을 인물별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둘째, 경학, 성리학, 윤리학, 정치사회학, 예학, 비교학 등 주제별로 정리하였다.

그런 다음 여러 논문 중 주목할 만한 논문 몇 편을 선별하여 소개하고 평가하였으며 그 동안의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전망을 마지막으로 서술하였다.

2. 인물별 분류

인물에 따른 분류로는 북송시대 성리학자인 주돈이, 소옹, 장재, 이정형제와 남송의 호굉, 장식, 주희, 육구연, 진부량, 양간, 진덕수, 그리고 원대의 오징 등 12명의 유학자들의 사상을 소개한 논문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일반 논문에는 주돈이에 관한 논문은 4편이 있으며 소옹에 관한 논문은 2편이 있고 장재에 관한 논문은 2편 이정(二程) 형제에

관한 논문이 2편 있다. 그리고 호굉에 관한 논문은 4편이 있으며 장식에 관한 논문은 2편이 있고, 주희에 관한 논문이 가장 많은데 일반논문이 43편, 박사논문 1편 등 모두 44편이 있으며 진덕수에 관한 논문이 일반논문 1편, 박사논문 1편 등 모두 2편이 있다. 그 밖에 진부량에 관한 논문, 양간에 관한 논문, 원대 오징에 관한 논문 등 각각 1편씩 있으며, 그리고 남송시대 성리학자들의 종교에 관한 논문이 1편 있다.

1) 주돈이(렴계, 1017~1073)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학재	解密"太極圖" 的一個方法	유교문화연구(중문판)제28집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2	손흥철	주돈이(周敦頤)의 '태극(太極)'과 리기개념(理氣槪念)의 관계분석(關係分析)	퇴계학논총 제29집	퇴계학부산연구원
3	이난숙	주돈이(周敦頤) 철학의 천인합덕(天人合德) 해석과 시중(時中)사상	퇴계학논총 제29집	퇴계학부산연구원
4	허광호	주돈이와 권근의 천인합일사상 비교-『태극도설』과 『입학도설』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제66집	동양고전학회

주돈이에 관한 논문은 모두 4편으로 "태극도"에 관한 논문이 1편, 주돈이의 '태극'과 '리기'개념의 관계에 관한 논문이 1편, 주돈이의 천인합덕의 해석과 시중(時中)에 관한 논문이 1편, 주돈이화 권근의 『도설』의 비교에 관한 논문이 1편 등이 있다. 이 논문들은 주로 태극에 관한 해석과 천인합일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2) 소옹(강절, 1011~1077)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주광호	상징형식으로 본 소옹(邵雍)의 원회운세(元會運世)	철학연구 제55집	철학연구회
2	주광호	소옹(邵雍)의 선천역학(先天易學)과 공간	철학연구 제56집	철학연구회

소옹에 관한 논문은 주광호의 논문 모두 2편으로 한 편은 이기론 이라는 상징형식으로 소옹의 원회운세(元會運世)를 살펴서 소옹의 철학을 이해하려 한 것이고, 다른 한 편은 소옹의 〈선천역학〉을 신화적 사유에서의 상징형식으로서의 '공간'으로 분석한 것이다.

3) 장재(횡거, 1020~1077)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영호	장재(張載)와 정이(程頤)의 심성론(心性論) 비교 고찰	건지인문학 제20집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	김태환	장재(張載)의 「서명(西銘)」을 통해 본 유교(儒敎) 영성철학(靈性哲學)의 가능성에 관한 시론(試論)	퇴계학논총 제30집	퇴계학부산연구원

장재에 관한 논문은 모두 2편으로 한편은 장재의 심성론을 정이(程頤)와 비교한 것이고, 다른 한편은 장재의 저서인 「서명」을 중심으로 하여 유교 영성철학의 가능성에 대하여 논한 논문이다.

4) 이정(二程): 정호(명도, 1032~1085), 정이(이천, 1033~1107)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박승원	전승 양상에 따른 이정(二程) 철학의 차별성 연구	퇴계학논집 제20호	영남퇴계학연구원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2	정종모	二程철학에서 命과 義의 분리와 합일	양명학 제48호	한국양명학회

이정에 관한 논문은 모두 2편인데 박승원과 정종모의 논문이 각각 1편씩 있다. 한 편은 정호(程顥)와 정이(程頤)의 철학이 전승되는 과정에서 드러내는 차별성을 규명하고, 그에 따라 철학사 안에서 두 사람의 철학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설정하려 하는 내용의 논문이며 다른 한 편은 북송(北宋) 유학의 중요 인물인 이정(二程) 형제의 명(命)과 의(義)의 상관성에 대한 논의에 주목하여 이정 형제의 관점을 서술한 논문이다.

5) 호굉(오봉, 1107~1161)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안재호	호굉(胡宏)의 성체심용설(性體心用說) 천석(淺析)	동서철학연구 제83호	한국동서철학회
2	안재호	호굉(胡宏)의 진심성성설(盡心成性說) 관규(管窺) – 진심의 체계: 치지(致知)와 주경(主敬)을 중심으로	中國學報 第80輯	한국중국학회
3	연재흠	호굉(胡宏) 심론(心論) 연구(研究) : 성(性)과 심(心)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제55집	한국철학사연구회
4	채희도	기질변화론 연구 – 호굉을 중심으로 –	율곡학연구 제35집	(사)율곡연구원

호굉에 관한 논문은 2016년에는 보이지 않다가 2017년도에 들어와서 4편이나 발표되었다. 그 중에서 세 편은 호굉의 성과 심에 관한 논문이고 나머지 한편은 기질변화론에 관한 논문이다.

6) 장식(남헌, 1033~1180)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연정	장식(張栻)의 수양 공부론	한국철학논집 제53집	한국철학사연구회
2	이연정	장식 '인(仁)' 에 대한 소고(小考)	한국철학논집 제55집	한국철학사연구회

장식에 관한 논문도 2016년에는 보이지 않다가 2017년도에 들어와서 2편이 발표되었다. 한편은 장식의 수양 공부론의 논문으로 장식의 천인합일사상에 대하여 논하고 있고 다른 한 편은 장식의 인(仁)에 대한 사상을 학문적 연원, 사유체제, 주희와의 차이 등의 구성으로 하여 논하고 있다.

7) 주희(회암, 1130~1200)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강진석	주자 충서론의 다층적 해석에 관한 논의	인문학연구 제53집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	강춘화	朱熹"验证说"萌芽与洪大容"验证说"比较研究	중국학 제61집	대한중국학회
3	권상우	주자의 도덕철학에서 규범과 상황: 경권론(經權論)을 중심으로	사회사상과 문화 20권 3호	동양사회사상학회
4	김광수 김원명	주희(朱熹) 심성론(心性論)을 중심으로 본 복괘(復卦) 해석의 문제	한국 철학논집 제52집	한국철학사연구회
5	김기현	『소학』 저술과 '미발 함양' 공부의 상관 관계	도덕윤리과교육 제57호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6	김동민	朱子의 『春秋』 註解書에 대한 비판과 변론	양명학 제36집	한국양명학회
7	김동민	朱子의 『春秋』 해석과 그 특징	유교사상문화연구 제68집	한국유교학회
8	김우형	朱熹哲學中之心的本體與自我不朽－關於鬼神魂魄理論	유교문화연구 (중문판) 제28집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9	김정각	朱熹易學에서의 道統에 관한 연구	범한철학 제85집	범한철학회
10	김현경	先秦諸子와 朱熹의 이단 비판	범한철학 제86집	범한철학회
11	김혜수	주자철학의 충서(忠恕) 개념 분석과 그 윤리학적 함의 고찰	중국학보 제80집	한국중국학회
12	노명수 정소희	다산과 주희의 '기질(氣質)' 개념과 그 의미	유학연구 제38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3	민병희	『사서장구집주(四書章句集注)』의 성립과 경전적 권위의 변화	한국사상사학 제55집	한국사상사학회
14	박성규	주자의 경권론(經權論)	철학탐구 제48집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15	박성규	주자의 천리유행(天理流行) 개념과 인(仁) 해석	철학논총 제89집	새한철학회
16	박찬영	宗密과 朱熹의 사유구조의 유사성－심성론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제104집	대한철학회
17	방경훈	주희(朱熹)의 중(中)개념 연구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71집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18	방경훈 김치형	주희철학에서 실천덕목으로서 敬개념 연구	범한철학 제86집	범한철학회
19	서근식	『주역』 원형이정(元亨利貞) 해석의 비교 연구	정신문화연구 제40권 제1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	소모인	論朱熹《中庸章句》對中性概念的解釋	유교문화연구 (중문판) 제28집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21	소현성	주자의 『태극해의(太極解義)』 일고－그 세계관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제39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2	안재호	철학치료와 주희의 수양론	철학탐구 제47집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3	연재흠	『知言疑義』 연구(1)	유교사상문화연구 제70집	한국유교학회
24	이기원	『소학』을 통한 주체의 형성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제16권 1호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5	이상돈	주자 수양론의 이상적 경지와 각득기소(各得其所)	율곡학연구 제34집	(사)율곡연구원
26	이상익	주자(朱子) 심통성정론(心統性情論)의 양면성과 퇴(退)·율(栗) 성리학(性理學)	영남학 제62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7	이연정	주자 격물치지를 통한 인성교육적 요소와 원리 고찰	한국 철학논집 제52집	한국철학사연구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28	임낙창	朱熹「理一分殊」的〈西銘〉詮釋模式再考察	철학연구 제141집	대한철학회
29	장원태	朱熹的告子和陸九淵的告子－以對"不動心"的詮釋爲中心	유교문화연구(중문판) 제27집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30	전병욱	『孟子』「告子」편의 性善論에 대한 주자의 해석	유교사상문화연구 제70집	한국유교학회
31	전병욱	주자 인심도심설의 궁극적 관심	유학연구 제40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32	정상봉	주자의 욕망관과 그 현대적 의의	유교사상문화연구 제67힙	한국유교학회
33	정우엽	『인설(仁說)』: 생명에 대한 주자학의 윤리적 담론	생명연구 제45집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원
34	정우엽	주자학의 서(恕) – 도덕적 자아의 출현과 객관성을 중심으로 –	철학논집 제50집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35	정지연	『논어(論語)』의 신(信)에 대한 연구 – 주희(朱熹)와 진순(陳淳)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문학보 제36집	우리한문학회
36	정환희	본성과 감정의 동이 문제 – 맹자의 '내약기정(乃若其情)'과 후학들의 이해방식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제74권 제2호	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37	지현주	『주자가례(朱子家禮)』의 방위관(方位觀)을 통해 본 상례(喪禮)의 질서양상과 그 우주론적 배경 –『주자어류(朱子語類)』,『이기(理氣)』 하편(下篇)을 중심으로 –	동양철학연구 제91집	동양철학연구회
38	최복희	주자학의 마음의 개념에 있어서의 불교 비판과 수용 연구	범한철학 제85집	범한철학회
39	최영진	朱子 人心道心의 槪念과 分岐에 관한 分析的 探求	철학 제130집	한국철학회
40	홍성민	義外說 비판을 통해서 본 朱子 도덕 인식론의 특징	유교사상문화연구 제69집	한국유교학회
41	홍성민	絜矩之道와 공정한 주체의 조건 – 朱子와 茶山을 중심으로 –	유학연구 제41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42	황갑연	주자와 간재의 명덕설(明德說) 그리고 역사문화 의식의 차이	건지인문학 제20집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43	황갑연	주자의 도덕론에서 경(敬)의 지위와 의미 그리고 래원(來源)에 관한 연구	유학연구 제40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44	차진만	朱子의 靜坐工夫에 관한 硏究	[국내박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주희에 관한 논문은 총 44편으로 그 중 일반 논문 43편, 박사학위논문 1편이 있다. 주희에 대한 논문은 한국 학계에서 발표된 중국 성리학 논문 중 그 대부분을 이룬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른 학자들과 비교해 볼 때 압도적으로 많다. 주제도 다양하여 경학, 이기론, 심성론, 인식론, 비교, 기타 등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가장 많이 다룬 주제는 윤리 수양론 부분이다. 그리고 비교논문으로는 조선유학자와의 비교, 불교와의 비교 등 여러 편 보인다. 또한 주희의 '인'에 관한 논문이나 『춘추』해석에 관한 논문, 철학치료등 기존의 논문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새로운 주제를 다룬 참신한 논문들이 많이 나왔다.

8) 육구연(상산, 1139~1192)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장원태	朱熹的告子和陸九淵的告子－以對"不動心"的詮釋爲中心	유교문화연구 (중문판) 제27집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육구연에 관한 논문은 주희와의 비교논문으로 장원태의 「朱熹的告子和陸九淵的告子－以對"不動心"的詮釋爲中心」이 있다.

9) 진부량(지재, 1137~1203)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송재윤	治理與自律－陳傅良的政治理論	유교문화연구 (중문판) 제27집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진부량에 관한 논문은 2015년도 1편도 없었는데 2016년에는 진부

량의 정치사상에 관한 논문 1편이 나왔다.

10) 양간(자호, 1141~1226) [일반논문 1편]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동욱	양간(楊簡) 『오고해(五誥解)』 연구	유학연구 제41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육구연의 제자인 양간에 관한 논문은 2016년 1편도 없었는데 2017년에는 이동욱의 1편의 논문이 있다.

11) 진덕수(서산, 1178~1235)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윤상수	眞德秀의 '心學' – 심학 개념의 탄생 과정을 중심으로–	동양철학 제48집	한국동양철학회
2	한승일	윤리적 인식론을 위한 試論 : 眞德秀의 『政經』을 중심으로	[국내박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진덕수에 관한 논문은 2016년도에는 1편도 없었는데 2017년도에는 윤상수의 『진덕수의 심학』이라는 일반논문 1편과 한승일의 진덕수의 인식론에 관한 박사논문 1편이 있다.

12) 오징(초려, 1249~1333)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임재규	오징(吳澄)의 『주역(周易)』 해석 방법론	온지논총 제51집	온지학회

원대의 성리학자 오징에 관한 논문은 2017년도에 처음 보이는 논

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오징의 12가지『주역』해석 방법론을 설명하면서 그 특징을 논하고 있다.

13) 기타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한신	南宋代 性理學者들의 宗敎 改革: 南宋代 性理學者들의 民間信仰 개혁과 儒敎의宗敎的 기능 강화	역사와 경계 제105집	부산경남사학회

기타에는 인물에 관한 논문이 아닌 남송대의 성리학자들의 종교 개혁에 관한 논문으로 김한신의 일반논문 1편이 있다.

3. 주제별 분류

주제별 분류는 1)경학(역학, 예학), 2)이기론, 3) 심성론, 4)윤리 · 수양론, 5)인식론, 6)비교, 7)기타 등으로 분류하였다. 총 논문 편수는 66편이다. 각 분류별 논문의 편수는 경학(역학, 춘추, 사서) 10편, 이기론 3편, 심성론 8편, 윤리 · 수양론 22편, 인식론 2편, 비교 10편, 기타 11편이다. 많은 논문들이 각각 독특하고 다양한 주제로 발표되어 공통분모를 찾아 범주를 정하기가 어렵다. 또한 기존에 연구 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의식으로 보다 다양한 주제들로 깊이 있는 논문이 나왔다는데 의의가 있다.

1) 경학[역학, 춘추, 사서]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동민	朱子의『春秋』註解書에 대한 비판과 변론	양명학 제46호	한국양명학회
2	김동민	朱子의『春秋』해석과 그 특징	유교사상문화연구 제68집	한국유교학회
3	김정각	朱熹易學에서의 道統에 관한 연구	범한철학 제85집	범한철학회
4	민병희	『사서장구집주(四書章句集注)』의 성립과 경전적 권위의 변화	한국사상사학 제55집	한국사상사학회
5	소모인	論朱熹《中庸章句》對中性概念的解釋	유교문화연구 (중문판) 제28집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6	이동욱	양간(楊簡)『오고해(五誥解)』연구	유학연구 제41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7	임재규	오징(吳澄)의『주역(周易)』해석 방법론	온지논총 제51집	온지학회
8	전병욱	『孟子』「告子」편의 性善論에 대한 주자의 해석	유교사상문화연구 제70집	한국유교학회
9	정지연	『논어(論語)』의 신(信)에 대한 연구 – 주희(朱熹)와 진순(陳淳)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문학보 제36집	우리한문학회
10	주광호	소옹(邵雍)의 선천역학(先天易學)과 공간	철학연구 제56집	철학연구회

경학에 관한 논문은 모두 10편인데 그 중에서『춘추』관련 논문이 2편, 역학 관련 논문이 3편,『서경』관련 논문이 1편,『사서』관련 논문이 4편이 있다. 춘추관련 논문 2편은 모두 주희의『춘추』해석에 관한 논문으로 김동민의「朱子의『春秋』註解書에 대한 비판과 변론」과「朱子의『春秋』해석과 그 특징」이다. 역학 관련 논문은 소옹, 주희, 오징 등의 역학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소옹의 역학관련 논문으로는 주광호의「소옹(邵雍)의 선천역학(先天易學)과 공간」가 있고 주희의 역학관련 논문으로는 김정각의「朱熹易學에서의 道統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 오징의 역학관련 논문으로는 임재규의「오징(吳澄)의『주역(周易)』해석 방법론」이 있다. 그리고『서경』관련 논문으로는 이동욱의「양간(楊簡)

『오고해(五誥解)』 연구」가 있으며 『사서』관련 논문으로는 민병희의 『사서장구집주』에 관한 논문이 1편, 소모인의 『중용장구』에 관한 논문이 1편, 정지연의 『논어(論語)』에 관한 논문이 1편, 전병욱의 『孟子』 에 관한 논문 1편이 있다.

2) 이기론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소현성	주돈이(周敦頤)의 '태극(太極)'과 리기개념(理氣槪念)의 관계분석(關係分析)	유학연구 제39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	손흥철	朱熹「理一分殊」的〈西銘〉詮釋模式再考察	퇴계학논총 제29집	사단법인 퇴계학 부산연구원
3	임낙창	朱熹「理一分殊」的〈西銘〉詮釋模式再考察	철학연구 제141집	대한철학회

이기론 관련 논문으로는 일반논문 3편이 있다. 소현성의 「주자의 『태극해의(太極解義)』 일고 –그 세계관을 중심으로–」과 손흥철의 「주돈이(周敦頤)의 '태극(太極)'과 리기개념(理氣槪念)의 관계분석(關係分析)」, 그리고 임낙청의 「朱熹「理一分殊」的〈西銘〉詮釋模式再考察」이 있다.

3) 심성론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광수 김원명	주희(朱熹) 심성론(心性論)을 중심으로 본 복괘(復卦) 해석의 문제	한국 철학논집 제52집	한국철학사연구회
2	김우형	朱熹哲學中之心的本體與自我不朽－關於鬼神魂魄理論	유교문화연구 (중문판), 제28집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3	안재호	호굉(胡宏)의 성체심용설(性體心用說) 천석(淺析)	동서철학연구 제83호	한국동서철학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4	연재흠	호굉(胡宏) 심론(心論) 연구(研究) : 성(性)과 심(心)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제55집	한국철학사연구회
5	윤상수	眞德秀의 '心學' – 심학 개념의 탄생 과정을 중심으로 –	동양철학 제48집	한국동양철학회
6	전병욱	주자 인심도심설의 궁극적 관심	유학연구 제40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7	정환희	본성과 감정의 동이 문제 – 맹자의 '내약기정(乃若其情)'과 후학들의 이해방식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제74권 제2호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8	최영진	朱子 人心道心의 槪念과 分岐에 관한 分析的 探求	철학 제130집	한국철학회

심성론 관련 논문으로는 일반논문 8편이 있다. 주희에 관한 논문이 4편, 호굉에 관한 논문이 2편, 진덕수에 관한 논문이 1편, 그리고 기타 1편이 있다. 특히 연재흠의 「眞德秀의 '心學' –심학 개념의 탄생 과정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은 성리학에서 '심학'의 개념이 출현하게 된 과정에 대해 논하고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4) 윤리 · 수양론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강진석	주자 충서론의 다층적 해석에 관한 논의	인문학연구 제53집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	권상우	주자의 도덕철학에서 규범과 상황: 경권론(經權論)을 중심으로	사회사상과 문화 제20권 3호	동양사회사상학회
3	김기현	『소학』 저술과 '미발 함양' 공부의 상관 관계	도덕윤리과교육 제57호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4	김혜수	주자철학의 충서(忠恕) 개념 분석과 그 윤리학적 함의 고찰	중국학보 제80집	한국중국학회
5	박성규	주자의 경권론(經權論)	철학탐구 제48집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6	박성규	주자의 천리유행(天理流行) 개념과 인(仁) 해석	철학논총 제89집	새한철학회
7	방경훈	주희(朱熹)의 중(中)개념 연구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71집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8	방경훈 김치영	주희철학에서 실천덕목으로서 敬개념 연구	범한철학 제86집	범한철학회
9	안재호	호굉(胡宏)의 진심성성설(盡心成性說) 관규(管窺) – 진심의 체계: 치지(致知)와 주경(主敬)을 중심으로	중국학보 제80집	한국중국학회
10	안재호	철학치료와 주희의 수양론	철학탐구 제47집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11	이기원	『소학』을 통한 주체의 형성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제16권 1호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12	이난숙	주돈이(周敦頤) 철학의 천인합덕(天人合德) 해석과 시중(時中)사상	퇴계학논총 제29집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
13	이상돈	주자 수양론의 이상적 경지와 각득기소(各得其所)	율곡학연구 제34집	(사)율곡연구원
14	이연정	장식(張栻)의 수양 공부론	한국 철학논집 제53집	한국철학사연구회
15	이연정	장식 '인(仁)'에 대한 소고(小考)	한국 철학논집 제55집	한국철학사연구회
16	이연정	주자 격물치지를 통한 인성교육적 요소와 원리 고찰	한국 철학논집 제52집	한국철학사연구회
17	정상봉	주자의 욕망관과 그 현대적 의의	유교사상문화연구 제67집	한국유교학회
18	정우엽	주자학의 서(恕) – 도덕적 자아의 출현과 객관성을 중심으로 –	철학논집 제50집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19	정우엽	『인설(仁說)』: 생명에 대한 주자학의 윤리적 담론	생명연구 제45집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원
20	채희도	기질변화론 연구 – 호굉을 중심으로 –	율곡학연구 제35집	(사)율곡연구원
21	황갑연	주자의 도덕론에서 경(敬)의 지위와 의미 그리고 래원(來源)에 관한 연구	유학연구 제40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2	차진만	朱子의 靜坐工夫에 관한 硏究	[국내박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윤리 · 수양관련 논문은 일반논문 21편과 박사학위논문 1편등 총 22편으로 주제별 분류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 중에서 주희의 윤리 · 수양관련 논문이 일반논문 14편, 박사학위논문 1편 등 모두 15편으로 가장 많다, 그 밖에 『소학』, 호굉, 장식의 윤리 · 수양관련 논문이 각각 2편씩이 있으며, 주돈이의 윤리 · 수양관련 논문 1편이 있다. 이 논문들 중에서 특히 안재호의 「철학치료와 주희의 수양론」과 정상봉의 「주자의 욕망관과 그 현대적 의의」는 주희의 윤리 · 수양관련 내용을 현대적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점에 있어 의의가 있다.

5) 인식론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홍성민	義外說 비판을 통해서 본 朱子 도덕 인식론의 특징	유교사상문화연구 제69집	한국유교학회
2	한승일	윤리적 인식론을 위한 試論 : 眞德秀의 『政經』을 중심으로	[국내박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인식에 관한 논문은 일반논문 1편과 박사학위논문 1편 등 모두 2편의 논문이 있다. 일반논문으로는 홍성민의 「義外說 비판을 통해서 본 朱子 도덕 인식론의 특징」이 있고 박사학위논문으로는 한승일의 「윤리적 인식론을 위한 試論 : 眞德秀의 『政經』을 중심으로」가 있다.

6) 비교(10편)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강춘화	朱熹"验证说"萌芽与洪大容"验证说"比较研究	중국학 제61집	대한중국학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2	김영호	장재(張載)와 정이의 심성론(心性論) 비교 고찰	건지인문학 제20집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3	노명수 정소이	다산과 주희의 '기질(氣質)' 개념과 그 의미	儒學研究 제38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4	박찬영	宗密과 朱熹의 사유구조의 유사성 – 심성론을 중심으로	哲學研究 제104집	대한철학회
5	서근식	『주역』 원형이정(元亨利貞) 해석의 비교 연구	정신문화연구 제40권 제1호	한국학중앙연구원
6	이상익	주자(朱子) 심통성정론(心統性情論)의 양면성과 퇴(退) · 율(栗) 성리학(性理學)	嶺南學 제62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7	장원태	朱熹的告子和陸九淵的告子 – 以對"不動心"的詮釋爲中心	(儒教文化研究(中文版), 第27輯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8	허광호	주돈이와 권근의 천인합일사상 비교 – 『태극도설』과 『입학도설』을 중심으로	東洋古典研究 제66집	동양고전학회
9	홍성민	絜矩之道와 공정한 주체의 조건 – 朱子와 茶山을 중심으로 –	儒學研究 제41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0	황갑연	주자와 간재의 명덕설(明德說) 그리고 역사문화 의식의 차이	건지인문학 제20집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비교 논문으로는 일반논문 10편이 있다. 특히 10편의 논문 중에 송대성리학자와 조선성리학자의 비교논문이 6편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논문으로는 강춘화의 「朱熹"验证说"萌芽与洪大容"验证说"比较研究」, 노명수 · 정소이의 「다산과 주희의 '기질(氣質)' 개념과 그 의미」, 이상익의 「주자(朱子) 심통성정론(心統性情論)의 양면성과 퇴(退) · 율(栗) 성리학(性理學)」, 허광호의 「주돈이와 권근의 천인합일사상 비교 – 『태극도설』과 『입학도설』을 중심으로」, 홍성민의 「絜矩之道와 공정한 주체의 조건 – 朱子와 茶山을 중심으로 -」, 황갑연의 「주자와 간재의 명덕설(明德說) 그리고 역사문화 의식의 차이」 등이 있다. 그 밖의 비교논문으로는 김영호의 「장재(張載)와 정이의 심성론(心性論) 비교 고찰」, 박찬영의

「宗密과 朱熹의 사유구조의 유사성 - 심성론을 중심으로」, 서근식의 「『주역』 원형이정(元亨利貞) 해석의 비교 연구」, 자원태의 「朱熹的告子和陸九淵的告子－以對"不動心"的詮釋爲中心」 등이 있다.

7) 기타(11편)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태환	장재(張載)의 「서명(西銘)」을 통해 본 유교(儒敎) 영성철학(靈性哲學)의 가능성에 관한 시론(試論)	퇴계학논총 제30집	사단법인 퇴계학 부산연구원
2	김학재	解密"太極圖" 的一個方法	유교문화연구 (중문판) 제28집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3	김한신	南宋代 性理學者들의 宗敎 改革:南宋代 性理學者들의 民間信仰 개혁과 儒敎의宗敎的 기능 강화	역사와 경계 제105집	부산경남사학회
4	김현경	先秦諸子와 朱熹의 이단 비판	범한철학 제86집	범한철학회
5	박승원	전승 양상에 따른 이정(二程) 철학의 차별성 연구	퇴계학논집 제20집	영남퇴계학 연구원
6	송재윤	治理與自律－陳傅良的政治理論	유교문화연구 (중문판), 제27집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7	연재흠	『知言疑義』 연구(1)	유교사상문화연구 제70집	한국유교학회
8	정종모	二程철학에서 命과 義의 분리와 합일	양명학 제48호	한국양명학회
9	주광호	상징형식으로 본 소옹(邵雍)의 원회운세(元會運世)	철학연구 제55집	철학연구회
10	지현주	『주자가례(朱子家禮)』의 방위관(方位觀)을 통해 본 상례(喪禮)의 질서양상과 그 우주론적 배경－『주자어류(朱子語類)』, 『이기(理氣)』 하편(下篇)을 중심으로－	東洋철학연구 제91집	동양철학연구회
11	최복희	주자학의 마음의 개념에 있어서의 불교 비판과 수용 연구	범한철학 제85집	범한철학회

기타의 논문으로는 김태환의 「장재(張載)의 「서명(西銘)」을 통해 본 유교(儒敎) 영성철학(靈性哲學)의 가능성에 관한 시론(試論)」, 김학재의

「解密"太極圖" 的一個方法」, 김한신의 「南宋代 性理學者들의 宗教 改革:南宋代 性理學者들의 民間信仰 개혁과 儒教의宗教的 기능 강화」, 김현경의 「先秦諸子와 朱熹의 이단 비판」, 박승원의 「전승 양상에 따른 이정(二程) 철학의 차별성 연구」, 송재윤의 「治理與自律－陳傅良的政治理論」, 연재흠의 「『知言疑義』 연구(1)」, 정종모의 「二程철학에서 命과 義의 분리와 합일」, 주광호의 「상징형식으로 본 소옹(邵雍)의 원회운세(元會運世)」, 지현주의 「『주자가례(朱子家禮)』의 방위관(方位觀)을 통해 본 상례(喪禮)의 질서양상과 그 우주론적 배경」, 최복희의 「주자학의 마음의 개념에 있어서의 불교 비판과 수용 연구」 등 모두 11편의 논문이 있다.

4. 주요논문 분석 및 비평

(1) 최영진의 「朱子 人心道心의 槪念과 分岐에 관한 分析的 探求」

이 논문은 주희의 인심도심의 개념과 분기에 대하여 분석한 논문이다. 특히 저자는 '이론체계의 정합성'이라는 관점에서 '인심과 도심의 분기'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저자는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은미하다. 오직 정밀하게 하고 한결같이 하여 그 중을 잡아라[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에 대한 주자의 "도심은 도리를 지각한 것이며, 인심은 소리 · 색 · 냄새 · 맛을 지각한 것이다.…도심과 인심은 본래 하나의 존재이다. 단지 지각한 바가 다른 것이다."라는 해석에 대하여 "주자는 '하나의 마음이 인심과 도심으로 분기 된다'라는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지각 근원이 다르다'라는 주장과 '지각한 대상이 다르다'라는 상이한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저자는 "1. 이 두 가지 상이한

주장이 양립할 수 있는가? 2. 양립할 수 있다면 두 과정은 어떠한 관계인가? 3. 양립할 수 없다면 주자의 인심도심설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을 제기한다. 그리고 저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심과 도심의 개념을 명료하게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인심과 도심의 분기를 중심으로 주자 인심도심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논리적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저자는 인심과 도심의 개념에 대하여 주자의 인심도심설이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두 시기의 차이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인심과 도심의 분기의 원인, 즉 지각의 근원인가 아니면 지각의 대상인가에 대하여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고찰한다. 전기에서는 인심과 도심이 분기되는 요인이 '존(存)'과'망(亡)'으로서 현상적 차원에서 논의 하고 있는 반면, 후기에서는 인심의 근원은 형기로 이루어진 사적인 '신체'이고 도심의 근원은 인간이 선험적으로 본유(本有)하는 도덕법칙으로 서술하고 있다. 즉 저자는 "주자는 후기에 하나의 마음이 인심과 도심으로 분기되는 요인으로서 '지각의 근원'과 '지각의 대상'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전기에 주로 '존/망'이라는 심리적 현상의 차원에서 인심과 도심의 분기를 규정한 것과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저자는 "소이위지각자(所以爲知覺者)"의 해석에 대하여 기존의 학자들이 오역을 하고 있다고 여기면서 "지각을 이루는 근거 혹은 이유"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자는 그의 이러한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중용장구서」를「大禹謨」의 주석과 비교하고 있다. 그는 특히「중용장구서」의 '소이위지각자(所以爲知覺者不同)'이「大禹謨」

에서는 삭제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논하면서 "주자 인심도심설의 최만년정론은 「대우모」 주석에 나타나 있다. 이 주석은 '인심과 도심은 근원을 달리 하기 때문에 질적으로 다른 두 개의 마음이 되었다'라는 점을 명료하게 적시함으로서, 『서경』에서 왜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은미하다'라고 말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앞에서 서술한 근거들을 가지고 인심과 도심의 분기에 대한 주자 「중용장구서」의 주장을 "마음의 지각은 하나이지만 인심과 도심 두 가지로 분기된다. 인심은 형기에서 발생하여 욕구를 지각하고 있기 때문에 불선한 것은 아니지만 위태로워 불안하고, 도심은 성명에 근원하여 의리를 지각하고 있기 때문에 선하지만 은미하여 발현되기 어렵다."와 같이 재구성 하고 있다.

이 논문은 주자의 "인심도심설"을 명료하게 정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소이위지각자(所以爲知覺者)"의 "소이(所以)"와 "위(爲)"에 대한 해석은 매우 새롭고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2) 정상봉의 「주자의 욕망관과 그 현대적 의의」

이 논문은 정상봉이 주자의 욕망에 대한 이해와 그 현대적 의의를 조망하기 위하여 작성한 논문이다. 이 논문은 모두 다섯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장은 들어가는 말로 현대 사회의 도덕의식은 뿌리채 흔들리고 윤리규범의 기초가 뿌리채 흔들리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두 번째 장은 '주자 이전의 욕망 절제론 계승'이라는 주제로 공자의 '극기복례'를 "사적 이익에 얽매임 없이 공공의 도리를 따르는 것"으로 보았으며, 맹자의 '성선설', '사단', 수양방법으로서의 '존심', 양

성(養性), 과욕(寡慾) 등, 주돈이의 '무욕(無欲)', 이정(二程)의 사욕의 제거 등을 들어 주자 이전의 욕망 절제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세 번째 장은 주자의 욕망관으로 크게 '천리와 인욕', '인심과 도심' 등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천리와 인욕'의 부분에서 '천리'에 대하여 "천리는 존재에 관한 물리와 당위에 관한 윤리(倫理) 전체가 포함된다."고 하면서 "천리의 의미를 사람의 윤리적 당위 측면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마땅히 그러함[當然]'은 '본래 그러함[自然]'과 '마땅히 그렇게 해야함[當爲]'을 함축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인욕에 대하여 "천리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설정되었다. 이에 주자가 인욕의 제거나 극복을 말했지만, 그 실질적 의미는 인욕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인욕에서 사사로운 부분, 즉 사욕(私欲)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주자의 사욕에 대하여 "개인적 이익 추구에 빠져 공공의 도의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주자가 주장하는 천리와 인욕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인심과 도심'의 부분에서는 '인심'에 대하여 "신체를 지닌 개체적 존재로서의 사람이 느끼는 감관지각(感官知覺)의 감응에 따른 심리적 욕구, 생물학적 욕망, 희노애락의 감정, 그리고 돈 권력 명예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이기심 등까지 포함된다."고 서술하고 있고 '도심'에 대하여 "절도에 들어맞는 생리적 욕구와 생물학적 욕망, 사단(四端), 부모가 자식을 자애로써 감싸는 마음과 자식이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는 마음, 공공의 도의(道義)와 예법(禮法)을 따르는 마음을 가리킨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주자의 인심도심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네 번째 장에서는 '주자의 욕망관의 현대적 의의'에 있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삶을 영위하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이

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이기적으로 흐르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주자의 주장이 오늘날 '무엇이 사람다운 삶인가?''어떻게 해야 자신의 삶을 사람다운 삶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에게 일정한 안내의 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긍정하고 있다. 다섯 번째 장 '나오는 말'에서는 "주자의 '존천리거인욕(存天理去人欲)'의 구호를 우리 모두가 함께 하지는 못하더라도 생리적 욕구와 생물학적 본능에 기초한 욕망과 사회적 욕망의 분출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용인할 수 있는 기준과 공존하는 타자들이 용인할 수 있는 기준을 찾고 그것을 좇으려는 실천적 노력은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개인적 차원이나 사회적 차원에서 옳음[是]과 그름[非], 공정함[公]과 사사로움[私], 알맞음[中]과 알맞지 않음[不中]을 가늠하는 기준을 천리와 인욕으로 귀결시킴으로써 선명한 주장을 펴고자 했던 주자의 뜻이 욕망 앞에 약해지고 욕망에 휘들리는 우리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재 주기를 기대해 본다."라고 결론 맺고 있다.

이 논문은 주자의 욕망관에 반영된 천리와 인욕, 인심과 도심 개념이 어떻게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 반영되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서술한 논문이다. 여기에서 주희의 천리와 인욕, 인심과 도심의 개념의 서술은 매우 정확하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논리가 매우 명료하고 또한 현대 사회의 윤리도덕 교육체계를 새롭게 정립하는데 참고가 될 만한 논문으로 여겨진다.

(3) 연재흠의 「호굉(胡宏) 심론(心論) 연구(研究): 성(性)과 심(心)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 논문은 호굉(胡宏)철학에 있어, 성(性)과 심(心) 개념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성체심용(性體心用), 미발(未發), 이발(已發), 진심(盡心), 진성(盡性) 등을 중심으로 성(성)과 심(心)의 관계 등에 관해 고찰하고 있다.

이 논문은 1서론, 2성과 심, 3미발과 이발, 4진심과 진성, 5결론 등 다섯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저자는 서론에서 이 논문의 의의에 대하여 "지금까지 국내 · 외 여러 연구자들은 호굉의 독특한 성(性)개념에 주목하여, 성학(性學) · 성본론(性本論)등으로 호굉의 철학을 개괄하고 있다. 이처럼 성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은 다른 철학자들과 뚜렷이 구분되는 호굉 철학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호굉이 견지했던 성체심용(性體心用)의 체계에 따르면 본체로서의 성에 대한 이해 못지않게, 그 작용에 해당하는 '마음(心)'에 관한 상세한 분석과 이해 역시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다. 즉 저자는 호굉의 성에 관한 내용보다 마음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니 이 논문에서는 호굉의 심에 관한 내용들을 전개하겠다는 의도로 이해된다. 그러나 그 다음문장에서 "이 글에서는 이상의 이해에 기초하여, 성과 마음 개념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성체심요, 미발 · 이발, 진심 · 진성 등을 중심으로 호굉 철학에 있어 성과 마음의 관계 등에 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논문제목을 보면「호굉(胡宏) 심론(心論) 연구(硏究) : 성(性)과 심(心)의 관계를 중심으로」로 되어있다. 큰 제목은 '호굉의 심론 연구'로 되어 있고 소제목이 '성과 심의 관계를 중심으로'로 되어 있다. 그리고 목차와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성과 심의 관계'만 서술하고 있지 호굉의 심에 관한 '심'자체만의 구체적인 서술들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차라리 제목을 '호굉의 성과 심의 관계연구'라고 하는 것이 논문 내용과 더 부합된다.

5. 평가와 전망

이상으로 2017년 1년간 한국에서 발표된 중국 송대 유학 논문을 인물별, 주제별로 분류하고 몇 편의 주요 논문을 정리하고 비평하였다. 2016년도와 같이 2017년도에도 박사논문과 일반 학회지(KCI 등재지, KCI 등재후보지)논문만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

첫째, 인물별로 북송시대 성리학자인 주돈이, 소옹, 장재, 이정형제(정호, 정이)와 남송의 호굉, 장식, 주희, 진부량, 육구연의 제자 양간, 진덕수, 원대 성리학자 오징등 12명의 유학자들과 남송성리학자들의 종교개혁을 소개한 논문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인물별 논문은 일반논문 64편, 박사학위논문 2편으로 총64편이다. 주돈이에 관한 논문은 4편, 소옹에 관한 논문은 2편, 장재에 관한 논문은 2편, 이정(二程) 형제에 관한 논문이 2편 있다. 그리고 호굉에 관한 논문은 4편, 장식에 관한 논문은 2편, 주희에 관한 논문이 가장 많은데 일반논문이 43편, 박사논문 1편 등 모두 44편이 있으며 진덕수에 관한 논문이 일반논문 1편, 박사논문 1편 등 모두 2편이 있다. 그 밖에 육구연에 관한 논문, 진부량에 관한 논문, 양간에 관한 논문, 원대 오징에 관한 논문 등 각각 1편씩 있으며, 그리고 남송시대 성리학자들의 종교에 관한 논문이 1편 있다. 여기에서 주희의 논문은 44편으로 다른 인물들의 논문을 합한 것 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2016년과 비교하여 보면 2016년에 보이지 않던 주돈이, 소옹, 장재와 남송성리학자 진부량, 양간, 진덕수, 오징에 관한 논문이 2017년도에 새롭게 나타났다. 2016년도에는 일반논문 35편, 박사학위논문 4편

으로 총39편의 논문이 있었으며, 인물별로 분류하면 정호에 관한 논문은 1편, 정이의 관한 논문은 2편, 곽충효에 관한 논문은 1편이 있었다. 그리고 주희에 관한 논문이 가장 많은데 일반논문이 28편, 박사학위논문 4편으로 총32편이 있었으며 그 밖에 육구연에 관한 논문이 2편, 채원정에 관한 논문은 1편, 그리고 송대 절강학파에 관한 논문이 1편 있었다.

2017년도 2016년도와 같이 주희에 관한 논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주희의 철학이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에 관한 논문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주제별 분류는 1)경학, 2)이기론, 3)심성론, 4) 윤리 · 수양론, 5)인식론, 6)비교, 7)기타 등으로 분류하였다. 2017년 1년 동안 중국 송대 유학관련 논문은 66편이 발표 되었는데 각 주제별 분류 논문의 편수는 경학 10편, 이기론 3편, 심성론 8편, 윤리 · 수양론 22편, 인식론 2편, 비교 10편, 기타 11편이다. 2016년도에는 경학 6편, 이기론 3편, 윤리 · 수양론 17편, 인식론 3편, 비교 5편, 기타 5편이었다. 주제별 분류에서 보자면 2017년도도 2016년도와 같이 윤리 · 수양론 부분에서 가장 많은 논문이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2편의 주요 논문을 소개하고 1편의 논문을 분석 비평하였다. 여기에서 소개한 주요논문은 최영진의 「朱子 人心道心의 槪念과 分岐에 관한 分析的 探求」와 정상봉의 「주자의 욕망관과 그 현대적 의의」이며 분석 비평한 논문은 연재흠의 「호굉(胡宏) 심론(心論) 연구(硏究) : 성(性)과 심(心)의 관계를 중심으로」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인물별 분류에서는 주희에 대한 논문이 44편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주제별 분류에서는 윤리 · 수양론에 관한 논문이 22편으로 가장 많다. 이는 한국 학계의 독특한 현상이다.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연구자들이 깊이 있는 학문 연구를 바탕으로 중국 송대 유학에 관한 논문들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기존에 연구 되지 않았던 송대 유학자들을 발굴하고 또한 현대 한국사회의 문제점과 접목된 송대 유학의 다양한 주제들로 보다 깊이 있는 논문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송대유학개념의 현대적 재해석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목표일 것이다.

제3장

명청대 유학 연구

선병삼

1. 머리말

본 내용은 2017년도 한국에서 발표된 학술 논문 중에서 〈중국: 명 · 청대 유학〉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논문 색인의 대상은 한국연구재단에 정식으로 수록된 논문(KCI)과 개별 대학의 박사학위 논문을 기준으로 삼았다.

한국연구재단 수록 논문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의 기간에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논문집을 연구재단 분류 방식에 따라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철학전문 등재지(후보지) 25개, 유교학 4개, 기타인문학 1개, 중국어와문학 1개이다.

이상의 학술지의 학술지와 학위논문을 분석한 결과 〈중국: 명 · 청대 유학〉 시기에 해당되는 논문은 총 26편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논문에 대한 일목요연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인물별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2. 인물별 분류

1) 왕양명 관련 논문(21편)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상훈	王陽明 成己成物 工夫의 涵義	동서철학연구	한국동서철학회
2	한정길	王守仁의 경세사상 – '治道'의 새로운 발견과 그 이론화를 중심으로 –	양명학	한국양명학회
3	선병삼	왕양명 치양지 공부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주자의 성본체론과 대비하여 –	동양철학	한국동양철학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4	박성호	왕양명의 無와 善惡의 개념에 대한 一考 –『傳習錄』을 중심으로 –	양명학	한국양명학회
5	이상훈	陽明學의 無善無惡義 – 의미와 전개, 그리고 비판을 중심으로 –	양명학	한국양명학회
6	박병진	陽明 哲學의 生態 倫理的 含意	공자학	한국공자학회
7	박평선	王陽明의 聖學論과 그 現代的 意味	유교사상문화연구	한국유교학회/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8	선병삼	양명학의 도통론 연구	퇴계학연구	영남퇴계학연구원
9	최재목	동아시아 양명학 연구의 새 지평에 대한 모색	유학연구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0	서강휘	왕용계의 "양지신앙" 해석 – 칼 야스퍼스의 철학적 신앙을 매개로 –	양명학	한국양명학회
11	이우진	태주학파 왕간의 친서민적 교육사상 – 강학활동과 평민제자들을 중심으로 –	양명학	한국양명학회
12	이상훈	왕문의 양명학 이해 – 남중, 초중, 북방, 월민 왕문을 중심으로 –	유학연구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3	김혜경	이탁오의 예 사상	중국학보	한국중국학회
14	신현승	감성철학으로서 양명학에 대한 일고찰 – 이탁오 사상을 중심으로 –	유학연구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5	김민재	왕수인이 제시한 마음공부의 도덕교육적 해석	철학논총	새한철학회
16	이승철	양명의 인간 본성과 본성의 사회적 실현에 관한 교육적 이해 – 루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양명학	한국양명학회
17	양선진	지성중심의 사고를 넘어선 철학상담의 가능성 모색 – 왕양명과 베르그손 사상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	동서철학연구	한국동서철학회
18	양선진	왕양명과 베르그손의 철학 상담과 인성교육	범한철학	범한철학회
19	정갑임	왕양명철학에서 몸의 의미	양명학	한국양명학회
20	양선진	공간적 사고에서 시간적 사고로의 전환 – 왕양명과 베르그손의 사상을 중심으로 –	동양철학	한국동양철학회
21	권영화	후설의 현상학과 양명철학에서 심의 지향성	동양철학연구	동양철학연구회

전체 26편의 논문 중에서 양명학(왕양명, 양명후학, 양명학과 서양철학 혹은 서양사상 비교) 관련 논문이 21편으로 전체 편수의 80%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이는 2016년도에 총 13편의 논문 중에서 양명학 관련 논문이 12편으로 90%였던 수치보다는 높지 않지만 12편에서 21편으로 편수가 대폭 증가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편수로 보면 2015년도 9편, 2016년도 12편, 2017년 21편으로 양명학 관련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한국 학계에서 명 · 청대 중국유학 연구는 여전히 양명학 관련 연구가 중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하에서는 내용적으로 분류하여 소개를 해보겠다. 첫째는 ① ~ ⑦까지로 왕양명 철학사상에 대한 분석이다. 둘째는 ⑧ ~ ⑨으로 양명학을 종적으로(도통론) 혹은 횡적으로(동아시아) 검토한 글이다. 셋째는 ⑩ ~ ⑭까지로 양명후학에 대한 연구이다. 넷째는 ⑮ ~ ⑱까지로 양명학을 교육학(상담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글이다. 다섯째는 ⑲ ~ 마지막(21번)으로 양명학을 서양철학 또는 서양사상과 비교한 연구이다. 편수가 증가한 만큼 연구 범위가 다양해졌다.

첫째, 이상훈은「王陽明 成己成物 工夫의 涵義」라는 글에서 왕양명 철학사상 전체를 개괄하고 있다.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성기성물이 곧 내성외왕이다. 본문은 심즉리, 즉지즉행의 지행본체, 정이견체(靜以見體)의 묵좌징심, 사상마련, 존천리거인욕과 치양지의 의미와 내용, 정심성의, 치지격물, 만물일체, 대동사회 등을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양명학(양명후학)을 오랜 시간 연구한 전문가의 소견이 잘 드러난다. 그렇지만 많은 내용을 논문이라는 형식으로 압축적으로 전개하다보니 친절한 맛이 없고 내용 자체도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화된 특징이 보이지 않는 약점이 있다.

한정길은 「王守仁의 경세사상- '治道'의 새로운 발견과 그 이론화를 중심으로」에서 양명학에 대한 선입견을 타파하고자 한다. 송명이학은 송대 주자학과 명대 양명학을 중심으로 한다. 통상 송명이학은 성학을 추구하고 그 성학의 내용을 내성외왕학(內聖外王學)이라고 한다. 한편 송대 주자학을 이학이라고 하고 명대 양명학을 심학이라고 하여 구분하는데, 심학으로서의 양명학은 내성외왕에서 특히 내성학을 강조한다고 평가한다. 게다가 명조가 멸망하는 데에 명교(名敎)를 무시한 이른바 양명좌파의 창광방자(猖狂放恣) 한 내성학 특징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양명학은 외왕학을 무시했다고 한다. 과연 그런가? 한정길은 이에 대해 본 논문에서 반론을 제기한다.

선병삼은 「왕양명 치양지 공부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주자의 성본체론과 대비하여–」에서 양명학의 핵심 명제인 치양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양명학의 종지가 치양지 세 글자에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치양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고 물으면 곧 혼란에 빠진다는 점이다. 이 내용은 주요 논문 비평에서 좀 더 상세히 다루겠다.

박성호의 「왕양명의 無와 善惡의 개념에 대한 一考 –『傳習錄』을 중심으로」와 이상훈의 「陽明學의 無善無惡義 – 의미와 전개, 그리고 비판을 중심으로–」는 모두 사구교를 논하고 있다. 이 두 편의 연구논문은 공히 심체를 무선무악(無善無惡)이라고 한 첫 구에 대한 해명을 시도한다. 바로 심체를 무선무악이라고 하면 맹자의 성선설과 충돌하게 되는데, 무선무악은 상대적인 선을 넘어선 지선(至善)이라는 의미라고 해명한다. 사실 이와 같은 해명은 이미 기존 연구에서도 충분히 다뤄진 내용으로 새로울 것은 없다. 그러나 박성호의 연구는 무와 선악에 대한 양명 이

해를 바탕으로 접근한 점이 신선하다. 이상훈의 연구는 무선무악을 둘러싼 논쟁을 소개하고 있는데, 한국 학계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소개한 데에 의의를 둘 수 있다.

박병진의 「陽明 哲學의 生態 倫理的 含意」와 박평선의 「王陽明의 聖學論과 그 現代的 意味」는 양명학을 현대적 시각에서 접근한 논문들이다. 생태윤리의 시각에서 양명학을 조망한 연구는 김세정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박병진은 김세정 선행 연구의 틀을 준용하였다. 여기서 생태윤리와 양명학의 조합이 훌륭한 조합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생태윤리는 이성주의에 기반 한 계몽적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는 문명비판적 태도를 기본으로 한다. 이런 맥락에서 동양사상을 주목하는데, 생태주의자들은 동양사상에서도 유학 보다는 불교와 노장에 주목한다. 양명학은 특히 도덕실천을 강조하는 인간중심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띠기 때문에 생태윤리와 양명학의 조합이 어색해 보일 수도 있다. 이는 양명학의 이기일원적 사유와 진성측달한 천지생물지심에 주목해야 그 조합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선병삼의 「양명학의 도통론 연구」와 최재목의 「동아시아 양명학 연구의 새 지평에 대한 모색」은 양명학을 종적(도통론) 횡적(동아시아)으로 고찰한 글들이다. 도통에 관한 한국내의 연구는 주로 송대 이학의 도통론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양명학 도통론 연구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주자학과 학술적으로 긴장과 대립을 유지하고 있던 양명학에서 도학과 도통을 연상하는 자체가 상당히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대 중후기에 양명학이 학술적 · 정치적 세력화를 이루어가면서 자파의 지향성과 정체성을 확정하는 도통론은 자연스레 요청되었다. 도통은 도학과 법통이라는 두

의미가 결합한 용어다. 양명은 심학을 도학의 기준으로 삼고, 요임금→순임금→우임금→공자→안자 · (증자) · (자사)→맹자→주렴계→정명도→육상산으로 이어지는 도통계보를 제시한다. 여기서 양명이 안자를 증자보다 높인 점, 북송오자 중에서 주렴계와 정명도만을 선별하고 주정(周程)으로 병칭하는 방식은 양명 도통론의 특징이다.

최재목은 본 논문에서 우선 주자학의 방향인 '언어문자의 입장=언어 · 문자문화(literacy)의 인간탐구'와 상산학 혹은 양명학의 방향인 '육성 · 소리의 입장=소리문화(orality)의 인간탐구'라는 주제에 대한 보다 세밀한 탐구가 진행되었으면 하다고 한다. 또한 동아시아 각국에서 발전된 양명학을 각자의 고유성을 기준으로 평가하자고 한다. 가령 '일본 양명학은 원래의 양명학이 아니다, 왜곡된 양명학이다' 등등의 상투적인 평가를 과감하게 뿌리치자고 주장한다.

셋째, 다섯 편의 본 논문들은 모두 양명후학을 연구한 논문들이다. 서강휘는「왕용계의 "양지신앙" 해석 – 칼 야스퍼스의 철학적 신앙을 매개로–」라는 글에서 왕용계의 신앙양지를 칼 야스퍼스가 제안한 철학적 신앙과 매개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서양의 지성사에서 철학과 신앙은 길항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칼 야스퍼스는 철학과 신앙의 조화를 도모하는데, 서강휘는 철학적 신앙을 매개로 용계의 신앙양지를 설명한다.

이우진의「태주학파 왕간의 친서민적 교육사상 - 강학활동과 평민 제자들을 중심으로–」는 익히 잘 알려진 주제를 다루고 있다. 태주학파가 강학활동을 통해 양지학을 대중화 평민화 했다는 주장이다. 바로 왕간이 백성일용지도(百姓日用之道)에 기반을 두고 친서민적 교육사상을 전개했다고 한다. 주장은 분명 낯익은 데 이 주장을 통계와 관련 자료

를 토대로 설파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이상훈은 16년도에 양명학 관련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중 본 「왕문의 양명학 이해 – 남중, 초중, 북방, 월민왕문을 중심으로–」 논문을 가장 수작으로 꼽고 싶다. 우선 주제의 희소성이다. 한국학계에서 양명후학 연구는 주로 잘 알려진 인물들인 왕용계, 이간, 이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남중왕문, 초중왕문, 북방왕문, 원민왕문 등은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사실 본 논문은 「명유학안」에 수록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한 한계가 있고, 논자의 특징이자 단점인 많은 내용을 한 편의 논문에서 다루고 있다.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한국학계에 잘 알려지지 않는 양명후학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가진다. 또한 학술적으로 이기론의 구도에서 양지학을 논한 내용들을 제공한다. 중국 양명학의 특징은 이기론의 구도를 거의 탈피하여 심성론의 영역에서 논의를 펼친다. 반면에 한국 양명학은 여전히 이기론의 구도를 통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따라서 이기론의 구도를 통해서 양지학을 정식화하는 중국 양명학의 특징을 살필 자료가 많지 않았는데,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양명후학들의 논의는 이런 결핍을 보완해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중국대륙에서의 양명후학 연구 또한 중요인물을 중심으로 연구가 전개되고 있으며, 기타 인물에 대한 원전 자료가 완비되지 못한 상태다. 현재 절강사회과학원의 전명이 중심이 된 양명후학 원전 출판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이를 통해 양명후학 제 학파의 원전이 구비된다면 이기론의 측면에서 양명학을 논한 자료들이 보강되어 양명학 논의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김혜경의 「이탁오의 예 사상」과 신현승의 「감성철학으로서 양명학에 대한 일고찰 – 이탁오 사상을 중심으로–」는 이탁오를 다루는 논문으

로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가진다. 즉 신현승의 논문은 근현대 연구자들이 이탁오 사상에 주목한 근대성 요소들에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했다면 김혜경의 논문은 기존의 연구 관점과 결을 달리하여 이탁오 사상 안에서 예의 의미를 밝혀낸다. 이는 통상적으로 예교를 부정한 시대의 이단아 이탁오라는 평가에 반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주요 논문 비평에서 좀더 상세히 다루겠다.

넷째, 다음 네 편의 논문은 양명학을 교육학(상담학)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글이다. 김민재는 하곡학을 윤리교육의 입장에서 분석하여 박사학위를 받는 젊은 연구자이다. 윤리교육철학 전공자로 현재 이 분야에서 좋은 연구 성과를 많이 내놓고 있다. 본「왕수인이 제시한 마음공부의 도덕교육적 해석」은 교육 현장에서 양명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고민한 글이다. 구체적으로는 왕양명이 제시한 마음공부가 도덕교육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와 관련해, '입지의 도덕 수업', '정좌의 도덕 수업', '치양지의 도덕 수업'이라는 3단계로 구분하여 논하고 있다. 논자 스스로 고백하고 있듯이 시론적인 수준에서 논의가 진행된 한계점이 있지만 양명학 연구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잘 알려진 것처럼 양명학은 도덕실천을 강력히 지향한 학문이다. 왕양명은 도덕실천에 기반을 두고 주자학의 세속화를 비판했다. 21세기에 양명학을 소환한다면 당연히 양명학의 도덕실천적 내용을 어떻게 검증적으로 확립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즉 21세기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양명학을 교육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승철의「양명의 인간 본성과 본성의 사회적 실현에 관한 교육적 이해 – 루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와 양선진의「지성중심의 사고를 넘

어선 철학상담의 가능성 모색 – 왕양명과 베르그손 사상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왕양명과 베르그손의 철학 상담과 인성교육」은 서양철학(사상)을 통해 양명학의 교육적 특색을 모색한 글들이다. 이승철, 양선진은 모두 서양철학을 기초로 하여 양명학을 연구한 연구자들로 서양철학(사상)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정치하면서도 신선한 시각을 제공한다. 그러나 문제는 양명학 이해가 깊지 않다는 약점을 노정한다. 이승철과 양선진이 이후 양명학 이해를 높인다면 상당히 좋은 연구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섯째, 다음 세 편의 글은 모두 서양철학을 통해서 양명학을 해석하고 있다. 정갑임의 「왕양명철학에서 몸의 의미」는 다소 생소한 주제를 논하고 있다. 즉 소매틱, 동작중심 표현예술치료의 중요개념을 통해 왕양명의 철학을 몸을 중심코드로 하여 새롭게 재해석하려고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토마스 하나의 소매틱의 핵심 개념인 1자적 관점, 안나 할프린의 치유, 그리고 다리아 할프린의 세 가지 레벨의 알아차림을 통해 왕양명의 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자 한다.

양선진의 「공간적 사고에서 시간적 사고로의 전환 – 왕양명과 베르그손의 사상을 중심으로–」는 베르그손과 왕양명의 사상이 시간적 사고라는 공통점을 공유한다고 한다. 베르그손은 이른바 생철학자로서 과학주의와 이성주의에 기반 한 계몽주의적 인간관, 세계관을 비판한 프랑스의 철학자이다. 왕양명은 주자의 격물치지(지성주의)를 반대하면서 심즉리를 주장했다. 다른 논문에서도 보여지는 양상인데, 양선진의 주자와 양명학 이해는 다소 극단적인 모습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주자학은 공간적이라면 양명학은 시간적이라는 도식으로 역시 양극단으로 배치하였다. 과연 이와 같은 구분이 가능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

이 간다. 대립적 구도는 양명학의 특징을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장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객관성의 유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상당한 내상을 입을 각오를 해야 한다.

권영화의 「후설의 현상학과 양명철학에서 심의 지향성」은 후설 현상학을 통해 양명의 심즉리 명제를 해명하는 작업이다. 왕양명의 심즉리는 여러 비판에 직면해 왔다. 그중에서 주관유심주의, 유아론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평가는 서양철학의 인식론 도식을 가지고 왕양명의 심즉리를 이해할 때 발생한다. 그런데 왕양명의 심즉리는 사실 인식론 명제가 아니다. 심즉리는 3가지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첫째는 용장오도의 깨달음 자체로 돌아가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자기 확신과 결단의 내용이다. 둘째는 심변시리(心便是理)라는 것으로 심이 리라는 말이다. 주자학의 기본 어법은 성즉리, 심합리기(혹은 심즉기)이다. 그런데 양명은 심이 리라고 한다.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논리가 허령명각(虛靈明覺), 천리소명영각(天理昭明靈覺)이라는 설명이다. 셋째는 심외무리(心外無理)로 도덕실천의 동기주의를 강조한 내용이다. 이처럼 심즉리는 인식론 명제가 아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현상학은 주관유심주의, 유아론이라는 비판에 맞서 양명학의 주관주의를 타당하게 옹호할 수 있는 서양철학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런 점에서 현상학을 가지고 양명학을 논한 선행 연구들이 제법 있다. 권영화의 글은 이를 잘 준수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특히 양명학에 대한 이해가 돋보인다.

2) 황종희(1편)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동현 유흔우	黃宗羲『易學象數論』의「河圖」·「洛書」 비판에 관한 연구	철학 · 사상 · 문화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황종희 사상을 이해하는 접근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명유학안」이다. 명대사상사 연구에서 결코 빠트릴 수 없는 저작인「명유학안」에서 황종희는 스승 유종주의 입장을 계승하여 양명학에 대해 비판적 옹호를 펼친다. 그는「명유학안」의 중심을 양명학(요강학안)으로 설정하고 소위 양명좌파로 지칭되는 인물들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견지한다. 명대 양명학을 후대에 전한 공로는 결코 홀시될 수 없다. 둘째는「명이대방록」이다. 황종희의 근대성과 혁명성 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본 저작을 통해 황종희는 중국의 루소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 김동현의 본 논문은 학위논문과 관련된 논문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서 그는 황종희가 역학의 대가라고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곧 양명학과 근대성뿐만 아니라 황종희 역학의 중요성을 환기시킨다. 황종희 역학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한국 학계에서 주의를 끌기에 충분한 글이다.

3) 왕부지(1편)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상화	王夫之의 죽음관에 대한 연구	동양철학	한국동양철학회

왕부지 연구는 매년 1편 이상이 학계에 보고된다. 명말청조의 대유

중에서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다뤄진다. 이상화의 본 논문은 죽음에 대한 왕부지의 생각이라는 참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의 기철학을 조명한다. 곧 죽음과 관련된 정체성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영혼동일성은 개인의 정체성이 영혼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영혼이 죽음 이후에도 독립된 개체로 영원히 존재한다고 믿는다. 육체동일성은 개인의 정체성이 육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며, 죽음과 동시에 그 사람의 존재도 끝이 난다고 본다. 왕부지는 뭉쳐진 상태의 기나 흩어진 상태의 기나 같은 기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자신의 기를 맑게 혹은 탁하게 했느냐에 따라 우주의 전체 기의 맑고 탁함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한다. 왕부지의 죽음관은 영혼정체성의 내세중심주의와 육체동일성의 허무주의를 극복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4) 양계초(1편)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황종원	양계초의 격의 서양철학에 관한 연구	유학연구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양계초 연구는 2015년부터 본 리포트를 작성한 이후로 처음 나온 논문이다. 양계초는 청말 민국초기의 문화 거인으로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양계초가 1900년대 초엽에 무술변법 실패로 그가 일본에 망명해 있을 때 그는 일본이 방대하게 축적해 놓은 서구 학문의 성과물에 자극을 받았고, 이에 청의보(淸議報, 1898~1901), 신민총보(新民叢報, 1902~1907) 등의 잡지 간행을 통해 서구의 사상을 적극 소개하는 작업

을 계속해 나갔다. 이 가운데에는 베이컨, 데카르트, 홉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등 서양철학자들의 사상에 대한 소개 글이 여러 편 포함되어 있다. 그는 여기서 안어(案語)의 형식으로 위에서 열거한 철학자들의 사상이 유학 혹은 불교와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나아가 중국철학으로 서양철학을 비판하거나 반대로 서양철학으로 중국철학의 결함을 지적한다.

5) 미와 싯사이(1편)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정지욱	미와 싯사이(三輪執齋) 사상 초탐 – 양명학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	양명학	한국양명학회

양명학 전공자들 사이에서 미와 싯사이의 〈표주전습록(標註傳習錄)〉은 문헌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자료다. 『전습록』 관련 판본을 검토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가령 여동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와 싯사이 연구 또한 2015년부터 본 리포트를 작성한 이후로 처음 나온 논문이다. 미와 싯사이(三輪執齋, 1669~1744)는 이토 진사이(伊藤仁齋, 1627~1705)의 古義學과 기몬학파(崎門學派)의 주자학이 성행하던 시대에 태어나, 나카에 토쥬(中江藤樹, 1608~1648)와 구마자와 반잔(熊澤蕃山, 1619~1691) 이후 쇠퇴 일로에 있었던 양명학을 중흥시켰던 대표적 일본 양명학자이다. 특히 그의 표주전습록이 일본에서 양명학을 널리 보급시키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는 처음부터 양명학자는 아니었다. 오히려 열렬한 주자학 신봉자였다. 그런 그가 어떤 연유로 주자학에 의문을 품게 되었으며 왜 그 대안으로 양명학을 선택

했는가는 그의 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며, 아울러 일본 국내에서 주자학과 양명학이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의 사상은 양명학 전향 이전과 이후의 단계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일본 최대의 주자학파로 불리는 기몬학파의 사상과 비교할 때에 분명해진다. 특히『대학』의 '격물설(格物說)'과 '지행관(知行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6) 기타(1편)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태용	명태조『도덕경』어주의 '무위'관념 연구	중국학보	한국중국학회

명대 학술의 삼교합일적 경향을 논할 적에 반드시 거론하는 대목이 명태조의 삼교합일적 통치술이다. 명태조 연구는 2015년부터 본 리포트를 작성한 이후로 처음 나온 논문이다. 역대 중국에서 노자의 '무위의 다스림'에 관심을 갖고, 직접 〈도덕경〉을 주해한 황제는 모두 4명이다. 그 중 한 명이 주원장(朱元璋)이다. 명태조는 〈도덕경〉을 금단(金丹)과 방술(方術)의 경전이 아니라 만물의 지극한 근본, 군주의 큰 스승, 신하와 백성의 지극한 보배인 경전이라고 평가한다. 그는 〈도덕경〉에서 치국(治國)의 도리를 찾기 위해서, '치국'의 관점에서 〈도덕경〉을 직접 주해한다.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기 때문에, 백성의 생활이 안정되어야만 나라의 근본이 단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군주는 백성들이 의식하지 못하게 백성의 자연본성에 따라 적극적 통치행위[有爲]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생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야만 '무위(無爲)'의 정치가 완성된다. 그는 이러한 적극적 통치행위는 정치적 목표달성 이후에도 계

속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도'를 얻은 군주만이 '무위'의 정치를 실제적으로 행할 수 있다. 그는 '대덕'을 가진 군주가 백성의 자연본성에 따라 적극적 실제적 통치행위를 하고, 이를 통해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무위'의 정치라고 주장한다.

3.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한정길의 논문에서부터 분석을 시작해보자. 한정길은 『전습록』을 완역한 연구자로서 현재 한국 내 양명학 연구에서 중요한 축을 형성하는 학자다. 그는 왕양명 철학 연구에서 시작하여 한국양명학과 실학 연구로 영역을 확장해왔다. 최근에는 양명학의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는데, 「王守仁의 경세사상 –'治道'의 새로운 발견과 그 이론화를 중심으로–」는 그 작업의 성과물 중 하나다.

그가 여기서 주목한 부분은 양명학에 대한 고질적인 비판 한 가지이다. 바로 양명학은 외왕학이 결여됐다는 상당히 유력한 비판이다. 본 논문에서 한정길은 왕양명이 경세(經世) 방면에서 일으킨 혁명적인 변혁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이론화하고 실천을 통해서 표현해내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바로 "양명학도 '내성외왕(內聖外王)'의 이상을 지니고, 그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해왔다. 이 점은 양명학의 창시자인 왕수인(王守仁, 1472~1528)만이 아니라 그 학문을 계승한 양명후학들에게서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왕수인의 주자학에 대한 학습과 반성에는 성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과 의지가 내재되어 있다. 그런데 왕수인에게 성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완성이라는 개인

적 차원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제한다는 사회적 차원의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주자학에 대한 왕수인의 비판은 곧 주자학에서 제시하는 '위성(爲聖)'과 '위정(爲政)'의 방법에 대한 비판이며, 그가 새롭게 고안해 낸 이론들은 모두 '위성'과 '위정'의 새로운 방법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양명학의 근본 취지와 전체 규모 및 그 전개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인이 되는 공부 방법만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경세의 방법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양명학은 일체의 문제를 마음으로 환원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양명학은 '내성'에 치우쳐 '외왕'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양명학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도 주로 '내성' 방면에 편중되어 있다. 양명학의 주요 이론들을 성인이 되기 위한 이론적 기초와 그 실천 방법 및 궁극적 경지, 즉 본체, 공부, 경계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양명학의 핵심 이론들이 지니는 경세사상적 의미, 양명학이 제시하는 경세 원리와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 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이처럼 내성 방면에 기울어져 있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양명학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양명학을 경세의 측면에서 읽어낼 필요가 있다. 양명학의 주요 이론들과 그 전개를 경세 방면에서 조명할 때라야 양명학의 근본 취지와 그 전체 규모를 폭넓고 깊이 있게 살필 수 있는 것이다."라고 밝힌다.

그렇다면 한정길은 자신의 이와 같은 원대한 계획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본 논문의 가장 중요한 틀은 한정길이 표면에 직접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는 않지만 바로 여영시(余英時)가 제시한 '득군행도(得君行道)'와 '각민행도(覺民行道)'의 프레임이다. 여영시가 착안한 것처럼 유학이 현

실 정치와 긴밀한 상관성을 가지면서 발전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송대 이학과 명대 심학으로 갈리는 근거로 송나라와 명나라의 정치문화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서 득군행도는 임금을 통하여 도를 행한다는 의미이고 각민행도는 백성을 깨우쳐 도를 행한다는 말이다. 송대는 사대부들이 임금과 함께 세도를 만들어 갔기 때문에 득군행도라고 한다면 명대(청대)는 전제통치 하에서 사대부들이 절대군주가 아니라 민중을 각성시켜 세도를 만들어 가려고 했다. 곧 각민행도를 실천했다는 주장이다. 각민행도라는 용어는 여영시의 조어일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내용으로 보자면 강회운동의 다른 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영시가 제시한 각민행도의 도식은 양명학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유용하다. 우선 주자학이 양명학의 병폐로 지적하는 임정종욕(任情縱慾), 창광방자(猖狂放恣), 방기공부(放棄工夫), 엽등공부(躐等工夫) 등에 효율적으로 변론을 할 수 있다. 또한 양명학이 표방한 강회운동(講會運動), 성학간이(聖學簡易) 등의 의의를 충분히 설명할 수도 있다.

이제 한정길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한정길은 용장오도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바로 "양명의 용장오도는 성인이 되는 방법에서만이 아니라 경세의 방법에서도 획기적인 변혁을 가지고 왔다. 기존에 제시된 경세의 방법은 '득군행도(得君行道)'와 '신민행도(新民行道)'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왕양명은 용장오도 이후에 '친민(親民)'과 '각민(覺民)'을 통하여 도를 실천하는 새로운 경세 방법을 제시한다." 라고 한다. 그리고 양명학 주요 이론의 경세사상적 함의라는 장명으로 '심즉리' · '지행합일' · '천지만물일체' · '치양지' · '사상마련' 등을 경세사상적인 측면에서 서술하고 있다.

한정길의 본 논문은 거시적인 측면, 곧 경세사상으로 해독한 양명

학은 내용면으로나 의의 면에서 충분히 긍정적이다. 그렇다면 세부적인 측면, 곧 논거와 그 논거의 해석은 어떨까?

본 논문의 중요한 매개고리인 용장오도에 대한 서술을 살펴보자. "용장오도의 핵심은 '오성자족(吾性自足)'이다. 성인의 도는 내 본성으로 충족하기에 외부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궁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 내 본성이 무엇이기에 그 자체로 충족하다는 것인가? 양명이 용장에서 실제로 체인해 낸 그 본성은 무엇인가? 양명이 용장에서 체인해 낸 것은 '타인과 나, 나와 물(物)의 한계를 철저하게 관통하여 인생과 우주의 대본(大本)이 되는 인심진체(仁心眞體)이다. …… 이것이 바로 정호의 식인의 가르침의 토대 위에서 '격물치지'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단초이다. 즉 '치지(致知)'의 '지(知)'가 주자학에서와 같은 대상에 대한 앎[知識]이 아니라, 인심(仁心)의 지각 능력인 양지(良知)라고 본 것이다. 이 양지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지니는 밝은 덕성[明德]으로 마음의 본체이다. 이렇게 해서 성인에 이르는 길은 더 이상 외부사물에 나가 그 이치를 궁구할 필요가 없이 자신의 본성[心之本體 · 仁心眞體 · 良知 · 明德]을 밝히는 것만으로 충분하게 되었다. 용장오도를 통하여 양명은 성인이 될 수 있는 내적 근거[본체]와 그 방법[공부]을 발견함으로써 새로운 마음의 철학을 제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라고 한다.

용장오도의 핵심은 한정길이 지적하고 있듯이 분명 오성자족이다. 그리고 한정길은 본 논문의 맥락을 따라서 오성 곧 본성을 타인과 나, 나와 물의 한계를 철저하게 관통하여 인생과 우주의 대본이 되는 인심진체인 양지로 풀어간다. 바로 천지만물 일체지심 혹은 생물지심인 양지를 위민의 경세론과 연결 짓는다.

한정길의 이와 같은 용장오도 해석은 정확한 것일까? 두루뭉술하

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 용장오도의 의미는 물론 지자견지, 인자견인 식으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철학적 사고의 특성이 원래 그렇다. 그러나 용장오도를 두고 격물치지의 본뜻을 깨달았다. 용장오도를 통해 심즉리를 제출했다는 주장의 본 면목을 제대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좀더 엄밀해야 한다. 이미 앞에서 서술했지만 양명학의 심즉리 명제를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바로 심즉리는 3가지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첫째는 용장오도의 깨달음 자체로 돌아가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자기 확신과 결단의 내용이다. 둘째는 심변시리(心便是理)라는 것으로 심이 리라는 말이다. 셋째는 심외무리(心外無理)로 도덕실천의 동기주의를 강조한 내용이다.

『연보』와 『전습록』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용장오도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양명은 석곽을 만들고 들어가 좌정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를 한 후로 생사에 초연해지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된다. 이제 자신의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고 주변에도 관심과 주의를 돌려 몸과 마음이 병들고 지친 종복들을 위해 밥을 짓고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한다. 그러면서 "성인이 이런 상황이라면 달리 무슨 도리가 있을까?" 하고 자문한다. 바로 공자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자문하게 된 것이다. 이는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자기 성찰인데, 이를 통하여 공자처럼 행동할 수 있다면 내가 공자가 되는 것임을 깨달은 것이다. 「연보」의 표현을 빌리면, "성인은 누구나 될 수 있고 각 개인에게 달렸다."라는 깨달음이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양명은 용장오도를 통하여 "성인은 누구나 될 수 있고 각 개인에게 달렸다."라고 하여 진리는 내 안에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명대의 정치문화를 고려했을 때 송대의 득군행도가 아니라

각민행도를 통한 새로운 사회 질서의 창출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 한정길은 용장오도를 분석하면서 인심진체라는 측면에서 각민행도를 도출하기 때문에 논조가 명확하지 않고 두루뭉술하다는 인상을 준다. 총론의 방향이 아무리 정확하더라도 각론에서 허점이 보인다면 총론의 우아한 집은 조만간 붕괴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이제는 양명학의 기본 중 기본인 치양지를 논의해 보자. 양명학 하면 누구나 치양지가 양명학의 종지임을 모르지 않는다. 그런데 치양지를 구체적으로 논하면 금방 혼란에 빠진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엄정하게 말하면 주자학과 양명학의 교판의 문제가 내재하기 때문이다. 즉 주자학적인 시각에서 치양지를 이해하는 방법과 양명학적인 시각에서 치양지를 이해하는 방식이 모두 허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병삼의 「왕양명 치양지 공부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주자의 성본체론과 대비하여－」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선병삼은 조선시대 최고의 양명학자 정제두의 스승이자 동국18현의 한 명인 박세채의 치양지 이해를 소개하면서 논문을 시작한다. 박세채는 "양지만을 말한 것[單指]은 종지(宗旨)의 의리를 세우는 것이니 이른바 상근인(上根人)을 위해 가르침을 수립한 것이요, 치양지를 말한 것[兼論]은 『대학』의 치지를 말한 것이니 이른바 중근(中根) 이하의 사람을 위해 가르침을 수립한 것이다"라고 한다. 무슨 말이냐? 양지는 본체이고 치양지는 공부라는 도식을 가지고, 상근인은 청수(淸粹) 한 기질을 타고났기 때문에 왕양명이 양지 본체를 말하고, 중근 이하의 일반인들은 형기와 인욕의 장애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치양지 공부를 말한 것이라는 이해다.

이에 대해 선병삼은 박세채의 이해 방식은 주자학적 도식이라면 충

분히 타당하지만 양명학의 공부론 도식으로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다. 왜냐하면 양지 본체가 치양지 공부를 주재하기 때문이다. 바로 치양지 공부는 양지대로 하는 공부로서, 상근인도 양지대로 하고 중근 이하도 양지대로 상근인과 중근 이하 사람의 구분이 없기 때문이다.

선병삼의 설명을 계속 들어보자. "양명의 치양지설을 본체와 공부의 입장에서 분석하면, 양지 본체와 치양지 공부로 세분할 수 있다. 통상적 이해에 근거하면 본체는 원래의 체단(體段, 상태)이고 공부는 원래의 상태를 회복하는 수양이다. 마찬가지로 양지 본체는 원래의 상태이고 치양지 공부는 원래의 상태를 회복하는 수양이다. 따라서 양지만을 말하고 치양지를 논하지 않는다면 공부에 무익하고 공부를 버리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해가 치양지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다. 상식적으로 충분히 납득이 간다. 그러나 만약 양지가 치양지 공부를 주재한다는 것을 무시하고 단지 이렇게만 말한다면 이는 치양지의 본지에서 위배된다. 방금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양명이 말한 치양지의 본의는 양지 본체는 원래의 상태이고 치양지 공부는 양지 본체의 주재(명령)에 근거하여 원래의 상태를 회복하는 수양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주자학과 양명학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주자의 성본체는 공부의 근거가 되지만 공부를 직접적으로 주재하지는 않으며, 양명의 양지본체는 공부의 근거가 되면서 공부를 직접적으로 주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자의 도식을 가지고 양명학의 공부론을 평가하면, 양명학은 공부를 방치했다는 비판과 상근기의 소수만이 가능한 공부론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 왜냐하면 주자학에서 본연지성은 공부의 선천적 근거가 되기는 하지만 현실에서 그 성은 여전히 기질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부하는 사람은 남이

한 번 하면 나는 백 번 하고 남이 열 번 하면 나는 천 번 하는 각고의 공부를 해야 비로소 본래의 본체를 회복할 수 있다. 바로 심즉리(心卽理)가 아니고 심여리일(心與理一)이다. 이것이 주자 공부론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이제 양명후학으로 넘어가 보자. 먼저 이탁오에 대한 상보적인 두 편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김혜경의 「이탁오의 예 사상」과 신현승의 「감성철학으로서 양명학에 대한 일고찰 – 이탁오 사상을 중심으로–」이다. 신현승의 논문은 근현대 연구자들이 이탁오 사상에 주목한 근대성의 요소들에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했다면 김혜경의 논문은 기존의 연구 관점과 결을 달리하여 이탁오 사상 안에서 예를 중시한 측면을 밝혀낸다.

신현승의 논문은 이탁오에 대한 기존의 연구 관점을 충실히 따라간다. 바로 "사실 이 논고에서 다룬 양명학 좌파에 속하는 이탁오의 사상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정주학적 이성으로서의 天理는 매우 도덕적이며 권력적이었다. 그렇기에 그의 시야에 들어온 기존의 정주학적 진리관과 절대 로고스로서의 천리는 인욕, 사욕과 같은 감성을 철저히 배제하는 억압적 기재로 보였을 것이다. 이탁오는 그와 같은 정주학적 이성이 지배하던 사회에서 양명학 좌파의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욕망과 감성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하게 되고, 부정적으로 유학사에서 낙인찍힌 욕망의 잔재들을 끄집어낸다. 그 가운데 욕망하는 주체로서 개체 혹은 사사로움(私)의 발견을 시작으로 감성적 인욕에 대한 적극적 긍정을 강조한다. 또 개체의 자각을 일으키는 원동력으로서 어린아이의 마음, 즉 순수한 童心을 자기철학의 전면에 내세우게 된다. 순수하

면서도 이성적으로 불완전한 동심에서 출발하여 과다한 욕망이 아닌 적절한 욕망의 분출과 일상에서의 순박한 감정은 다름 아닌 정주학에서 제창하는 천리를 대체하는 새로운 '존인욕적 천리'였다. 아니 그보다는 이성적 천리를 감성적 인욕으로 재발견했다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숭고한 유교적 진리와 이치는 이성적 천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순수감성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명대 말기라는 사회국가적 혼란과 자본주의 상업경제의 본격적 시작점에서 이탁오는 분출하는 인간의 욕망을 목격하고, 그에 따른 철학적 답안으로서 순수감성으로서의 동심설과 욕망 긍정의 철학을 주창한 것이다."

한편 김혜경은 신현승이 소개한 이탁오에 대한 전형적인 이해 방식에서 살짝 벗어나 이탁오의 다른 면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바로 "탁오가 제기한 '천만 사람이 각자의 욕망을 달성하는'(各遂千萬人之欲) 대동의 세계는 그 높은 목표나 기대치 때문에 그다지 실현 가능한 이상은 아니었다. 체제 전환이 능사인 근대적 사유의 각도에서 보더라도 그것은 쉽게 수용될 성질이 아니었으니, 이렇게 보면 탁오는 체제를 전환시키거나 적어도 개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는 인사였다. …… 그가 살았던 사회는 근현대 서구와는 달리 개성이나 양심의 자유를 권리로 간주하는 곳이 아니었다. 탁오처럼 치열하게 사유한 이라도 개인적 자유나 서구식 민주주의를 보장한다는 사고 등은 애당초 가능하지 않은 시절이었다. 따라서 시공간과 역사적 맥락의 차이를 무시한 채 작금의 기준으로 탁오를 논한다거나 기존의 전통과 동떨어진 사유방식을 그에게 요구하는 것은 흡사 그가 자신의 시대를 대상으로 자유와 민주를 논하는 것만큼이나 오활한 경우일 것이다. 이탁오 예 사상의

의미는 가치의 기원을 설명하고 유토피아적 색채를 띠는 이상세계의 묘사에서 찾아야 하지 그 구체적 실현 여부를 놓고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예를 전통적 격식이 아닌 다른 각도에서 고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는 예라는 개념을 통해 유가의 본질과 특징을 보다 명확히 보여준다. 개개인은 공자가 제시한 '종심소욕불유구'를 도덕적 목표로 삼도록 유도했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능력과 개성을 활짝 펼칠 수 있는 '지인지치(至人之治)'의 대동 세상을 염원하게 만든다. 결국 가장 근원적인 차원에서 유학을 논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미 변질된 시대는 그를 이단아라고 낙인찍는 퇴행으로 내닫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누구보다 진보적이지만 그렇다고 전통에서 벗어난 인물도 아니었던 탁오는 당대 사상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으로서만 자신의 소임을 다한 인물이 되었다. …… 위정자든 누구든 스스로의 도덕적 수준을 높여야 대동이 펼쳐진다고 했던 탁오의 예론에서 취할 바는 명확하다. 그는 사회적 질서를 생성하고 유지시키는 데 무엇이 가장 긴요한 바인지를 지금도 빛바래지 않은 언어로 분명하게 일깨웠다. 그래서 흡사 오래된 미래를 꿈꾸듯 탁오의 예 사상은 현실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하는 동시에 해답까지 담고 있는 흔치 않은 경우라고 결론짓게 되는 것이다."

신현승은 감성이라는 코드를 통해 이탁오를 독해하려고 하고 김혜경은 예교라는 코드를 가지고 이탁오를 해석하려고 한다. 이탁오는 명교(名教) 곧 예교(禮教)의 파괴자라는 죄목을 뒤집어 쓴 채 감옥에서 자신의 생을 스스로 마감했던 비운의 인물이지만 근대 학자들은 시대를 앞서간 선구자로 이탁오를 소환했다. 신현승은 근대적 코드를 감성으로 풀어내고자 하고 김혜경은 이탁오가 허문 명교가 무엇인지 진상을

살펴보라고 주의를 환기시킨다.

마지막으로 양명후학 중 가장 논쟁적인 인물인 한 명인 왕용계에 대해서 살펴보자. 왕용계는 이른바 양명좌파의 종주라고 할 수 있다. 이탁오는 왕용계를 추숭하여 성인이라고까지 평했다. 왕용계 양지학을 황종희는「명유학안」에서 현성양지설과 선천정심지학을 중심으로 논했다. 이 현성양시설과 선천정심지학을 관통하는 주제 중 하나가 신앙양지이다. 신앙양지라는 말은 양지를 믿는다는 것으로 양지학의 종교적 특성을 보여준다. 서강휘는 신부이면서 양명후학 전공자이다. 그의 눈에 왕용계의 신앙양지는 남달리 보였을 것이 분명하다. 서강휘는 〈왕용계의 "양지신앙" 해석 - 칼 야스퍼스의 철학적 신앙을 매개로-〉에서 이렇게 말하다. "본 논문은 용계의 신앙양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칼 야스퍼스의 '철학적 신앙'을 매개로 해석해보려고 한다. 야스퍼스의 표현을 빌자면 '신앙한다'는 것은 '무엇'을 신앙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신앙하는 '주체'의 행위를 포괄한다. 즉 주체와 객체의 포괄적 현실 안에 사는 것이 바로 넓은 의미의 신앙이라고 야스퍼스는 말한다. 이러한 포괄적 현실 안에 살 때 주체는 현존재나 의식, 정신에 함몰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이 되는 실존적 결단을 할 수 있게 된다. 용계의 다양한 언설들은 양지에 대한 신앙이 이러한 포괄적 현실 안에 사는 것, 다시 말해 실존으로 사는 것을 지시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용계 사상의 모든 명제들은 신앙양지로 귀결된다고까지 말할 수 있겠다."

무슨 말인가? 서강휘는 "철학적 신앙은 현존재나 의식, 정신이 제시하는 확실성이나 명증성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무제약적인 명령에 따른 자유로운 결단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소유될 수 없는 실존이 초월자에 관계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대상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 것

이 아니며 그런 까닭에 실존과 초월자의 관계는 부동(浮動)하는 현존재로 현상한다."라고 한다. 왕용계 현성양지를 가지고 말하자면 "양지는 내 마음의 의식작용이다. 그런데 내 마음이 이 양지에 순종한다." 이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님과 유사한 작동원리를 갖는다. "내가 기도를 한다. 그런데 이 기도는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서강휘의 논문은 왕용계 신앙양지의 본질을 찾아가는데 중요한 핵심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4. 평가와 전망

총 26편의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로는 왕양명(양명학) 연구가 21편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물론 본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15년도부터(14년 발표 논문 기준) 왕양명에 대한 연구는 늘 수의를 차지했다. 그런데 17년도처럼 왕양명(양명학)에 대한 연구가 여전히 전체 비중에서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은 특이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학계에서 명청대 유학사 연구 중 가장 주목 받는 인물이 누구인지를 또 다시 보여준다. 한편 16년도에 비해 증가한 논문 편수의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이전에 다루지 않았던 연구가 새롭게 등장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바로 양명학 연구 편수가 15년도에 21편, 16년도 13편, 그리고 17년도에는 26편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에 힘입어 양명학 연구는 외연을 확대한 결과를 보인다.

명청대를 기준으로 선별한 26편의 논문 편수는 리포트를 작성하기 시작한 15년도 이래로 가장 많은 수량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명대 양명학(심학)에 국한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현재 한국 동양철학

계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군이 여전히 다양화 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하여 한국내 연구의 영역이 넓지 않다는 것을 알 수도 있거니와 연구자 층이 많지 않다는 것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

총 26편의 논문들 중에는 편수가 늘어난 것처럼 주제도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문제의식이 있는 논문들이 있지만 눈에 띄는 수작은 보이지 않는다. 그 중 한 편을 꼭 고르자면 서술이 친절하지 않고 논지 전개에서 허점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서강휘의 「왕용계의 "양지신앙" 해석 – 칼 야스퍼스의 철학적 신앙을 매개로–」를 왕용계 신앙양지의 선천정심지학을 이해하는데 참고할 만한 논문으로 추천하고 싶다.

제4장

근대 중국 유학 연구

김현우

1. 머리말

본 장에서는 2017년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정보서비스(RISS)에서 검색이 가능한 KCI 등재지의 근대 중국 유학 관련 논문을 중심으로 이 분야의 연구 경향을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확인한 연구 성과는 25편이다. 크게 나누어 보면, 강유위(康有爲), 양계초(梁啓超), 량수밍[梁漱溟], 쟝칭[蔣慶], 리저허우[李澤厚] 및 시진핑[習近平] 등 인물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전통 유학을 현대 중국 또는 일본과 연결시키는 연구도 있었다. 그중 예년과 달리 근대 일본 유학에 대한 연구도 다수 발표되었다. 근대 일본 유학에 대한 연구는 이전에도 간간히 연구되었지만 연구의 질과 수에서 다소 미진하였다. 하지만 2017년에는 다양한 관점에서 일본 유학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세부 학문 분야를 보면, 철학분야의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사학과 문학 연구도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진행되었다. 그밖에 종교와 사회학 분야에서 연구도 있었다.

현재 한국에서의 근대 중국 유학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다. 첫째는 현재 중국의 과도한 유학 열풍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다. 중국몽(中国梦)으로 대변되는 현재 중국의 유학 열풍은 학술적 측면보다는 정부의 사회운영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듯 목적지향적인 유학 열풍은 문화 패권의 양상으로 변모하면서 한국이나 일본 유학의 독자성을 훼손시키는 연구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근현대 중국 유학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는 중국의 일부 문화 패권적 사고를 정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둘째는 근대 문명과 전통 유학 간의 절충점 제시이다. 이것은 비단 근대 중국 유학만의 문제

는 아니고 동아시아 유학 전반에 걸친 문제이다. 특히 전통적으로 중국 유교가 동아시아 유교의 대표성을 띠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와 정리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로의 진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김교빈 한국철학회 회장은 근대 동아시아 유학 연구의 특징을 '전통과 현대에 대한 깊은 학문적 이해가 수반되는 작업'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근대 유학 연구가 현대 사회에 대한 인문학적 문제의식과 동시에 전통 유학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함께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좋던 싫던 중국의 유학열로 인해 동아시아에서 유학은 다시 부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의 근대 중국 연구는 어떤 방향으로 수행되었는지 검토하고 성찰하는 작업은 우리시대에 부합하는 유학 구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2. 인물별 분류

전년도에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연구한 중국 근대 유학자는 역시 강유위(康有爲)와 양계초(梁啓超)이다. 하지만 새로운 전년과 달리 쟝칭[蔣慶]과 시진핑[習近平]이 새로운 연구대상으로 떠올랐다. 다음은 강유위, 양계초 관련 연구 목록이다.

분야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문학	곽노봉	강유위의 광예주쌍즙과 변사상	서예학연구 30	한국서예학회
문학	남덕현	梁溪超 思想을 통해서 본 한국 근대 군교육 사상	동양고전연구 66	동양고전학회

분야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문학	엄귀덕	양계초의 "시계혁명"론 연구	인문학연구 109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사학	이춘복	戊戌變法시기 康有爲의 議會制度설립 構想과 立憲사상	동양사학연구 139	동양사학회
사학	이춘복	무술시기 『公車上書』에 나타난 강유위의 下院설립 구상	중국근현대사연구 73	중국근현대사학회
철학	황종원	양계초의 격의서양철학에 관한 연구	유학연구 40	충남대 유학연구소
사회학	김현주	강유위 대동사상의 사상적 함의와 중국적 사회주의의 현대화의 연관성	중국학 60	대한중국학회
종교	임부연	캉유웨이(康有爲)의 공자신성화 논리	종교와문화 32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강유위와 양계초에 대한 연구는 총 8편으로 문학, 사학, 철학 이외에도 사회학과 종교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두 사상가들은 현재 중국에서 전통 유학과 근현대 사회주의를 이어주는 교량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미 중국에서는 이 두 사상가를 통해 전통 유학과 중국특색 사회주의와의 공존을 주장하는 다수의 연구가 발표되었고 또 지속적으로 연구 중에 있다. 추가로 양계초는 한자로 梁啓超라고 쓴다. 그런데 남덕현 연구의 제목에서는 啓를 溪로 쓰는 오류를 범하였다. 철저하지 못한 논자뿐만 아니라, 학술지 심사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타 연구 대상 인물로는 량수밍, 리쩌허우, 장칭 및 시진핑 등이 있다.

분야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문학	김창규	梁漱溟의 향촌건설 운동과 주체성 문제	중국근현대사연구 75	중국근현대사학회

분야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철학	정병석	李澤厚的情本體論與儒家哲學	유교문화연구 27	성균관 유교문화연구소
철학	정종모	현대신유학 내부의 충돌과 분열	유학연구 39	충남대 유학연구소
철학	조남호	蔣慶의 양명학 이해에 대한 비판	동양철학 48	한국동양철학회
철학	방호범	습근평의 "용전(用典)" 중 전통유학관 연구	退溪學論叢 29	퇴계학부산연구원

량수밍은 전통에 기반하여 서구 문명의 수용을 주장한 대표적인 중국의 근대지식인이다. 이 연구에서는 량수밍의 "향촌건설운동에서 주체성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주체성을 탈근대의 대안으로 모색하였다. 하지만 주체성을 강조하다 보면 특수성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다. 비록 량수밍이 무너진 전통 체계의 수립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해도 개인보다는 사회와 국가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현대가 추구하는 보편적 민주주의와는 다르다고 하겠다.

리쩌허우는 현대 중국의 대표적인 전통 철학자이다. 대표적인 주장으로는 실용이성(實用理性)이 있다. 실용이성이란 동아시아 유교의 합리성을 현대 가치로 재해석한 용어이다. 리쩌허우는 이 실용이성이 형이상학을 지향하는 서구와는 다르며 현실에서의 강한 합리성을 띠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병석의 연구에서는 리쩌허우 학설 중 잘 알려지지 않은 정본체론과 유가철학에 대해 논술하였다.

정종모와 조남호는 모두 장칭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장칭은 '유교헌정론'을 구상한 현대 중국을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정치가이다. 그의 유학관은 현재 대륙에서 진행되는 유학열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21세기 대륙의 유교철학자들은 서구 문명에 강한 거부감을 지녔다. 이는 서구 문명과 전통 문화를 동등하게 바라본 대만 또는 홍콩의 신유

가들과는 사뭇 다르다. 이 두 편의 쟝칭 연구들과 시진핑 연구가 가리키는 것은 결국 중국 신유학의 선택이다. 그것은 현대 중국의 국가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다. 대만의 리밍후이[李明輝]가 '현재 중국의 유학이 도덕심성의 확충과는 거리가 먼 국가적 가치를 생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듯이, 중국 유학이 순학(荀學)이나 심지어는 법가(法家)를 지향하는 것은 아닌지 분석해봐야 할 것이다.

이외에 일본 유학자인 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正直]의 계몽사상에 대한 연구도 게재되었다.

분야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사학	이새봄	경천애인설에 나타난 나카무라 마사나오의 사상적 전환	일본비평 16	서울대 일본연구소

나카무라는 유학정신에 기초한 교육자였지만, 이후 영국으로 유학을 다녀온 후에 일본의 계몽사상가로 전환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나카무라의 근대 개혁 계몽을 유학적 근거인 경천애인을 중심으로 밝혔다.

근대 중국 및 동아시아 유학연구의 인물들은 근대에서 현대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유학의 재구성을 모색하는 현대 중국과도 관련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현대 중국의 학술적 유행에 동조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중국의 시각과는 달리 중국의 근대 인물들과 그 사상에 대한 논리적이고도 객관적인 학술 태도가 필요하다.

3. 주제별 분류

전년도 연구들에서 가장 많이 다룬 주제는 동아시아 유교 전통의 현대적 재구성이다. 이것은 다시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첫째는 근대 시기 동아시아의 역사적 사건이나 사상을 분석하고 현대적 가치를 찾는 시도이다. 둘째는 전통 유학을 현대 사상이나 제도와의 비교 분석이다. 전자에 해당하는 연구는 다음과 같다.

분야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사학	뇌가성	戊戌政變前夜"合邦策"的再思考	중국학연구 111	중국사학회
사학	이춘복	변법운동시기 개혁파의 의회제도개설과 立憲君主制 논의	역사교육 144	역사교육연구회
철학	조경란	중국공산당 통치의 정당성과 '유교 중국'의 재구축-1	철학 132	한국철학회
사학	이새봄	자유민권운동 발흥을 향한 메이지유학자의 시선	동북아역사논총 57	동북아역사재단
사학	윤상수	전후 일본의 송명유학연구에 대하여	한국학연구 47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뇌가성과 이춘복의 연구는 변법운동기 중국의 근대 개혁에 대한 고찰이다. 변법운동의 핵심은 의회제라는 서구식 정치제도의 도입을 통한 권력분점이었다. 일본과 달리 중국에서는 권력분점이 국가분열로 인식되었다. 그것은 당시 청은 주류 민족이 아닌 이민족 즉 만주족 정권이자 동시에 다민족국가였기 때문이다. 즉 의회제는 극심한 국가 분열을 초래한다는 것이 당시 청 권력층의 생각이었다. 이 두 논문은 이러한 당시 서구 정치체제의 도입 과정에서 도출된 사고의 파편을 모아 동아시아 전통과 근대 문명과의 관계를 재해석하였다. 조경란은 현대

중국의 유학열을 '유교중국'이라는 용어로 재해석하였다. 이 연구는 다음 장에서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겠다.

이새봄과 윤상수는 일본의 근대화 과정을 해석하는 두 논문을 발표했다. 이새봄은 메이지시대의 유학자들에게 비친 서구의 자유민권사상을 분석하였고, 윤상수는 전후 일본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송명유학 연구를 통해 일본의 동양학 전공자들이 바라본 중국관을 추론하였다.

한편 전통 유학을 현대 사조와 직접 대비시킨 연구는 다음과 같다.

분야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철학	김준	동아시아 儒家지식인의 종교인식과 대동사상	한국학연구 47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철학	김준	근대 동아시아 유가지식인의 이상향과 공동체 인식	아세아연구 60-3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철학	양일모	근대중국의 민주개념	중국지식네트워크 9	국민대 중국지식네트워크
철학	나종석	유교문화와 일본근대성에 대한 고찰	헤겔연구 42	한국헤겔학회

김준과 양일모의 논문들은 근대 시기에 나타난 유교와 서구 문명을 직접 비교한 연구이다. 김준은 동아시아 유교지식인의 유교관을 이상향(또는 종교의식)과 공동체(또는 대동사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유교의 대표적인 이상향은 『예기』「예운」편에 나오는 대동(大同)과 소강(小康)이 있다. 이 두 구절은 현재까지도 서구 문명화를 해석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양일모는 근대 중화민국에서 서구 민주주의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유학의 사상적 배경에 주목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통 유교와 서구 민주주의간 절충점인 군민공주(君民共主)와 군민공치(君民共治)를 분석하였다.

나종석은 서양철학의 입장에서 전통 유학과 서구 문명과의 접점을

주로 현대 한국의 관점에서 해석해 왔다. 하지만 이 연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패턴을 근대 일본에 적용시켰다. 특히 일본의 근대화가 유학 더 정확히는 성리학의 배경에서 가능했다는 논증은 동아시아에서 1840년 이후 약 180년간 진행된 서구 문명화의 과정에서 유학의 역할과도 이어지는 주장이다.

이외의 연구로는 이상호와 정종모의 연구가 있다.

분야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철학	이상호	대동사회 변법인가 수양인가	국학연구 32	한국국학진흥원
철학	정종모	유가 도통관을 둘러싼 철학과 역사학의 대립	한국학연구 47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이상호는 근대 중국과 한국의 공교운동을 비교하였다. 이 연구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정종모의 논문은 1949년 이후 대만 유학사 중 우종산[牟宗三]의 철학 계열과 치앤무[錢穆]의 사학 계열의 갈등 양상을 분석한 연구이다. 정종모는 대만 유학에서 우종산은 1951년 「문화선언」을 통해 양명학을, 치앤무 사후 그의 문인들은 1991년 『전목과 신유가』에서 주자학을 중심으로 도통론을 주장했다고 적고 있다. 이는 대만신유가를 양명학 중심으로 이해하는 현재 한국의 대만 유학 인식을 보완하는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다.

4.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이 장에서는 조경란, 이상호 그리고 남덕현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분야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철학	조경란	중국공산당 통치의 정당성과 '유교 중국'의 재구축-1	철학 132	한국철학회
철학	이상호	대동사회 변법인가 수양인가	국학연구 32	한국국학진흥원
문학	남덕현	梁溪超 思想을 통해서 본 한국 근대 군교육 사상	동양고전연구 66	동양고전학회

조경란은 현대 중국의 유학열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시진핑(習近平) 정부 들어 주목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유교사상이 그 어느 때보다 실제적 통치이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2013년 제시된 시진핑의 '중국의 꿈'(中國夢)을 대륙신유학자들은 '유교중국' 정책의 천명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사실 이 정책이 나오기 전부터 기존의 마르크스의 자리에 유교가 대신 들어설 것이라는 예측은 존재했다. 한 유명 외국인 교수가 CCP가 20년 내에 또 다른 CCP가 될 것이라고 유머섞인 예측을 한 적이 있다. 중국공산당(Chinese Communist Party)이 20년 내에 중국공자당(Chinese Confucianist Party)이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또 어떤 중국인 유명 학자는 중국의 지식계는 앞으로 유가좌파, 유가우파, 유가마오파, 유가자유주의파 등으로 사상분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적이 있다. 이 발언들은 앞으로 중국에서 마르크스주의는 통제를 위한 제도로만 남게 될 뿐이며 유가사상이 다시 실제적 통치이념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을 시사한다.(2)

조경란은 현대 중국 철학을 연구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연구자이다. 조경란은 이전 몇 편의 연구에서 21세기 경제발전을 축으로 한 중국이 전통에 눈을 돌리는 것에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조경란, 「현대 중국의 보수주의 문화」, 『중국근현대사연구』40, 중국근현대사학회, 2008) 하지만 조경란은 이 연구에서 시진핑의 중국에서 유학이 중요한 국가원리로 작동되는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조경란은 전통 유학이 지향하는 원리에 주목했다. 그것은 자기수양이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유학은 자기수양 또는 자기절제가 아닌 국가주의에 부합하는 유교만능이었다.

> 중국의 주류학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최근의 학문 현상 중 대일통 제국을 중심으로 현대중국을 재구축하려는 커다란 흐름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물론 이 담론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 '중국몽'이 출현한 이후 더욱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중국정부와의 교감이 저변에 깔려 있다. 중국몽을 전환점으로 하여 이제 지식인들은 아무 눈치를 보지 않고 완전히 탈서구의 방향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유학을 긍정하는 甘陽같은 학자조차도 대륙신유가들을 향해 유교만능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유교의 자기절제의 측면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가 되었다.(22)

이러한 지적에는 현재 진행 중인 중국 유학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포함되어 있다. 중국의 유학연구는 강한 국가주의의 목적을 가지고 있

어서 학술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되었다. 중국과의 학술교류에서 나온 많은 연구들이 중국 유학의 입장에서 한일의 유학을 오해하고 있거나, 중국 정부의 유학관을 소개하는데 일관하고 있다. 일례로 2017년 여름에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 한중인문학포럼[韩中人文学论坛]에서는 『동아시아 시각으로 본 유학과 사회주의』을 발표한 우총칭[吴重庆]은 특별한 예시없이 "박은식 등의 근대 한국 유학이 중국 유학에 영향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한국어 번역본에는 박은식의 『몽배금태조(夢拜金太祖)』를 '몽배김태조'로 오역하기도 했다.[1] 이러한 다소 무리한 연구들은 유학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려는 정책에서 나온 역기능들이다.

조경란은 이 논문을 통해 중국의 국가주의 유학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중국이 긴 호흡을 가지고 유교 전통을 통해 공존과 공영의 동아시아 창안을 촉구하였다.

이상호는 이 논문에서 20세기 초 중국과 한국에서 발생한 유교 종교화 운동을 강유위와 이승희(李承熙)의 비교를 통해 연구하였다. 그들은 모두 대동사회를 유교의 모토로 삼았다.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인류는 늘 유토피아를 꿈꾸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지

1 2018년 11월 17일과 18일에 평가가 참가한 남경포럼[南京论坛]에서도 유사한 경우가 발생했다. 평자는 이 포럼에서 대만의 황준지에[黃俊杰], 황리셩[黃丽生] 등 연구를 토대로 '박은식이 양계초 『덕육감』의 영향을 받아 양명학으로 전환했다.'(朴殷植借鑒梁啓超『德育鑒』, 入足陽明學)는 기술의 오류를 지적했다. 아직 한일강제합병이 일어나기 전인 1900년대에 박은식이 양계초의 문헌을 본 것은 확실하나, 『덕육감』에 대한 기록은 없고, 나아가 박은식의 양명학 입문이 양계초의 영향이라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기 때문이다.

만, 방법은 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는 이상사회에 대한 개념이 달라서일 수도 있고, 그것에 도달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입장 차이일 수도 있다. 서세동점이라는 혼란기를 살았던 강유위와 이승희는 대동이라는 동일한 이상사회를 꿈꾸었지만, 그것을 이루는 방법과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이 논문은 이 두 사상가의 대동에 대한 생각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확인해 봄으로써, 그 차이가 만들어지고 있는 지점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이상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능케 하는 동시에,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사람들의 다양한 입장들을 살펴보는 것이기도 하다.(238)

즉 강유위와 이승희의 대동사상은 중국과 한국이라는 문화적, 역사적, 정치적 배경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상호는 강유위의 대동사상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강유위는 대동사회로 향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국경 없이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일"을 든다. 인간이 세상에서 느끼는 괴로움의 출발이 '국가'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중략)
국가의 탄생은 전쟁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결국 무수한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는 일로 귀결되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는 "국가란 인간이 만든 단체의 시초이므로 반드시 부득이한 것이지만, 산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는 거대함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 문명국일수록 전쟁으로 인한 참화는 더욱 극렬했다."24라고 하면서 "아아 슬프고 참혹하도다, 국가의 경계가 있음이여!"라고 한

탄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고통, 다시 말해 산 사람에게 주는 가장 큰 피해의 원흉은 바로 국가 사이에 있는 경계 때문이라는 인식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그는 국경이 없는 "공의정부公議政府 설립이 대동의 시작"이라고 말했다.(252)

이와 같은 강유위의 국가관은 근대 중국의 불행했던 역사에서 출발한다. 서구는 근대 국가 제도를 통해 중국의 인민들을 수탈했으며, 심지어는 자기들끼리 전쟁을 벌여 1차대전이라는 인류의 참살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강유위에게 국가는 대동사회로 이행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하지만 조국이 식민지로 전락한 이승희에게 유학과 국가는 다른 양상이었다.

이승희는 예를 통한 평천하의 단계를 대동으로 설정하고 있다. 수신과 제가齊家을 거쳐 치국, 평천하로의 이행이 대동사회를 향해 가는 길인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개인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을 예로 실현하는 수신 단계를 가장 먼저 설정한다. 이승희는 이러한 도덕적 개인의 완성을 미루어 가(家)와 국(國), 그리고 천하에 미치게 되면 대동사회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즉 내적 완성인 인과 그것의 드러난 행동 양식인 예가 갖추어진 개인이 만들어 내는 가(家)와 국(國), 그리고 평천하가 바로 대동인 것이다.(263)

이승희 대동사회는 개인의 수양을 통한 심의 평정을 지향한다. 이

경우 강유위와는 달리 국가라 할지라도 긍정적인 것이 될 수 있었다. 강유위가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대동으로 갈 수 있다고 여겼다면, 이승희는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의 심 속에서 대동이 구현된다고 보았다. 즉 강유위는 객관을 지향한 반면, 이승희는 주관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은 이와 같은 결론으로 끝난다. 이승희와 공교회에 대한 연구가 적은 현실에서 이 논문은 근대 한중 유학의 차이를 잘 정리한 연구이다. 이 연구를 토대로 이승희와 공교운동에 대한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다음은 남덕현의 연구이다. 이 논문은 이미 앞에서 梁啓超를 梁溪超로 쓸 만큼 치밀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남덕현은 여기에서 대한제국 말기 군대의 체육이 양계초의 사상에 온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그가 근거로 인용한『대한자강회월보』의 양계초 저술의 번역은 1907년 1월에 발표된 것이다. 1907년은 정미조약으로 군대가 해산되는 때로 그해 바로 양계초으 체육사상이 군으로 도입되었다고 보기는 기간이 너무도 짧다. 동시에 일본 통감부의 통제를 받던 시기에 군대 역시 일본의 사조가 주류를 이루었을 것이라 유추되는데, 이를 반박할만한 논증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양계초는 국력을 민지, 민력, 민덕의 셋으로 보았다. 하지만 당대 한국의 개혁적 유교지식인들은 민력이나 민덕보다는 민지를 중시 여겼다. 그것은 일본과 같이 서구 문명을 수입하여 근대적 국가로의 이행을 추구했기 때문이다.[2]

---

2 김현우,「《황성신문》의 실학 인식」,『인문학연구』52,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6. 199면 주19) 참조 바람.

한편 군대와 양계초 사상과의 관계는 다음의 몇 구절에 국한되어 있다.

> 이렇듯 구한말 시기에는 체육을 통한 강건한 민족 양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 중심에 군대 체조가 있었다. 이미 1895년 고종황제의 敎育立國詔書 반포와 아울러 1896년 육군무관학교 설립에서 체조가 도입된 사실은 우리의 체육이 군 체육인 체조와 같은 맥락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299)

그런데 양계초의 전적은 대부분 1898년 무술정변으로 인한 일본 망명이후에 작성된 것이다. 또 이 전적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유통된 것도 일본에서 발간된 『음빙실문집』이 대한제국으로 들어온 1905년 이후이다. 그러므로 1895년이나 1896년의 우리 문서에서 양계초를 찾는다는 것은 시간상으로 맞지 않다.

특히 이런 결론은 심각한 오류를 지니고 있다.

더욱이 한일병합 이후 민족학자들은 양계초 상무정신이 바탕이 된 체육으로 강한 민족 양성에 힘을 쏟았고 그 중심에 군 체육인 체조를 강조하여 학교체육의 중심으로 성장시켰다.

박은식은 국가의 무력을 강조하면서 그 근거로 이순신, 김유신을 들고 있다. 그는 『몽배금태조』, 『한국통사』 등에서 우리 민족은 원래 전투민족이라고 규정하였다. 심지어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서는 우리 민족의 강인함이 청산리전투의 승리로 이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즉 박은식에게 상무정신은 우리민족의 정체성을 되찾는 작업의 산물이었

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근대 상무정신이 양계초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주장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5. 평가와 전망

2017년은 여러 가지로 한국의 근대 중국 유학 연구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었던 시기이다. "중국몽"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유학열이 점점 학술 패권으로 변해갔기 때문이다. 긴 호흡에서 보면 이 역시 한 시대의 흐름이라고 간단히 볼 수 있지만, 그 여파로 인해 우리의 학술 전통이 훼손된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학술교류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 대만 그리고 베트남 등으로 연구 지역을 확대해 가는 것도 필요하다. 그동안 한국 유학계에서는 근대 일본의 동양철학 연구 성과를 자주 인용했지만 오히려 일본 유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런 관행을 벗어나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일본 유학에 대한 보다 진전된 연구가 발표되기를 기대한다. 대만 유학 역시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현재 우리나라 유학계의 2~3세대 연구자 중에는 대만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자들이 많다. 또 대만의 유학은 우종삼, 쉬푸관[徐復觀], 탕쥔이[唐君毅] 등을 중심으로 대만신유학이라는 학파를 형성할 정도로 현대적으로 재구성되어 있고, 관련 연구 성과도 중국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대만과의 다양한 학술교류는 중국 중심의 국가유교에 탈피하고 신유학의 근본정신인 맹학(孟學)의 자기 수양을 통한 동아시아 공존과 공영에 이바지할 것이다. 한편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유학과도 교류가 추진되어야 한다. 이미 베트남 유학은

다양한 경로로 한국에 소개되었다. 베트남은 자체 유교 자산이 남아 있는 거의 유일한 동남아 국가이다. 때문에 한국과 베트남의 공통분모로써 유학의 역할이 기대된다.

중국의 유학국가 의도는 유학의 국제화를 촉진하였다. 특히 중국은 유학을 중국중심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이 시기에 한국 유학은 중국의 도전을 학술적으로 극복하여 고유의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동시에 공존과 공영의 동아시아를 구상하는데 좀 더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2부 한국유학

제5장

한국 성리학 연구

배제성 등

1. 머리말

본 보고서는 2017년도 한국에서 발표된 유교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한 것이다.[1] 검토 범위는 2017년도 한 해 동안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발표된 한국성리학 관련 학술지 논문(129편), 박사학위논문(6편), 그리고 단행본 학술서적(14편)으로 총 149편이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연구 현황의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물별, 주제별로 연구 동향을 살펴본 다음, 몇 편의 주요 논문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였다.[2]. 동일한 논문이 복수(複數)의 인물이나 주제에 관련될 경우에는 관련된 목록 모두에 중복하여 포함시켰다.

2. 인물별 분류

인물별 분류에서는 퇴계 이황(李滉, 退溪 1501~1570)에 관한 논문이 41편(전년도 기준 43편)으로 가장 많았고, 율곡 이이(李珥, 栗谷 1536-1584)에 대한 논문이 20편(전년도 기준 22편)으로 뒤를 이었다. 퇴계와 율곡에 대한 논문은 전체 편수가 61개로 전년(2016, 65편)과 거의 동일하였고, 비율 면에서 전체 검색 논문의 대략 절반(약 45%)을 차지하여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퇴계와 율곡이 높

1 이 보고서는 대표저자 배제성 외에 부지훈 유한성 오진솔 이원준 이창규 등 5인이 함께 자료조사, 토론, 협의 등을 통하여 집필한 것임.

2 단행본 학술서의 경우 주제별 분류의 한 항목을 통해 따로 검토하였고, 여타의 인물별/주제별 분류의 목록 및 통계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은 비율을 차지하고, 다시 퇴계가 율곡에 비해 약 2배에 이르는 편수로 크게 앞서는 경향은 2014년도 이래의 동향 분석에서 일관되고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고봉 기대승(8편), 한주 이진상(6편), 다산 정약용(6편),[3] 남당 한원진(5편), 간재 전우(4편) 등에 대한 논문이 많은 편이었다. 이들에 대한 논문은 2015년 이래[4] 지속적으로 비교적 많은 양이 발표되어 왔지만, 이진상의 경우 전년도(2편)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외암 이간(3편)에 대한 논문은 작년과 같은 양이 발표되었다. 반면, 우담 정시한에 대한 연구는 2016년에 6편이 발표되어 상당히 많았던 데 비해 올해에는 1편의 적은 수에 그쳤다. 또 2016년에는 정조(正祖)에 대한 논문이 특징적으로 많았던 데(5편) 비해 2017년에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역사적 측면에서 정조에 주목한 연구는 여전히 많았으나, 전년도와 달리 성리학이나 철학을 중심으로 접근한 연구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농암 김창협에 대한 연구(1편) 역시 전년인 2016년(3편)에 비해 감소한 모습이었다.

1) 퇴계 이황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가타오카 류	공시적 관점에서 본 이퇴계의‘ 리발(理発)’ · ‘리동(理動)’ · ‘리도(理到)’」	퇴계학논집 21	영남퇴계학연구원
2	강경현	천명(天命)에 대한 조선유학의 주목과 퇴계(退溪)해석의 철학사적 의의	퇴계학논집 20	영남퇴계학연구원

3 다산에 대한 연구는 성리학과 유관성이 강한 내용으로 한정되었다.

4 2014년 이래의 한국 유교 레포트 집계 내용을 참조한 것이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3	강경현	퇴계이황의 리(理)에 대한 해석의 갈래 – "리동(理動) · 리발(理發) · 리도(理到)"이해를중심으로 –	태동고전연구 39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4	강보승	退溪와 陽明의 修養論비교를 통한 朝鮮朝 陽明學의 未擴散원인고찰	유교사상문화연구 68	한국유교학회
5	고승환	퇴계의 「心無體用辯」에 대한 분석 – 形과 象개념을 중심으로–	퇴계학논집 21	영남퇴계학연구원
6	古賀崇雅	退溪學が傳えるもの』(WhattheScholarshipofLiTuiXiTellsUs	퇴계학논총 30	퇴계학부산연구원
7	김기현	주자학의 관점에서 본 퇴계의 미발론(未發論)	대동철학 78	대동철학회
8	김낙진	退溪李滉이 생각한 공동체의 원리와 실현방법	퇴계학논집 21	영남퇴계학연구원
9	김민재	퇴계의 경의 관점에서 바라본2015도덕과 교육과정의 '도덕함':『성학십도(聖學十圖)』를 중심으로	퇴계학논집 20	영남퇴계학연구원
10	김봉진	삼원사고와 퇴계의 사단칠정론	퇴계학논집 21	영남퇴계학연구원
11	김성실	퇴계인성론의 토대로서 리발(理發)에 관한 일고찰	퇴계학논집 21	영남퇴계학연구원
12	김세정	퇴계이황 철학사상의 생태론적 특성	퇴계학논집 21	영남퇴계학연구원
13	김종성	행동조절에 대한 성리학과 뇌과학이론의 현상학적 상통성과 의학적함의–퇴계심학(心學)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39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4	김태오	퇴계시교의 오래된 미래로서의 교육적 가치	교육철학 64	한국교육철학회
15	김형찬	도덕감정과 도덕본성의 관계:퇴계의 문제의식에 대한 검토	민족문화연구 7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6	김회숙	『성학십도』에 내재된 인성교육 연구	윤리교육연구 43	한국윤리교육학회
17	등경평	황간(黃幹)사상에 대한 퇴계의 이해와 수용	퇴계학보 141	퇴계학연구원
18	林月惠	臺灣李退溪研究的特點以及關於「理動 – 理發 – 理到」的理解	퇴계학논집 21	영남퇴계학연구원
19	문석윤	『퇴계선생문집(退溪先生文集)』에서 『정본(定本) 퇴계전서(退溪全書)』까지	한국사상사학 55	한국사상사학회
20	박광수	퇴계(退溪)이황(李滉)의 경(敬)사상과 평화실천과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73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21	서근식	퇴계이황(退溪李滉)의 「천명도설(天命圖說)」과 사단칠정논쟁(四端七情論爭)의 시작	한국철학논집 55	한국철학사연구회
22	성해준	퇴계의 왜구대책과 화친유화(和親宥和)의 대일관	퇴계학논총 30	퇴계학부산연구원
23	손오규	퇴계시(退溪詩)의 공간인식(空間認識)과 산수관(山水觀)	퇴계학논총 30	퇴계학부산연구원
24	신태수	退溪『陶山雜詠』에 나타난 興趣生活과 生態論理	퇴계학논집 21	영남퇴계학연구원
25	엄찬호	퇴계의 경사상과 『활인심방』에서의 마음치유	인문과학연구 53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6	王國良	李退溪的道德倫理觀念與現當代精神文明	퇴계학논총 30	퇴계학부산연구원
27	윤천근	퇴계 이황의 '감성철학' – '청량산'의 장소성을 중심으로	퇴계학보 141	퇴계학연구원
28	이상익	주자(朱子)심통성정론(心統性情論)의 양면성과 퇴(退) · 율(栗)성리학(性理學)	영남학 62	영남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9	이원진	키에르케고어와 퇴계(退溪)가 본 심병(心病)과 그 극복 – '순간(Øieblik)'과'경(敬)'을 중심으로–	퇴계학논집 20	영남퇴계학연구원
30	이정화	퇴계시(退溪詩)에 나타난 학주자(學朱子) 정신(精神)연구(研究)	퇴계학논총 29	퇴계학부산연구원
31	李貞和	退溪詩를 통해 본 '學問'의 의미	퇴계학논집 21	영남퇴계학연구원
32	이치억	대동사회(大同社會)의 철학적 기초로서 퇴계(退溪) 주리철학(主理哲學)	유학연구 38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33	장승구	퇴계심학과 정신주의 철학	철학연구 142	대한철학회
34	전세영	퇴계의 질병에 대한 고찰	퇴계학논총 30	퇴계학부산연구원
35	정원재	「논사단칠정제삼서(論四端七情第三書)」의 재구성	퇴계학보 142	퇴계학연구원
36	조남욱	이퇴계의 인생철학과 그 현대적 수용	퇴계학논총 30	퇴계학부산연구원
37	추제협	이황과 김인후의 「천명도」개정과 인간학의 정립	영남학 60	영남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38	추제협	장재의 「서명」에 대한 이황의 독법, 구인지학(求仁之學) – 윤리적실천의 문제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40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39	황상희	퇴계사상의 종교성에 관하여	퇴계학보 141	퇴계학연구원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40	황상희	퇴계에서의 상제(上帝)와 이도설(理到說)에 관하여	퇴계학논집 21	영남퇴계학연구원
41	곽신환	전우의 이황 성리설에 대한 비판적 해석	유학연구 39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퇴계 이황에 관련된 연구는 41편으로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다. 목록을 살펴보면『퇴계학논집』, 퇴계학보, 퇴계학논총 등 퇴계를 주로 다루는 학술지들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가 다수 발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율곡에 대한 연구 또한『율곡학연구』를 통해 다수 발표되지만,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적고, 그 이외의 범위에 더 다양하게 분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편수가 많은 만큼 연구 주제의 다양성 또한 두드러진다. 사단칠정론이나 그의 철학적 문제의식 이외에도, 수양론, 현대의 교육적 적용, 다양한 방식의 철학적 재해석, 예술적 · 종교적 접근, 비교철학적 연구 등이 두루 포함되어 있다. 또한 2016년에는 경세론에 관한 연구가 발견되지 않았던 반면, 2017년에는 두 편(김낙진, 성해준)이 포함되었다.

2) 율곡 이이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상익	주자(朱子)심통성정론(心統性情論)의 양면성과 퇴(退) · 율(栗)성리학(性理學)	영남학 62	영남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	이상익	율곡의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에 대한 재검토	한국사상과 문화 90	한국사상문화학회
3	김낙진	우담(愚潭) 정시한(丁時翰)의『사칠변증(四七辨證)』과 심법(心法) – 퇴계학과 율곡학의 심법 비교	퇴계학보 141	퇴계학연구원
4	김경호	공중누각과 율곡 이이	양명학 46	한국양명학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5	김원희	율곡의 사회국가론	율곡학연구 35	(사)율곡연구원
6	김윤경	북한의 율곡 연구 – 반동적 관념론자에서 선진적 사상가로	율곡학연구 35	(사)율곡연구원
7	김인규	이이(李珥) 학문관의 수양론적 함의 –『성학집요(聖學輯要)』를 중심으로 –	온지논총 53	온지학회
8	김지은	율곡 도덕 감정론의 지각 기제 – 율곡의 '성의(誠意)'를 중심으로	율곡학연구 35	(사)율곡연구원
9	노인숙	『격몽요결(擊蒙要訣)』의 무실(務實)지향적 특색	율곡학연구 35	(사)율곡연구원
10	서원혁	율곡 이통기국의 영향 고찰 – 호락논쟁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85	한국동서철학회
11	안유경	율곡의 '心是氣'와 한주의 '心卽理'의 대비적 고찰	『동양철학』 47	한국동양철학회
12	안유경	율곡 이이와 남당 한원진 인심도심설의 대비적 고찰	『민족문화』 49	한국고전번역원
13	양방주	栗谷 李珥의 意 · 志思想 硏究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철학과
14	오철우	율곡의 성리학(性理學)과 선학(禪學)의 만남에 대한 소고(小考)	『한국사상과 문화』 90	한국사상문화학회
15	이영경	栗谷의 人性敎育論	유교사상문화연구 69	한국유교학회
16	이치억	기질의 문제로 본 퇴계와 율곡의 수양론	퇴계학논집 21	영남퇴계학연구원
17	정연수	율곡의 사상과 인성교육에 관한 반성적 고찰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와 학계의 선행연구 분석을 중심으로 –	유학연구 41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8	정연수	공부론의 관점에서 본 『성학집요(聖學輯要)』 수기편(修己篇)의 체계 –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율곡학연구 35	(사)율곡연구원
19	지준호	율곡 이이의 도덕교육론	유교사상문화연구 67	한국유교학회
20	최보경	'미발지중(未發之中)'에 대한 나흠순과 율곡의 이해	용봉인문논총 51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율곡에 관련된 논문의 수는 20편으로 퇴계와는 큰 차이를 보였지만, 여타의 다른 인물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았다. 2016년을 기준으로,

퇴계와 마찬가지로 율곡에 대한 연구도 심성 · 이기 · 수양론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로 나타나고 있지만, 경세론에 대한 연구가 훨씬 더 많은 편이었다(퇴계: 0%, 율곡 : 약 35%). 이에 비해, 2017년도의 율곡 연구 중 경세론에 관련된 논문은 2편으로 퇴계와 수적으로 동일하며, 전체 율곡 관련 논문 내에서 경세론의 비중(10%)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비율적으로는 퇴계 연구 중의 경세론 비율(약 5%)보다는 율곡의 비율(10%)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수양론 및 교육론에 대한 논문은 7편으로 전년도와 같았지만, 전체 수양론 및 교육론 논문 내에서의 비율은 다소 증가하였다.

3) 고봉 기대승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권인호	高峰 奇大升의 민본적 정치사상과 현실	동양철학 47	한국동양철학회
2	김경호	불온한 공감–존재의 사유, 너머–	한국철학논집 52	한국철학사연구회
3	김세정	양명심학과의 비교를 통해 본 기대승의 수양론	유학연구 38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4	도민재	高峯의 禮學思想 : 王室禮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동양철학 47	한국동양철학회
5	이기원	기대승의 경서 이해와 인간 : 본원지향적 인간관과 학문	동양철학 47	한국동양철학회
6	이동건	『논사록(論思錄)』을 통해 본 고봉(高峰)의 도학정신(道學精神)	퇴계학논집 20	영남퇴계학연구원
7	이정화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의 설리시(說理詩) 연구(硏究)	한국사상과 문화 88	한국사상문화학회
8	홍성민	高峰 奇大升의 四七論에서 中節의 의미	동양철학 47	한국동양철학회

고봉 기대승의 관한 논문이 8편 발표되었다. 기대승은 사칠 논변의 주체로서 그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활발히 연구되어 온 편이라 할 수

있다. 2016년도에도 기대승에 대한 논문은 6편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2017년도에 발표된 기대승에 대한 연구의 경향에서 전년도와는 차이가 있다. 2016년도에 발표된 기대승에 관한 6편의 논문 중 4편은 사칠논변에 관련된 내용이었다. 반면 2017년에는 사칠 논변에 관련된 논문은 1편(홍성민,「高峰 奇大升의 四七論에서 中節의 의미」)에 불과하고, 다른 논문들은 그의 정치사상(권인호,「高峰 奇大升의 민본적 정치사상과 현실」), 수양론(김세정,「양명심학과의 비교를 통해 본 기대승의 수양론」), 예학(도민재,「高峯의 禮學思想 : 王室禮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경학(이기원,「기대승의 경서 이해와 인간 : 본원지향적 인간관과 학문」), 시(詩)(이정화,「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의 설리시(說理詩) 연구(硏究)」) 등을 폭 넓게 다루고 있다. 이러한 경향이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4) 한주 이진상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윤경	19세기 조선성리학계의 양명학 비판 양상 – 이진상(李震相)과 전우(田愚)의 양명학(陽明學) 비판 비교를 중심으로 –	동양철학연구 92	동양철학연구회
2	이향준	심즉리(心卽理)의 출현 –「존재의 대연쇄」와「의인화」를 중심으로 –	율곡학연구 34	(사)율곡연구원
3	이원준	이도설(理到說)에 대한 견해를 통해 본 한주 이진상(寒洲 李震相)의 '리(理)' 개념	한국철학논집 53	한국철학사연구회
4	안유경	한주 이진상과 화서 이항로 사단칠정론의 대비적 고찰	영남학 63	영남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5	안유경	율곡의 '心是氣'와 한주의 '心卽理'의 대비적 고찰	동양철학 47	한국동양철학회
6	이종우	정약용과 이진상의 공칠정설 비교 – 이익의 영향과 관련하여 –	열상고전연구 56	열상고전연구회

한주 이진상에 대한 연구는 2015년 보고서에서는 6편이 포함되었으나, 2016년에는 2편으로 더 적은 수가 검색되었다. 2017년도에는 다시 6편의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연구들은 대체로 그의 심즉리설(이향준, 이원준, 안유경)이나 사단칠정설(안유경, 이종우)과 같은 중요한 이론적인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이항로와 같은 조선 후기의 주요 학자들과 이진상의 관련성이 연구되고 있다. 이는 조선 후기의 심설논변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연관이 있어 보이므로, 추후 관련 연구의 지속적인 확장이 기대된다.

5) 다산 정약용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노명수	다산과 주희의 '기질(氣質)'개념과 그 의미	유학연구 38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	박광철	다산의 심성론 연구 – 「心性總義」를 중심으로 –	퇴계학논집 21	영남퇴계학연구원
3	오수록	다산 정약용의 실천적 德論 考察	유교사상문화연구 69	한국유교학회
4	이애란	행사(行事)의 차원에서 바라본 다산의 권형(權衡)	유교사상문화연구 68	한국유교학회
5	이종우	다산 정약용의 사단칠정설 연구비판과 그것에 관한 원인분석	열상고전연구 58	열상고전연구회
6	이종우	정약용과 이진상의 공칠정설 비교 – 이익의 영향과 관련하여 –	열상고전연구 56	열상고전연구회

다산 정약용은 주요하게는 실학의 범주로 분류되지만, 심성론에 한정하여 몇 편의 논문을 목록에 포함시켰다. 성리학의 주요 개념 중 하나인 기질(氣質)을 중심으로 정약용과 주희를 비교한 논문이 있었고(노명수), 정약용의 심성론을 주제로 다룬 연구(박광철), 그리고 그의 사단

칠정설을 다룬 논문(이종우) 등이 있었다.

6) 남당 한원진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현우	남당 성삼층설의 논리체계와 근대적 인문정신	유학연구 40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	김문준	조선후기 인물성론의 인간학적 가치 – 한원진과 이간을 중심으로 –	동서철학연구 85	한국동서철학회
3	단윤진	남당 한원진의 도론(道論)연구 –『경의기문록(經義記聞錄)』「중용」을 중심으로 –	율곡학연구 34	(사)율곡연구원
4	안유경	율곡 이이와 남당 한원진 인심도심설의 대비적 고찰	민족문화 49	한국고전번역원
5	안유경	순암 안정복과 남당 한원진 사단칠정론의 대비적 고찰	유교사상문화연구 69	한국유교학회

한원진에 대한 연구는 2016년에도 8편으로 많았다. 호락논변의 미발 · 인물성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 경향도 일관되지만, 2017년에는 미발 문제에 집중한 논문은 발표되지 않았다. 김현우(「남당 성삼층설의 논리체계와 근대적 인문정신」), 김문준(「조선후기 인물성론의 인간학적 가치 – 한원진과 이간을 중심으로-」), 단윤진(「남당 한원진의 도론(道論)연구 –『경의기문록(經義記聞錄)』「중용」을 중심으로–」)의 연구는 인물성 문제를 다룬 연구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김현우는 인물성 논변 자체에 집중하기 보다는 근대적 인간관의 차원에서 그것이 가질 수 있는 의미에 집중하였고, 김문준은 논변의 실질적인 의미를 드러내는데 초점을 두었다. 단윤진은 「경의기문록」을 중심으로 남당의 인물성론이 가지는 이론적 의미와 기여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안유경은 두 편의 논문(「율곡 이이와 남당 한원진 인심도심설의 대비적 고찰」,

「순암 안정복과 남당 한원진 사단칠정론의 대비적 고찰」)에서 다른 학자와의 비교를 통해 한원진의 사단칠정 · 인심도심설의 특징을 드러내었다.

7) 간재 전우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곽신환	전우의 이황 성리설에 대한 비판적 해석	유학연구 39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	유지웅	간재 전우 성리설의 문제의식	퇴계학보 142	퇴계학연구원
3	유지웅	간재 전우는 왜 심본성(心本性), 성사심제(性師心弟)를 말하였는가?	유교사상문화연구 67	한국유교학회
4	김윤경	19세기 조선성리학계의 양명학 비판 양상 – 이진상(李震相)과 전우(田愚)의 양명학(陽明學) 비판 비교를 중심으로 –	동양철학연구92	동양철학연구회

간재 전우에 대한 연구 또한 2016(6편)년에 이어 비교적 많은 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조선 말기의 성리학자로서는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학자 중 하나이다. 곽신환은 이황 성리설에 대한 전우의 비판을 다룬 연구를 발표하였고, 유지웅은 전우의 심성론에 대한 두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김윤경은 이진상과 전우를 비교하여 양명학에 대한 조선 성리학계의 비판적 관점을 드러내었다. 앞서 언급한 이진상과 더불어, 전우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통해 조선 후기 성리학, 특히 심설논변에 대한 연구가 더욱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 기타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하나	외암(巍巖) 심성일치(心性一致)의 이론적 배경에 대한 구조적 해명	유학연구 38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	배제성	호락논쟁에서 명덕(明德)의 쟁점화 과정 연구 – 외암(巍巖) 이간(李柬)의 심(心)과 기질(氣質)의 분변(分辨)을 중심으로 –	한국철학논집 54	한국철학사연구회
3	김문준	조선후기 인물성론의 인간학적 가치 – 한원진과 이간을 중심으로 –	동서철학연구 85	한국동서철학회
4	이원석	이항로의 천주교 비판과 그 존재론적 기초	대동철학 79	대동철학회
5	안유경	한주 이진상과 화서 이항로 사단칠정론의 대비적 고찰	영남학 63	영남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6	추제협	이익의 격물설에 나타난 윤휴와 이만부의 사상적 영향	국학연구 33	한국국학진흥원
7	홍성민	李瀷과 愼後聃의 四七論에서 中節의 의미	철학연구 141	대한철학회
8	이영호	南軒學의 수용을 통해 본 寒岡學의 새로운 이해	대동한문학 50	대동한문학회
9	정병석	『心經發揮』를 통해 본 鄭逑의 心學	민족문화논총 66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0	박학래	旅軒張顯光의 學校敎育論과 그 道德敎育的 함의	동양고전연구 68	동양고전학회
11	안유경	여헌 장현광과 우암 송시열 사단칠정론의 비교 고찰	율곡학연구 35	(사)율곡연구원
12	김태윤	'허즉기(虛卽氣)'로 본 화담(花潭)의 사유구조 연구	율곡학연구 34	(사)율곡연구원
13	조성산	18세기 노론 지식인 양응수(楊應秀)의 화담학(花潭學) 인식	民族文化研究 77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14	방상근	17세기 조선의 예(禮) 질서의 재건(再建)과 송시열(宋時烈): 현종대(顯宗代) 예송 논쟁의 재해석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6(1)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이외에도 여러 인물들에 대한 연구가 있었지만, 여기에는 두 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된 경우를 위주로 수록하였다. 외암 이간에 대한 논문

이 3편 발표되었다. 한원진과 마찬가지로 호락논변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지만, 연구의 폭은 남당보다 더 좁아 보인다. 이는 전년도에서도 발견되는 경향이다. 하나는 남당과 외암의 논변 과정에 주목하면서 외암의 심성일치의 주장의 특징과 의미를 고찰하였고, 배제성은 조선 후기 명덕 논변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남당과 외암의 논쟁을 검토하였다. 화서 이항로에 대한 논문이 두 편 발표되었다. 둘 다 이항로 성리학의 이론적 측면에 주목하되, 이원석의 논문은 천주교에 대한 비판을, 안유경의 논문은 이진상의 사단칠정설과의 비교를 중심에 두었다. 이 밖에도 성호 이익, 한강 정구, 여헌 장현광, 우암 송시열에 대한 논문이 2편씩 발표되었다.

3. 주제별 분류

이기론과 심성론이 성리학 이론의 주요한 축을 이루는 만큼, 이에 관한 논문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기 · 심성론에 대한 논문은 총 56편으로 전체 논문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가지는 것은 수양론 및 교육론으로 총 25편(약 19%)이다. 그리고 경세론 관련 논문은 14편으로 약 10% 비율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의 논문들이 40편(약 30%)으로 심성론과 더불어 단일 범주로서는 가장 많은 편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성리학 관련 연구의 범위 자체가 다양하다는 점에서 기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리학을 연구하는 접근 방식과 방법론이 다변화되어가는 양상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고도 이

해할 수 있을 것이다.

1) 이기론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가타오카 류	공시적 관점에서 본 이퇴계의 '리발(理発)' · '리동(理動)' · '리도(理到)'	퇴계학논집 21	영남퇴계학연구원
2	강경현	천명(天命)에 대한 조선 유학의 주목과 퇴계(退溪) 해석의 철학사적 의의	퇴계학논집 20	영남퇴계학연구원
3	강경현	퇴계 이황의 리(理)에 대한 해석의 갈래 – "리동(理動) · 리발(理發) · 리도(理到)"이해를 중심으로 –	태동고전연구 39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4	김성실	퇴계 인성론의 토대로서 리발(理發)에 관한 일고찰	퇴계학논집 21	영남퇴계학연구원
5	김태윤	'허즉기(虛卽氣)'로 본 화담(花潭)의 사유구조 연구	율곡학연구 34	(사)율곡연구원
6	등경평	황간(黃幹)사상에 대한 퇴계의 이해와 수용	퇴계학보141	퇴계학연구원
7	林月惠	臺灣李退溪研究的特點以及關於「理動－理發－理到」的理解	퇴계학논집 21	영남퇴계학연구원
8	서원혁	율곡 이통기국의 영향 고찰 – 호락논쟁을 중심으로 –	동서철학연구 85	한국동서철학회
9	안유경	율곡의 '心是氣'와 한주의 '心卽理'의 대비적 고찰	동양철학 47	한국동양철학회
10	이원준	이도설(理到說)에 대한 견해를 통해 본 한주 이진상(寒洲 李震相)의 '리(理)' 개념	한국철학논집 53	한국철학사연구회
11	이천승	노사 기정진의 '卽氣觀理'에 기초한 理중시적 사유	유교사상문화연구 69	한국유교학회
12	이치억	대동사회(大同社會)의 철학적 기초로서 퇴계(退溪)주리철학(主理哲學)	유학연구 38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3	이향준	심즉리(心卽理)의 출현 –「존재의 대연쇄」와「의인화」를 중심으로 –	율곡학연구 34	(사)율곡연구원
14	조성산	18세기 노론 지식인 양응수(楊應秀)의 화담학(花潭學) 인식	민족문화연구 77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15	추제협	장재의「서명」에 대한 이황의 독법, 구인지학(求仁之學) – 윤리적 실천의 문제를 중심으로 –	유학연구 40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6	황상희	퇴계에서의 상제(上帝)와 이도설(理到說)에 관하여	퇴계학논집 21	영남퇴계학연구원

성리학에서 이기론과 심성론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이기론의 측면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는 이기론적 명제나 주장이 명확하게 부각되는 경우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발(理發)·이도(理到)·이동(理動) 등 이기론에 관한 중요한 화두를 제시한 퇴계 이황의 연구는 이기론 측면에서 단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기론에 대한 전체 16편의 논문 중 이황을 다룬 논문은 9편으로 56%에 이른다. 이는 전체 논문에서의 비율(31%)을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아울러 심즉리설을 주창한 한주 이진상(3편)의 연구가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그러한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가타오카 류(「공시적 관점에서 본 이퇴계의 '리발(理発)'·'리동(理動)'·'리도(理到)'」), 강경현(「퇴계 이황의 리(理)에 대한 해석의 갈래 – "리동(理動)·리발(理發)·리도(理到)"이해를 중심으로 – 」), 황상희(「퇴계에서의 상제(上帝)와 이도설(理到說)에 관하여」) 등은 퇴계철학의 제 명제를 그의 '理'에 대한 관념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추제협(「장재의 「서명」에 대한 이황의 독법, 구인지학(求仁之學) – 윤리적 실천의 문제를 중심으로-」)은 『西銘』 가운데 '민오동포(民吾同胞)'를 '이일분수(理一分殊)'로 해석한 정·주의 독법을 퇴계가 수용하였다는 점을 밝혔다. 안유경(「율곡의 '心是氣'와 한주의 '心卽理'의 대비적 고찰」)은 율곡과 한주의 '心'에 대한 이기론적 정의를 비교분석한 논문을 발

표하였다. 이원준(「이도설(理到說)에 대한 견해를 통해 본 한주 이진상(寒洲 李震相)의 '리(理)' 개념」)은 한주의 간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이에 근거해서 퇴계의 이도설(理到說)과 물격설(物格說)에 대한 한주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 점이 그의 심즉리설(心卽理說)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검토했다. 서원혁(「율곡 이통기국의 영향 고찰-호락논쟁을 중심으로-」)은 율곡의 이통기국의 명제를 중심으로 호락논쟁과의 연관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처럼 이기론에서는 '이도'나 '심즉리', '이통기국' 등의 명제를 중심 축으로 삼아 연구를 진행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향준(「심즉리(心卽理)의 출현 –「존재의 대연쇄」와「의인화」를 중심으로–」) 또한 '심즉리'라는 명제에 주목하였지만, 접근 방식에는 차별성이 있다. 그는 그동안 '은유', '상징' 등의 의미와 역할에 주목하는 방법론으로 사단칠정논변, 호락논변 등의 내용을 재해석해 왔는데, 그 범위가 조선 후기의 한주 이진상에게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성산은 낙론 계열 학자인 백수 양응수의 화담학 인식을 통해 본연지기(本然之氣)를 강조한 낙론계 사이에서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음을 밝혔다. 이치억은 퇴계의 철학을 대동사회라는 기조와 연관시켜 설명하려고 했다. 그는 주리(主理)라는 표현이 다카하시 도루의 주리/주기 구분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하며 리(理)를 강조했다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김태윤(「'허즉기(虛卽氣)'로 본 화담(花潭)의 사유구조 연구」)은 서경덕이 주자학의 소이연(所以然)을 통해 구체적인 현상 세계를 설명하는 방식에 한계를 느끼고 장재의 기론(氣論), 즉 허즉기(虛卽氣)를 차용하여 본체와 현상의 관계를 설명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이천승(「노사 기정진의 '卽氣觀理'에 기초한 理 중시적 사유」)은

노사 기정진의 성리학설에서 강조한 리(理)의 함의가 결과적으로 기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즉 노사가 강조한 리 중시란 결국 기에 대한 통제력 강화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임월혜(臺灣李退溪研究的特點以及關於「理動 – 理發 – 理到」的理解)는 퇴계 이황에 대한 대만 학술계의 연구사와 연구 경향을 정리하였다. 주로 모종삼의 관점을 바탕으로 리(理)의 능동성을 중심으로 탐구해 온 연구 경향을 소개하고, 이후 한국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연구의 방향을 더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등경평의 논문(「황간(黃幹)사상에 대한 퇴계의 이해와 수용」)은 퇴계가 면재 사상의 영향을 받아 이기호발(理氣互發)의 관점을 형성하였고, 특히 '극(極)'을 구체적 사물에 빗대어 해석하고자 했던 면재의 유비적 방식이 퇴계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2) 심성론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고승환	퇴계의 「心無體用辯」에 대한 분석 – 形과 象개념을 중심으로 –	퇴계학논집 21	영남퇴계학연구원
2	곽신환	전우의 이황 성리설에 대한 비판적 해석	유학연구 39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3	김기현	주자학의 관점에서 본 퇴계의 미발론(未發論)	『대동철학』 78	대동철학회
4	김낙진	우담(愚潭) 정시한(丁時翰)의 『사칠변증(四七辨證)』과 심법(心法) – 퇴계학과 율곡학의 심법 비교	퇴계학보 141	퇴계학연구원
5	김문준	조선후기 인물성론의 인간학적 가치 – 한원진과 이간을 중심으로 –	동서철학연구 85	한국동서철학회
6	김봉진	삼원사고와 퇴계의 사단칠정론	퇴계학논집 21	영남퇴계학연구원
7	김승영	여호 박필주의 성리설에 관한 연구	동서철학연구 86	한국동서철학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8	김지은	율곡 도덕 감정론의 지각 기제 – 율곡의 '성의(誠意)'를 중심으로	율곡학연구 35	(사)율곡연구원
9	김현우	남당 성삼층설의 논리체계와 근대적 인문정신	유학연구 40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0	김형찬	도덕감정과 도덕본성의 관계: 퇴계의 문제의식에 대한 검토	민족문화연구 7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1	노명수	다산과 주희의 '기질(氣質)'개념과 그 의미	유학연구 38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2	단윤진	남당한원진의 도론(道論) 연구 –『경의기문록(經義記聞錄)』「중용」을 중심으로 –	율곡학연구 34	(사)율곡연구원
13	박광철	다산의 심성론 연구 –「心性總義」를 중심으로 –	퇴계학논집 21	영남퇴계학연구원
14	배제성	호락논쟁에서 명덕(明德)의 쟁점화 과정 연구 – 외암(巍巖) 이간(李柬)의 심(心)과 기질(氣質)의 분변(分辨)을 중심으로 –	한국철학논집 54	한국철학사연구회
15	서근식	퇴계 이황(退溪李滉)의 「천명도설(天命圖說)」과 사단칠정논쟁(四端七情論爭)의 시작	한국철학논집 55	한국철학사연구회
16	안유경	한주 이진상과 화서 이항로 사단칠정론의 대비적 고찰	영남학 63	영남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17	안유경	율곡 이이와 남당 한원진 인심도심설의 대비적 고찰	민족문화 49	한국고전번역원
18	안유경	여헌 장현광과 우암 송시열 사단칠정론의 비교 고찰	율곡학연구 35	(사)율곡연구원
19	안유경	순암 안정복과 남당 한원진 사단칠정론의 대비적 고찰	유교사상문화연구 69	한국유교학회
20	양방주	栗谷 李珥의 意 · 志思想 硏究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대학원 : 철학과
21	오수록	다산 정약용의 실천적 德論 考察	유교사상문화연구 69	한국유교학회
22	유지웅	기호학파 낙론계 명덕설 – 왜 심인가? –	유학연구 39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3	유지웅	고산(鼓山) 임헌회(任憲晦)의 심론 – 기호낙론에 유의하여 –	유학연구 40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4	유지웅	간재 전우 성리설의 문제의식	퇴계학보 142	퇴계학연구원
25	유지웅	간재 전우는 왜 심본성(心本性), 성사심제(性師心弟)를 말하였는가?	유교사상문화연구 67	한국유교학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26	이상익	율곡의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에 대한 재검토	한국사상과 문화 90	한국사상문화학회
27	이상익	주자(朱子) 심통성정론(心統性情論)의 양면성과 퇴(退) · 율(栗)성리학(性理學)	영남학 62	영남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8	이선열	중화설의 전개와 율곡학파의 미발인식	율곡학연구 35	(사)율곡연구원
29	이애란	행사(行事)의 차원에서 바라본 다산의 권형(權衡)	유교사상문화연구 68	한국유교학회
30	이종우	다산 정약용의 사단칠정설 연구비판과 그것에 관한 원인 분석	열상고전연구 58	열상고전연구회
31	이종우	정약용과 이진상의 공칠정설 비교 – 이익의 영향과 관련하여 –	열상고전연구 56	열상고전연구회
32	이창규	주희(朱熹) 지각론(知覺論)과의 비교를 통해 본 김창협 지각론	한국철학논집 52	한국철학사연구회
33	장승구	퇴계심학과 정신주의 철학	철학연구 142	대한철학회
34	정원재	「논사단칠정제삼서(論四端七情第三書)」의 재구성	퇴계학보 142	퇴계학연구원
35	최보경	'미발지중(未發之中)'에 대한 나흠순과 율곡의 이해	용봉인문논총 51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36	하나	외암(巍巖) 심성일치(心性一致)의 이론적 배경에 대한 구조적 해명	유학연구 38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37	허광호	주돈이와 권근의 천인합일사상 비교 – 『태극도설』과 『입학도설』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66	동양고전학회
38	홍성민	李瀷과 愼後聃의 四七論에서 中節의 의미	철학연구 141	대한철학회
39	홍성민	高峰 奇大升의 四七論에서 中節의 의미	동양철학 47	한국동양철학회
40	황상희	퇴계사상의 종교성에 관하여	퇴계학보 141	퇴계학연구원

심성론은 성리학 이론의 실질적인 중추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다양한 주제들이 포괄될 수 있다. 심성론에 포함된 논문은 총 40편으로 전체 논문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는 김지은(「율곡 도덕 감정론의 지각 기제 – 율곡의 '성의(誠意)'를 중심으로」)이나 김승영(「여호 박필주의 성리설에 관한 연구」), 박광철(「다산의 심성론 연구 –

「心性總義」를 중심으로-」) 등의 연구처럼 심성론 자체를 설명하는 것을 표방하는 연구도 있지만, 심성론을 토대로 사칠논변이나 호락논변과 구체적인 쟁점과 문제의식을 다루는 연구의 비중이 훨씬 더 높다.

심성론에 포함된 연구 중, 총 13편(김낙진, 김봉진, 서근식, 안유경 [4편], 이상익[「율곡의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에 대한 재검토」], 이종우 [2편], 정원재, 홍성민 [2편])의 논문이 사단칠정설, 혹은 인심도심설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김형찬(「도덕감정과 도덕본성의 관계: 퇴계의 문제의식에 대한 검토」)과 이상익(「주자(朱子) 심통성정론(心統性情論)의 양면성과 퇴(退)·율(栗)성리학(性理學)」)의 논문 또한 이에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다. 이 중 김낙진(「우담(愚潭) 정시한(丁時翰)의 『사칠변증(四七辨證)』과 심법(心法) – 퇴계학과 율곡학의 심법 비교)의 논문은 사칠론(四七論)의 주요 개념인 소종래(所從來)를 통한 이기분속(理氣分屬)의 구분이 어떤 의미인지를 원전을 바탕으로 서술하고, 아울러 이기론, 심성론, 수양론의 유기적 연결을 잘 드러내었다. 김봉진은 삼원 사고라는 관점에서 퇴계의 사칠론을 다루었다. 그는 성리학자들이 불리(不離)와 부잡(不雜)을 모두 염두에 둔 관점을 취했다는 점에 착안해서 다카하시 도루의 주리/주기 구분을 비판하였다. 서근식은 천명도설을 중심으로 사단칠정논변이 발생하게 된 시점의 경위와 양상을 검토하였다. 안유경은 이진상, 이항로, 이이, 한원진, 안정복, 장현광, 송시열 등의 사단칠정설과 인심도심설을 서로 비교·분석하는 논문을 4편 발표하였다. 이상익(「율곡의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에 대한 재검토」)은 율곡 인심도심설이 가지는 이론적인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종우는 정약용의 사단칠정설을 다루는 2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이진상과의 비교도 시

도하였다. 홍성민은 그동안 중절 개념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 2017년에도 각각 기대승과 이익 · 신후담을 중심으로 중절 개념을 분석한 2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김형찬(「도덕감정과 도덕본성의 관계: 퇴계의 문제의식에 대한 검토」)은 성리학의 구조적 틀에서 도덕감정과 도덕본성의 관계성을 기술한 후, 이것이 사단칠정논변에서 어떻게 기술되고 있으며, 이발(理發)에서 부딪친 이론적 난제가 이도(理到)를 통해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지 분석하고, 여기서 드러나는 퇴계의 목적의식이 무엇인지를 기술하고 있다.

호락 논변에 관련된 논문은 총 5편(김문준, 김현우, 단윤진, 배제성, 하나)이다. 이 논문들에 대해서는 위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유지웅이 발표한 4편의 논문(「기호학파 낙론계 명덕설 – 왜 심인가?–」, 「고산(鼓山) 임헌회(任憲晦)의 심론 – 기호 낙론에 유의하여–」, 「간재 전우 성리설의 문제의식」, 「간재 전우는 왜 심본성(心本性), 성사심제(性師心弟)를 말하였는가?」) 또한 호 · 락 중 낙론계의 심성론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유관성이 있는 연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김승영(「여호 박필주의 성리설에 관한 연구」)의 논문도 낙학계의 주요 학자 중 하나로 분류되는 여호 박필주에 대한 연구이므로 연관성이 있다. 추후 조선 후기 기호학과 호 · 락 학파의 철학과 사상에 대한 연구가 한층 더 심화 ·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발을 주제로 하는 연구도 3편 있었다. 김기현(「주자학의 관점에서 본 퇴계의 미발론(未發論)」)은 '퇴계의 미발론' 논쟁에서 촉발된 이래 10여 년 동안에 '미발' 관련 연구들이 복잡해지고 난해해진 현상을 지적하며, 주자학의 기본적인 관점에 기반한 정리를 시도하였다. 이선열(「중화설의 전개와 율곡학파의 미발인식」)의 논문은 박상현과 한원

진, 송시열과 이현익을 중심으로 율곡학파의 '중화설'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17~18세기 호-락의 분기 요인이 된 미발 개념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도출하고 있다. 최보경(「'미발지중(未發之中)'에 대한 나흠순과 율곡의 이해」)은 미발지중(未發之中)'에 대한 나흠순과 율곡의 해석을 통하여 두 학자의 수양론의 특성을 밝히고 있다. 한편, 이창규(「주희(朱熹) 지각론(知覺論)과의 비교를 통해 본 김창협 지각론」)는 주희의 지각론과 비교함으로써 주재의 기능을 중심으로 지각의 의미를 분명하게 규정한 김창협 지각론의 특징과 문제의식을 고찰하였다.

3) 수양론 및 교육론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민재	퇴계의 경의 관점에서 바라본 2015 도덕과교육과정의 '도덕함':『성학십도(聖學十圖)』를 중심으로	퇴계학논집 20	영남퇴계학연구원
2	김태오	퇴계시교의 오래된 미래로서의 교육적 가치	교육철학 64	한국교육철학회
3	김회숙	『성학십도』에 내재된 인성교육연구	윤리교육연구 43	한국윤리교육학회
4	박학래	旅軒張顯光의 學校教育論과 그 道德教育的 함의	동양고전연구 68	동양고전학회
5	이영경	栗谷의 人性教育論	유교사상문화연구 69	한국유교학회
6	정연수	율곡의 사상과 인성교육에 관한 반성적 고찰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와 학계의 선행연구 분석을 중심으로 –	유학연구 41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7	정연수	공부론의 관점에서 본 『성학집요(聖學輯要)』 수기편(修己篇)의 체계 –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율곡학연구 35	(사)율곡연구원
8	지준호	율곡 이이의 도덕교육론	유교사상문화연구 67	한국유교학회
9	강보승	退溪와 陽明의 修養論 비교를 통한 朝鮮朝陽明學의 未擴散 원인고찰	유교사상문화연구 68	한국유교학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0	강보승	정암 조광조의 공부론	한국철학논집 55	한국철학사연구회
11	古賀崇雅	退溪學が傳えるもの(WhattheScholarshipofLiTuiXiTellsUs)	퇴계학논총 30	퇴계학부산연구원
12	김세정	양명심학과의 비교를 통해 본 기대승의 수양론	유학연구 38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3	김승영	녹문 임성주 수양론의 체계와 특징	동서철학연구 83	한국동서철학회
14	김원준	격치를 통한 율곡 독서방법론의 확장	퇴계학논집 20	영남퇴계학연구원
15	김유곤	효경과 내칙 해석에 나타난 윤휴의 사친지학(事親之學)의 구조와 성격	유학연구 40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6	김인규	이이(李珥) 학문관의 수양론적 함의 – 『성학집요(聖學輯要)』를 중심으로 –	온지논총 53	온지학회
17	안유경	대산 이상정의 『敬齋箴集說』 속에 보이는 敬의 내용과 이론적 구조	온지논총 50	온지학회
18	엄찬호	퇴계의 경사상과 『활인심방』에서의 마음치유	인문과학연구 53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	이동건	『논사록(論思錄)』을 통해 본 고봉(高峰)의 도학정신(道學精神)	퇴계학논집 20	영남퇴계학연구원
20	이원진	키에르케고어와 퇴계(退溪)가 본 심병(心病)과 그 극복 – '순간(Øieblik)'과'경(敬)'을 중심으로 –	퇴계학논집 20	영남퇴계학연구원
21	李貞和	退溪詩를 통해 본 '學問'의 의미	퇴계학논집 21	영남퇴계학연구원
22	이치억	기질의 문제로 본 퇴계와 율곡의 수양론	퇴계학논집 21	영남퇴계학연구원
23	정병석	『心經發揮』를 통해 본 鄭逑의 心學	민족문화논총 66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4	한정길	마음수양에 관한 조선 유학자들의 성찰 보고서: 『국역 심경 주해총람』(상 · 하)	역사와실학 62	역사실학회
25	진보성	南冥 曺植의 수양과 실천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진대학교 대학원 : 철학과 동양철학전공

수양론과 교육론은, 전자가 성리학의 고유한 주제로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내용인데 비해 후자는 그것이 실제로 적용되는 다양한 맥락과 강하게 연관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현대의 교육론에 적용

될 때 이러한 차이는 더 분명해진다. 또 교육론으로 적용되는 성리학의 내용이 반드시 수양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후자는 전자의 응용이라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밀접한 연결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두 범주를 하나로 통합하여 검토하였다. 수양론 및 교육론 관련 논문은 총 25편이었다. 그 중에서도 수양론에 해당하는 것이 17편, 교육론에 해당하는 것이 8편이었다.

이 중에서 이황을 다룬 논문이 8편(32%), 이이를 다룬 논문이 7편(27%)으로 양자의 합이 전체의 절반을 초과했다. 물론 이런 비율은 매우 높은 것이지만 2016년도에 비해서는 오히려 작다. 2016년도 수양론 및 교육론에서 이황과 이이에 관한 논문의 비율은 무려 72%였고, 이황을 다룬 논문만으로도 절반을 넘겼다(52%). 이러한 변화는 이황 논문의 비중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이이의 경우 논문의 수는 전년도와 같았고, 비율적으로는 오히려 더 높아졌기(21%→27%) 때문이다. 이황 관련 논문이 2016년도에 비해 감소한 데는 이유가 있다. 2016년도에 영남퇴계학연구원에서 발행한 퇴계학논집 19집이 2016년 10월 22일 영남대학교에서 '퇴계학과 인성교육'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54회 퇴계학연구원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수양론 및 교육론에 관련된 이황 관련 논문의 비중이 2017년에 감소했다기 보다는, 2016년도에 증가했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이외에는 기대승에 대한 논문이 두 편(김세정, 「양명심학과의 비교를 통해 본 기대승의 수양론」, 이동건, 「『논사록(論思錄)』을 통해 본 고봉(高峰)의 도학정신(道學精神)」) 있었고, 장현광(박학래, 「旅軒 張顯光의 學校教育論과 그 道德教育的 함의」), 정구(정병석, 「『心經發揮』를 통해 본

鄭逑의 心學」), 임성주(김승영,「녹문 임성주 수양론의 체계와 특징」), 조광조(강보승,「정암 조광조의 공부론」), 조식(진보성,「南冥 曺植의 수양과 실천 연구」) 등을 다룬 논문이 한 편씩 있었다. 이처럼 이황과 이이를 중심으로 여타 몇 몇 학자들에 관한 논문이 한 편씩 발표된 상황은 2016년과 거의 유사하다.

내용적으로는 인성 · 도덕 교육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민재(「퇴계의 경의 관점에서 바라본 2015 도덕과교육과정의 '도덕함':『성학십도(聖學十圖)』를 중심으로」), 김회숙(「퇴계시교의 오래된 미래로서의 교육적가치」), 박학래(「旅軒張顯光의 學校教育論과 그 道德教育的 함의」), 이영경(「栗谷의 人性教育論」), 정연수(「율곡의 사상과 인성교육에 관한 반성적 고찰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와 학계의 선행연구 분석을 중심으로 - 」,「공부론의 관점에서 본『성학집요(聖學輯要)』수기편(修己篇)의 체계 -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지준호(「율곡 이이의 도덕교육론」) 등의 논문들이 있었다. 이 중에서 김민재와 정연수의 연구는 성리학 이론과 원전에 머무르지 않고 현행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면서 성리학 이론과의 연결점, 혹은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고 주목할 만하다. 교육은 성리학의 현대적 적용이나 재해석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이므로, 이런 문제의식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확장될 필요가 있다.

4) 경세론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권인호	高峰 奇大升의 민본적 정치사상과 현실	동양철학 47	한국동양철학회
2	김낙진	退溪李滉이 생각한 공동체의 원리와 실현 방법	퇴계학논집 21	영남퇴계학연구원
3	김승대	홍계희(洪啓禧) 경세론(經世論)의 재지적(在地的) 기반(基盤)	한국실학연구 33	한국실학학회
4	김원희	율곡의 사회국가론	율곡학연구 35	(사)율곡연구원
5	김준태	浦渚 趙翼의 性理學說과 經世論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동양철학과
6	김지은	19세기 定齋 柳致明의 현실인식과 경세론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사회교육학과
7	노인숙	『격몽요결(擊蒙要訣)』의 무실(務實) 지향적 특색	율곡학연구 35	(사)율곡연구원
8	방상근	17세기 조선의 예(禮) 질서의 재건(再建)과 송시열(宋時烈): 현종대(顯宗代) 예송논쟁의 재해석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6(1)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9	성해준	퇴계의 왜구대책과 화친유화(和親宥和)의 대일관	퇴계학논총 30	퇴계학부산연구원
10	이헌창	근세 실학의 선구자이자 실천자인 김육(金堉)(1580~1658)	한국실학연구 33	한국실학학회
11	정성희	"특집 1: 반계 유형원과 동아시아 초기 실학 : 磻溪 經世學의 계승과 과거제 개혁론"	한국실학연구 34	한국실학학회
12	최성환	영 · 정조대 채제공의 정치 생애와 정치 의리	한국실학연구 33	한국실학학회
13	한지희	명재明齋 윤증尹拯의 책선지도責善之道와 붕당 인식	국학연구 34	한국국학진흥원
14	함영대	만회(晩悔) 권득기(權得己)의 학술정신과 『맹자참의(孟子僭疑)』	한국사상사 55	한국사상사학회

2017년도에 발표된 경세론 관련 연구는 학술지 논문은 12편, 박사학위 논문은 2편으로 총 14편이었다. 이는 전년도의 25편에 비해서 많이 감소한 것이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2016년도에 경세론에 관련된 박

사학위논문이 5편으로 상당히 많았던 반면, 2017년에는 2편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기인했을 수 있다. 하지만 학술지 논문만 감안하더라도 전년도에 비해서 8편이 감소했다. 학술지 전체 논문을 인물별로 분류하면 이이에 대한 논문이 2편, 이황에 대한 논문이 2편이 있으며, 그 외에 기대승, 만회 권득기(晩悔 權得己, 1570~1622), 포저 조익(浦渚 趙翼, 1579~1655), 잠곡 김육(潛谷 金堉, 1580~1658), 송시열, 반계 유형원(磻溪 柳馨遠, 1622~1673), 명재 윤증(明齋 尹拯, 1629~1714), 담와 홍계희(澹窩 洪啓禧, 1703~1771), 번암 채제공(樊巖 蔡濟恭, 1720~1799), 정재 유치명(定齋 柳致明, 1777~1861)에 대한 논문이 각 1편씩 있다. 2016년 경세론 관련 전체 논문에서 율곡(8편)과 정조(4편)에 대한 논문이 많았던 사실과 비교해보면 어느 특정인물에 대한 연구가 더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조의 경우는 전년도에 철학적으로 특히 주목받음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관련 연구가 증가되었다가 다시 감소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경세론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던 율곡의 경우는 예년의 경향에 비해 분명히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전년도에는 경세론에 한 편도 포함되지 않았던 퇴계 연구가 올해에는 두 편 포함되었다. 물론 이런 비율은 퇴계 연구의 전체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약 5%)이며, 전체 수에서 퇴계의 절반 정도인 율곡은 여전히 퇴계에 비해 높은 경세론의 비중(약 10%)을 가진다. 그렇더라도 경세론 측면에서 율곡을 다룬 연구가 전에 비해 상당히 감소한 것은 특징적이다.

전체 논문을 시기별로 분류하면 16세기 활동한 인물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총 5편, 17세기가 총 6편, 18세기가 총 2편, 19세기 총 1편이다. 총 14편 중 시기적으로 18세기 이전을 다루는 논문이 11편으로 대부분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시기별 분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16세기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원희	율곡의 사회국가론	율곡학연구 35	사)율곡연구원
2	노인숙	『격몽요결(擊蒙要訣)』의 무실(務實) 지향적 특색	율곡학연구 35	(사)율곡연구원
3	김낙진	退溪 李滉이 생각한 공동체의 원리와 실현 방법	퇴계학논집 21	영남퇴계학연구원
4	성해준	퇴계의 왜구대책과 화친유화(和親宥和)의 대일관	퇴계학논총 30	퇴계학부산연구원
5	권인호	「高峰 奇大升의 민본적 정치사상과 현실」	동양철학 47	한국동양철학회

시기적으로 16세기를 다루고 있는 경세론 논문은 총 5편이다. 인물로는 이황, 기대승, 이이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사단칠정론에 관한 논변으로 많이 연구되는 학자들이다. 이이의 경우 2016년과 마찬가지로 『격몽요결』이 그의 경세론을 분석하는 텍스트로 다루어졌다. 다른 시기와 비교해 보면 인물이 한정적이며, 제도를 다루는 내용보다는 원론적인 담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2) 17세기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한지희	명재明齋 윤증尹拯의 책선지도責善之道와 붕당 인식	국학연구 34	한국국학진흥원
2	방상근	17세기 조선의 예(禮) 질서의 재건(再建)과 송시열(宋時烈): 현종대(顯宗代) 예송 논쟁의 재해석	한국동양사상사연구 16(1)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3	함영대	만회(晩悔) 권득기(權得己)의 학술정신과 『맹자참의(孟子僭疑)』	한국사상사학 55	한국사상사학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4	이헌창	근세 실학의 선구자이자 실천자인 김육(金堉)(1580~1658)	한국실학연구 33	한국실학학회
5	정성희	"특집 1: 반계 유형원과 동아시아 초기 실학 : 磻溪 經世學의 계승과 과거제 개혁론"	한국실학연구 34	한국실학학회
6	김준태	浦渚 趙翼의 性理學說과 經世論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17세기에 관한 논문은 총 6편이다. 17세기에 정치사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가졌던 윤증, 송시열, 김육, 조익 등을 다루는 논문이 많다. 다소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담론에 머물렀던 16세기 연구와 달리, 김육과 유형원을 다룬 논문에서는 각각 대동법과 과거제처럼 특정제도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들을 소개 · 분석하고 있다. 17세기가 대동법 정비와 같은 제도적인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3) 18세기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승대	홍계희(洪啓禧) 경세론(經世論)의 재지적(在地的) 기반(基盤)	한국실학연구 33	한국실학학회
2	최성환	영 · 정조대 채제공의 정치 생애와 정치의리	한국실학연구 33	한국실학학회

18세기로 분류할 수 있는 논문은 총 2편이다. 18세기를 다룬 논문은 다른 시대를 다룬 논문과 비교해 볼 때, 그 대상 인물(홍계희, 체제공)들이 18세기 정치 일선에 있었던 인사들이라는 점이 두드러진다. 그 내용 또한 성리학적 분석보다는 대상 인물의 생애나 성장 배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4) 19세기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지은	19세기 定齋 柳致明의 현실인식과 경세론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사회교육학과

5) 기타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경호	공중누각과 율곡이이	양명학 46	한국양명학회
2	김경호	불온한 공감 – 존재의 사유, 너머 –	한국철학논집 52	한국철학사연구회
3	김세정	퇴계 이황철학사상의 생태론적 특성	퇴계학논집 21	영남퇴계학연구원
4	김승영	철학적 비유와 상징 – 17세기 조선조 지식인의 사유모형과 통합적 세계관 연구 –	유학연구 39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5	김윤경	19세기 조선성리학계의 양명학 비판 양상 – 이진상(李震相)과 전우(田愚)의 양명학(陽明學) 비판 비교를 중심으로 –	동양철학연구 92	동양철학연구회
6	김윤경	북한의 율곡 연구 – 반동적 관념론자에서 선진적 사상가로	율곡학연구 35	(사)율곡연구원
7	김종성	행동조절에 대한 성리학과 뇌과학 이론의 현상학적 상통성과 의학적 함의 – 퇴계심학(心學)을 중심으로 –	유학연구 39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8	박광수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경(敬)사상과 평화실천 과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73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9	오철우	율곡의 성리학(性理學)과 선학(禪學)의 만남에 대한 소고(小考)	한국사상과 문화 90	한국사상문화학회
10	王國良	李退溪的道德倫理觀念與現當代精神文明	퇴계학논총 30	퇴계학부산연구원
11	윤천근	퇴계이황의 '감성철학' – '청량산'의 장소성을 중심으로	퇴계학보 141	퇴계학연구원
12	이기원	기대승의 경서 이해와 인간 : 본원지향적 인간관과 학문	동양철학 47	한국동양철학회
13	이영호	南軒學의 수용을 통해 본 寒岡學의 새로운 이해	대동한문학 50	대동한문학회
14	이원석	이항로의 천주교 비판과 그 존재론적기초	『대동철학』 79	대동철학회
15	전세영	퇴계의 질병에 대한 고찰	퇴계학논총 30	퇴계학부산연구원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6	정도원	양촌 권근의 역사의식과 주자학 이해	유교사상문화연구 68	한국유교학회
17	정성식	정포은과 정삼봉의 철학사상과 현실인식	퇴계학논총 29	퇴계학부산연구원
18	조남욱	이퇴계의 인생철학과 그 현대적 수용	퇴계학논총 30	퇴계학부산연구원
19	추제협	이익의 격물설에 나타난 윤휴와 이만부의 사상적 영향	국학연구 33	한국국학진흥원
20	황인옥	훈민정음에 반영된 의리학적 역학사상	유학연구 40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1	김세서리아	임윤지당의 『논어(論語)』 이해에 대한 여성철학적 성찰	한국여성철학 28	한국여성철학회
22	신재식	"일반 : 조선 후기 지식인의 李光地 수용과 비판"	한국실학연구 34	한국실학학회
23	엄연석	상촌 신흠의 역학에서 상수역과 의리역의 상보적 특성	동양철학 48	한국동양철학회
24	이대승	서명응 선천학의 스펙트럼과 초점	한국실학연구 33	한국실학학회
25	이상호	『초기 퇴계학파 제자들의 『심경부주心經附註』 이해와 퇴계학의 심학적 경향	국학연구 34	한국국학진흥원
26	추제협	이황과 김인후의 「천명도」개정과 인간학의 정립	영남학 60	영남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7	함영대	「퇴계 이황 이전의 맹자학 연구」	대동한문학 50	대동한문학회
28	문석윤	『퇴계선생문집(退溪先生文集)』에서 『정본(定本) 퇴계전서(退溪全書)』까지	한국사상사학 55	한국사상사학회
29	권성훈	포은 정몽주 시의 원형상징	포은학연구 19	포은학회
30	손오규	퇴계시(退溪詩)의 공간인식(空間認識)과 산수관(山水觀)	퇴계학논총 30	퇴계학부산연구원
31	신태수	退溪『陶山雜詠』에 나타난 興趣生活과 生態論理	퇴계학논집 21	영남퇴계학연구원
32	이정화	퇴계시(退溪詩)에 나타난 학 주자(學朱子)정신(精神)연구(研究)	퇴계학논총 29	퇴계학부산연구원
33	이정화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의 설리시(說理詩) 연구(研究)	한국사상과 문화 88	한국사상문화학회
34	임희숙	조선 중기 문인들의 회화관 연구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일반대학원 : 미술사학과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35	조병수	牧隱李穡天人無間思想의 美學的硏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유학과
36	김문준	김장생의 예학정신과 한국가정의 문화전통	한국사상과 문화 90	한국사상문화학회
37	김현수	16세기 후반 – 17세기 전반 栗谷學派의 家禮註釋書 연구	유교사상문화연구 69	한국유교학회
38	도민재	高峯의 禮學思想 : 王室禮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동양철학 47	한국동양철학회
39	박종천	간재艮齋 이덕홍(李德弘)의 예학(禮學)	국학연구 34	한국국학진흥원
40	이남옥	남계 박세채의 예론과 고금절충론적 특징	동양고전연구 68	동양고전학회

성리학 연구는 철학 · 역사 · 정치 · 문화 · 예술 등의 다양한 범위에 두루 걸쳐져 있어서 그 범위가 매우 넓다. 앞서 살펴본 이기론 · 심성론 · 수양론(및 교육론) · 경세론 등은 가장 전형적인 범주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성리학 연구의 전체 범위를 포괄하기도 어렵고, 또 특정 범주에 해당시키기에 애매한 경우도 많다. 그런 점에서, 이 기타의 범주에 포함된 연구들의 특징 역시 다양하다.

먼저, 전형적인 성리학 연구에 가깝지만 앞서의 범주에 정확히 소속시키기 어려워 기타 범주에 포함된 경우들이 있다. 정도원(「양촌 권근의 역사의식과 주자학 이해」), 추제협(「이익의 격물설에 나타난 윤휴와 이만부의 사상적영향」), 김윤경(「19세기 조선성리학계의 양명학 비판 양상 – 이진상(李震相)과 전우(田愚)의 양명학(陽明學) 비판 비교를 중심으로 – 」) 등의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경학적 · 문헌학적 · 사학적 성격이 강하면서도 철학적 성격이나 연관을 동시에 지니는 연구들이 있었다. 이상호(「『초기 퇴계학파 제자들의 『심경부주心經附註』 이해와 퇴계학의 심학적 경향」), 엄연석

(「상촌 신흠의 역학에서 상수역과 의리역의 상보적 특성」), 이대승(「서명응 선천학의 스펙트럼과 초점」), 문석윤(「『퇴계선생문집(退溪先生文集)』에서 『정본(定本) 퇴계전서(退溪全書)』까지」), 추제협(「이황과 김인후의 「천명도」개정과 인간학의 정립」), 이기원(「기대승의 경서 이해와 인간 : 본원지향적 인간관과 학문」) 등의 논문이 이에 해당한다.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한 철학적 분석을 시도하거나, 현대 철학의 쟁점이나 문제의식과의 연결점을 모색한 연구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김경호는 '은유'와 '상징'이라는 방법론을 기반으로, 성리학 문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독해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2017년에도 이러한 방식의 논문을 2편 발표하였다. 먼저, 「공중누각과 율곡 이이」라는 논문은 소옹의 기상을 형용하는 말인 '공중누각'이라는 말이 가진 다층적인 의미에 주목하면서 이것이 율곡 이이와 후학에게 인식된 양상을 검토하였다. 또 「불온한 공감 – 존재의 사유, 너머 – 」라는 논문에서는 기대승이 거론한 예시를 바탕으로, '불온성'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그의 사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김승영 또한 유사한 방법론을 시도한 논문(「철학적 비유와 상징 – 17세기 조선조 지식인의 사유모형과 통합적 세계관 연구 – 」)을 발표하였다. 김세정(「퇴계 이황철학사상의 생태론적 특성」)은 생태철학적 관점에 기반한 유교철학의 재해석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오고 있는데, 그 연장선에서 퇴계 철학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외에도 김종성(「행동조절에 대한 성리학과 뇌과학 이론의 현상학적 상통성과 의학적 함의 – 퇴계심학(心學)을 중심으로 – 」), 윤천근(「퇴계이황의 '감성철학' – '청량산'의 장소성을 중심으로」) 등이 다양한 시도를 통해 성리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

예술이나 미학과 관련된 연구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설리시(說理

詩)는 성리학의 직접적인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제이다. 시를 중심으로 퇴계, 혹은 기대승의 사상을 분석한 연구들이 4편(손오규, 신태수, 이정화 [2편]) 발표되었고, 회화관이나 미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성리학 사상과의 연관성을 탐구한 논문도 2편(임희숙, 조병수) 있었다.

이 밖에도 예학에 관련된 연구들이 5편 있었다. 그 중, 김문준(「김장생의 예학정신과 한국가정의 문화전통」)은 사계의 예학에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는 사계의 예학이 경전적 근거보다는 인정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을 특징으로 곱고 사계와 신독재 父子 간에 서로 이끌어주는 모습 자체가 모범 역할을 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김현수(「16세기 후반 – 17세기 전반 栗谷學派의 家禮註釋書 연구」)는 율곡학파의 『가례』 주석서를 분석했는데, 특히 구봉의 『가례주설』과 사계의 『가례집람』의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었다. 김현수는 구봉의 예학이 사계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정설처럼 받아들여지지만 구체적인 근거가 소략하다는 것에 주목했다. 그는 『가례』에 대한 두 학자의 주석서의 체계와 내용을 분석해서 구봉과 사계 예학 사이의 연관성을 찾아냈다. 도민재(「高峯의 禮學思想 : 王室禮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는 王室禮를 중심으로 고봉의 예학을 검토했다. 그는 『의례경전통해』를 강조하는 고봉의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그리고 宣祖의 친모 제사라고 하는 당시의 예학적인 논란을 배경으로 삼고 고봉의 입장을 밝혀서 고봉의 예학사상을 부각시켰다.

6) 단행본 학술서적

번호	저자	도서명	출판사
1	최영진	한국성리학의 발전과 심학적 · 실학적 변용	문사철
2	김종수	조선시대 유학자 불교와의 교섭 양상 (서강학술총서 105)	서강대학교출판부
3	서명석	퇴율공부법과 현대교육 비판	책인숲
4	정우락 외	한강 정구의 삶과 사상 – 조선 중기의 낙중학 (낙중학 총서 3)	계명대학교출판부
5	홍원식 외	여헌 장현광의 삶과 사상 – 조선 중기의 '낙중학' (낙중학 총서 4)	계명대학교출판부
6	안동대학교 부설 퇴계학연구소	퇴계학파의 사람들 – 16세기 인물들을 중심으로	예문서원
7	김인규	조선시대 유학자의 학문관	다운샘
8	최재목	방법 · 은유 · 기획의 사상사	지식과교양(지교)
9	최재목	하곡 정제두의 양명학 – 강화의 지성	지식과교양(지교)
10	(사)방촌황희선생 사상연구회	방촌 황희의 학문과 사상 (방촌학술총서 2)	책미래
11	최석기 외	갈천 임훈의 학문과 사상	보고사
12	이용주 외	조선 유학의 이단 비판 – 이학집변을 중심으로 (국학자료 심층연구 총서 10)	새물결
13	오구라 기조 (조성환 역)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 – 리(理)와 기(氣)로 해석한 한국 사회	모시는 사람들
14	남명학 연구원	개암 강익(남명학연구총서 10)	예문서원

2017년에 출판된 조선 성리학 관련 단행본 학술서적은 총 14권이었다. 최영진의 저서(『한국성리학의 발전과 심학적 · 실학적 변용』)는 여말선초의 조선 성리학 성립 시기부터 조선 후기의 실학 등을 아우르는 넓은 범위에서 성리학의 여러 주요 논제들에 대해 정치한 분석을 제시하며, 조선 성리학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을 '정감에 대한 중시'와 '리의 하향화(下向化) · 외화(外化)' 현상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김종

수(『조선시대 유학자 불교와의 교섭 양상』)는 여말선초부터 18세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김수온, 정여창, 임훈, 박세당, 박수검, 김이만 등의 인물들이 불교와 교섭한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 두 책은 2017년에 출간된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서명석의 『퇴율공부법과 현대교육 비판』은 현대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퇴계와 율곡의 철학과 교육방법론을 현재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강 정구의 삶과 사상－조선 중기의 낙중학』(정우락 외)과 『여헌 장현광의 삶과 사상－조선 중기의 '낙중학'』(홍원식 외)이 각각 낙중학 총서 3권과 4권으로 출간되었다. 김인규는 『조선시대 유학자의 학문관』을 통해 공자, 정몽주, 이이, 장현광, 안정복, 홍대용, 정조, 정약용, 김정희 등의 학문관을 제시하고 있다. 최재목은 은유의 방법에 기초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해 사상사 · 문화사적인 독해를 시도한 저서(『방법 · 은유 · 기획의 사상사』)와 양명학과 정제두에 대한 전반을 다루는 저서(『하곡 정제두의 양명학－강화의 지성』)를 발표하였다. 현대 한국 사회의 특징을 이기론(理氣論)을 중심으로 이해하고자 한 오구라 기조(조성환 역)의 저서가 번역 출간되었다.

4.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① 김현수는 「16세기 후반-17세기 전반 栗谷學派의 家禮註釋書 연구」에서 구봉의 『가례주설』과 사계의 『가례집람』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김현수는 구봉의 예학이 사계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에도 불구하고, 연관성에 대해 설명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부

족하다는 점에 집중했다. 이에 따라 『가례주설』과 『가례집람』의 체계와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구봉과 사계의 예학이 관계있다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검토하였다. 김현수는 "구봉왈"이라는 형식으로 사계가 구봉을 직접 인용한 부분은 물론이고 내용상의 유사성도 확인했다. 내용상의 유사성 확인은 자칫 침소봉대하게 될 위험이 있다. 하지만 김현수는 『가례』의 체계를 중심으로 두 주석서에서 인용한 항목의 일치 비율을 모두 조사해서, 두 주석서의 인용항목이 44% 일치함을 확인했다. 이러한 양적 조사가 몇몇 구절을 근거로 드는 것에 비해 더 높은 신빙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유사성 검토에 있어 유의미하다.

② 김낙진의 논문인 「우담(愚潭) 정시한(丁時翰)의 『사칠변증(四七辨證)』과 심법(心法) - 퇴계학과 율곡학의 심법 비교」는 성리학에서 이기론이 가지는 위상에 주목한다. 즉 리(理)와 기(氣)를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성(性)과 정(情)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이후 심법(心法)이라 불리는 공부 방법 또한 달라진다고 본다. 그러므로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 또한 단순히 리와 기의 배속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심법의 문제로 보자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때문에 그는 우담의 『사칠변증(四七辨證)』에서 왜 우담이 율곡이 아닌 퇴계를 옹호했는지를 心法을 통해 이해하고자 한다.

본문 첫 번째 목차에서 저자는 소종래(所從來)에 대한 율곡과 우담의 상이한 이해를 서술하였다. 율곡은 소종래를 마음의 두 근본으로 파악하고 마음이 막 발할 때 갈라지는 인심도심의 혹생혹원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았다. 반면 우담은 소종래를 인심도심의 혹생혹원과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 우담은 하나의 마음에 대해서 인심, 도심으로

나누어 말하고 하나의 정에 대해서 사단, 칠정으로 나누어 말하는 것은 마음이 막 발하는 시점, 즉 기미를 살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보았다.

본문 두 번째 목차에서는 율곡의 정찰(精察)공부를 주로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율곡의 경우 살피는 공부가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본다. 하나는 막 마음이 발했을 때 기미를 살피는 것이고, 나머지는 발한 이후 부중절한 정을 단속하기 위해 살피는 것이다. 그러면서 율곡의 '수양하는데 있어 성의(誠意)보다 우선한 것이 없다'는 말을 인용하며 성(誠)이 가지는 시간적 우선성을 설명한다. 저자는 성(誠)을 통해 공부에 돌입하고 이후 경(敬)을 해나가는 것이 율곡의 기본적인 심법이라고 본다.

본문 세 번째 목차에서는 이발(理發)체험을 바탕으로 우담의 율곡비판을 다루었다. 율곡의 '리(理)는 닦을 수 없는 것이다'는 주장에 대해서 저자는 우담의 반박을 '인간이 기질(氣質)에 의해 본질성과 비본질성을 구별하지 못하므로 리(理)를 닦아 활성화시켜야 됨'으로 이해하여 사칠론의 주요 개념 중 하나인 이발(理發)이 인간의 도덕적 발전의 중요한 토대라고 본다. 이를 통해 저자는 우담이 도덕수양으로서 이발(理發)체험을 강조하고, 율곡은 이발(理發)보다는 기질(氣質)의 제어를 강조한다고 보았다.

본문 네 번째 목차에서는 앞서 말한 도덕수양에 있어 이발체험의 효용성인식 차이가 중인(中人)에 대한 관점차이에 기인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율곡이 중인에 대해 비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기질을 제어하는 것을 우선시했다고 생각한다. 반면 우담은 중인이 이러한 부족함이 있더라도 사단을 통한 이발(理發)체험은 누구에게나 있으므로 이 부분에 착안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율곡은 기발일도설(氣發一途說)을 통해서 기질(氣質)의 제어를 중점적인 심법으로 보지만, 우담은 호발설을 바탕으로 막 발하는 기미에서 확충해야 할 사단과 제어해야 하는 칠정을 구분하는 것을 주요한 심법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견해이다.

이 논문은 기존의 사단칠정론 연구가 지닌 기본적인 단점들을 잘 지적한다. 그것은 첫째로, 사칠호발의 개념풀이에만 집중하여 입론자들의 본래 의도를 잘 구현해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둘째, 이기론과 심성론과 수양론의 유기적 연결을 사칠론 연구에서는 좀처럼 잘 드러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 점에서 본 논문은 사칠론의 주요 개념인 소종래를 통한 이기분속(理氣分屬)의 구분이 어떤 의미인지를 원전을 바탕으로 잘 서술하고 있다. 또한 이전의 연구들은 소종래를 단순히 리와 기로만 나누고 구체적인 의미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본 논문은 심이 발동하는 과정에서 소종래가의 의미를 잘 보여주었다. 또한 막 발하는 지점, 즉 기미라는 의미로 소종래를 풀이할 경우 그것이 정찰(精察)이라는 수양론적 의미를 가지게 되는 이유도 서술하였다. 이후 정찰(精察)에 대해서 우담과 율곡이 가지는 인식차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성의(誠意)공부가 각각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었으며, 또한 이러한 인식은 중인(中人)에 대한 인식차이에서부터 발생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즉 여타 사단칠정론이 정(情)의 배속문제, 이발(理發)과 기발(氣發)의 의미 파악에 주력하였던 점에 비해서, 저자는 사단칠정론에서 인간에 대한 관점, 이기심성과 수양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하여 앞선 선행연구들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다만 이러한 광범위한 접근이 사칠론이라는 주제에 적절한 접근이 되는 지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칠론은 기본적으로 사단과

칠정을 리와 기에 배속하여 구분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문제에서 시작되었고, 이에 대한 주장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다른 논의들을 끌어들인 것이기 때문이다. 즉 애당초 퇴계와 고봉은 수양론을 염두하고 논의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인심도심논쟁 또한 인심과 도심을 통해 호발의 가부를 따져보는 것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저자가 주로 거론한 인심도심종시(人心道心終始)를 기반으로 한 성의(誠意)에 대한 주장 또한 인도(人道)와 사칠(四七)의 구분을 위한 것이지, 성의(誠意) 공부 자체를 규정하려고 입론한 것은 아니다. 즉 모든 의론은 기본적으로 사칠의 구분, 호발의 가부여부를 따지는데 초점이 있으므로 그 사이에 거론된 수양론이나 이기론 또한 중심논의를 위한 보충하기 위한 목적이 우선이었다. 그에 반해, 우담은 분명 기미를 살피는 것이 사칠론의 주요 취지임을 강조하고 있기에 저자의 목적에 더 잘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저자는 우담의 주장이 결국 퇴계의 심법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전제함으로써, 사단칠정을 심법의 연결성을 강조하는 것이 우담의 독창적인 특징임을 충분히 포착하지는 못한 것 같다. 이런 점에 주목한다면, 퇴계 이후 남인들의 사칠론의 특성과 변화추이를 드러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③ 최영진의 『한국성리학의 발전과 심학적 · 실학적 변용』은 한국성리학 전반을 다루고 있는 학술서적이다.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한국성리학의 중요한 논제들을 그 자체의 내재적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이해하면서, 성리학을 비판적으로 반성한 실학도 그 연장선에서 발생한 변용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한 내재적 발전의 주요한 특성으로 저자가 제시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정감에 대한 중시'이다.

곧, 정감의 도덕적 기능에 특별히 주목하고 그것을 이기론적으로 논증하는데 집중했다는 점이며, 이것은 성(性)에 치중한 주자의 심성론과는 구별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이 성선(性善)을 넘어서서, 정선(情善)을 지향하는 사단칠정논변, 심선(心善)을 지향하는 호락논변과 심설논변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이 저자의 견해이다. 이 책에서 한국성리학의 두 번째 특징으로 제시한 것은 '리의 하향화(下向化) · 외화(外化)'이다. 이는 초월적 실체인 리(理)가 인간의 성(性)으로 내재화하는 데서 더 나아가 현실적 도덕정감(사단)이나 심(본연지심, 심즉리)의 범위로까지 하향화 · 외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매우 다양하다. 주자의 인심도심설, 퇴계와 고봉의 사단칠정논변, 율곡의 인심도심설, 조선 후기의 호락논변, 심설논변과 같은 조선성리학의 주요 논제들은 물론, 다산 정약용, 우담 정시한, 갈암 이현일, 노사 기정진, 혜강 최한기 등을 폭 넓게 다루고 있다. 그러한 다양한 주제들을 통해 한국성리학의 일관된 경향을 도출하는 한편, 각 주제에 대한 정치한 분석을 통해 쟁점을 명료화하고 의미 있는 통찰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이 책의 중요한 특징이다.

④ 이선열의 논문인 「중화설의 전개와 율곡학파의 미발인식」은 유가철학이 규범적 행위의 실천보다 수양을 통한 도덕적 인격의 완성이 더 근본적이라고 보는 윤리학 체계를 발전시켰다고 전제한다. 또한, 송대 초기 신유가는 마음의 고요함에 치중하는 '주정(主靜)' 공부법을 중시하였는데, 이는 유가 경전인 『중용』과 「악기」에서 마음의 구조를 동정(動靜)으로 나누고 '고요함'을 이상적 심적 상태로 여기는 사유에 근거 했다고 본다. 그런데 주희에 의해서 정(靜)공부와 동(動)공부의 균형

을 중시하는 사유로 전변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주희가 종래의 주정적 수양론 경향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는데, 그의 이러한 수양론에 대해 17~18세기 조선의 율곡학파에서 '고요한 상태의 인간은 과연 그 자체로 순선한가'에 대한 의문을 중심으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고 한다.

저자는 박상현과 한원진, 송시열과 이현익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아 17~18세기 율곡학파의 호-락 분기 요인을 미발 개념을 이해함에 있어 '시간상의 선재성'과 '도덕적인 본원성' 가운데 어느 쪽에 주안점을 두느냐의 문제였다고 파악한다. 박상현과 한원진 등은 미발 개념을 철저히 청탁수박한 기질의 맥락 속에서 파악하는 태도를 취했는데, 그렇게 볼 때 도덕적 본원으로서의 의미가 약화되고 미발은 다만 '시간적 선재'의 개념에 국한된다고 한다. 그와 달리 송시열, 이현익 등은 미발이란 다만 고요한 상태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주재가 이루어지는 상태임을 강조하고, 미발을 수양을 통해 도달해야 할 일종의 '도덕적 본원성'으로 보는 입장을 취한다고 한다. 저자는 율곡학파 내부 논쟁에서 표출된 이러한 견해차는 호학과 낙학이라는 학파가 분기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했음을 지적하면서도, 두 입장 모두 '마음의 고요함'을 액면 그대로 순선한 상태로 보는 기존의 수양론의 주정적 요소를 탈피하는 면모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본 논문은 유가의 수양론적 경향과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철학적 이론들의 전변과정을 거시적인 안목에서 다루고 있다. 특히 유가 수양론의 주정적 경향이 주자의 중화설을 거쳐 조선의 율곡학파가 분기되는 단초가 되었음을 지적한 것은 흥미롭게 느껴진다. 저자의 논증이 타당하다면 조선 후기 주자학의 변형 내지 독자적인 전개를 보여주

는 것이라는 평가도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순자계통의 유가가 예(禮)를 강조하여 적극적 행위, 실천적인 수양을 강조하였음은 물론이고, 또한 주희나 조선성리학자들 역시 미발함양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강조한 것이 예의 실천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유가의 주정적 경향의 의미와 범위가 좀 더 자세히 규정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⑤ 배제성의 「호락논쟁에서 명덕(明德)의 쟁점화 과정 연구 - 외암(巍巖) 이간(李柬)의 심(心)과 기질(氣質)의 분변(分辨)을 중심으로」는 조선 후기 성리학계 학술논변의 주요한 개념인 명덕(明德)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부터 쟁점화가 되었는가를 추적하였다. 그리고 명덕 관념이 조선학계의 중요한 개념으로 부상한 시발점을 호락논쟁, 특히 외암 이간(巍巖 李柬, 1677~1727)의 심과 기질의 구분에 있음을 밝혔다. 본 논문의 본문은 크게 ①외암의 심(心)과 기질(氣質)을 분변한 까닭과 그 의의, ②외암에 의해 명덕이 쟁점화 되는 과정, ③이후 '명덕분수(明德分殊)' 논쟁으로 이행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외암이 "심과 기질을 구분한 핵심적인 의의가 심이 혈기와 기질을 주재하는 데 있다"(94쪽)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혈기와 기질을 주재하는 심을 설명하기 위해 외암이 명덕(明德)을 심과 동일시하였고, 이를 통해 그가 심시기(心是氣)라는 기호학맥의 대전제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기질과는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심의 위상을 정립하려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외암에 의해 명덕이 쟁점화가 되면서 심과 명덕의 동일성을 부정하는 호론계가 낙론계의 입론에 대한 해명의 연장선상에서 남당 한원진(南塘 韓元震, 1682~1751)과 병계 윤봉구(屛溪 尹鳳九, 1681~1767) 사이에서 전개된 '명덕분수(明德分殊)'에 대한 논의를 분석

하였다. 논자는 호락논쟁에서 쟁점화된 명덕 개념은 심의 위상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될 수 있으며, "기(氣)적이면서 동시에 현실적 주재자이며, 수양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심의 위상을 고민하고 규정하는 문제에 있어 명덕은 최적의 화두가 되었다"(108쪽)고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낙학계 학자인 미호 김원행(渼湖 金元行, 1702~1772)의 「명덕설의문(明德說疑問)」을 소개하면서 명덕 관념이 성리학자에게 화두로 대두되는 단편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본 논문의 특징은 지금까지 주로 미발시(未發時)의 성(性)의 순선성과 인물성동이(人物性同異) 등 주로 성(性)을 핵심 개념으로 상정하고 연구되던 호락논쟁의 전개 양상을 심(心)의 측면에 주목하여 논변의 양상을 재구성하였다는 점이다. 논자는 이를 위해 외암이 명덕을 쟁점화하는 일련의 과정과 이에 자극을 받은 남당과 병계의 명덕분수 논의를 서술하였다. 이를 통해 성리학 내부에서 상충하는 견해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심(心) 관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심시기(心是氣)라는 대전제를 견지하였던 기호학계 내부에서 명덕 관념이 부상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정합성 있게 서술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독자들로 하여금 성(性) 중심으로 평가되던 호락논변의 의의에 대해 재고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또한, 본 논문은 18세기의 호락논쟁에서 19세기의 심설논쟁으로 이행되었던 과정을 유기적으로 고찰할 수 있도록 해준다. 호락논쟁과 심설논쟁을 조선유학사의 흐름상에서 자연스럽게 이행되었다는 논자의 시각은 인간의 구체적 정감과 그 원리에 대해 치밀한 논의를 전개하였던 조선성리학계의 성격과 의의를 규정하는 데 있어 유용한 틀을 제공해 준다.

다만, 본 논문의 키워드 중 하나인 명덕분수(明德分殊)의 경우 저자

는 본문에서 개념어, 혹은 쟁점으로 해당 어휘를 분수(分殊)라고 표기하였지만, 본 논문에 인용된 원전에서는 모두 분수(分數)로 표기되어 있다. 두 한자어가 일견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한어대사전』에서 분수(分殊)는 구분, 구별로 풀이되는 반면, 분수(分數)는 규정인수(規定人數), 분임직무(分任職務) 혹은 구분배치(區分部署)로 풀이되어 별개의 어휘로 간주되고 있다. 원전에 표기된 어휘와 다른 조어를 사용한 것에 대한 논자의 설명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이 아쉽다.

⑥ 조성산은 「18세기 노론 지식인 양응수(楊應秀)의 화담학(花潭學) 인식」에서, 화담의 학문이 낙론 계열에 영향을 주었음을 전제하고 낙론 계열의 양응수가 화담학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그는 양응수가 혈기(血氣)와 구분되는 신기(神氣) 개념을 사용했지만, 이것이 본연지기(本然之氣)를 긍정했던 당시 낙론 계열 학자들과도 다른 측면이 있었음을 밝혔다. 이를 통해 낙론 계열 사이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함을 설명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하지만 기의 측면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다소간 의문의 여지가 있는 듯하다. 예컨대 저자는 "이황은 주지하듯이 현상 배후에서 작동하는 근원적 원리로서의 리를 중시하였고, 기에 대해서는 이 리의 선한 발현을 굴절시키는 요소를 가졌음을 강조하였다. 이럴 경우 이기불상잡(理氣不相雜)의 관점에서 리와 기의 대조적인 측면이 부각되었고, 기의 담연성은 그다지 주목되지 않았다"(p.388)고 했다. 반면 양응수의 스승인 권집에 대해서는 기(氣)와 질(質)을 물과 그릇으로 비유한 대목을 인용한 뒤, 차별이 생기는 요인은 질(質)이고 기(氣)는 동일하다고 보고 기통질국(氣通質局)이라고 칭했다.(pp.387-388) 그리고 권집의 이러한 면은 퇴계와 다르고 율곡의 이

통기국과도 다르며, 화담과 가깝다고 보았다. 하지만 저자는 퇴계와 율곡을 논할 때는 리(理)와 대비되는 기(氣)를 거론했고 권집을 논할 때는 질(質)과 대비되는 기(氣)를 논했다. 비교대상이 다르므로 기氣)의 동일함이 화담만의 특성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율곡은 기(氣)가 세상에 편재해있다고 여겼으므로 기발(氣發)만을 인정했다. 그리고 가치 측면에서 논할 때도 본연지기(本然之理)를 따르는 본연지기(本然之氣)를 상정했으므로, 율곡의 경우에도 본연지기(本然之氣)는 차별 인자가 아니라 동일성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율곡이 화담의 담일청허지기(湛一淸虛之氣)가 모든 사물에 편재해 있다고 한 것에 대해, 양승수는 담일청허지기가 바로 신기(神氣)이고 리의 묘용이라고 설명한 것을 인용했다.(p.393) 이 대목만으로는 리의 묘용이라는 점에서 본연지리를 따르는 율곡의 본연지기와 유사성이 보인다. 율곡과의 차별성을 보이고 화담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려고 했다면, 이 인용문 이후에 율곡의 본연지기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한 대목까지 인용했다면 이해에 더 보탬이 되지 않았을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5]

⑦ 권인호의 「高峰 奇大升의 민본적 정치사상과 현실」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

5 『白水集』 권5 「答林啓濬」 : 栗谷所謂本然之氣, 與愚見有同處焉, 有異處焉. 所謂同者, 如栗谷與牛溪論四七書中所云人心道心, 俱是氣發, 而氣有順乎本然之理者, 則氣亦是本然之氣也. 故理乘其本然之氣而爲道心焉, 氣有變乎本然之理者, 則亦變乎本然之氣也. 故理亦乘其所變之氣而爲人心, 而或過或不及焉者, 是也. 所謂異者, 如今賢之所引, 非若理之於萬物, 本然之妙, 無乎不在者, 是也. 竊嘗究其所以異者, 盖吾儒之說氣, 有欠細膩, 自古論氣質者, 徒知血氣之流行者爲氣, 形質之局定者爲質, 而不知血氣亦屬質而有善有惡, 血氣之中, 又有本然之氣, 純善無惡.

1) 유학의 경세론적인 민본적 정치사상을 밝힌 후 고봉의 정명론과 공의적인 민본사상을 그 관련성 속에서 파악한다.
2) 조선 중기의 시대상황과 오늘날 한국 민주사회에서 일어나는 정치현실 간의 유사성을 찾는다.
3) 조선 중기와 오늘날 민주사회의 유사성에 기반해서, 고봉의 사상을 통해 현대사회를 대동사회[6]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이 단계에 따라 논문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우선 첫 번째 단계와 관련해서, 저자가 어떻게 유학의 "경세론적인 민본적 정치사상"을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머리말에서 저자는 경세(經世)와 정치사상을 수기치인(修己治人)에서 치인(治人), 그리고 『대학(大學)』의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유학의 "경세론적인 민본적 정치사상"에 대해서 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목차 상으로 II장 '조선중기 사회정치적 상황과 민본적 정치사상'에서 다뤄졌어야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제목과는 달리 "민본적 정치사상"에 대한 설명이 없다. 주자의 「무신봉사」, 퇴계의 「무진육조소」, 남명의 「무진봉사」를 비교하며 설명하지만 그 차이점과 유사점을 다루고 있을 뿐 이들이 "경세론적인 민본적 정치사상"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는다. 또한 II-2에서 유교 민본적 정치사상의 근원으로 공자의 정명(君君臣臣父父子子)과 정의(政者正也)를 지목하지만, 이들이 근원이라고 지목하고만 있을 뿐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전혀 없다. 대신

6 초록에서 저자는 이를 '민주적인 대동사회'라 명명하였다.

내용의 대부분을 정명과 정의가 부재해 망했던 국가들과 현재의 사회 문제들을 소개하는데 할애하고 있다. 여기에 이 논문의 큰 맹점이 존재하는데, 여타논문들에서 사용되는 '경세론', '민본사상' 대신 "경세론적인 민본적 정치사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논문 전반의 내용을 살펴볼 때, 저자는 '경세론'과 '민본사상'을 단순히 엮어서 이 용어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논문에서 고봉의 정명론과 공의적인 민본사상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논문의 Ⅲ장인 '청백리와 출처(出處) 및 고봉의 민본적 정치 · 경세 사상'에서 여기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Ⅲ-1에서는 조선에 청백리 정신이 있었고 고봉 또한 청백리였음과 예학에 조예가 깊었다는 점 그리고 사단칠정논변에서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윤리를 구축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소개한다. 그리고 Ⅲ-2에서 고봉의 「논사록(論思錄)」을 분석하며 그 경세론의 주안점인 경세택민(經世澤民)을 소개하고, 그의 경세론이 경학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논사록」 일부가 남명의 「무진봉사」와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고봉의 경세론의 주안점이 경세택민이라는 점은 「논사록」 전반에서 확인된다. 또 고봉이 임금과 신하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정명론과 연결시키는 것 또한 가능하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맹점과 같이, 저자가 규정하는 '공의적인 민본사상'에 대한 설명이 없다. 또한 저자는 고봉의 경세론이 경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근거가 다소 부족해 보인다. 고봉이 「논사록」에서 『맹자』와 『주역』의 구절을 인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경전 인용만을 가지고 그의 경학이 어떠한지 평가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저자가 논

문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그의 경전 주석을 「논사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이 목표했던 바의 두 번째 목표였던, 조선 중기의 시대상황과 오늘날 한국 민주사회에서 일어나는 정치현실 간의 유사성 찾기, 그리고 세 번째 목표인 현대사회에서 대동사회를 이루는 방법을 모색하는 문제에 관하여 검토해 볼 것이다. 논문의 제목이 「고봉 기대승의 민본적 정치사상과 현실」이지만 저자는 논문의 전체 분량에서 고봉에 대한 설명보다 현재의 정치 문제나 과거 조선의 시대적 문제를 서술하는데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하지만 저자의 논증 방식은 다소 과격한 면이 있다. "화해상생하지 못하는 모든 학문사상은 그들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도그마로서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며, 이미 그가 쏜 화살이 자기 이마에 꽂히기 시작한다고 본다.(61쪽)"와 같은 몇 몇 문장의 과격함을 제외하더라도, 논리적인 문제가 있어 보인다. 예컨대, 저자는 논문에서 유학적 가치(正名, 爲民 등)에 벗어나는 가치관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가 생겨난다고 보는 것 같다. 하지만 여러 현실적 문제들에 존재하는 어떤 '가치'의 부재가 과연 유학적 가치와 동일한 것인지도 문제이지만, 가치의 부재가 현실적 문제를 발생시켰다는 생각은 사회경제, 구조 등의 다른 원인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소 치우쳐 보인다. 또 다른 예로, 저자는 유교의 민본주의를 통해 대동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지만, 정작 그 연결성에 대해서는 논증하고 있지 않다. 다만 Ⅳ장과 맺음말에서 현대의 촛불집회가 조선의 간쟁(諫諍)전통에서 영향을 받았고, 또 이 전통은 유교의 민본주의에 기원하고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민본주의를 통해 현대사회가 대동사회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는데 이는 유

비적인 추론에 의존하여 논리적 정확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생각된다.

⑧ 황상희의 「퇴계에서의 상제(上帝)와 이도설(理到說)에 관하여」는 퇴계사상에서 종교성을 표상하는 '上帝' 개념을 "태극을 시작으로 하는 '우주적 가족 공동체'에서 인간에게 천명을 내려주는 궁극적 실체로서, 나와 너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따스함에 깃들어 있고, '관계'의 의로움을 지키기 위한 주체의 서늘함에 존재하는 궁극적 실체"(165쪽)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上帝'로 표상되는 종교성을 통해 '四端'을 "상제가 내려주신 태극의 본성이 정으로 발현되면 형이상의 성선이 형이하의 정선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믿음"(167쪽)의 측면에서 '종교정감'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理到'를 "나의 격물이 이른다면 물격의 이자도를 믿는다는 퇴계의 신앙"(176쪽)으로 보고, "사단을 위해 극기의 집중을 오래하다 보면 그 사단이 저절로 움직여서 내게 이르러 나를 끌고 가는 것"(177쪽)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상술한 논지 전개를 통해 "퇴계의 理到는 한반도에서 고대에서부터 내려오는 상제의 종교성을 통해서 설명 가능하며, 오늘날 사단을 통한 이도(理到)를 단지 가치 덕목으로서가 아니라 신앙으로서 회복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179쪽)라고 결론짓고 있다. 본 논문은 퇴계사상의 종교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퇴계의 여러 명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로 인해 본문을 비롯한 결론부분에서 논리적 비약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난 근본적 이유는 조선조 유학자들의 종교성을 전제한 상태에서 논지를 전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는 퇴계를 비롯한 조선조 유학자들이 조상에 대한 제사, 서원에 배향된 성

현들을 모시는 것을 조상, 성현을 신격화한 것으로 보았다.(159-162쪽, 175쪽 61번 주석 등) 조상과 성현에 대한 상례 · 제례를 곧바로 신격화라고 전제하는 것은 분명 무리가 있다. 당시 유학의 여러 명제에서 인격신, 초월신적 개념이 상당 부분 희석되었다는 점에서 당대 지식인들의 행위를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음에도 저자는 이를 쉽게 단정한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 개념어 오용과 논리적 비약의 경향이 나타나는 곳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있다. 우선, 퇴계의 상제관을 서술하기 위해 "성학을 이루기 위해서도 대월상제(對越上帝)의 자세를 강조한다"(162쪽)고 서술하면서 『성학십도(聖學十圖)』의 「경재잠도(敬齋箴圖)」에 수록된 주자「경재잠(敬齋箴)」 원문을 인용한다.[7] 퇴계의 논지를 강조하기 위해서「경재잠」 본문의 "대월상제" 개념에 대한 퇴계의 해석이나, 퇴계 자신이 논지를 전개하기 위해 원용한 예시를 인용하지 않고 『성학십도』에 기재한 원문만을 인용하였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본 논문에서 '이도'를 불교의 간화선과 비교하면서 "선불교에서 명상을 할 때 화두를 내가 잡는 내용이 있는 명상의 방식이 아니라 극기의 계속된 상황에서 어느 순간 화두가 나를 끌고 가는 내용을 죽인 형식"(176쪽)이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화두가 나를 끌고 가는 내용을 죽인다"는 서술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물론, "화두가 나를 끌고 간다"는 서술이 과연 '이도'에 적합한 비유인가에 대해서 납득하기 힘들다. 아울러, '이도'를 정의하는 핵심 문단인 "사단을 위해 극기의 집중을 오래하다 보면 그 사단이 저절로 움직여서 내게 이르러 나를 끌고

7 『晦庵集』 卷85,「敬齋箴」, "正其衣冠, 尊其瞻視, 潛心以居, 對越上帝."

간다는 말이고, 다른 표현으로는 극기라는 긴 시간의 집중을 통해 나 스스로가 비워진 빈방에 밝은 빛이 생기는 경지[虛室生白][8]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177쪽)는 서술에서 다수의 문제가 발견된다. ①정(情)인 사단을 '이도'와 무리하게 결합함으로써 '리가 이르다'는 명제를 '정이 이르다'라는 명제로 오해하도록 서술하였으며, ②"비워진 빈방에 밝은 빛이 생기는 경지"라는 비유는 퇴계의 주장을 비유한다기보다는 율곡의 물격설에 가까우며,[9] 그마저도 물건이 가득 찬 방에 불을 밝히는 행위로 비유하는 율곡의 주장과도 합치되지 않아 성리학적 개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5. 나가는 말

이상으로, 인물별/주제별로 2016년 한국 성리학 관련 연구 전체 동향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였다. 주제별 검토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기 · 심성론에 대한 논문의 비중(53편, 약41%)이 매우 높았다. 그리고 수양론 및 교육론(25편, 약 19%), 경세론(14편, 약 10%)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 범주들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에 소속된 논문의 비중도 매우 높게(40편, 약 30%) 나타났다. 수양론 및 교육론의 전체 편수는 2016

8 『莊子』「人間世」, "瞻彼闋者, 虛室生白, 吉祥止止."

9 『栗谷全書』 卷32, 「語錄下」 "又問, 物理元在極處, 豈必待人格物後乃到極處乎. 曰, 此問固然. 譬如暗室中, 册在架上, 衣在桁上, 箱在壁下, 緣黑暗不能見物, 不可謂之册衣箱在某處也. 及人取燈以照見, 則方見册 , 衣 , 箱各在其處分明, 然後乃可謂之册在架, 衣在桁, 箱在壁下矣. 理本在極處, 非待格物始到極處也, 理非自解到極處, 吾之知有明暗, 故理有至未至也."

년(33편)에 비해 감소했는데 이는 이황 연구에서 수양론 및 교육론이 감소한 것에서 기인한 결과로 생각된다. 경세론도 전년(25편)에 비해 감소했다. 한편, 기타의 높은 비중에 대해서는, 성리학 관련 연구 주제와 방법론의 다양성이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인물별 검토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황과 이이를 중심으로 한 연구 경향이 여전히 두드러졌다. 논문의 편수에서도 2016년과 2017년의 이황 · 이이 관련 논문의 수는 거의 동일했고, 2017년도 전체 비율에서는 대략 41%을 차지하였다. 논문이 양적으로 많은 만큼 이황과 이이에 관한 연구는 다양성도 컸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전년도와 다른 양상도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은 경세론의 측면에서 율곡을 다룬 연구의 비중이 많이 감소했다는 점이다. 율곡에 대한 연구에서 경세론적 측면이 두드러졌던 예년의 연구 경향과는 구분되는 점이다. 이황과 이이에 이어 기대승의 연구가 많았는데(8편), 이는 편수에서도 전년도(6편)에 비해 증가한 것이지만, 연구 주제의 측면에서도 사단칠정론 이외의 주제로 다변화된 경향을 보였다. 이외에 이진상(6편)과 전우(4편)에 대한 연구도 많은 편이었다. 이들은 모두 심설논변에 관련된 학자들이다. 또한 한원진(5편)에 대한 연구도 2016년(8편)에 이어 많이 발표된 편이었다. 이는 주로 호락논변을 중심으로 한 연구 경향으로 이간(3편)에 대한 연구도 여기에 관련된다. 추후 호락논변과 심설논변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에 대한 관심이 더 유기적으로 심화되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 이래의 인물별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은 이황과 이이에 대한 연구는 안정적으로 일정한 수의 논문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반면, 그 외의 학자들의 경우는 매년 달라지는 양상을 보

인다는 점이다. 예컨대, 이진상의 경우 2017년에는 6편이지만 2016년에는 2편이었다. 한편, 2016년에 6편이 발표되었던 우담 정시한에 관한 논문은 2017년에는 1편에 그쳤다. 이러한 변폭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야기될 수 있고, 또 연구자들의 관심이 더 다양한 연구 대상과 범위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으므로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황과 이이가 조선 성리학 연구의 확고한 중심으로 안정적인 지위를 확립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학자들은 아직 그러한 위치를 분명히 점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물론 이황과 이이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특히 조선 후기 성리학에 대한 확장적 연구의 심화를 위해서는, 조선 후기의 쟁점과 문제의식을 분석하고 사유하기 위한 그 나름의 중심축이 좀 더 분명하게 확립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예컨대, 심설논변의 쟁점과 문제의식을 사유하기 위해 이황이나 이이의 철학과 비교해 볼 수도 있지만, 직접적인 연결 관계가 더 분명한 호락논변과의 연관성을 치밀하게 탐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조선 후기를 대표할 수 있는 학자들의 사상사적 위상이나 의미에 대해 더 심화된 탐구가 요구될 것이다. 물론 이미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전개하고 있는 학자들이 있지만, 추후 그러한 바탕과 토대가 더 분명하게 확립되어가길 기대해 본다.

제6장

한국 양명학 연구

선병삼

1. 머리말

본 내용은 2017년도 한국에서 발표된 학술 논문 중에서 〈한국 양명학〉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한국연구재단에 정식으로 수록된 논문(KCI)과 국내의 박사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별 논문의 발표 시기는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의 기간이다. 본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논문집을 연구재단 분류 방식에 따라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철학전문 등재지(후보지) 25개, 유교학 4개, 기타인문학 1개, 중국어와문학 1개이다.

이상의 학술지를 분석한 결과 〈한국 양명학〉에 해당되는 논문은 총 16편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논문에 대한 일목요연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인물별 분류에 따른 해당 논문을 소개하고, 이어서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을 했다. 인물별 분류는 편의상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첫째는 강화학파 관련 논문이고, 둘째는 근현대 관련 논문이고, 셋째는 양명학과 성리학 관련 논문이다.

2. 인물별 분류

1) 강화학파 관련 논문(8편)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황인옥	주 · 왕(朱 · 王) 이원적 구조에 의한 하곡의 『중용』 해석	범한철학	범한철학회
2	김세서리아	포스트휴먼 인문학을 위한 하곡학 이해 – 하곡(霞谷)의 만물일체사상을 중심으로	양명학	한국양명학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3	조지선	하곡 정제두 철학의 인성교육적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유학연구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4	이남옥	하곡 정제두의 준론탕평론	양명학	한국양명학회
5	김동민	심대윤(沈大允)『춘추사전속전(春秋四傳續傳)』의 탈성리학적『춘추』이해	한국철학논집	한국철학사연구회
6	천병돈	月巖 李匡呂의 心論	양명학	한국양명학회
7	이경룡 하정숙	이광사의 體仁공부와 心卽性주장	양명학	한국양명학회
8	이경룡	항재 이광신의 隨事精察心理 심학종지와 하곡「浩然章」해석의 계승	양명학	한국양명학회

한국 양명학 관련 전체 16편의 논문 중에서 근현대 양명학으로 분류한 정인보를 포함하면 강화양명학파와 관련된 연구는 총9편으로 전체의 50%를 상회한다. 이는 16년도와 비교하면 다소 감소한 수치이기는 하지만 한국 양명학 연구에서 강화 양명학파의 위상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다.

황인옥의「주 · 왕(朱 · 王) 이원적 구조에 의한 하곡의『중용』해석」은 주자학과 양명학의 요소가 반영된 정제두의 〈중용〉관을 해석하고자 한다. 황인옥은 정제두가 주자학과 양명학에서장점을 적절히 수용하여 주왕 이원적 구조로『중용』을 해석했다고 본다. 곧 인간이 실천해야 하는 도덕적 측면을 강조하면서도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측면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였다고 평가한다. 실천적인 측면은 양명학을 말하는 것이고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측면이란 주자학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곡은 이기이원론의 구조를 일원론으로 해석하였고,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리(理)에 치우쳐 인간의 주체적 사유를 소홀히 다룬 경향을 극복하고 인간의 주체적 사유를 강조하여 후천적인 수도를 중

시하는 입장으로 〈중용〉을 해석하였다고 본다.

김세서리아의 「포스트휴먼 인문학을 위한 하곡학 이해 - 하곡(霞谷)의 만물일체사상을 중심으로」는 포스트 휴먼 인문학이라는 익숙하지 않는 사조를 소개한다. 곧 포스트휴먼 인문학의 성격을 근대 인간 개념의 부활이나 기술에 의한 단절이 아닌, 인간 주체성을 긍정하되 근대의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서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새로운 인간 개념을 시도한다. 쉽게 말하면 인간 중심주의는 부정하지만 인간 주체성을 긍정하는 자리에 포스트휴먼 인문학의 자리가 있다고 하면서 그 가능성의 전례를 하곡의 만물일체사상에서 찾고자 한다.

조지선의 「하곡 정제두 철학의 인성교육적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는 현재 한국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인성교육진흥법과 관련하여 정제두 철학이 가지는 인성교육적 의의와 그 필요성을 탐색했다. 우선 인성 개념을 확정하는 측면에서 정제두의 견해를 참고하면 정제두는 영명성(靈明性)과 도덕성(道德性)이라는 두 측면에 주목한다. 또한 정제두가 실천한 '성인됨'의 공부는 인성교육법 목적에 나오는 기능주의적 입장을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해준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성교육진흥법에서 제시하는 핵심덕목과 핵심역량에 따른 인성교육 방식이 학습자의 주체성과 실천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는 정제두가 주장한 심즉리와 지행합일의 공부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학생의 주체성과 실천성을 보장하는 인성교육 방법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평한다.

이남옥의 「하곡 정제두의 준론탕평론」은 정제두의 탕평론을 철학적 해석을 가미하지 않고 역사적 사실로서 서술한 논문이다. 정제두는 박세채와 마찬가지로 모두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황극탕평론을 제시

하지만 인사에 있어 차이점을 보인다. 박세채는 조제보합적(調劑保合的) 요소가 강한 반면, 정제두는 송나라 효종이 말년에 행한 피차의 구분이 없는 화평한 정치를 비판하면서 주희의 준론을 주장하였다. 정제두의 탕평론의 특징은 다음 일곱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병신처분 이후 당론이 심해진 것으로 보았다. 둘째, 정제두의 탕평은 준론탕평이다. 셋째, 임금이 극(極)을 바로 세우는 건극(建極)을 통해 임금이 중요함을 말하였다. 넷째, 제갈량이 출사표에서 제기한 '궁중부중일체(宮中府中一體)'를 통해 대신 임명의 중요성을 말하였다. 다섯째, 임금이 지극히 공평하고 사사로움이 없는 마음을 지니고 상벌을 공평히 하여[平] 죄진 사람은 죄주고 현자는 등용하여 시비와 곡직에서 중을 얻어야 한다고 하였다. 여섯째, 일신(日新)을 통한 성학을 연마해야 한다고 하였다. 일곱째, 하루아침에 개혁할 수 없으니 점진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하였다.

정제두 제자들에 관한 논문은 4편이다. 김동민의 「심대윤(沈大允) 춘추사전속전(春秋四傳續傳)의 탈성리학적 춘추 이해」는 심대윤 경학을 다룬다. 심대윤 연구는 매년 장병한이 발표해 왔는데, 정인보가 "근세의 학자로서 이익과 안정복은 역사학으로 빼어났고, 정약용은 정치학으로 뛰어났다. 그러나 심대윤은 적막한 가운데 외롭게 지켜, 명성이 파묻히게 되었다. ……그러나 공정하게 논평하건대 정밀한 뜻과 빼어난 해석이 여러 학설 가운데에서 빼어났으니 삼한(三韓 조선) 경학의 밝은 빛이라 하겠다."라고 한 대목에서도 밝혀두었듯 경학 연구에서 독자의 경지를 구축한 학자다. 김동민은 심대윤의 『춘추사전속전』을 분석하면서 조선조 춘추학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평가한다. 곧 성리학에 기반 한 조선조 춘추학의 견고한 틀을 깨고, 탈성리학적 춘

추 · 이해를 시도한 일종의 도전이자 실험으로 평가한다. 정리하면 심대윤의 춘추 · 해석은 기존의 성리학적 관점에서 벗어나 춘추의 성격을 새롭게 규정하였고, 성리학적 해석에 대한 비판과 해석 방법론의 차별화를 통해 춘추의 본질적 모습에 접근하려고 시도했다고 평가한다.

천병돈의 「月巖 李匡呂의 心論」은 16년도 논자가 발표한 「초기 하곡학파의 하곡학적 사유」와 「하곡학 관점에서 본 李匡臣과 李匡呂 사상」이라는 논문의 주제와 연속선상에 있는 글이다. 논자는 후손들을 통해 전해지고 있던 필사본(초고본)을 입수하여 이광려의 심론을 분석했다. 논자는 필사본은 문집총간본의 저본이 된 목판본과 달리 하곡학의 실심(實心)에 관한 논의가 적지 않게 보인다는 점에 주목했다. 논자는 본 논문에서 실심, 심, 습심, 본심, 일반적인 심 등으로 구분하여 논의를 전개했다.

이경룡은 두 편의 강화학파 논문을 발표했다. 바로 「이광사의 體仁공부와 心卽性 주장」과 「항재 이광신의 隨事精察心理 심학종지와 하곡 「浩然章」해석의 계승」으로 이광사(1705~1777)와 이광신(1700~1744)에 대한 연구다. 이광사는 문장가이자 원교체를 확립한 서예가로 유명하다. 이광신은 정제두와 그의 아들 정후일(鄭厚一)에게 수학하여 심학을 배웠는데, 심육(沈錥)과 이진병(李震炳)이 수습한 정제두의 유고(遺稿)를 교감하였으며, 정제두의 『유사보유(遺事補遺)』를 엮었다.

이경룡에 의하면, 이광사 학술사상을 검토할 적에 가장 중요한 학술적 고리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그의 나이 31살에 인체(仁體)를 깨달은 신비체험을 공개한 수양공부이고, 둘째는 만년에 아들 이영익에게 수양공부를 가르치면서 심체에 관하여 심즉성(心卽性)이라고 주장한 내용이다. 한편 그의 학술사상은 형제들과의 학술적 관계와 하곡학과의

관계라는 두 가지 맥락에서 살펴보아야한다. 형제들 사이의 학술 변론에는 이광태, 이광찬, 이광신 등과의 변론을 들 수 있다. 당시 이들은 모두 하곡학의 심학적 이론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이광찬과 이광사는 심체를 직접 깨우치는 수양공부를 긍정하고 불교와 도교의 융회를 지향하였고, 이광신은 심학의 수양공부가 지나치게 높다고 여기고 주자학의 동찰공부로 후퇴하고 도불 이교를 이단이라고 배척하였다.

이광신 학술 사상의 종지는 수사수물정찰심리(隨事隨物精察心理)이다. 이는 정제두와 그 아들 정후일을 계승하여 주장한 것이다. 수사수물(隨事隨物)은 양명학이 사상마련(事上磨鍊)으로 낙공(落空)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며, 정찰심리(精察心理)는 심학 입장에서 본심의 지선(至善)한 본체와 수양공부를 지칭한다. 이 수처정찰심리 종지는 당시 조선학계와 중국학계의 주왕논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또한 이 종지가 자오(自悟)와 오타(悟他)의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교(圓敎)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광신의 이 종지는 정제두 〈정성문〉의 취지, 왕양명 치양지의 양익(兩益)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조선학계의 학술적 성취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근현대 양명학 관련(3편)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박정심	근대 유학 지평에서 박은식의 진아론(眞我論) 읽기	한국철학논집	한국철학사연구회
2	이남옥	정인보의 학문 연원과 조선학 인식	유학연구	충남대학교유학연구소
3	송석준	도원 류승국과 한국 양명학	양명학	한국양명학회

박정심은 박은식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중견연구자이다. 박은식은 조선 말기 · 일제강점기의 학자 · 언론인 · 독립운동가로 일생을 통해 애국애족의 정신을 실천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박정심은 「근대 유학 지평에서 박은식의 진아론(眞我論)」이라는 논문에서 진아론의 의의를 탐구한다. 바로 진아론은 주체의 역사성을 강조했던 신채호의 '아(我)'와 함께 이성적 주체란 보편타자에 매몰되지 않은 한국 근대 주체를 정립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철학적 진전이었다고 평한다. 왜냐하면 타자화 된 주체성으로는 보편타자의 폭력성을 넘어서 제국주의침략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전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박은식의 진아론은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데, 진아는 서구적 보편성에 대응할 유학적 보편성 [仁, 良知]과 함께 민족적 주체성[自家精神] 및 문화적 정체성[國魂]을 담지한 근대적 주체로서 이성적 주체와 달리 타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의 원리는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는 근대적 경계를 향유하면서도 근대 너머를 지향했다는 의의를 가진다고 본다.

이남옥은 「정인보의 학문 연원과 조선학 인식」에서 비교적 소상하게 정인보의 학문 연원과 조선학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정인보는 구한말에 태어나 일제강점기를 거쳐 광복 후에 사망한 지식인(知識人)으로 애국애족의 정신을 글과 실천을 통해 실천한 애국지사이다. 정인보가 살았던 시기는 조선후기까지 전래되어온 전통 학문과 서양에서 들어온 신학문이 융합하는 시기였다. 그는 1930년대 조선학운동에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해 주었는데, 자신이 체득한 조선후기 전통 학문을 신학문의 체계로 풀어냈다. 전통적 측면은 그의 가문으로 전승되어 온 가학(家學)과 하곡학의 전승으로 이루어졌다. 정인보는 홍명희, 문일평,

박은식, 신채호 등과도 교류하였는데, 홍명희는 동류의식을 가진 인물로 그를 통해 당시 일본과 중국 등지에서 신학문을 배운 지식인들과 교류하게 된다. 특히 정인보가 장병린의 학문에서 주목한 박학(樸學)은 1930년대 조선학운동을 전개하면서 주장한 박학구시(樸學求是)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박학구시'는 '박학'과 '구시'가 결합된 개념으로 하곡학으로 대표되는 조선시대 전통 학문을 장병린을 통해 받아들인 중국 신학문의 방법론으로 체계화하여 일제강점기 당대에 필요한 학문 체계를 세우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인보가 1930년대 조선학운동을 전개하면서 체계화한 실학의 개념과 분류는 이후 실학 연구자들에게 선행연구로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송석준은 80년대 이후 본격화된 양명학 연구의 1세대의 학자로 류승국 교수에게 박사논문 지도를 받았다. 송석준은 한국 양명학 연구사에서 류승국의 양명학 연구의 학문적 의의는 무엇보다 사상사적 관점에서 처음으로 한국 양명학의 전체적 흐름에 관한 윤곽을 그려냈다는 데에 있다고 평한다. 즉 류승국은 한국 양명학이 전래된 이후 초기에는 정주학과 갈등을 겪었으나 실학, 천주교, 개화사상과 관련하여 스스로의 역할을 하며 사상사 속에 기여하여 왔다고 본다. 아울러 전통사상과 이질적인 사상의 조화와 매개라는 측면에서 양명학이 이질적인 사상들의 갈등을 매개하고 조화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현실과 떠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 상황을 직시하여 선험적 양지를 통해 주체적 판단을 내리는 양명학의 특성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3) 양명학과 성리학 관련(5편)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향준	심즉리의 출현: 「존재의 대연쇄」와 「의인화」를 중심으로	율곡학연구	율곡학회
2	김윤경	19세기 조선성리학계의 양명학 비판 양상 – 李震相과 田愚의 陽明學 비판 비교를 중심으로 –	동양철학연구	동양철학연구회
3	강보승	退溪와 陽明의 修養論 비교를 통한 朝鮮朝 陽明學의 未擴散 원인 고찰	유교사상문화연구	한국유교학회
4	김세정	양명심학과의 비교를 통해 본 기대승의 수양론	유학연구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5	김세정	양명심학의 눈으로 본 기대승의 경세론	양명학	한국양명학회

이향준은 한국철학 전공자이지만 서양철학의 최신 연구들을 적극 활용하여 논의를 전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심즉리(心卽理)의 출현 - 「존재의 대연쇄」와 「의인화」를 중심으로」 또한 동일한 작업의 일환이다. 논자는 인지유학(Coginitive Confucianism, 認知儒學)이라고 명명된 이론적 틀을 가지고 논의를 전개한다. 본 논문의 주제는 성즉리를 강조하는 주자학의 계열에서 이진상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심즉리가 주장되는 현상은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따지는 것이다. 그는 이 질문을 다루기 위해 한국 유학사에 나타난 세 가지 특징적 장면과 몇 가지 인지적 도구들을 결합시킨다. 이황의 이발설(理發說)에 포함된 상제(上帝) 관념, 18세기 율곡학파가 만들어낸 미발심체(未發心體)라는 철학적 조어, 이진상의 심즉리(心卽理)를 주목한다. 「존재의 대연쇄」라고 불리는 인지모델과 「의인화」라고 불리는 개념적 은유 및 이들과 연관된 두 가지 영상도식 즉 「상하도식」과 「안팎도식」을 인지적 도구들로 설정한다. 정리하면, 신유학적 어휘들과 다양하게 혼성된 결과로서 '신유학적 담론의

최고 범주들이 의인화'되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 현상의 한 사례로서 '심즉리'가 나타났다는 것이 이 글의 핵심 논지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결국 삶을 위한 가치들의 근거를 초월적인 것에서 선험적인 것으로 옮겨놓기 위한 지적 여정이었다고 한다.

김윤경은 강화양명학파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현재 조선시대 양명학으로 연구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연구자이다. 본 「19세기 조선성리학계의 양명학 비판 양상 – 李震相과 田愚의 陽明學 비판 비교를 중심으로 – 」는 이러한 연구의 성과물 중 하나다. 조선성리학 3대 논쟁의 대미를 장식한 논쟁이 심설논쟁임은 잘 알려진 그대로다. 이 논쟁은 이퇴계의 정맥을 계승했다고 자부한 한주 이진상이 심즉리를 주장하면서 본격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전우는 주자학의 심성론을 기반으로 심시기를 주장하면서 한주학파, 화서학파 등과 한판 승부를 벌인다.

김윤경은 이진상과 전우의 양명학 비판은 주자의 도덕 원리에 입각한 비판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며, 그 안에서 마음의 주재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차이점을 지닌다고 본다. 곧 이들이 공통적으로 비판하는 지점은 양명학에서는 심에서만 이치를 찾고 심이 리보다 앞선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진상과 전우는 주자학의 격물궁리 공부를 중시하면서 양명학이 사물의 이치를 빠뜨려 원래 하나로 관통하는 理를 내외로 분리시켰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심의 속성에 관한 이해에서는 이진상과 전우의 양명학 비판에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주자학의 논리 안에서 도덕적 능동성을 확보하려한 이진상은 심즉리(心卽理)를 주장하면서 왕양명이 천리의 발현에 대해 본 바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반면 전우는 이진상의 논리 또한 기인 심을 리로 인식한 완

전한 오류이며 양명학과 같은 견해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강보승의 논문은 퇴계학과 양명학의 비교라는 비교적 친숙한 주제를 논의하고 있다. 본「退溪와 陽明의 修養論 비교를 통한 朝鮮朝陽明學의 未擴散 원인 고찰」에서 양명학이 조선에서 발전하지 못한 이유를 논자는 두 가지로 든다. 바로 선을 밝히는[明善] 단계를 양명학이 간과했다는 이황의 비판과, 이황 수양론의 실천성이 양명학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즉 양명학은 양지를 강조하여 명선의 단계를 생략하고 격물궁리의 객관지식 탐구를 소홀히 하는 점에서 퇴계의 배척을 받는다. 한편 퇴계가 강조하는 주체의 도덕 본성이 양명이 제시하는 양지에 비견될 수 있고, 거경으로 수양론을 일관하는 것이 치양지로 수양을 일관함과 유사하다는 점, 그리고 퇴계가 일용평상에서의 실천을 강조했듯이 양명도 사상마련의 일상적이고 즉각적 실천을 강조한 점 등에서 유사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퇴계 당대의 조선 학계는 지의 측면에서는 양명학을 부정하였고, 행의 측면에서는 퇴계학과 양명학에 유사성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양명학수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풀어낸다.

김세정은 양명학을 생태학적인 입장에서 조망한 양명학 연구자로 최근에는 조선성리학과의 비교적 시각에서 양명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양명심학과의 비교를 통해 본 기대승의 수양론」과「양명심학의 눈으로 본 기대승의 경세론」은 모두 기대승 학술사상을 양명학과 비교한 글로 수양론과 경세론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했다. 김세정에 의하면, 기대승의 이기심성론은 양명학과 차이를 보인다. 고봉학은 리와 심에 있어 인간 개개인의 주체적 심이 아닌 보편적 리를 중시한다. 그리고 양지 또한 본체가 아닌 보편적 리를 드러내는 도덕적 정감 작용으로 국한한다. 나아가 그 리를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일반인

이 아닌 성인으로 국한된다. 그렇지만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측면들이 있다. 바로 수양론의 측면에서는 '격물(格物)'을 '독서궁리(讀書窮理)'로 국한하지 않고 격물을 '우사처기당부(遇事處其當否)'와 '위선거악(爲善去惡)'으로도 정의한다든지, 중도(中道)와 권도(權道)를 중시하는 측면을 꼽을 수 있다. 또한 경세론 측면에서는 선안민(先安民), 후교화(後敎化)를 들 수 있는데, 안민과 생민을 중시하며 백성들에 대한 교화보다는 양육에 우선순위를 두는 기대승의 입장은 왕수인의 친민설과 통하는 부분이 있다.

3.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한국 양명학을 논하자면 첫 번째 화두는 한국 양명학의 독자성, 고유성은 무엇이냐는 질문이다. 이는 조선 성리학을 논할 때에 한국 성리학의 독자성과 고유성을 묻는 질문과 별반 다르지 않다. 성리학도 양명학도 중국에서 전래되었기 때문이다.

송석준은「도원 류승국과 한국 양명학」에서 한국 양명학 연구사에서 류승국의 역할과 의의를 소개하고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 양명학 전체에 대한 논자의 견해를 살필 수 있다. 논자 본인이 80년대 한국 양명학 연구 1세대로서 오랜 시간을 연구한 학자로서 이는 당연한 것이다.

논자는 80년대까지의 양명학 연구 개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한국에 있어 양명학파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30년대였다. 1933년 정인보가 동아일보에「조선양명학파(朝鮮陽明學派)」를 연재하였고, 4

년 뒤인 1937년 이능화는 「조선유계지양명학파(朝鮮儒界之陽明學派)」를 〈청구학총〉에 발표하였다. …… 20여 년이 지난 1953년 일본인 고교형(高橋亨)이 조선학보에 「조선(朝鮮)の양명학파(陽明學派)」를 발표하였고, 1971년 아부길웅(阿部吉雄)이 '일본양명학대계'를 집필하면서 양명학입문(陽明學入門) 속에 「조선(朝鮮)の양명학(陽明學)」을 소개하였다. ……조선 양명학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시작된 것은 이병도가 1955년 양명학의 전래와 퇴계의 변척 문제를 다룬 것이 그 시초였다. …… 한국 양명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작되었는데, 그 중요한 연구로는 윤남한과 유명종의 연구가 있다."라고 정리한다.

그렇다면 송석준은 한국 사상사에서 양명학의 특징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먼저 양명학과 실학의 상관성에 주목한다. 즉 "중국에 있어서 청대 이후 발생한 실학이 송명리학의 관념성 특히 명대 말기의 양명좌파의 공리공담성을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시대적 상황은 오히려 양명학이 아니라 정주학이 실학의 비판 대상이었다. 당시 양명학은 실학의 비판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도로 사상적 영역을 구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임병양란이라고 하는 역사적 상황이 양명학의 입장에서는 현실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로 제공되었다. 다만 당시의 양명학자들은 정주학자들의 핍박으로 인해 양명학을 학문적으로 발전시키기 보다는 실학과 함께 현실 참여의 방향으로 양명학을 전개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중국과는 또 다른 한국 양명학의 한 특징으로 생각된다."라고 한다.

그리고 양명학과 개화사상의 상관성을 양명학의 개방성을 통해 논한다. 즉 "개화사상과 관련하여서도 한국 양명학은 서세동점의 시간적

흐름을 따라 시대적 상황과 관련하여 수구적 입장에서 개화적 입장으로 변화해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점은 정주학에 뿌리를 둔 수구사상과 실학과 연계된 개화사상이 서로 이질적인 입장을 조화시키지 못하고 갈등을 하였던 측면을 감안할 때 한 사상이 두 입장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양명학만이 가지는 또 다른 특성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한다.

명대 양명학 말류의 폐단으로 지적되는 것이 이른바 창광방자(猖狂放恣)로 대표되는 명교(名敎, 곧 禮敎)의 이완과 해체다. 창광방자는 전통적으로 양명학 말류 폐단으로 평가받았지만 현대 연구자들은 근대의 맹아라는 측면에서 긍정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사실 양명학은 강력한 도덕실천성과 더불어 기성 명교의 해체라는 이중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송석준은 중국 양명학은 강력한 도덕실천에서 시작해서 명교의 해체라는 길을 걸어갔지만 한국 양명학은 명교의 해체까지 나아가지 않고 강력한 도덕실천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을 특색으로 주장한다. 물론 여기에는 양명좌파의 공리공담이라는 식으로 창광방자에 대한 부정적 이해가 깔려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송석준의 입장은 현재 한국 양명학 연구자들이 대체로 공유하는 견해다. 가령 위에서 이미 살펴본 강보승의 〈退溪와 陽明의 修養論 비교를 통한 朝鮮朝陽明學의 未擴散 원인 고찰〉에서, 강보승이 양명학이 조선에서 발전하지 못한 이유를 분석하면서 양명학의 도덕실천성에 주목한 데서도 드러난다. 즉 양명학은 주체의 도덕 본성을 강조하며, 사상마련의 일상적이고 즉각적 실천을 강조하는데, 이는 퇴계 성리학의 특색인 도덕실천의 강조와 겹치기 때문에 조선에서 양명학이 환영을 받지 못

했다는 입장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런 입장은 한국 양명학의 태두로 평가받는 정제두 양명학의 특성 및 양명학 재평가의 토대를 마련한 박은식과 정인보가 주목한 양명학 특징들이 공유하는 강력한 도덕실천, 애국애족, 실심실학적 학문관과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중국 양명학을 명교의 해체라는 측면에 무게를 두고, 정제두가 도덕실천을 강조하면서 명교를 고수하는 입장을 한국 양명학의 특징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자연스레 퇴계학으로 대표되는 조선 성리학의 실천성과 연계하여 정제두의 학문을 주왕화회적 입장으로 풀어가게 된다. 바로 황인옥이 「주 · 왕(朱 · 王) 이원적 구조에 의한 하곡의 『중용』 해석」에서 소개한 "하곡에 대한 연구의 대다수는 양명학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양명학과 주자학적 요소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분석하여 이해한 학자도 있다. 정인보는 하곡의 학문을 양주음왕(陽朱陰王)이라고 하였고, 윤남한은'정주학과 양명학의 통일'이라고 하였으며, 이상호는 주왕화회론(朱王和會論)이라고 하였다."라는 평가처럼 말이다.

사실 정제두의 양명학을 어떻게 성격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대 학자들만이 아니라 하곡 사후 당시 제자들 사이에서도 발생했다. 이경룡은 「이광사의 體仁공부와 心卽性 주장」에서 이광려의 이광사 묘지문을 가지고 논의를 전개한다. 즉 이광사의 가르침을 받은 이광려가 이광사의 묘지명에서 이광사는 주자학이 아닌 정제두의 해석과 철학사상을 존중하였는데, 정제두는 왕양명을 존중하였으나 이광사는 왕양명의 치양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이광려의 평가는 이광사가 정제두와 왕양명을 구별하였다는 말인데, 이는 당쟁에 휘말

린 집안의 정치적 이유 때문에 당시 조선학계에서 이단시하는 양명학을 이광사가 겉으로는 배척하였다는 뜻도 담겨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광사에 이르러 하곡학과 양명학을 구별하였다는 뜻도 담겨있다고 의미를 부여한다. 다시 말해 하곡학 또는 조선 심학이 명나라 양명학과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가? 이경룡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왕양명은 도가의 내단 수련을 통하여 심체를 깨달았고 문인들에게 정좌를 가르쳤다. 그러나 정좌법이나 내단 수련 모두 이단 학술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드러내놓고 가르치는 것을 꺼렸다. 나중에는 각종 방편적인 가르침들을 양지에 귀결시켰고 양지가 심체의 리(理)라고 설명하였지만 정명도가 천지의 마음이 인(仁)이라고 주장한 종지를 더욱 분명하게 강조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왕양명은 양지가 심의 본체라는 것을 밝히는 데 힘썼다. 그러나 하곡 선생은 도교와 불교의 원신(元神)에 천지의 생생(生生)하는 인(仁)의 덕성을 결합시켜서 활발한 생신의 진리를 설정하였다. 생신이 본성이고 이체(理體)이므로 생신의 성리를 깨닫고 다른 사람들도 밝히도록 돕는 것이 존성학술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왕양명의 양지가 심체에 그쳤으나 하곡 선생은 심체와 성체를 함께 설정한 존성을 주장한 것이다. 양명학은 심체의 양지에, 하곡학은 성체의 인체(仁體)에 강조한 점이 다르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하곡 선생은 조선 성리학의 이기론과 도교의 정기신(情氣神) 나아가 정주학의 허령지각과 왕양명의 양지를 넘어 북송시기 정명도와 소강절 등이 강조한 천지지심(天地之心)의 인체(仁體)를 반영한 존성 종지를 주창하였다. 존성종지는 왕양명이 주장한 심체의 양지 또는 치양지 및 정좌공부에 머물지 않고 북송시기 정명도의 구인(求仁)과 정성서(定

性書)의 동정개정(動靜皆定) 수양공부까지 포함한 학술종지를 제시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존성 종지는 하곡 선생의 심학체계가 독자적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뜻한다. 바로 이점을 이광려가 이광사 제문에서 공개한 것이라고 보는 편이 낫다. 이광사가 왕양명의 양지를 수긍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하곡 정제두 심학의 존성 종지가 왕양명의 양지를 넘기 때문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다. 이점을 이광려가 기술한 것이다. 따라서 이광찬과 이광사는 하곡후학의 일원으로서 하곡 선생의 만년 가르침을 받아 하곡학과 양명학을 구별하였다고 볼 수 있다."라고 평한다.

이경룡은 양명학은 심체의 양지에 중점을 두었다면 하곡학은 성체의 인체(仁體)를 강조한 점이 다르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경룡의 이 입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아마도 이경룡의 견해를 수긍하는 연구자와 반대하는 연구자로 나뉠 것이다. 수긍하든 혹은 반대하든 각 그룹의 연구자들은 자신의 주장을 옹호할 충분한 논거를 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그룹의 주장이 이율배반적으로 충돌한다는 데에 있다. 이경룡의 견해는 결국 주자학과 양명학의 경계 지점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인상을 준다. 바로 하곡학을 규정할 적에 주왕화해적이라는 입장처럼 말이다.

4. 평가와 전망

한국양명학 논문 편수는 14년도 8편, 15년도에 12편, 16년도 15편, 17년도 16편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양명학 연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일 만하다.

17년도 논문은 전체 편수가 늘기도 했지만 현재 한국 내 양명학 연구를 리드하는 중진연구자들의 충실한 연구논문을 만나게 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중요 학술지에 게재된 한국 양명학 연구 논문 편수가 11편(양명학과 성리학 관련 논문은 제외)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은 조선유학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명학의 비중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실 전년도에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향후 조선 양명학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역시 새로운 양명학자의 발굴과 주제들을 탐색하여 논의의 장을 확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가장 큰 걸림돌은 문헌의 제약이다. 이 부분은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보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17년도 논문 중에서 조선성리학과 양명학의 비교적 시각에서 작성한 논문들이 눈에 띈다. 특히 이 논문들 중에는 조선성리학 3대 논쟁인 사칠논쟁, 호락논쟁, 심설논쟁으로 발전하는 학술사상의 변화 과정 중에서 심학화의 경향을 이해하는데 기초를 제공하는 작업들이 있다. 이는 조선 성리학의 고유성을 확정하는 데에도 중요하고, 한국 양명학의 독자성을 확립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17년도에 발표된 논문 중에서 한 편을 꼽으라면 이향준의 「심즉리의 출현: 「존재의 대연쇄」와 「의인화」를 중심으로」를 꼽고 싶다. 물론 논자의 주장을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선성리학의 변화 발전 중에 나타나는 심학화의 경향을 일관된 틀을 통해서 해명하고자 한 시도라는 점에 주목했다.

제7장

한국 실학 연구

허종은

1. 머리말

이 보고서는 "2017년도 한국 학계의 유교 연구 성과 분석과 전망"의 한 부분으로, 2017년도 한 해 동안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학술 논문 및 박사학위논문을 포함하여 '한국실학'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2017년 한 해 동안 발표된 한국실학 관련 논문의 목록을 수집하여 인물별, 주제별로 분류하고, 그 중 주요한 논문 몇 편에 대한 설명과 비평을 하면서 향후 전망에 대하여 간략하게 언급하겠다. 논문 색인은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학술지에 발표된 것으로 한정하였으며,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 등 데이터베이스(DB)로 제공하는 검색 기능을 사용하였다.

2017년도 국내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한국실학 관련 논문은 약 52편, 박사학위논문이 약 6편으로 전체 약 58편이 검색되었다. 전체 논문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논문 제목을 크게 두 가지 분류 방식에 따라 나누어보았다. 첫째 인물별 분류, 둘째 주제별 분류이다. 인물별 분류에서는 유형원, 성호학파, 북학파, 실학의 집대성자로 알려진 정약용, 최한기, 기타 순서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주제별 분류에서는 첫째 경학, 둘째 철학, 셋째 정치 및 경제, 넷째 기타로 분류하였다.

2. 인물별 분류

한국실학 관련 논문들을 학파별로 분류하면, 유형원 10편, 성호학파 3편, 북학파 4편, 다산 관련 31편, 혜강 관련 2편, 기타 인물과 주제에 대한 것이 8편이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다산 관련 논문이 가장 많고, 적지만 북학파와 성호학파, 최한기에 관한 연구도 꾸준히 계속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유형원의 학문세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점이 주목된다. 그리고 정약용의 학문과 베트남 유학자 레귀돈(黎貴惇)을 비교한 특집도 특이하다.

1) 유형원(柳馨遠)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만진초	17세기 한중 실학자의 교육개혁안 비교연구－유형원과 황종희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3권	한국실학학회
2	임형택	17세기 문명적 위기의식과 실학－반계(磻溪) 유형원(柳馨遠)의 문집 발간에 즈음해서	한국실학연구 34권	한국실학학회
3	정구복	반계 유형원의 학문세계와 그 영향	한국실학연구 34권	한국실학학회
4	김승대	반계 유형원의 가계 분석	한국실학연구 34권	한국실학학회
5	양승목	반계 유형원 초상(抄象)－생애기록물에 대한 통시적 이해	한국실학연구 34권	한국실학학회
6	정용건	반계(磻溪) 유형원(柳馨遠)의 역사의식과 동국사(東國史) 서술 구상－『반계잡고(磻溪雜藁)』 소재 기록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4권	한국실학학회
7	손혜리	반계가 바라본 명청 교체와 명 유민	한국실학연구 34권	한국실학학회
8	조해숙	반계 유형원의 시조 한역에 대하여	한국실학연구 34권	한국실학학회
9	정성희	반계(磻溪) 경세학(經世學)의 계승과 과거제 개혁론	한국실학연구 34권	한국실학학회
10	이동희	부안지역 반계 유형원 유적보존과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한국실학연구 34권	한국실학학회

조선후기 실학파의 선하로 널리 알려진 유형원의 학문을 전체적이면서도 다양한 시각으로 조명한 특집이 발표되었다. 실학의 역사적 의의를 17세기 문명적 위기의식에서 찾으면서 유형원을 조명하려는 논문부터 그의 학술을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그 영향까지 살펴본 연구, 유형원의 역사의식과 우리나라 역사를 서술하려는 구상, 과거제 개혁론, 황종희와 비교한 교육개혁론, 초상이나 가계 분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각에서 반계의 사상과 학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2) 성호학파(星湖學派)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최정연	성호 이익의 뇌낭설 수용 방식에 관한 검토 – 성호의 사칠설과 『주제군징』의 뇌낭설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3권	한국실학학회
2	최정준	실용과 과학에 기초한 성호(星湖) 이익(李瀷)의 봉침육합(縫針六合)이론 – 『역경질서(易經疾書)』의 선갑후갑(先甲後甲) · 선경후결(先庚後庚)의 해석과 연관하여	한국실학연구 34권	한국실학학회
3	신채용	『성호전집(星湖全集)』 묘도문자(墓道文字)를 통해서 본 이익(李瀷)의 남인의리(南人義理)	조선시대사학보 80권	조선시대사학회

성호 이익을 다룬 논문은 3편이며, 성호의 서학과의 관련성을 논의할 때 연구되는 뇌낭설을 이번에는 그의 사칠론과 관련하여 연구한 논문이 있으며, 성호의 역학을 분석한 글, 그리고 성호의 남인 계통의 의식을 분석한 논문이 제출되었다.

3) 북학파(北學派)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현식	『열하일기』「심세편」, 청나라 학술과 사상에 관한 담론	동방학지 제181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	이경구 이예안	중화(中華) 해체의 두 가지 길－홍대용과 스기타 겐파쿠 비교 연구	한국실학연구 33권	한국실학학회
3	박현규	담헌(湛軒) 홍대용(洪大容) 화상(畵像)의 종류와 정본 선정에 관한 고찰	한국실학연구 33권	한국실학학회
4	현안옥	박지원 『연상각선본』의 개작 양상과 그 의미	박사논문	전북대

북학파를 다룬 논문이 4편인데, 이 중에서 홍대용과 관련된 글이 2편, 박지원과 관련된 논문이 2편이다. 홍대용의 경우에는 중화의 해체라는 문제를 일본 학자와 비교하였고, 나머지는 그의 화상에 관한 것이다. 박지원의 경우에는 『열하일기』를 통하여 당시 청나라 학술과의 관련성을 다루었고, 연암집의 문헌학적인 고찰이라는 주제로 박사논문이 제출되었다.

4) 정약용(丁若鏞)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Hoang, Minh Quan	Initial research on Tasan Jeong Yak-Yong's attitude of Zhu Xi's learning through his interpretation of the Confuciaan classics: The case of Daxue Gongyi(大學公議)	다산학 30권	다산학술문화재단
2	김영우	레귀돈(黎貴惇)과 정약용의 정치사상 비교	다산학 30권	다산학술문화재단
3	전성건	레귀돈의 기학과 정약용의 상제학	다산학 30권	다산학술문화재단
4	정소이	레귀돈의 「대학해(大學解)」와 정약용의 『대학공의(大學公議)』 해석 비교	다산학 30권	다산학술문화재단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5	방인	다산(茶山)의 양호작괘법(兩互作卦法)	다산학 30권	다산학술문화재단
6	김평원	정약용이 설계한 거중기(擧重機)와 녹로의 용도	다산학 30권	다산학술문화재단
7	박석무	조선 실학사상의 흐름 : 율곡(栗谷)에서 다산(茶山)으로	다산학 30권	다산학술문화재단
8	김태영	『경세유표』의 '신아구방(新我舊邦)'론	다산학 31권	다산학술문화재단
9	조성을	『경세유표(經世遺表)』 연구의 제문제	다산학 31권	다산학술문화재단
10	김문식	다산 정약용의 인재선발론	다산학 31권	다산학술문화재단
11	백민정	『경세유표』와 정약용의 통치론 : 신분 질서와 예치(禮治) 문제를 중심으로	다산학 31권	다산학술문화재단
12	김선희	다산 정약용의 유가적 공적 세계의 기획 : 『경세유표』를 중심으로	다산학 31권	다산학술문화재단
13	전성건	다산 정약용의 경학과 『경세유표』	다산학 31권	다산학술문화재단
14	전상욱	『목민심서』를 통해서 본 다산 정약용의 민고 운영 개선론	다산학 31권	다산학술문화재단
15	김평원	정약용이 설계한 유형거(游衡車) : 그 원리와 사용법	다산학 31권	다산학술문화재단
16	오수록	다산 정약용의 실천적 덕론(德論) 고찰(考察)	유교사상문화연구 69권	한국유교학회
17	서근식	성호학파에서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역학(易學)의 성립과정(Ⅲ) – 이익, 신후담의 역학에서 정약용의 역학으로 –	한국철학논집 53권	한국철학사연구회
18	김혜련	다산학(茶山學)에 관한 민족주의적 관점 고찰	동서철학연구 85권	한국동서철학회
19	이병유	정약용의 『사례가식(四禮家式)』과 가례(家禮) 인식 : 『주자가례(朱子家禮)』와 비교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83권	조선시대사학회
20	정호훈	조선후기 새로운 국가구상의 전통과 『경세유표(經世遺表)』	동방학지 제180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1	김용흠	『경세유표』를 통해서 본 복지국가의 전통	동방학지 제180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2	김선희	근대 전환기 다산 저술의 출판과 승인	동방학지 제180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3	김태희	다산 정약용의 군주론과 『경세유표 』	동방학지 제181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24	백민정	『흠흠신서(欽欽新書)』에 반영된 다산(茶山)의 유교적 재판 원칙과 규범 – 「경사요의(經史要義)」의 법리(法理) 해석 근거와 의미 재검토	대동문화연구 99권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5	정민	다산(茶山) 『비어고(備禦考)』의 행방	대동문화연구 99권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6	고승환	다산 정약용의 충서론(忠恕論)에 관한 재해석 – 수양론과의 정합성 탐구	철학논집 제49권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27	이진형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향촌사회인식(鄕村社會認識)과 개혁(改革) 구상(構想)	박사논문	연세대
28	김만수	다산 정약용의 위민 변통사상	박사논문	영남대
29	황민선	다산 정약용의 원림시 연구	박사논문	전남대
30	이정숙	다산 정약용의 혼례관 연구	박사논문	원광대
31	박창식	정약용(丁若鏞), 대진(戴震), 오규소라이(荻生徂徠)의 탈주자학적 도덕철학 비교 연구	박사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약용을 다룬 연구가 31편으로 가장 많은데, 이 중에서 철학 분야 9편, 경학 5편, 경세 14편, 문학 1편, 기타 2편이 발표되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가 연구되고 있다. 특히 『경세유표』와 베트남 유학자인 黎貴惇과의 비교를 집중하여 조명한 점이 특징이다.

5) 최한기(崔漢綺)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채진풍	동아시아 실학 속의 형이상학 – 방이지(方以智), 최한기(崔漢綺)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4권	한국실학학회
2	이인화	최한기의 기학 체계에서 인간 · 인민 · 천하인	양명학 48권	한국양명학회

최한기를 연구한 논문은 2편으로 방이지와의 비교를 통하여 실학의 형이상학을 다루었고, 기학(氣學) 체계에서 나타나는 인간관을 다루었다.

6) 기타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헌창	근세 실학의 선구자이자 실천자인 김육(金堉)(1580~1658)	한국실학연구 33권	한국실학학회
2	완재동	레귀돈(黎貴惇)의 개혁정신(改革精神)	한국실학연구 34권	한국실학학회
3	함영대	레귀돈의 『성모현범록(聖模賢範錄)』에 나타난 맹자 해석	다산학 30권	다산학술문화재단
4	구만옥	『사연고(四沿考)』와 『도로고(道路考)』를 통해서 본 신경준(申景濬)의 조석설(潮汐說)	한국실학연구 34권	한국실학학회
5	김동민	심대윤(沈大允) 『춘추사전속전(春秋四傳續傳)』의 탈성리학적 『춘추』 이해	한국철학논집 52권	한국철학사연구회
6	선지수	이토 진사이의 실학 – 다원성과 일상성의 사상	한국실학연구 34권	한국실학학회
7	송재소	18세기 베트남과 조선의 학문적 동향	다산학 30권	다산학술문화재단
8	조성을	서피(西陂) 유희(柳僖)의 생애(生涯)와 학문(學問)	한국실학연구 34권	한국실학학회

기타로 분류한 인물이나 주제에 대한 논문이 8편이 발표되었다. 김육과 유희의 학문을 다루었으며, 2편은 베트남 유학자 레귀돈의 학문을 다루었고, 다른 한 편은 18세기 조선과 베트남의 학술 동향을 검토하였다. 일본 학자 이토 진사이의 실학 정신을 다룬 논문이 1편, 신경준의 과학사상을 다룬 것, 특히 심대윤의 『춘추』에 관한 이해를 다룬 논문이 발표되었다.

3. 주제별 분류

그리고 주제별로 분류하면 경학 관련 논문이 9편, 철학 분야가 19편, 정치와 경제 분야가 15편, 기타 분야가 6편 등이다. 실학의 철학과 사상, 그리고 정치와 경제 분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점은 주목할 만하다. 경학 관련 연구도 예년과 비슷하게 꾸준하게 연구되고 있다.

1) 경학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최정준	실용과 과학에 기초한 성호(星湖) 이익(李瀷)의 봉침육합(縫針六合)이론 – 『역경질서(易經疾書)』의 선갑후갑(先甲後甲) · 선경후경(先庚後庚)의 해석과 연관하여	한국실학연구 34권	한국실학학회
2	정소이	레귀돈의 「대학해(大學解)」와 정약용의 『대학공의(大學公議)』 해석 비교	다산학 30권	다산학술문화재단
3	방인	다산(茶山)의 양호작괘법(兩互作卦法)	다산학 30권	다산학술문화재단
4	전성건	다산 정약용의 경학과 『경세유표』	다산학 31권	다산학술문화재단
5	김동민	심대윤(沈大允) 『춘추사전속전(春秋四傳續傳)』의 탈성리학적 『춘추』 이해	한국철학논집 52권	한국철학사연구회
6	서근식	성호학파에서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역학(易學)의 성립과정(Ⅲ) – 이익, 신후담의 역학에서 정약용의 역학으로	한국철학논집 53권	한국철학사연구회
7	이병유	정약용의 『사례가식四禮家式』과 가례(家禮) 인식: 『주자가례(朱子家禮)』와 비교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83권	조선시대사학회

경학을 다룬 논문은 7편인데, 그 중에서 역학 분야를 다룬 논문이 3편, 『춘추』 1편, 『대학』 1편, 예학 관련 1편, 다산의 경학과 『경세유표』와의 관련성을 다룬 논문이 1편이다. 역학 관련 논문이 전년에 이어서

계속 많은 편이며, 성호의 역학이 1편, 다산 1편, 성호와 다산의 역학의 관련성을 다룬 논문이 1편이다. 심대윤의 『춘추』에 관해 오랜만에 연구가 발표되었다. 성호와 심대윤을 제외하면 여전히 정약용의 경학에 대한 논문이 5편으로 가장 두드러진다.

2) 철학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최정연	성호 이익의 뇌낭설 수용 방식에 관한 검토 – 성호의 사칠설과 『주제군징』의 뇌낭설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3권	한국실학학회
2	이경구 이예안	중화(中華) 해체의 두 가지 길 –홍대용과 스기타 겐파쿠 비교 연구	한국실학연구 33권	한국실학학회
3	정구복	반계 유형원의 학문세계와 그 영향	한국실학연구 34권	한국실학학회
4	채진풍	동아시아 실학 속의 형이상학 – 방이지(方以智), 최한기(崔漢綺)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4권	한국실학학회
5	선지수	이토 진사이의 실학—다원성과 일상성의 사상	한국실학연구 34권	한국실학학회
6	구만옥	『사연고(四沿考)』와 『도로고(道路考)』를 통해서 본 신경준(申景濬)의 조석설(潮汐說)	한국실학연구 34권	한국실학학회
7	송재소	18세기 베트남과 조선의 학문적 동향	다산학 30권	다산학술문화재단
8	Hoang Minh Quan	Initial research on Tasan Jeong Yak–Yong's attitude of Zhu Xi's learning through his interpretation of the Confuciaan classics : The case of Daxue Gongyi(大學公議)	다산학 30권	다산학술문화재단
9	전성건	레귀돈의 기학과 정약용의 상제학	다산학 30권	다산학술문화재단
10	함영대	레귀돈의 『성모현범록(聖模賢範錄)』에 나타난 맹자 해석	다산학 30권	다산학술문화재단
11	박석무	조선 실학사상의 흐름 : 율곡(栗谷)에서 다산(茶山)으로	다산학 30권	다산학술문화재단
12	오수록	다산 정약용의 실천적 덕론(德論) 고찰(考察)	유교사상문화연구 69권	한국유교학회
13	이인화	최한기의 기학 체계에서 인간 · 인민 · 천하인	양명학 48권	한국양명학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4	이현식	『열하일기』「심세편」, 청나라 학술과 사상에 관한 담론	동방학지 제181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5	고승환	다산 정약용의 충서론(忠恕論)에 관한 재해석 – 수양론과의 정합성 탐구	철학논집 제49권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16	박창식	정약용(丁若鏞), 대진(戴震), 오규소라이(荻生徂徠)의 탈주자학적 도덕철학 비교 연구	박사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철학을 다룬 논문은 총 16편이다. 이 중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다산의 철학사상에 관한 논문이 6편이며, 그 가운데 베트남 학자인 레귀돈과의 비교 논문이 있다. 그리고 레귀돈의 맹자 해석에 대한 한국 학자의 논문 1편, 다산 『대학공의』에 관한 베트남 학자의 연구 1편, 18세기 조선과 베트남의 학문 동향에 관한 연구 1편 등 베트남 유학에 관한 조명이 두드러진다. 다산과 관련하여 다산과 대진, 오규 소라이를 비교한 박사논문이 제출되었다. 또한 최한기와 방이지를 비교하면서 동아시아 실학에서의 형이상학을 통합적으로 보려는 논문이 있으며, 홍대용과 일본 학자를 비교하면서 중화주의 극복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와 같이 올해는 다른 나라 학자와의 비교 연구가 좀 많은 편이다.

3) 정치·경제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영우	레귀돈(黎貴惇)과 정약용의 정치사상 비교	다산학 30권	다산학술문화재단
2	김평원	정약용이 설계한 거중기(擧重機)와 녹로의 용도	다산학 30권	다산학술문화재단
3	김태영	『경세유표』의 '신아구방(新我舊邦)'론	다산학 31권	다산학술문화재단
4	조성을	『경세유표(經世遺表)』 연구의 제문제	다산학 31권	다산학술문화재단
5	김문식	다산 정약용의 인재선발론	다산학 31권	다산학술문화재단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6	백민정	『경세유표』와 정약용의 통치론 : 신분 질서와 예치(禮治) 문제를 중심으로	다산학 31권	다산학술문화재단
7	김선희	다산 정약용의 유가적 공적 세계의 기획 : 『경세유표』를 중심으로	다산학 31권	다산학술문화재단
8	전상욱	『목민심서』를 통해서 본 다산 정약용의 민고 운영 개선론	다산학 31권	다산학술문화재단
9	김평원	정약용이 설계한 유형거(游衡車) : 그 원리와 사용법	다산학 31권	다산학술문화재단
10	김혜련	『다산학』(茶山學)에 관한 민족주의적 관점 고찰	동서철학연구 85권	한국동서철학회
11	정호훈	조선후기 새로운 국가구상의 전통과 『경세유표(經世遺表)』	동방학지 제180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2	김용흠	『경세유표』를 통해서 본 복지국가의 전통	동방학지 제180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3	김태희	다산 정약용의 군주론과 『경세유표 』	동방학지 제181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4	백민정	『흠흠신서(欽欽新書)』에 반영된 다산(茶山)의 유교적 재판 원칙과 규범 -「경사요의(經史要義)」의 법리(法理) 해석 근거와 의미 재검토	대동문화연구 99권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5	정민	다산(茶山) 『비어고(備禦考)』의 행방	대동문화연구 99권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6	완재동	레귀돈(黎貴惇)의 개혁정신(改革精神)	한국실학연구 34권	한국실학학회
17	정용건	반계(磻溪) 유형원(柳馨遠)의 역사의식과 동국사(東國史) 서술 구상 -『반계잡고(磻溪雜藁)』 소재 기록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4권	한국실학학회
18	손혜리	반계가 바라본 명청 교체와 명 유민	한국실학연구 34권	한국실학학회
19	정성희	반계(磻溪) 경세학(經世學)의 계승과 과거제 개혁론	한국실학연구 34권	한국실학학회
20	이진형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향촌사회인식(鄕村社會認識)과 개혁(改革) 구상(構想)	박사논문	연세대
21	김만수	다산 정약용의 위민 변통사상	박사논문	영남대
22	이정숙	다산 정약용의 혼례관 연구	박사논문	원광대

경세론에 해당하는 정치와 경제 등을 다룬 논문은 22편으로 다른 분야보다 많은 편이다. 이 중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정약용의 경세사상을 다룬 논문이 가장 많으며, 특히 『경세유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그 외에도 다산에 관한 박사논문이 3편이나 발표되었으며, 베트남 유학자 레귀돈과의 연구에도 경세사상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다산의 거중기, 도르래, 무거운 물건을 싣던 수레인 유형거 등에 관한 연구도 눈에 띈다. 그리고 반계 실학의 특집에서도 반계의 경세사상이 다루어졌다.

4) 기타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신채용	『성호전집(星湖全集)』 묘도문자(墓道文字)를 통해서 본 이익(李瀷)의 남인의리(南人義理)	조선시대사학보 80권	조선시대사학회
2	이헌창	근세 실학의 선구자이자 실천자인 김육(金堉)(1580~1658)	한국실학연구 33권	한국실학학회
3	만진초	17세기 한중 실학자의 교육개혁안 비교연구-유형원과 황종희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3권	한국실학학회
4	임형택	17세기 문명적 위기의식과 실학-반계(磻溪) 유형원(柳馨遠)의 문집 발간에 즈음해서	한국실학연구 34권	한국실학학회
5	김승대	반계 유형원의 가계 분석	한국실학연구 34권	한국실학학회
6	양승목	반계 유형원 초상(抄象)-생애기록물에 대한 통시적 이해	한국실학연구 34권	한국실학학회
7	조해숙	반계 유형원의 시조 한역에 대하여	한국실학연구 34권	한국실학학회
8	이동희	부안지역 반계 유형원 유적보존과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한국실학연구 34권	한국실학학회
9	박현규	담헌(湛軒) 홍대용(洪大容) 화상(畵像)의 종류와 정본 선정에 관한 고찰	한국실학연구 33권	한국실학학회
10	조성을	서피(西陂) 유희(柳僖)의 생애(生涯)와 학문(學問)	한국실학연구 34권	한국실학학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1	김선희	근대 전환기 다산 저술의 출판과 승인	동방학지 제180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2	현안옥	박지원『연상각선본』의 개작 양상과 그 의미	박사논문	전북대
13	황민선	다산 정약용의 원림시 연구	박사논문	전남대

기타로 분류한 13편에는 다산의 저술 출판, 박지원의 문집에 관한 연구가 주목되며, 유형원, 김육, 유희 등의 연구도 실학의 외연을 넓히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4.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2017년 학술지에서 실학에 관한 특집이 세 주제로 기획되었다. 그 중에서 〈한국실학연구〉 34권에서는 '반계 유형원과 동아시아 초기 실학'이라는 주제로 특집을 실었다. 이 특집에 실린 논문이 무려 13편이다. 다산학 30호에서는 베트남 유학자인 레귀돈과 정약용의 사상을 비교하는 특집을 실었다. 그리고 〈다산학〉 31호와 〈동방학지〉 180집에서 동시에 정약용의『경세유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특집을 실었다. 이를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반계 유형원과 동아시아 초기 실학'에서 임형택은「17세기 문명적 위기의식과 실학 - 磻溪 柳馨遠의 문집 발간에 즈음해서」라는 기조강연을 통하여 17세기 명청교체기의 상황에서 일군의 학자들은 이를 문명의 위기로 진단하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문에 열중하였는데, 그 결과로 실학이라는 학풍이 형성되었다고 규정하였다. 임형택

은 이러한 학풍의 1세대에 속하는 학자로 조선에서는 유형원을 중심을 두고, 중국실학의 1세대에 속하는 고염무(顧炎武)와 황종희(黃宗羲)를 관련지어서 초기 실학의 학풍을 논하였다.

다음으로 정구복은「반계 유형원의 학문세계와 그 영향」이라는 기조강연에서 유형원의 현전하는 두 책 중에서『동국여지지』는 우리나라 전국의 군현에 대한 인문 · 지리학적 저술(9권)이고 다른 한 권은 국가통치 제도론인『반계수록』26권이라고 소개하였다. 그는『동국여지지』는 조선 후기에 큰 학문경향을 띈 역사지리학 발전에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았고,『반계수록』은 국가개혁안으로 이는 국가경영학이란 학문 분야를 새롭게 개척한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그의 역사지리학은 전라도 순창에 살았던 신경준(1712~1781)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그의 국가경영학은 성호 이익(1681~1763), 다산 정약용(1762~1836)에 의해 계승 발전하였고, 안정복(1712~1791), 홍계희(1703~1771) 등에게 큰 학문적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정용건은「반계(磻溪) 유형원(柳馨遠)의 역사의식과 동국사(東國史) 서술 구상 -『반계잡고(磻溪雜藁)』소재 기록을 중심으로」에서 유형원은 주희(朱熹)의『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을 역사 서술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동국사 서술에서 '성리학적 의리론'이라는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고 보았다. 이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를 연구한 6편의 논문이 더 수록되어 있다.

정약용의『경세유표』는 다산학 31호와동방학지 180집에서 동시에 특집으로 다루었다. 김태영은「『경세유표』의 신아구방新我舊邦론」에서 정약용이『경세유표』에서 강력한 왕권에 의한 정치적 결단으로 낡은 국가 체제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변법을 통하여 '신아구방(新我舊

邦)'할 수 있는 정치개혁론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조성을은 「『경세유표經世遺表』 연구의 제문제」에서 『경세유표』 연구의 쟁점들을 10가지로 정리하여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백민정은 「『경세유표』와 정약용의 통치론 : 신분 질서와 예치禮治 문제를 중심으로」에서 정약용이 구상하였던 통치체제와 구조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정약용은 천리(天理)와 인정(人情)에 부합하는 예(禮)를 강조하여 그에 따른 상하귀천 등급에 따른 차등화 원리에 알맞은 통치체제를 주장하였다고 보았다.

김선희는 「다산 정약용의 유가적 공적 세계의 기획 : 『경세유표』를 중심으로」에서 정약용이 주장하는 군권과 민권의 문제를 다루었다. 그리고 전성건은 「다산 정약용의 경학과 『경세유표』」에서 정약용의 경학 방법론과 경학의 지향점을 예법과 예치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것이 『경세유표』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보았다. 그는 『경세유표』가 『주례』를 모범으로 삼아 자신의 시대에 적용하기 위해 작성하여 '신아구방'을 위한 다산의 기획이라고 보았다.

〈동방학지〉 제180집에서도 『경세유표(經世遺表)』를 특집으로 다루었다. 정호훈은 「조선후기 새로운 국가구상의 전통과 『경세유표(經世遺表)』」에서 『반계수록(磻溪隨錄))』의 전통을 계승하여 정약용이 새로운 국가 통치체제를 구상하였다고 보고, 『경세유표』에서 토지제도의 개혁을 주장한 것은 당시 농업과 농민이 처한 현실을 개선하려는 새로운 기획이라고 평가하였다.

김용흠은 「『경세유표(經世遺表)』를 통해서 본 복지국가의 전통」에서 정약용은 당시의 문란했던 토지제도와 환곡 제도 등을 개혁하여 민

생을 안정시켜 백성의 자치능력을 향상시켜서 국가를 강화하려는 전반적인 개혁을 주장하였다고 보았다. 이러한 다산의 생각은 사회주의적이지도 않고, 자유방임주의에 입각한 자본주의적 국가를 지향하지도 않았으니, 이는 오늘날의 복지국가 유형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였다.

김태희는「다산 정약용의 군주론과『경세유표(經世遺表)』」에서『원목』,『탕론』,『일주서극은편변』은 일관성을 가지는데, 군주의 기원 및 권력의 정당성, 군주 교체의 정당성과 한계, 그리고 현명한 신하의 중요성을 차례대로 강조하였다.『경세유표』는 군주의 소임과 바람직한 군주상을 제시한 것으로, 앞의 세 논설과는 그 초점이 다르다.『경세유표』는 황극(皇極)으로 표현되는 강력한 군주와 군주 중심의 관료 체제를 지향하지만 이때의 군주도 유학의 이상적인 군주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베트남 유학자인 레귀돈(黎貴惇, 1726~1784)에 관한 특집이다. 완재동은 '반계 유형원과 동아시아 초기 실학'이라는 특집에서「레귀돈(黎貴惇)의 개혁정신(改革精神)」을 발표하였다. 레귀돈은 상소문에서 치국제도와 관련하여 유학자를 선발하는 것, 관직, 국가정치경제, 국민호적 등 여러 제도의 개혁에 대해서 제안을 하였을 뿐 아니라 예와 풍속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그의 개혁 정신은 인치(仁治)와 법치(法治)를 결합시킴으로써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김영우는「레귀돈과 정약용의 정치사상 비교」에서 "레귀돈과 정약용의 정치사상은 통치자의 적극적 역할과 정치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정약용이 심성론을 통치론과 구분하여 논의하는 것과는 달리 레귀돈은 심성론을 통치론과 독립하여 논의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차이점 또한 발견된다. 이러한 차이는 레귀돈이 통치자의 도덕 수양 그 자체 보다는 일의 성과를 보다 중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약용은 경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경세의 성공은 반드시 위정자의 도덕 실천을 전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었기에 심성론 또한 중요한 탐구의 대상이었다."고 보았다.

전성건은「레귀돈의 기학과 정약용의 상제학」에서 "레귀돈은 상수학을 기반으로 한 기철학의 입장에서 천문, 지리, 인사 등을 추산과 측량의 방식을 적용하여 통합적으로 파악하려고 하였고, 정약용은 훈고학, 성리학, 고증학의 장점을 흡수하여 육경사서를 재해석하고, 그를 근거로 마련된 개혁안들을 중심으로 조선왕조의 국가체계를 일신시키려고 하였다"고 보았다. 이들은 천주학에 대한 이해 방식에 차이를 보이는데, "레귀돈은 천주의 기원을 자신의 이론으로 정당화하는 한편, 인륜을 경시하는 생활태도에 대해서는 긍정하지 않는다. 반면, 정약용은 천주학을 상제학으로 전환시키는데, 이는 천주학에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이다."고 보았다.

정소이는「레귀돈의『대학해(大學解)』와 정약용의『대학공의(大學公議)』해석 비교」에서 레귀돈의『대학해(大學解)』는 주로 주희의『대학장구』의 해석을 따랐으나 '치지(致知)'의 지(知)를 양지(良知)로 풀었고, 효제자의 주체를 주로 군주로 보았으며, 형이상학적 해석을 가급적 배제한 점이 눈에 띄며, 정약용의『대학공의』는 주희의 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격물치지를 제외하고 삼강령 육조목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구상을 제시하여『대학』의 본래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였다고 보았다.

함영대는「레귀돈의『성모현범록(聖模賢範錄)』에 나타난 맹자 해석」에서 레귀돈은『맹자』의 핵심 내용에 대한 뚜렷한 관심이나 입장을

제기하지 않았고, 다만 "레귀돈은 『맹자』에 대한 채록에서 『맹자』 그 자체의 본질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데 그다지 주의하지 않고, 자신의 안목에서 요긴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선별했다."고 평가하였다.

이외에도 김동민의 「심대윤(沈大允) 『춘추사전속전(春秋四傳續傳)』의 탈성리학적 『춘추』 이해」는 조선 말기 『춘추』에 관한 연구를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5. 평가와 전망

2017년도 조선후기 실학에 관한 연구 논문은 총 58편이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크게 변한 점은 없다. 인물별 연구에서 보면 여전히 정약용에 관한 연구가 절반을 넘어서 압도적이라는 측면에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포착된다. 다른 실학파나 인물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어진다는 측면에서는 다행이다. 주제별 연구에서는 철학과 경세학에 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면서 경학을 비롯한 다른 분야의 연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17년도는 다양한 특집이 기획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유형원을 다양한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실학의 원류에 대한 학문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정약용의 『경세유표(經世遺表)』에 대한 다각도의 조명은 두 학술잡지에서 동시에 기획되어 다산 학문을 포괄적이면서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베트남 유학자 레귀돈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특별한 연구 성과가 있었다.

이는 실학 연구를 통시대적인 안목으로 이끈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학문이 그렇듯이 해당 학문은 그 시대의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조선의 실학도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동아시아, 세계사적 시각에서 조명될 날을 기대하면서 해외 학자들과의 비교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간헐적으로 연구 업적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당시의 주류 학문인 성리학과의 심층적인 연구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이 분야의 연구는 실학을 위해서나 성리학, 그리고 당시 역사와 사상을 이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꾸준한 연구를 기대해 본다. 그리고 실학 사상가들 간의 비교 연구도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다. 실학의 시대적 연관 문제가 어느 정도 연구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심층적인 부분에서는 밝히지 못한 측면이 많다. 실학이 역사적인 맥락에서 잘 이해될 수 있는 연구와 역사적 평가나 현대적 의의에서도 꾸준한 연구가 있기를 기대한다.

제8장

한국 경학사상 연구

김유곤

1. 머리말

본 보고서는 2017년도 한국에서 발표된 학술 논문 중에서 경학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글이다. 논문 선정 작업은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와 등재 후보 학술지를 대상으로 삼았다.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출간된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와 등재 후보 학술지를 살펴본 결과 경학에 관한 논문은 총 27편이 있었다. 경학에 관한 논문으로 선택한 기준은 유교 경전인 십삼경(十三經)에 대한 한국, 중국, 일본 학자들의 주석을 중심으로 분석한 글로 한정하였다. 27편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동민	심대윤(沈大允) 『춘추사전속전(春秋四傳續傳)』의 탈성리학적 『춘추』 이해	한국철학논집 52	한국철학사연구회
2	김동민	서파(西陂) 유희(柳僖)의 『춘추괄례분류』에 보이는 『춘추』 범례 분류의 특징	한국철학논집 54	한국철학사연구회
3	김동민	주자의 『춘추』 주해서에 대한 비판과 변론	양명학 46	한국양명학회
4	김동민	주자의 『춘추』 해석과 그 특징	유교사상문화연구 68	한국유교학회
5	김세서리아	임윤지당의 『논어』 이해에 대한 여성철학적 성찰	한국여성철학 28	한국여성철학회
6	김용재	제주석(諸註釋)을 통해 본 『논어』 경문(經文)의 해석학적 이해[7-1](-「술이(述而)」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89	동양철학연구회
7	김유곤	『효경』과 『내칙』 해석에 나타난 윤휴의 사친지학(事親之學)의 구조와 성격	유학연구 40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8	김인규	조선 후기 『주례』의 수용과 국가례(國家禮)(-반계 유형원의 국가례(國家禮)와 『주례』의 이념-)	퇴계학논총 29	퇴계학부산연구원
9	김정각	주희역학에서의 도통에 관한 연구	범한철학 85	범한철학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0	김조영	『맹자요의(孟子要義)』에 나타난 다산의 경학관 연구	한문고전연구 35	한국한문고전학회(구 성신한문학회)
11	문창호	구룡재 백봉래의 경학 일고(－『대학』과 『중용』의 관계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38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2	서근식	성호학파에서 다산 정약용 역학의 성립과정(Ⅲ)(－이익, 신후담의 역학에서 정약용의 역학으로－)	한국철학논집 53	한국철학사연구회
13	이은호	윤휴의 「홍범(洪範)」 읽기와 그 특징	동양철학연구 92	동양철학연구회
14	이창일	다산 정약용의 주역 해석방법론 체계(－역리사법(易理四法), 삼역(三易), 「독역요지(讀易要旨)」 18칙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41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5	이창일	신후담(愼後聃) 『주역』 해석의 특징(－정주(程朱)역학, 성호(星湖)역학, 다산(茶山)역학 등의 해석을 상호비교 하며－)	한국철학논집 52	한국철학사연구회
16	임옥균	야마가 소코[山鹿素行]의 『대학』 해석(－주자의 해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89	동양철학연구회
17	임옥균	야마가 소코[山鹿素行]의 『중용』 해석(－심성(心性)에 대한 주자의 해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90	동양철학연구회
18	임재규	오징(吳澄)의 『주역』 해석 방법론	온지논총 51	온지학회
19	임헌규	다산 정약용의 『논어』「학이(學而)」 및 「부지명(不知命)」장 주석에 대한 고찰	동양고전연구 69	동양고전학회
20	전병욱	『맹자』「고자(告子)」편의 성선론에 대한 주자의 해석	유교사상문화연구 70	한국유교학회
21	정해왕	정약용 역학의 '재윤지괘(再閏之卦)' 연구	한국민족문화 64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2	최석기	19세기 영남학파의 『중용』 분절설 고찰	동양한문학연구 46	동양한문학회(구 부산한문학회)
23	최석기	조선시대 『중용』 해석의 정자삼분설(程子三分說) 수용양상	한국한문학연구 65	한국한문학회
24	함영대	퇴계 이황 이전의 맹자학 연구	대동한문학 50	대동한문학회
25	함영대	만회(晩悔) 권득기(權得己)의 학술정신과 『맹자참의(孟子僭疑)』	한국사상사학 55	한국사상사학회
26	황인옥	주(朱)·왕(王) 이원적 구조에 의한 하곡의 『중용』 해석	범한철학 86	범한철학회
27	황인옥	『주역』 이해를 통해 본 화담 서경덕의 처세관	철학논총 88	새한철학회

보고서 구성은 먼저 전체 27편 논문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분류 방식에 따라 나누어 보았다. 첫째 인물별 분류, 둘째 주제별 분류이다. 인물별 분류에서는 한국 유학자, 중국 유학자, 일본 유학자 논문으로 구별하였다. 주제별 분류에서는 연구 대상 경전별로 구별하였다. 그리고 각 경전별로 의미 있는 논문 8편에 대해 분석을 하고, 2017년 경학 관련 연구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한 짧은 소견을 제시했다.

2. 인물별 분류

총 27편의 경학 논문 중에서 경전 주석서를 중심으로 학자의 경학 사상을 다룬 논문은 23편이다. 한 인물의 경학 사상을 다룬 논문 중 한국 유학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11편, 중국 유학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2편, 일본 유학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2편이다.

1) 한국 유학자

한국 유학자의 경학 사상을 다룬 11편의 논문 중 가장 많이 다룬 인물은 정약용(丁若鏞)(다산(茶山), 1762~1836)으로 5편의 논문이 있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조영	『맹자요의(孟子要義)』에 나타난 다산의 경학관 연구	한문고전연구 35	한국한문고전학회 (구 성신한문학회)
2	서근식	성호학파에서 다산 정약용 역학의 성립과정(Ⅲ)(–이익, 신후담의 역학에서 정약용의 역학으로–)	한국철학논집 53	한국철학사연구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3	이창일	다산 정약용의 주역 해석방법론 체계(–역리사법(易理四法), 삼역(三易), 「독역요지(讀易要旨)」 18칙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41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4	임헌규	다산 정약용의 『논어』「학이(學而)」 및 「부지명(不知命)」장 주석에 대한 고찰	동양고전연구 69	동양고전학회
5	정해왕	정약용 역학의 '재윤지괘(再閏之卦)' 연구	한국민족문화 64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편의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은 윤휴(尹鑴)(백호(白湖), 1617~1680)이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유곤	『효경』과 『내칙』 해석에 나타난 윤휴의 사친지학(事親之學)의 구조와 성격	유학연구 40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	이은호	윤휴의 「홍범(洪範)」 읽기와 그 특징	동양철학연구 92	동양철학연구회

각 1편의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은 총 9명으로 시대 순으로 나열해 보면 서경덕(徐敬德)(화담(花潭), 1489~1546), 권득기(權得己)(만회(晩悔), 1570~1622), 유형원(柳馨遠)(반계(磻溪), 1622~1673), 정제두(鄭齊斗)(하곡(霞谷), 1649~1736), 신후담(愼後聃)(하빈(河濱), 1702~1761), 백봉래(白鳳來)(구룡재(九龍齋), 1717~1799), 임윤지당(任允摯堂)(1721~1793), 유희(柳僖)(서파(西陂), 1773~1837), 심대윤(沈大允)(석교(石橋), 1806~1872)이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황인옥	『주역』 이해를 통해 본 화담 서경덕의 처세관	철학논총 88	새한철학회
2	함영대	만회(晩悔) 권득기(權得己)의 학술정신과 『맹자참의(孟子僭疑)』	한국사상사학 55	한국사상사학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3	김인규	조선 후기 『주례』의 수용과 국가례(國家禮)(–반계 유형원의 국가례(國家禮)와 『주례』의 이념–)	퇴계학논총 29	퇴계학부산연구원
4	황인옥	주(朱) · 왕(王) 이원적 구조에 의한 하곡의 『중용』 해석	범한철학 86	범한철학회
5	이창일	신후담(愼後聃) 『주역』 해석의 특징(–정주(程朱)역학, 성호(星湖)역학, 다산(茶山)역학 등의 해석을 상호비교 하며–)	한국철학논집 52	한국철학사연구회
6	문창호	구룡재 백봉래의 경학 일고(–『대학』과 『중용』의 관계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38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7	김세서리아	임윤지당의 『논어』 이해에 대한 여성철학적 성찰	한국여성철학 28	한국여성철학회
8	김동민	서파(西陂) 유희(柳僖)의 『춘추괄례분류』에 보이는 『춘추』 범례 분류의 특징	한국철학논집 54	한국철학사연구회
9	김동민	심대윤(沈大允) 『춘추사전속전(春秋四傳續傳)』의 탈성리학적 『춘추』 이해	한국철학논집 52	한국철학사연구회

2) 중국 유학자

중국 유학자의 경학 사상을 다룬 논문은 5편으로 주희(朱熹)(1130~1200)를 다룬 논문이 4편, 오징(吳澄)(1249~1333)을 다룬 논문이 1편 있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동민	주자의 『춘추』 주해서에 대한 비판과 변론	양명학 46	한국양명학회
2	김동민	주자의 『춘추』 해석과 그 특징	유교사상문화연구 68	한국유교학회
3	김정각	주희역학에서의 도통에 관한 연구	범한철학 85	범한철학회
4	전병욱	『맹자』「고자(告子)」편의 성선론에 대한 주자의 해석	유교사상문화연구 70	한국유교학회
5	임재규	오징(吳澄)의 『주역』 해석 방법론	온지논총 51	온지학회

3) 일본 유학자

일본 유학자의 경학 사상을 다룬 논문은 야마가 소코(山鹿素行, 1622-1685)를 다룬 2편이 있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임옥균	야마가 소코[山鹿素行]의 『대학』 해석(–주자의 해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89	동양철학연구회
2	임옥균	야마가 소코[山鹿素行]의 『중용』 해석(–심성(心性)에 대한 주자의 해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90	동양철학연구회

3. 주제별 분류

이 보고서의 다른 분과에서는 주제별 분류의 기준으로 주로 경학 사상, 철학 사상, 교육 사상, 정치 및 경제 사상 등을 삼고 있다. 이 분과에서는 경학 사상이라는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제별 분류 기준을 연구 대상 경전으로 삼고자 한다. 총 27편의 경학 논문 모두가 경전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연구 대상 경전별로 살펴보면 『역경』 관련 논문이 7편으로 가장 많고, 『맹자』 4편, 『중용』 4편, 『춘추』 4편, 『논어』 3편, 『대학』 1편, 『서경』 1편, 『예기』 1편, 『주례』 관련이 1편 있다. 또한 『대학』과 『중용』을 함께 다룬 논문이 1편 있다.

1) 『역경』

『역경』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황인옥	『주역』 이해를 통해 본 화담 서경덕의 처세관	철학논총 88	새한철학회
2	이창일	신후담(愼後聃) 『주역』 해석의 특징(–정주(程朱)역학, 성호(星湖)역학, 다산(茶山)역학 등의 해석을 상호비교 하며–)	한국철학논집 52	한국철학사연구회
3	서근식	성호학파에서 다산 정약용 역학의 성립과정(Ⅲ)(–이익, 신후담의 역학에서 정약용의 역학으로–)	한국철학논집 53	한국철학사연구회
4	이창일	다산 정약용의 주역 해석방법론 체계(–역리사법(易理四法), 삼역(三易), 「독역요지(讀易要旨)」 18칙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41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5	정해왕	정약용 역학의 '재윤지괘(再閏之卦)' 연구	한국민족문화 64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역경』 해석과 관련하여 중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정각	주희역학에서의 도통에 관한 연구	범한철학 85	범한철학회
2	임재규	오징(吳澄)의 『주역』 해석 방법론	온지논총 51	온지학회

2) 『맹자』

『맹자』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함영대	퇴계 이황 이전의 맹자학 연구	대동한문학 50	대동한문학회
2	함영대	만회(晩悔) 권득기(權得己)의 학술정신과 『맹자참의(孟子僭疑)』	한국사상사학 55	한국사상사학회
3	김조영	『맹자요의(孟子要義)』에 나타난 다산의 경학관 연구	한문고전연구 35	한국한문고전학회(구 성신한문학회)

『맹자』 해석과 관련하여 중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전병욱	『맹자』「고자(告子)」편의 성선론에 대한 주자의 해석	유교사상문화연구 70	한국유교학회

3) 『중용』

『중용』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황인옥	주(朱) · 왕(王) 이원적 구조에 의한 하곡의 『중용』 해석	범한철학 86	범한철학회
2	최석기	19세기 영남학파의 『중용』 분절설 고찰	동양한문학연구 46	동양한문학회(구 부산한문학회)
3	최석기	조선시대 『중용』 해석의 정자삼분설(程子三分說) 수용양상	한국한문학연구 65	한국한문학회

『중용』 해석과 관련하여 중국의 경학 사상을 비교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임옥균	야마가 소코[山鹿素行]의 『중용』 해석(–심성(心性)에 대한 주자의 해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90	동양철학연구회

4) 『춘추』

『춘추』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동민	서파(西陂) 유희(柳僖)의 『춘추괄례분류』에 보이는 『춘추』 범례 분류의 특징	한국철학논집 54	한국철학사연구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2	김동민	심대윤(沈大允) 『춘추사전속전(春秋四傳續傳)』의 탈성리학적 『춘추』 이해	한국철학논집 52	한국철학사연구회

『춘추』 해석과 관련하여 중국의 경학 사상을 비교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동민	주자의 『춘추』 주해서에 대한 비판과 변론	양명학 46	한국양명학회
2	김동민	주자의 『춘추』 해석과 그 특징	유교사상문화연구 68	한국유교학회

5) 『논어』

『논어』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세서리아	임윤지당의 『논어』 이해에 대한 여성철학적 성찰	한국여성철학 28	한국여성철학회
2	임헌규	다산 정약용의 『논어』「학이(學而)」 및 「부지명(不知命)」장 주석에 대한 고찰	동양고전연구 69	동양고전학회

『논어』 해석과 관련하여 중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용재	제주석(諸註釋)을 통해 본 『논어』 경문(經文)의 해석학적 이해[7-1](「술이(述而)」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89	동양철학연구회

6) 『대학』

『대학』 해석과 관련하여 일본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임옥균	야마가 소코[山鹿素行]의 『대학』 해석(–주자의 해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89	동양철학연구회

7) 『서경』

『서경』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은호	윤휴의 「홍범(洪範)」 읽기와 그 특징	동양철학연구 92	동양철학연구회

8) 『예기』

『예기』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유곤	『효경』과 『내칙』 해석에 나타난 윤휴의 사친지학(事親之學)의 구조와 성격	유학연구 40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9) 『주례』

『주례』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인규	조선 후기 『주례』의 수용과 국가례(國家禮)(–반계 유형원의 국가례(國家禮)와 『주례』의 이념–)	퇴계학논총 29	퇴계학부산연구원

10) 기타

한국 경학과 관련하여 『대학』과 『중용』을 함께 다룬 논문이 1편 있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문창호	구룡재 백봉래의 경학 일고(-『대학』과 『중용』의 관계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38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4. 주요 논문 내용 요약

1) 『역경』 관련

『역경』과 관련해서는 「신후담(愼後聃) 『주역』 해석의 특징(-정주(程朱)역학, 성호(星湖)역학, 다산(茶山)역학 등의 해석을 상호비교 하며-)」(이창일)이 있다. 이 논문의 저자는 『논문』에서 하빈 신후담의 『주역』 해석 방법론의 특징과 조선 역학사에서의 신후담의 위상을 파악하고 있다. 저자는 신후담의 『역경』 해석의 관점이 다산 정약용과 관련이 있으며, 신후담은 『역경』의 전편을 정주학의 틀이 아닌 『역경』의 내재적인 논리를 통해서 일관성 있게 해석한 인물이라고 평가한다. 신후담이 발견한 『역경』의 내재적 논리는 효변론(爻變論)이며, 이는 고경(古經)의 서례(筮例)를 연구하여 발견한 것이라고 파악한다. 사상사적으로 이러한 특징은 성호학파의 『역경』 해석 논리와 연관성이 있지만, 신후담의 독창적인 발견이라고 평가한다. 저자는 이러한 신후담의 논리는 후일 정약용에게서 발견되는데, 신후담과 정약용의 연결 관계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고경의 연구를 통해서 동일한 『역경』 해석 방법론에 도달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신후담과 정약용의 『역경』 해석의 공

통점은 권위적인 해석을 묵수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역경』을 보려는 탐구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2) 『맹자』 관련

『맹자』와 관련해서는 「만회(晩悔) 권득기(權得己)의 학술정신과 『맹자참의(孟子僭疑)』」(함영대)가 있다. 이 논문의 저자는 권득기에 대해 선조와 광해군을 거쳐 인조의 시대를 살아간 양심적인 지식인으로서, 철저한 구시(求是)의 학자라고 평가하고 있다. 저자는 이 논문에서 기존에 파악된 권득기의 현실 인식과 왕정(王政) 사상 및 경학 연구의 측면을 진전시켜서 삶의 지향과 『맹자』 해석의 일단을 파악하고 있다. 반신순리(反身循理)와 구시(求是)를 강조한 권득기는 차선(次善)은 선(善)이 아니라고 여기며, 철저하게 지선(至善)을 목표로 살아간 인물로 평가한다. 시의(時宜)에 입각하되 경장(更張)보다는 준수(遵守)의 입장에서, '준수하여 다스리고, 고제(古制)를 회복시켜 부흥시킨다.'는 상고주의적 논리를 견지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정치적 결단과 사회개혁은 군주의 책무라고 과감하게 지적했지만 군신지의(君臣之義)를 맺었다면 신하의 직분은 벗어날 수 없다는 전통적 명분론을 견지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저자는 권득기가 필부는 영토나 국민이 없으므로, 현실 정치에서의 능력이 부재하다는 점을 들어 혁명은 현실화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고 평가한다.

저자는 권득기의 『맹자』 해석의 특징으로 문의(文義), 의리(義理), 사증(事證)을 바탕으로 다각적으로 해석한 점을 들고 있다. 권득기의 이러한 특징은 의리적 해석을 일관되게 관철시킨 주자학적 해석 방법과는 변별되는 것으로 평가한다. 또한 권득기의 이러한 『맹자』 해석의 특

징은 경전의 본의에 다가서려는 의미 있는 시도이며, 설득력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저자는 권득기의 『맹자참의』의 특징에 대해 주자의 견해에 얽매이지 않고, 상당히 여유롭고 자유롭게 『맹자』를 해석한 것으로 평가한다. 역사적이고 현실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경전 독서를 당대적 실효로 연결시키려는 경세적 시야도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조선에서 주자학이 교조화 되기 이전에 비판적인 시각을 지닌 학자에 의해 어느 정도까지 경전이 음미될 수 있는가를 확인시켜 주는 의미 있는 지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특징은 퇴계 이황의 『맹자석의』보다 훨씬 풍부하고, 사계 김장생의 『맹자변의』와 우암 송시열의 『맹자질의의의』에 비해서는 훨씬 자유로운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권득기의 『맹자참의』가 비록 충분하게 구비된 주석서라고 볼 수는 없지만 권득기에 이르러 조선의 경전 해석이 한결 더 성숙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3) 『중용』 관련

『중용』과 관련해서는 「야마가 소코[山鹿素行]의 『중용』 해석(-심성(心性)에 대한 주자의 해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임옥균)이 있다. 이 논문의 저자는 주자학으로부터 자신이 정립한 성학(聖學)으로 돌아선 소코는 심성을 논하는 것과 성인의 가르침을 서로 대립적인 것으로 보면서 심성론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파악한다. 저자는 소코가 성인의 학문이란 마음속으로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성인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저자는 소코가 중용의 중과 용을 해석하면서도 "중은 치우치지 않

고 절도에 맞는다는 이름이고", "용은 평생 날마다 쓰는 것"이라고 풀이하였는데, 이는 마음의 미발 상태에서 중을 지킨다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일상생활에서 절도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중용이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저자는 성(性)에 대한 논의에서 주자와 소코의 가장 큰 차이는 주자는 성을 인의예지라는 도덕 원리로 본 반면에, 소코는 성을 감통하여 아는 인식 능력으로 파악한 점이라고 평가한다. 소코는 이 인식 능력은 사람과 동물 사이에 큰 차이가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차이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사람에게는 세 등급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평가한다.

저자는 성을 인식 능력으로 재정의한 소코는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주자의 성즉리(性卽理), 본연지성(本然之性), 성선론(性善論)을 비판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저자는 소코는 성은 마음의 인식 능력이고, 리(理)는 사물에 있는 이치이며, 그 리를 파악하는 것이 성이므로 리가 바로 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고 파악한다. 소코가 사람의 인식 능력으로서의 성(性)인 주체와 인식 대상인 만물의 이치라는 객체를 분명하게 나누어 성즉리라는 주자학의 명제를 부정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저자는 소코가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나누는 주자의 견해에 반대하고, 본연지성이 기질지성이고 기질지성이 본연지성이며, 본연지성만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평가한다. 또한 성을 곧 리이자 인의예지로 파악한 주자에게 성선은 그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명제이지만, 성을 감통하여 아는 것으로 정의하는 소코에게 성은 그 자체로서는 선악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대상을 잘 인식하면 훌륭하고 잘 인식하지 못하면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 파

악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저자는 결론적으로 소코가 자신의 성학(聖學)[고학(古學)]을 정립하면서 주자학의 심(心)으로부터 일상생활로 학문의 강조점을 전환하고, 성의 개념을 주자와는 달리 도덕 능력이 아닌 인식 능력으로 재정의함으로써, 성즉리, 본연지성, 성선설 등 주자학의 기본 명제들을 비판해 나갔다고 평가하고 있다.

4) 『춘추』 관련

『춘추』와 관련해서는 「주자의 『춘추』 주해서에 대한 비판과 변론」(김동민)이 있다. 저자는 이 논문의 목적이 대표적인 『춘추』 주해서에 대한 주자의 평가를 분석함으로써 주자가 제시한 『춘추』 이해의 올바른 방법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주자가 삼전(三傳)과 정이천(程伊川), 호안국(胡安國)의 이론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아 각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올바른 주해서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고 파악한다. 주자가 주해서의 기본 역할을 사실 기록과 의리 해석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규정하고, 대표적인 주해서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분석하였다고 평가한다. 또한 저자는 주자가 주해서들이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지나친 천착이나 근거 없는 확대 해석을 일삼는다고 판단하고, 그 결과 『춘추』 기록의 이면에 담긴 공자의 뜻이나 『춘추』 대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춘추』의 본의를 왜곡했다고 비판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이러한 주자의 작업이 올바른 『춘추』 이해의 방법과 바람직한 춘추학의 방향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학술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5) 『논어』 관련

『논어』와 관련해서는 「임윤지당의 『논어』 이해에 대한 여성철학적 성찰」(김세서리아)이 있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임윤지당의 『논어』 인용의 특징을 구조적인 면과 내용적인 두 가지 차원에서 정리하고 있다. 첫째, 구조적인 면에서 윤지당이 『논어』의 원문 전체를 표출하지 않고 직접 관련 있는 글자나 부분만 인용하면서 자기 해석을 붙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논어』 인용과 독해의 맥락이 「경설」에 보이는 『대학』이나 『중용』과는 달리 독립된 장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설」에 들어 있으면서 『논어』 전체를 주석하기 보다는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파악한다. 또한 윤지당은 유가 경전 해석에 있어서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방식을 비판하는데, 이를 통해 텍스트의 열림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저자는 이에 대해 이제껏 전통 유교 사회에서 여성들이 무엇을 알았고 그것은 남성들의 지식보다 더 가치로운 것인가의 물음보다는 여성이 어떻게 아는지, 여성 지식의 특징은 무엇인지, 여성의 지식이 남성의 지식과 어떤 다른 효과들을 산출하는지를 고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저자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윤지당의 『논어』 인용 방식은 여성도 성인(聖人)이 될 수 있음을 증거 한다는 것과, 삶의 경험으로부터 실재를 바라보면서 나름의 지식을 축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예컨대 『논어』의 〈극기복례(克己復禮)〉, 〈일이관지(一以貫之)〉를 성리학적 이일분수(理一分殊)의 맥락에서 독해하는 속에서 성인과 범인의 동류의식을 확보하고, 이를 여성도 성인이 될 수 있다는 논의로 이끌고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미생고〉장을 정직

함이라는 덕목을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다루는 속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는 보살핌의 차원을 보여준다고 평가하고 있다.

6) 『서경』 관련

『서경』과 관련해서는 「윤휴의 「홍범(洪範)」 읽기와 그 특징」(이은호)이 있다. 이 논문의 저자는 백호 윤휴에 대해 육경(六經)을 중심으로 했던 공자 시대의 경학에 관심을 가졌던 대표적인 경학가로서, 사서(四書)를 위주로 한 조선 성리학의 경계를 탈피하고자 시도했던 선각자로 평가한다. 저자는 윤휴의 『홍범경전통의(洪範經傳通義)』에 대해 『주자어류』 등에 보이는 주자의 경전 읽기를 답습하여 '이경해경(以經解經)'의 전형을 추구하고자 했던 윤휴의 고심을 잘 담아내고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구주(九疇)의 쓰임[용(用)]에 주목하여 제반 경전에서 구주의 용(用)을 수색(搜索)하였다고 평가한다. 저자는 이러한 윤휴의 폭넓고 심도 있는 경전 인용을 통한 홍범의 이해는 기존의 『서집전(書集傳)』 해석의 한계와 단점을 보충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 경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7) 『주례』 관련

『주례』와 관련해서는 「조선 후기 『주례』의 수용과 국가례(國家禮)(-반계 유형원의 국가례와 『주례』의 이념-)」(김인규)가 있다. 이 논문의 저자는 유형원에 대해 실학의 비조(鼻祖)로서 『반계수록(磻溪隧錄)』이라는 저서를 통해 조선 사회를 『주례』의 이념에 입각해 새롭게 하고자 하였다고 평가한다. 저자는 유형원이 『반계수록』을 저술하게 된 배경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정전제(井田制)가 무너짐으로써 공전

(公田)이 사라지게 되고 사전(私田)만 남게 되었다는데서 출발하게 되었다고 파악한다. 즉, 사전의 확대는 토지 겸병을 심화시키고, 이는 결국 농민의 몰락을 가속화시켜 위기를 초래했다고 본 것으로 파악한다. 이에 유형원은 『반계수록』에서 공전제(公田制)를 통해 국가의 토지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일정한 비율로 토지를 나누어 주는 수전권(收田權) 분급을 통해 농민을 보호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한다. 둘째, 진한(秦漢) 이후 법제가 사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제정됨으로써 그 모순이 고쳐지지 않아 폐단이 쌓였다고 본 것으로 평가한다. 셋째, 당시 재야학자와 관료지망생들이 경세(經世) 공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데 대한 비판인 것으로 평가한다.

저자는 『반계수록』의 철학적 기저는 『주례』의 이념인 공(公) 사상으로, 이러한 공 사상의 관념은 '사(私)→인심(人心)→불선(不善)'과 대비되는 '공(公)→도심(道心)→순선(純善)'의 구도로, 이는 인심도심설의 인성론과 연결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저자는 유형원이 도심을 리(理)로, 인심을 기(氣)로 파악하고, 이를 다시 천리와 인욕으로 연결시켰으며, 리(理)를 물지리(物之理)로서 실리(實理)로 보았으며, 이러한 철학 체계는 『반계수록』의 근간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즉, 유형원은 자신의 철학적 입장을 통해 공전의 확립과 공전제의 시행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바로 리의 존엄성과 실(實)을 현실 속에서 찾는 사상적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8) 『대학』과 『중용』의 관계 관련

『대학』과 『중용』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구룡재 백봉래의 경학 일고(-『대학』과 『중용』의 관계를 중심으로-)」(문창호)가 있다. 이 논문의 저

자는 백봉래가 『중용』과 『대학』의 관계가 배응(配應), 체용(體用), 좌우(左右), 상하(上下)가 되어 표(表)이면서 리(裏)이고 리(裏)이면서 표(表)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백봉래는 『중용』의 시중(時中)과 『대학』의 혈구(絜矩), 『대학』의 지선(至善)과 『중용』의 치곡(致曲), 『대학』의 〈기욱장(淇澳章)〉과 『중용』의 〈연어장(鳶魚章)〉을 서로 배응, 체용, 표리의 관계로 규정하고 설명하면서 원중(原中)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파악한다. 백봉래가 말하는 원중론(原中論)은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를 바탕으로 한 근원으로서의 『대학』과 중도(中道)로써의 『중용』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한다. 이는 『대학』과 『중용』을 하도(河圖)와 낙서(洛書)에 연관을 지어 그 구조를 체용관계로 논하면서도, 하도를 본체로 삼고 낙서를 작용으로 삼는 뜻으로 『중용』을 지었고, 낙서를 본체로 삼고 하도를 작용으로 삼는 뜻으로 『대학』을 저술한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저자는 백봉래의 경학론에서 주목되는 논리 가운데 하나가 『주역』의 괘를 이용한 해석 방식이라고 분석한다. 백봉래가 『중용』과 『대학』의 해석에 『주역』의 괘를 이용하여 풀이한 것은 경서의 체계가 서로 상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 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한다. 저자는 백봉래가 『중용』의 '범사예즉립(凡事豫則立)'의 '예(豫)'자와 『대학』의 '재항족의(財恒足矣)'의 '항(恒)'자가 『주역』 예괘(豫卦)와 항괘(恒卦)의 정신과 작용으로 파악하여 『중용』의 '예(豫)'자는 『대학』이 예괘의 작용이 되고, 『대학』의 '항(恒)'자는 『중용』이 항괘의 작용이라고 주장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저자는 역리(易理)를 통하여 『대학』과 『중용』의 관계를 일관된 구조로 회통하고자 한 백봉래가 첫째, 원중(原中)의 개념을 도입하여 『대학』

과 『중용』에 접목시켰으며, 둘째, 『대학』과 『중용』을 하도와 낙서에 연관을 지어 그 구조를 체용 관계로 파악하였으며, 셋째, 『주역』의 예괘와 항괘의 원리를 적용하여 『대학』과 『중용』의 표리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백봉래의 세 가지 특징은 조선조 유학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백봉래만의 독창적인 논리 체계이며, 백봉래 경학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5. 평가와 전망

앞으로 한국 경학 연구가 지향하고 이루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각 경전별로 경학사가 서술되고, 이를 종합하여 구체적인 한국 경학사를 서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연구되지 않은 경학가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2017년 경학 연구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경학 측면에서 기존에 많이 연구 되지 않았던 신후담의 『역경』, 권득기의 『맹자』, 심대윤과 유희의 『춘추』, 임윤지당의 『논어』, 백봉래의 『대학』과 『중용』 등에 대한 연구 성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도 기존에 연구되지 않았던 학자들의 경학에 대한 연구 성과가 많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제9장

한국 근대유학 연구

김현우

1. 머리말

본 보고서에서는 2016년 이후 3번째 보고서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정보서비스(RISS)에 등록된 근대한국유학 연구 논문을 대상으로 인물, 주제 등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 성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올해 보고서는 근대 시기 문명개화를 주창한 일명 개혁적 유교지식인을 대상으로 한 지난 두 차례의 분석 방식에서 탈피하여 근대 성리학에 대한 연구 성과도 함께 정리하였다. 개혁적 유교지식인들은 장지연, 박은식, 신채호 등으로 대변되는 인물로 이들은 주로 전통 유학 패러다임의 극복이라는 주제로 다루어졌다. 하지만 이들만이 한국 근대 유학은 아니다. 전통 성리학계에서도 이 시기 다양한 논의가 출현했고 현재 이와 관련한 연구도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성과가 심설논쟁(心說論爭) 부분이다.

심설논쟁은 이항로, 기정진, 이진상, 전우과 문인들을 중심으로 상호 치열하게 토론한 논변이다. 이 논쟁은 한국 유학사에서 두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이 논쟁은 한국 성리학의 고유 담론인 사단칠정논쟁(四端七情論爭)과 호락논쟁(湖洛論爭)의 연속이자 종합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는 심통성정(心統性情)이라는 한국 성리학의 핵심 주제와도 맞물린다. 사단칠정논쟁이 정(情)에 대한 논의이라면, 호락논쟁은 성(性)에 대한 논변이다. 그런데 이들을 통합 또는 총괄하는 것이 심(心)이므로 이 두 논의가 심에 대한 논의로 확장된 것은 학문의 발전상 당연하다. 또 이는 심설논쟁이 사단칠정논쟁과 호락논쟁의 내용을 포함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둘째는 이 논쟁에는 개인의 주체성이라는 근대적 논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발견은 18세기 이후 동서양 철

학의 중요한 근대적 논제이다. 한국 성리학의 심설논쟁도 이 근대적 개인과 연관되어 있다. 그 시작은 전통 중화개념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었다. 17세기 동아시아 패권국인 청의 등장 이후 한국에서는 중화(中和)관이 크게 요동쳤다. 현실의 중국(中)과 전통의 중국(和)이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19세기에 들면서 서구의 청국침탈과 일제의 국권침탈을 거치면서 전통 유학자들은 서구 문명과 유학을 대립적으로 논하였다. 이것이 현실에서 나타난 논리가 척사위정(斥邪衛正)이다. 한편 전통 유학자들은 개화를 통해 근대 문명을 수용하려는 정부와도 대립적이었다. 하지만 심설논쟁의 참여한 전통 유학자들이 서구식 문명에 의한 근대 국가로의 이행을 거부했지만, 그 과정에서 심을 강조하여 개인의 주체성 확립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그동안 심설논쟁은 주로 개별적인 연구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2017년에는 그동안 축적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토대연구 사업에 선정되었다.(“심설논쟁 아카이브 구축”, 연구책임자 : 최영성) 이 연구 사업은 2022년까지 5년간 근대 심설논쟁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약 30편의 관련 학술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심설논쟁은 물론, 근대 시기 한국 성리학의 특징과 위상을 정립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외에 중요한 학술활동으로는 간재학회의 학술대회들과 계명대 한국학연구원의 학술대회가 있다. 간재학회는 전라북도의 학술 지원 등을 받아 매년 전우와 문인의 성리학을 중심으로 국제학술회의 등을 개최하고 있다. 이진상과 문인에 대한 연구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계명대 한국학연구원에서는 2017년 12월 “일제강점기의 '낙중학', 한주학파 재전 제자들과 영남 유현들의 활동과 사상”이라는 주제로 총 9편

의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진상(李震相)은 전우와 더불어 심설논쟁의 핵심 사상가이자, 문인인 곽종석, 이승희, 김창숙 등 한국 성리학의 항일 운동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근대 성리학을 규명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도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중국몽(中國夢)"을 모토로 하여 전통 유학의 근대적 활용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중국 유학계는 한국 유학을 중국 유학의 아류로 보는 관점이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황이 왕수인의 학문 즉 양명학을 수용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근대에는 이러한 비약이 더 심한데, 대표적인 것이 "박은식이 양계초를 통해 양명학을 수용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대만학계의 견해를 중심으로 수용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결국 한국 유학의 학적 정체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때문에 한국의 최신 연구 성과를 중국학계에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2. 인물별 분석

이 분야의 전통적인 연구 인물은 박은식, 장지연, 신채호 등이지만, 2017년에는 이들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분야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사학	김종복	백암 박은식의 발해사 인식과 그 서술 전거	한국사학보 54	고려사학회
사학	장재천	백암 박은식의 민족교육운동사 논고	한국사상과문화 87	한국사상문화학회

분야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사학	노관범	연원록에서 사상사로 – 장지연의 「조선유교연원」과 현상윤의 『조선유학사』를 읽는 방법 –	한국사상사학 56	한국사상사학회

박은식 관련 연구가 다소 있었고, 장지연 및 신채호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었다. 대신 기존 연구가 적었던 근현대 유학자들이 새로운 연구 대상으로 등장했다.

분야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문학	김새미오	소백 안달삼의 교유와 그 의미	탐라문화 51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문학	정시열	금계 이근원의 한시 일고	韓國思想과 文化 85	한국사상문화학회
사학	류시현	일제강점기 현상윤의 문명론과 조선 문화 연구	호남문화연구62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철학	김미영	중천 김충열의 『고려유학사』에 투영된 유학관	국학연구34	한국국학진흥원
철학	김윤경	정인보와 장병린의 주체론 비교	인문학연구 52	조선대 인문학연구원
철학	유권종	중천 김충렬의 한국유학사관 연구	공자학32	한국공자학회
철학	정승안	일부 김항의 정역과 사회사상적 함의	한국학논집68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신학	김신	근대담론으로서 유학자 이수정의 1885 마가복음 번역의 의미	신학과사회14	21세기기독교사회문화아카데미

안달삼, 이근원, 이수정 등은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근대 유학자들이다. 안달삼(1837~미상)은 제주 출신의 유학자로 그동안 관련 연구가 거의 없었다. 김새오미는 이 연구를 포함 총 2편의 안달삼 연구를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유학 및 한문학과 제주라는 지역학이 만나 다양한 파생연구로 확장되길 기대한다.

이근원(1840~1918)은 전주 출신의 화서문인으로 유인석의 의병활동을 지지했다. 정시열의 연구는 그의 도학시(道學詩)를 중심으로 그의 유학관을 고찰하였다. 최근 근대 유학자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근원 관련 연구도 심화 · 확산되길 기대한다.

이수정(1842~1886)은 근대 중앙의 권력자였던 민영익과 교분이 두터운 인물이다. 그는 1882년 임오군란시 명성황후를 충주까지 피신시킨 공로로 1882년 수신사인 박영효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갔다. 일본에서 일본인 쓰다(律田仙)의 안내로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 그는 한문성서에 토를 단『현토한한신약전서』를 간행하고 이후『신약마가젼복음셔』를 번역하였다. 그는 단순히 기독교 수용자가 아니라, 전통 문화의 입장에서 서구 문명의 융합이라는 당대 과제를 수행한 지식인이었다. 이 연구를 통해 전통 유학과 기독교 간의 영향과 교섭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정인보는 박은식과 더불어 대표적인 한국 근대의 양명학자이다. 김윤경은 정인보와 장병린을 비교하여 정인보 양명학의 특징을 밝히고자 했다. 최근 중국학계에서는 전통 유학의 복원을 넘어 현대 중국 사회에 이념으로 재구성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가 과도하게 진행되면서 동아시아 삼국의 유학을 중국 유학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패권적 경향으로 변질하고 있다. 최근 한국과의 충돌지점은 이황과 박은식, 정인보 등 근대 양명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특히 근대 한국 양명학자들이 강유위, 양계초, 장병린 등의 영향을 받았다는 설이 적은 팩트에 의지하여 확산되고 있다. 이런 연구들은 한국어 연구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주로 대만의 한국유학 연구성과를 근거로 하고 있다. 더 문제인 것인 이러한 주장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한

국의 연구자들이다. 이런 연구 현실에서 김윤경의 연구는 근대 한국 유학의 정체를 분명히 밝히는 연구라고 하겠다.

이외에 주목할만 연구로는 이상은(1905~1976)과 김충렬(1931~2008)은 모두 현대 동양철학자들이다. 이들은 한국 현대 동양철학분야의 역사로 전통 학문의 재건을 위해 노력한 연구자들이다. 이들을 포함하여 류승국(1934~2013), 이우성(1925~2017) 등 해방 이후 1~2세대 유교철학자들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한편, 이진상(1818~1886), 전우(1841~1922) 등 근대 성리학자들과 그 문인들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다음은 이진상과 한주문인들에 대한 연구들이다.

분야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문학	오용원	幽居를 통해 본 李震相의 시세계	한국학논집 69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문학	이세동	膠宇 尹胄夏의 寒洲學 계승	한국학논집 66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문학	전병철	紫東 李正模의 학문성향과 寒洲學說 수용	한국학논집 66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철학	정병석	韓溪 李承熙의 寒洲學 계승과 현실의 대응	한국학논집 66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사학	권오영	后山 許愈의 학문이력과 寒洲學 계승	한국학논집 66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사학	김기주	弘窩 李斗勳의 철학과 한주학 계승	한국학논집 66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철학	김낙진	勿川 金鎭祜의 성리학과 한주학 계승	한국학논집 66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철학	추제협	면우 곽종석의 철학과 한주학의 비판적 계승	한국학논집 66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이진상과 문인들의 연구는 주로 영남권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들도 대부분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에서 2017년 12

월 8일 개최한 학술대회(주제 : 일제강점기의 '낙중학', 한주학파 재전제자들과 영남 유현들의 활동과 사상)에서 발표한 논문들이다. 다음은 전우 관련 연구들이다.

분야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문학	유영봉	간재 전우가 남긴 철리시 연구	한문학보 37	우리한문학회
사학	서종태 변주승	艮齋 田愚의 충청도 중심 강학 활동에 대한 연구	지방사와 지방문화 20-1	역사문화학회
사학	이종록	田愚의 西學認識과 斥邪論	조선시대사학보 80	조선시대사학회
철학	유지웅	간재 전우 성리설의 문제의식	퇴계학보 142	퇴계학연구원
철학	유지웅	간재 전우는 왜 심본성, 성사심제를 말하였는가?	유교사상문화연구 67	한국유교학회
철학	임옥균	간재 전우의 문경에서의 강학활동	한국철학논집 52	한국철학사연구회

전우 연구는 주로 간재학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간재학회는 매년 전북도청에서 학술 지원을 받아 국내외 연구자이 참가하는 다수의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다음은 기타 근대 성리학자들에 대한 연구들이다.

분야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문학	이향배	경회 김영근의 한시에 투영된 위정척사 정신	유학연구 38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문학	이은혁	운재 윤제술의 교육과 정치사상	온지논총 53	온지학회
문학	최은주	蒼崖 許萬璞의 삶과 한시에 담긴 내면의식 고찰	남명학연구 56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사학	박걸순	鄭淳萬의 교육구국사상과 淸州 德新學校 설립	한국학논총 48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철학	임옥균	정재 남대년의 학문과 사상	한국철학논집 53	한국철학사연구회
기타	강기래 · 이해주 이현채 · 김희채 김동필 · 하성근	성재 유중교의 가평 옥계구곡 위치 추정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5-3	한국전통조경학회

그동안 근대시기 연구에서 한국 성리학에 대한 연구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근대 성리학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확장하였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지방자치와 전통 유학에 대한 인식 변화이다. 사실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통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영남지방에서 시작되었다. 영남지방에서는 국책기관인 국학연구원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전통 문화의 일환으로 이황, 이진상 등 전통 유학자들과 그 문인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이는 타 지자체의 문화정책으로 이어졌는데, 호남지방에서는 전우, 기정진 등과 문인들이, 충청지방에서는 송시열, 한원진 등과 문인들에 대한 연구 지원이 확산되고 있다. 이외에 강화군청과 시흥시는 정제두와 한국양명학에 대해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학술대회를 단체장의 홍보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또 정부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중의 과도한 지원은 자칫 연구의 객관성을 잃는 경우로도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이들 근대 유학자들의 연구에 있어서 효율적인 지원과 연구의 객관성이 병립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관행과 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3. 주제별 분석

근대 유학 연구의 전통적 주제는 근대성과 문명담론이었다. 2017년에도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었다.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분야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사학	노대환	대한제국 말기(1904~1910) 『황성신문(皇城新聞)』의 현실 인식과 대응 양상의 변화	이화사학연구 54	이화사학연구소
사학	이황직	개신 유교 변동론의 사회이론화 가능성 연구	한국학논집 68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사학	이황직	유교에서 한학으로 – 1960년대 이후 한국 유교 정치운동의 쇠퇴 과정 연구 –	사회사상과문화 20–1	동양사회사상학회
사학	정다함	1945년 이후의 조선시대사 연구와 유교근대론 / 동아시아론에 대한 post–colonial / trans–national한 관점에서의 비판적 분석과 제언	코기토 83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사학	정립비	개항기 '支那' 명칭의 등장과 문화적 함의	한국사학보 69	고려사학회
철학	김윤경	근대기 현실인식 및 개혁에 관한 불교와 하곡학의 교섭	인문학연구 54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철학	김현우	《황성신문》논설의 정량적 분석과 근대인식 추론	유교사상문화연구 68	한국유교학회
철학	박정심	근대 유학담론에 대한 성찰과 문명다움[인(仁)]에 관한 시론	동양철학연구 92	동양철학연구회
철학	이미림	유교 공감과 소통의 경제학 – 아담스미스 도덕감정론과의 대비적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사상과문화 20–3	동양사회사상학회
철학	장은주	메리토크라시와 민주주의 유교적 근대성의 맥락에서	철학연구 119	철학연구회

이 중 노대환, 정립비, 김윤경, 김현우, 박정심의 근대 시기 개혁적 유교지식인들의 문명 인식에 대한 고찰이다. 이들 연구들은 당시 서울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문명개화관에 대한 논의를 비판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이들의 연구는 국가 정체성의 확보라는 특수성과 문명개화라

는 보편성 사이에서 고민한 당대 지식인들을 면밀히 다루었다. 당시 개혁적 유교지식인들의 선택은 특수성보다는 보편성이었다. 이들 연구에서는 개혁적 유교지식인들이 결국 일본의 문명개화 논리로 빠지게 되었다는 점을 다양한 시각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황직, 정다함, 이미림, 장은주의 연구는 근대성 관련 연구이다. 근대성과 관련한 연구는 사회학에서 주로 다루고 있지만, 이 연구들은 사학과 철학 분야의 연구들이다. 이들 연구들은 전통 유학 체제의 근대 전환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는 근대이후 지속된 전통 유학가 전근대적이라는 평가를 극복하는 성과들이다. 본 보고서에는 그 중 이황직의 연구를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최근 근대 유학의 새로운 주제는 교육이다.

분야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교육	전민호	개화기 서당교육의 전개	한국교육학연구 23-3	안암교육회
철학	한성구 지준호 임홍태 신창호	전통교육 내용의 통섭과 현대적 재구성	한국철학논집54	한국철학사연구회

근대 유학자들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교육이지만 그동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가 확장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최근 인성교육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도덕성에 초점을 둔 전통 유학가 교육 분야의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다만 전통 교육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기에 정권 유지 차원에서 이용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현대 민주사회에 부합하는 인성교육으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성구 등의「전통교육 내용의 통섭과 현대적 재구성」에서 '주체성, 도덕성,

정치성을 현대적 교육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296)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기타 주제별로 구분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분야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문학	이영호	동아시아 삼국에서의 한국유학 연구동향과 그 의미	퇴계학보 141	퇴계학연구원
문학	홍인숙	식민지 시대 열녀 재현의 정치학	여성문학연구 41	한국여성문학학회
문화	고희탁	유교를 둘러싼 개념적 혼란에서 벗어나기	신아세아 23-2	신아시아연구소
철학	김윤경	19세기 조선성리학계의 양명학 비판 양상	동양철학연구 92	동양철학연구회
철학	유지웅	기호학파 낙론계 명덕설 – 왜 심인가?	유학연구 39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철학	이기동	성균관대학교의 역사에 관한 재고	한국사상과문화 86	한국사상문화학회
철학	이영자	근현대 충청유림의 유학정신과 위상	유학연구 38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이영호의 연구는 한중일 및 대만에서 한국유학 연구동향을 분석한 것이다. 이 연구도 다음 장에서 자세히 정리하겠다. 홍인숙의 연구는 전통 질서하에서 여성문제를 다룬 연구이다. 이런 방향의 연구는 2000년대에 활발했고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이른바 "me to" 라는 페미니즘 운동과도 연결된 주제로 시의성을 지니고 있다.

김윤경과 유지웅의 연구는 19세기 성리학의 문제의식을 분석한 논문이다. 이 시기 주된 담론은 심설논쟁으로 양명학이나 명덕설 모두 심론과 관련된 논의들이다. 이영자의 연구는 유학을 지역학 차원에서 재해석한 성과이다. 이기동의 연구는 성균관대학교의 역사에 대한 정리이다. 이 연구 역시 다음 장에서 자세히 분석하겠다.

4.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이 장에서는 아래 세 논문을 분석하였다.

분야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문학	이영호	동아시아 삼국에서의 한국유학 연구동향과 그 의미	퇴계학보 141	퇴계학연구원
사학	이황직	개신 유교 변동론의 사회이론화 가능성 연구	한국학논집 68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철학	이기동	성균관대학교의 역사에 관한 재고	한국사상과문화 86	한국사상문화학회

이영호는 중국, 일본, 대만의 동아시아 삼국에서의 한국유학 연구동향을 조사하였다. 최근 중국은 이른바 "중국몽(中國夢)"을 통해 전통 유학을 현대 중국에 맞게 재구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유학도 점차 연구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에서 한국유학이 중요한 것은 학술 패권과도 관련이 있다. 그동안 한국유학은 전통 유학의 형식과 내용을 고루 갖추고 있었다. 형식적으로는 성균관, 향교, 서원 등 하드웨어는 팔일무, 복식, 각종 예식 등의 소프트웨어도 잘 보존되었다. 학술적으로도 전통 성리학의 논의를 이어받아 크게 단절되지 않고 전수되었다. 하지만 중국은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전통 문화가 크게 위축되었다. 그 결과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에서는 유학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의 성균관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서 각종 유학의 의식들을 수렴해야만 했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진행되는 중국에서 발표되는 연구 중에는 사실 확인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논리 비약의 논문들이 양산되고 있다. 이영호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상의 연변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유학연구에 비하여, 북경을 중심으로 하는 유학연구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중국연구자들에 의해 중국 유학의 입장에서 한국유학사상을 인식하고 고찰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유학을 중국유학의 일부 혹은 한 형태로 인식하는 것이다. (중략) 장립문은『이퇴계사상연구』에서 퇴계를 '조선의 주자'로 평가하면서, 주자학이 조선에 전파되고 발전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고 여겼다. 그리고 퇴계학은 기본적으로 명나라 주자학 연구의 성과를 수용하여 형성된 것이라 하였다. 이는 중국 주자학의 연장선에서 퇴계학을 바라본 것이라 할 수 있다.33) 후술하겠지만 이는 대만 학자들의 조선주자학 연구와 그 맥을 달리하는 결론이다. (257~258)

이영호는 이를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중국의 중화주의(혹은 세계 패권주의)와 학술의 결합인 것이다. 특히 중국 중심의 유학을 세계에 전파하는 데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바로 그 한 예가 현재 중국 저명대학의 유학프로젝트의 경우, 그 핵심 내용 중의 하나는 중국내 유학문헌의 정리와 국외 유학문헌을 정리하여 세계에 배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국가적 핵심 사업으로 2014년에 결실을 맺어『儒藏(精華編) 100책이 출판되게 되었다. 이 와중에 한국의 경학자료집성이 이 사업의 일부로 들어가 표점출간 되어 전세계에 중국유학의 이름으로 반포되게 되었다. 중국유학의 일원 내지 연장으로서 한국유학을 바라보는 시선이 중국정부의 문화정책과 어울려 한층 강해졌다고 할

수 있다.(261)

한국의 경학자료집성은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서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수행한 대규모 연구사업이다. 이 연구 사업을 도용한 것은 물론, 이를 중국 유학으로 편입하려는 시도는 중국의 유학 정책의 패권적 특성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이영호는 이러한 경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유학에 대한 새롭고도 우수한 연구 성과의 도출과 중국어, 일본어, 영어 등 다국어로의 번역 등이 필요하다고 적고 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다방면에서의 연구 교류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황직의 연구는 정인보의 양명학을 통해서 현대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추론하려는 학문적 시도이다. 그는 유학의 도덕 주체에서 민주주의의 개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한국 근대의 사상적 변화와 실제 역사를 통한 한국적 이론화는 도덕 주체로서의 개인을 정치적 주체로 전환시키는 데 기여한 사상적 대응의 과정, 곧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까지 한국 사상의 전개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작업에서 출발하게 된다. (179)

이황직은 이를 정인보의 유학과 연결시키고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정인보의 '얼'은 유학 본래의 '천명의 신정론'을 발견하여 강화시킨 것으로서, '천지만물일체의 인'인 양지와 같은 것으로서 개개인의

> 마음에 내재하며, 마침내 홍익인간이라는 교의를 통해 민족사의 전개를 통해 구체화된 것이다. 정인보는 역사에 아로새겨진 '얼'을 추적하여 그 실제를 찾아내고자 했다. 이를 통해 정인보는 '민족의 얼'을 개인을 초월한 엄숙한 실체로서 재정의하여, 민족 구성원 또는 유교인이 도를 실행하려면 반드시 현실의 정법에 관여해야 한다는 실천적 함의를 갖는 절대적 명령 체계로 발전시켰다. (200)

이 구절은 두 가지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첫째는 정인보의 '얼' 사상이 천명의 신정론 즉 의지적 천을 인식했다는 주장이다. 정인보의 '얼' 민족주의는 유학보다는 민족종교 등의 민족담론과 유사하다. '얼'은 단순히 의지적 천이 아닌 개인의 주체적이고도 능동적인 행위로 이어지는 것이다. 또 얻고자 하는 것도 유교적 이상이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이다. 그러므로 정인보의 '얼'을 원시 유학의 천명과 연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 둘째는 양지를 '천지만물일체의 인'으로 규정한 것이다. 양지는 분명 개인에게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양지가 천지만물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개인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도식은 양계초의 논리이다. 양계초는 양지를 통해 개인은 개인을 초월하여 만물일체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때 초월한 자아를 진아(眞我)라고 부른다. 이는 칸트철학의 양명학적 해석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면 개인은 주체성은 결여되고 민족이나 사회로 종속되고 만다. 이 글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인보의 '얼'이 민족담론이라면 이는 민주주의로 이어지기보다는 사회주의나 전체주의의 효시라고 정리해야 할 것이다. 다만 논리에는 다소 문제가 있어도 전통 유교를 민주주의라는 현대 가치로 재구성하려는 노력과 시도는 긍정적이다.

이기동의 연구는 성균관대학교와 한국 유학 교육에 관심있는 연구자라면 한 번 쯤 다루고 싶은 주제이다. 성균관의 성균이란 말은 "성인재지미취, 균풍속지부재"(成人材之未就, 均風俗之不齊)에서 나온 것으로 현대의 '교육'과 의미가 유사하다. 현재 성균관대학교의 역사는 1398년부터 시작된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이기동은 이 역사는 국자감의 설립연도인 992년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국자감이 충선왕이 즉위시인 1308년에 성균관으로 개칭했고,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이를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균관의 역사가 신라의 국학이나 고구려의 태학까지는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고려 국자감의 설립시기인 992년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기동은 이러한 역사의 단절에는 현승종 총장의 단언이 있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 오늘날 성균관대학교에서 1398년을 설립 년도로 정한 연유는 치밀한 역사적 분석을 거친 것이 아니라, 1975년 개교기념식석상에서 당시 현승종 총장의 아래와 같은 식사를 통한 선언에 의한 것이었다.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의 견지에서 다수설에 左袒하고자 함을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그럴진대 우리 성균관대학교는 오늘로서 건학한 지 만 577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 성균관대학교의 설립년도가 현승종 총장의 선언에 의해서 정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성균관대학교의 설립년도를 1398년으로 정한 것은 타당성이 없다. 반드시 재론되어야 한다. (186)

사실 역사는 과거에 대한 사실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인식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전통 문화인 유학은 근대화의 찬 바람 속에서도 명맥을 지키며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개인도덕, 가족윤리, 경장사상 및 유학 예의의 존속 등은 우리 사회에서 유학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특히 중국의 과도한 유학열이 패권주의로 흐르고 있는 현실에서 성균관대학교 역사의 정립은 한국 유학의 정체성을 명시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5. 평가와 전망

이 보고서를 처음 작성한 2016년 근대 한국 유학 연구는 질적 양적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심도있는 연구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2017년도 한국 유학은 중국 유학의 패권적 확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가운데서 한국 유학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들도 점차 확산되었다. 근대 한국 유학도 강유위, 양계초 등 중국 근현대 보수주의 유학자들과의 영향 관계라는 문제에 봉착했다. 주로 이전의 대만에서 엄밀한 검증없이 발표된 양자간 관계가 최근 중국에서 인용되면서 중국에서는 근대 한국 유학이 강유위나 양계초의 아류처럼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근거 빈약한 주장을 바로 잡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근대 유학은 그동안 박은식, 장지연, 신채호, 황성신문, 대한자강회월보 등의 대상에서 탈피하여 이 시기 전통 유학자들과 문인들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기정진, 이진상, 전우 및 김평묵, 유중교, 곽종석, 이승희, 김창숙 등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이

러한 연구 경향은 서울 중심의 개혁적 유교지식인에 한정되었던 연구 경계를 근대기 전반적인 사상 체계와 변화를 탐색하는 보다 타당한 연구로 확대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 배경에는 지자체, 문중 등의 지원을 받는 학술 활동도 있다. 연구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이지만, 한편으로는 지자체 단체장의 정치 업적을 치장하고 문중을 강조하는 연구 사업으로 변질하기 쉽다. 때문에 연구 기관 및 단체와 연구자들의 올바른 연구 윤리관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도 근대의 연속이다. 그런 점에서 근대 유학의 변화와 지향을 현재 우리 사회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신자본주의 속에서 점차 잃어가는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전통 인문학 특히 유학에 일정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또 그런 점에서 근대 유학의 치열했던 경험은 현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산일 것이다.

제10장

‘한류와 유교’ 연구

임태홍

1. 머리말

2017년은 국내 정치와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인 뉴스가 한류 소식을 압도한 한해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그 후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이해 상반기의 국내 뉴스는 온통 정치이야기로 도배가 되었다.

한편 한반도 지역의 국제적인 정치, 군사적 상황도 위험 수준을 넘나든 한해였다. 중국과는 사드(THAAD)라고 불리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었으며, 북한은 수시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이해 초, 사드를 둘러싸고 중국정부 관계자는 "소국(小國)이 대국(大國)에 대항해서 되겠는가, 너희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단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한국을 징벌할 수밖에 없고, 한국은 이번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말라"고 공언하기도 하고, 실지로 중국은 자국민의 한국관광은 금지시켰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압박과 한국 영토에 대한 군사적인 공격까지 거론했다. 이에 따라 중국과 관련된 한류는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다. 가수들의 공연이 취소되고 현지에서 방영이 예정되었던 드라마, 영화 등의 계약이 모두 취소되었다.

가을에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북한의 최고 실력자 김정은 간에 주고받은 설전이 일촉즉발의 전쟁 발발 상황까지 염려하게 할 수준으로 치달았으며, 실지로 미국 정치가에서는 공공연하게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거론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류에 대한 뉴스나 관심은 위축되었고, 특히 중국의

한류금지령(限韓令)으로 인하여 중국과 관련된 한류 스타들의 뉴스가 대중들의 시야에서 사라지면서 일시적으로 한류 침체의 분위기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실지로 중국을 염두에 두고 활동을 계획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과 스타들이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중국이나 일본을 제외한 여타지역,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 중남미, 그리고 북미지역에서의 한류는 여전히 그 열기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들 지역에서 한류 동호회 회원수는 늘어났으며 그들의 활동도 여전히 활발하였다. 중국이 막히면서 한류는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였는데, 그런 의미에서 의미 있는 한해였다고도 할 수 있다.

이해에 상영된 〈택시운전사〉나 〈신과함께: 죄와 벌〉등은 대만, 홍콩 등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으며, 남성 아이돌 그룹 BTS(방탄소년단)는 북미지역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여성그룹인 〈트와이스〉, 〈블랙핑크〉는 일본이나 여타 다른 지역에서 K-pop의 새로운 얼굴로 위상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2. 2017년의 한류 연구

국회전자도서관(http://dl.nanet.go.kr/)에서 키워드로 '한류'를 검색해 보면 연도별로 다음과 같이 검색된다. (2017년의 검색 수치는 2018년 10월 19일 현재이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수치는 2017년 11월 21일 기준임)

자료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도서자료	35	24	19	17
학위논문	65	74	72	54
학술기사	331	396	527	332
인터넷자료	69	64	74	33
전자자료	3	2	3	1
비도서자료	5	6	4	3
참고데이터DB	1	1		
합계	509	567	699	440

전체적인 자료 수에서 2017년은 전년도 대비 약 250건이 줄었다. 가장 크게는 학술기사에서 200여 건이나 발표 원고가 줄었다. 학위논문도 전년 대비 20여 건이 줄었으며 이러한 수치는 3년 전인 2014년과 비교하여도 11편이나 적은 숫자이다. 학술기사는 2014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한류 관련 도서 자료도 2016년 대비 2편이 줄었으며, 2014년 이래 도서자료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류라고 하는 현상이 이제는 일상화가 되었으며, 신기한 붐의 차원에서 관심을 가졌던 것에서 호기심 자체가 줄어든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말하자면 붐 현상의 지속으로 인한 피로감이 누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머리말에서 소개하였듯이 2017년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즉 국내 정치 그리고 국제 정치, 군사적인 관심도에 밀려서 한류에 대한 연구나 관련 기사가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특수한 사정에 기인한 것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2018년의 연구 상황이 정리되는 2019년에 판명될 것이다.

3. 한류 연구서적

2017년에 발표된 한류연구의 세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도서자료를 살펴본다.

도서자료 17권 중 5권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에서 발간한 보고서다. 이 단체는 지속적으로 한류 관련 동향 보고서와 연구서적을 발간한다. 2017년에는 『포스트 한류 비욘드 아시아 Post Hallyu beyond Asia : 한류, 북미 유럽으로 흐르다』, 『한류 메이커스 : 대한민국 한류 산업론』, 『사드, 그 이후의 한류 : 한류 정치경제론』, 『한류노믹스(Hallyunomics) : 한류효과론』, 『(2017) 글로벌 한류 트렌드』를 발표하였다.

이 외에 정부기관에서 발간한 『(2017) 지구촌 한류현황. 1-4』(외교부편, 한국국제교류재단), 국회의원들의 세미나 성과를 모은 『한글세계화 및 한류 문화확산 세미나』(국회의원 유성엽 등) 등이 있다.

민간의 출판사에서 발간된 한류 서적으로는 『신한류 : 소셜 미디어 시대의 초국가적 문화 권력』(진달용, 한울아카데미), 『한류 브랜드 세계화 : 이론과 실행 전략』(한충민, 한경사), 『한중 방송교류와 한류』(이순임, 비즈프레스), 『한류토피아에 이르는 길 : 서구의 벽을 넘어』(박장순, 북북서), 『K콘텐츠,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성공 전략』(박영은, 커뮤니케이션북스) 등이 있다.

그리고 외국인의 한류론으로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 하버드대 박사가 본 한국의 가능성』(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21세기북스)이 발간되었다.

4. 한류 연구 논문

2017년에 발표된 한류연구 학위논문은 모두 54편으로 내용별로 보면 주로 다음과 같다.

한류와 관광산업을 연계하여 논의한 논문과 한류가 한국제품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논한 것이 각각 6편으로 가장 많다. 예를 들면 관광산업 관련 연구는 주로 한류문화콘텐츠가 외국인들의 관광에 미치는 영향을 논한 것으로 이중에 중국인들의 관광에 미친 영향을 논한 것이 비교적 많다. 한류가 한국제품의 구매에 미친 영향을 논한 것으로 대표적인 것은『한류 문화의 요소가 몽골인의 구매태도와 구매행위에 미치는 영향』(몽크체체그, 가천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들 수 있다.

그 다음으로 K-pop 관련 연구가 5편이 발표되었다.『러시아 에이전트의 한국국가이미지가 한류콘서트 관여도에 미치는 영향』(Ganzha Galina,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글로벌 장르로서의 한류: KDrama와 KPop의 글로벌 장르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이형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한국 대중음악 확산이 러시아인의 한국국가이미지 인식에 미치는 영향』(Kuzmina Alena,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등이 그것이다. 러시아의 K-pop한류와 관련된 연구가 2편이나 된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 관련 연구가 4편 있다. 드라마 관련 연구는 예를 들면,『글로벌 팬덤을 통한 한국 방송 콘텐츠의 소비와 확대: Viki의 한류 드라마 팬 자막 커뮤니티 인터뷰를 중심으로』(김영환,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석사논문)를 들 수 있다.

그 외에 한류와 메스컴 언론보도 관련 연구가 2편 있었다. 예를 들

면,『중국 언론의 한류보도에 나타난 프레임 비교분석』(장희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과 같이 외국의 한류 보도 프레임 분석이 있었다.

그리고 의료관광 관련 연구, 한류와 화장품 관련 연구, 한국영화 관련 연구 등이 각각 2편씩 발표되었으며, 한류가 중국에 미친 영향, 반한류 관련 연구, 한류로서의 한국 패션 연구, 한국어 관련 연구, 방송콘텐츠 관련 연구, 한류와 국가이미지 제고와 관련된 논문이 각각 1편씩 발표되었다. 나머지 연구는 한류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연구였다.

지역별로 보면 중국이 24편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이 4편, 태국, 러시아, 중남미가 각각 2편, 그리고 일본과 몽골이 1편으로 가장 적다. 일본의 한류에 관한 연구가 매우 적은 것이 인상적이다.

그리고 2017년에 제출된 학위 논문 중에 거의 1/2 정도의 논문이 모두 외국인들이 쓴 논문이다. 말하자면 국내에 유학 온 외국 학생들이 학위과정에 진출하여 학위논문으로 제출한 것이다. 대개는 자신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한류 현상을 연구하였는데 이는 한류가 외국인 학생들이 매우 선호하는 연구주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자면, 외국인들이 한류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어를 공부한 뒤에 국내에 들어와 한류를 연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의 한류 연구는 국내 한류 연구의 영향을 받아 역시 사회학, 경제학, 언론학 등의 분야가 많다.

러시아 관련 연구는 거의가 K-pop과 관련된 연구이며, 중국 한류 연구는 관광과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한류가 발전하면 그 영향력이 관광과 경제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러시아의 한류는 초기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일반 학술기사나, 학술논문은 모두 332편이 2017년에 발표되었는

데, 연구 분야는 위의 학위논문과 대동소이하다. 참고로, 눈에 띄는 논문을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번호	논문 제목
1	「한국 영화의 해외 진출로 바라본 포스트 한류」(박아녜스, 〈한류 나우〉)
2	「혐한은 혐오 한국인가, 혐오 한류인가? : 혐한담론의 완충제이자 방어기제로서 한류의 가능성」(정수영, 〈한류 나우〉)
3	「'한류인문학'을 제창한다」(김기덕, 〈인문콘텐츠〉)
4	「한류, 대륙길 막혀도 흐를 곳은 넘쳐난다 : 중국의 한한령 이후 새로운 한류 거점으로 떠오른 '동남아'」(정덕현, 〈시사저널〉)
5	「글로벌 한류 열풍의 비밀, 기본이 되는 핵심에 집중하라」(최성준, 〈안전기술〉)
6	「사드가 한류에 보약이 됐다」(이재훈, 〈위클리 뉴시스〉)
7	「한국 드라마 수용에 있어서 국가별 감정 반응 분석 : 드라마 〈도깨비〉를 중심으로」(이에원 등, 〈감성과학〉)
8	「한국음악 100년, 1920~2010」(서우석, 〈철학과현실〉)

이중에서 김기덕의 「'한류인문학'을 제창한다」는 한류의 연구현황과 한류인문학의 필요성, 한류의 발전과정과 한류인문학의 과제, 한류인문학과 인문콘텐츠학회의 역할 등을 논한 연구로 저자는 한류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한류의 전파가 과연 전 세계적인 현상인가, 또한 한류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근현대 세계사적 문화교류의 차원에서 이름 없는 문화변방에 머물러 있었던 한국의 대중문화가 최근 20년 동안 이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연구자들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한류 연구 상황에서 인문학 차원의 한류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그 역할을 인문콘텐츠학회가 주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그는 또 자신이 제창하는 '한류인문학'의 최종 지향점을 한류산업의 활

성화나, 인문학 역할의 증대라는 현실적인 목표보다는 '인류의 공동선(共同善), 인간화, 인간해방'을 그 목표로 제시하였다. 결국 한류인문학은 한류로 하여금 '한국이라는 국가적 차원을 넘어 세계인의 마음을 치유하는 인류자산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5. 한국인의 '한류와 유교'론

국회전자도서관에서 '한류'와 '유교'로 검색을 해보면 2017년에 1편만 검색이 되는데, 전병서의 「중국인을 춤추게 하라」(〈Anda 글로벌 성공투자 동반자〉vol.10, 524호, 2017. 5, http://monthly.newspim.com/)가 검색된다. 이 논문은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인 전병서가 집필한 것으로 전문적인 학술 연구논문은 아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이 한국의 문화와 제품에 열광하는 이유 중 하나로 유교적 사고방식의 동질성을 들고 있어 소개한다.

전병서는 "중국은 왜 한국의 드라마, K-Pop, 패션, 화장품, 초코파이, 바나나우유에 열광할까?"하고 물으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한다.

> 첫째 지리적 환경의 일치다. 중국은 '중원(中原)의 나라'다. 중국 역사를 보면 중원을 차지하는 자가 패권을 쥐었고 학문과 유행을 주도했다. 중원은 지도를 보면 타이항산맥의 동쪽과 친링산맥 · 회하의 북쪽이다. 위도로 보면 한국의 한반도와 정확히 일치한다. 위도가 같으면 사계절이 같고 먹는 것, 입는 것이 유사하며 피부도 비슷

하다. 그래서 한국산 소비재가 잘 팔리는 것이다.

둘째로는 한국인과 중국인은 모두 공자학원 장학생들이어서 사고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2500년 전 공자의 말씀인 논어는 한국인과 중국인 사고의 기본 틀이다. 한국은 미국식 교육을 60년간 받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모두 유교의 가르침이 기본이다. 한국 돈의 모든 인물은 유교 장학생이거나 유교 장학생을 낳은 어머니의 얼굴이 인쇄돼 있다.

셋째, 한국인은 중국인의 마음을 읽어내는 DNA가 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한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다. 한국은 2000년간 중국과 250여 차례의 전쟁을 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중국인의 속성을 속속들이 아는 눈이 생겼고, 이것이 한국인이 중국인의 마음을 읽는 DNA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전병서의 설명은 다소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답변 중에 지리적 환경이 일치하지 않는 동남아시아나 남미에서의 한류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공자의 배움을 중국인과 한국인은 공유를 해왔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한류와 한국 제품에 열광한다는 것이지만, 역시 중국 이외의 지역, 예를 들면 미국인들 중 일부지만 한류 팬들이 한국 드라마와 한국 음악을 좋아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마지막 3번째 설명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 한국인들의 문화가 전세계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인들이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

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전 지구적인 DNA를 갖고 있기 때문인가?

물론 전병서의 설명은 중국에서 유행하는 한류 열풍을 제한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설명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다.

그의 말대로 한국은 화폐에 유학자들의 초상을 그려 넣은 세계 유일한 나라다. 그만큼 한국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유교가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이 중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요인 중 하나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전병서는 나아가 "사드 보복의 폭탄을 맞은 한류문화상품은 어디로 가야 할까?"라는 질문을 하고 다음과 같이 답을 하였다.

> 중국이라는 한 나라에 목을 매서는 한류의 미래가 없다. 아시아적 가치가 만들어져야 가능하다. 칼군무와 미소년, 미소녀를 앞세워 가창력이 아닌 떼창과 몸으로 하는 K-POP은 추월당하기 쉽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이제 반도체와 휴대폰을 만들지 않는다. 소프트웨어와 비즈 모델을 만들고 모든 하드웨어는 원가 경쟁력이 가장 싼 중국에서 만든다. 한류도 이것을 벤치 마크해야 한다.

그동안의 K-pop스타일로는 장래가 없다고 한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예를 들면 아시아적 가치를 추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말하는 아시아적 가치는 무엇인가? 그는 구체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다음과 같은 '장인정신'을 지적하였다.

> 문화는 장인정신이다. 삼류는 제품을 팔고, 이류는 기술을 팔고, 일류는 문화를 판다. 문화는 브랜드이고 깊이와 넓이가 문화의 수명

을 결정한다. 시간의 숙성과 장인의 노력이 명품 브랜드와 문화를 만드는 필수 재료다.

그리고 그는 "문화를 정복하는 자 세계를 정복한다. 중국인, 아시아인의 마음을 울리려면 먼저 그 문화, 역사를 아는 게 필수다. 서울대에 오락엔터학과를 만들고 SM, YG, JYP가 중국과 아시아 문화대학을 만들어 깊이 공부한 다음 중국과 아시아 공략에 다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19년, 방탄소년단이 미국의 팝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다면 전병서의 제안은 이미 낙후되어 있다. 중국과 아시아의 문화대학을 만들어 아시아인의 문화와 역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은 한류를 중국시장,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 한정시키는 일이다. 한류는 좀 더 큰 시장, 좀 더 큰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 유럽, 러시아, 중남미, 그리고 미국시장을 거점으로 삼아 글로벌 브랜드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한류다.

2017년에 전병서가 보지 못한 점은 한류의 생명력이다. 그리고 그 다양성이고 다이내믹한 역동성이다. 예를 들면 그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대표적인 주자들 즉 SM, YG, JYP를 들어 그들이 본격적으로 다시 공부를 하고 힘을 재충전하여 중국과 아시아를 공략해라고 하였으나, 요즘 미국과 유럽의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업체는 그들이 아니고 방탄소년단을 만들어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이다.

이 회사는 2017년 영업이익이 325억원으로, SM의 109억원, YG의 252억원, JYP의 195억원보다 월등히 많다. SM은 2016년 까지만 하더라도 K-pop시장을 리드하는 듯하였지만, 낙후된 음악적 컨셉과 지나친 중

국시장, 일본시장 의존으로 치열한 K-pop시장의 경쟁에서 도태되고 있다. SM의 침체는 K-pop 업계가 얼마나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상징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당황하고 있는 것이다.

6. 외국인의 '한류와 유교'론

2017년, 국회도서관 자료에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Medium'(https://medium.com/)이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한류와 유교에 관련된 흥미로운 글이 있어서 소개한다. 미카엘 허트(Michael Hurt)가 쓴 「K-pop은 신유교의 포르노다(K-pop Is Neo-Confucian Pornography)」라는 다소 도발적인 문장이다. 저자 허트는 2002년 이래 서울의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글을 쓰는 사회학자로 자신을 'visual sociologist' 즉 시각사회학, 달리 말하면 영상문화 전문 사회학자로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글은 바로 국내 인문학 연구자 이우창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는데 이우창은 역시 인터넷 매체인 〈HUFFPOST〉에 「K-POP은 '신유교주의 포르노'인가?」(2017.03.17)라는 글로 비판했다. 허트의 원문의 번역문은 네이버에 실려 있다.(Piano Shoegazer, 「번역 케이팝은 신유교주의 포르노이다」, 2017.3.14.)

먼저 이우창의 반박부터 소개를 하자면, 그는 허트의 글이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특히 '유교'에 대해 언급하는 대부분의 사항들이 틀렸다고 보았다.

그리고 허트가 '유교적 여성관의 특징이라고 지적하는 사항들은 여성혐오라고 부르는 것들의 사례를 모아놓은 것과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고 그가 '2010년대의 한국문화를 설명함에 있어 신유교주의 말고 그 어떠한 문화적 원천도 언급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예를 들면 K-pop에 그런 포르노적인 요소가 있다면 일본에서 유입된 포르노 문화가 신유교주의, 즉 조선 성리학의 영향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이우창은 허트가 말하는 '유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반박하였다.

그러면 허트는 왜 K-pop이 신유교주의의 포르노라고 주장했을까?

우선 K-pop은 무엇일까? K-pop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한국가요'가 아니다. 외국인들이 즐기고 듣는 한국가요를 K-pop, 즉 'Korean pop'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K-pop은 엄밀히 말하자면 듣는 주체가 외국인인 한국 가요를 의미한다. 이 점에서 한국인 비평가 이우창은 K-pop을 분석하고 허트의 문장을 반박하는데 한계가 있다.

허트는 아마도 미국인으로 미국의 팝문화적인 맥락에서 그가 목격한 K-pop을 분석한 것이다. 그 점을 염두에 두지 못하면 허트가 말하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힘들다.

즉 미국 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사회적인 위상, 여성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는 허트가 말하는 'K-pop'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필자도 미국인이 아니고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미국의 여성 가수들의 이미지를 생각해보면 한국의 여성 가수들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여성 가수들은 무대에서 공연할 때 브라자와 팬티만 입고하는 경우가 흔하다. 마돈나, 비욘세, 레이디 가가, 케이티

페리, 리한나 등 아주 많다 그들은 또 성적 어필이 강하고 개성도 매우 강하다. 그들이 찍은 음악 비디오를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지저분하며 성적인 주장이 너무도 강하다. 그야말로 포르노 수준인 경우가 적지 않다. 나아가 그들은 자신의 여성적인 모습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의 내용도 매우 선정적이다. 예를 들면 아리아나 그란데의 '사이드 투 사이드(side to side)'를 보면 '난 하루 종일 여기 있었어, 넌 내가 비틀대며 걷게 만들었어.(I've been here all day. And boy, got me walkin' side to side.)'라는 대목이 나온다. 이것은 격렬한 성관계 후에 여자가 잘 걷지 못한 상태를 노랫말로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가사에는 '네가 거기 그 멋진 몸으로 서 있는 걸 봤어. 너의 몸과 뒹굴고 싶은 느낌이야(See you standing over there with your body, Feeling like I wanna rock with your body)'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러한 성적인 내용이 매우 흔한 것이 미국 팝음악이다. 이러한 사정을 염두에 두고 허트의 글을 읽어야 한다.

그리고 허트는 간단히 'K-pop'이라고 표현했지만 정확히는 K-pop의 뮤직비디오 혹은 공연 사진을 말한다. 특히 여성을 성적으로 묘사하는 장면이 신유교주의 포르노, 달리 말하면 성리학적 포르노라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미국 팝 뮤직의 포르노와는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이우창의 반박은 단지 K-pop에 포르노적인 모습이 있고 그것이 조선의 유교주의적인 전통에 맥이 닿아있다는 것을 지나치게 크게 의식하고 있으나 허트가 말하는 성리학적인 포르노는 노골적인 미국팝적 포르노와는 다소 특이한 모습, 즉 순결성을 강조하고, 순진함을 강조하면서도 성적인 모습이 K-pop에는 보인다는 것이다.

이우창은 허트가 "유교에 대해 아는 것은 막연히 위계적이고, 여성 억압적인 동양의 나쁜 풍습이라는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하였는데, 허트의 유교에 대한 견해는 어떤 것인가?

허트는 서구의 연구자들이 한국을 이해하는데 '모든 것을 유교로 환원하는 오류'에 빠진다고 하고, 하지만 그것이 한국을 이해하는데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지적하고, 자신의 글이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의 다음과 같은 글에서 출발하였음을 언급하였다.

> 조선시대에 등장한 유교주의적, 신유교주의적 가치는 한국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을 변화시켰다. 케이팝 산업에서 유교의 '충'은 아티스트에 대한 엄격한 통제로 나타나며, 유교주의적 성역할은 남성 아이돌과 여성 아이돌이 묘사되는 방식에 드러난다. 한국사회는 근대화를 거치면서 유교적 가치를 소거하지 않고 이를 권력과 효율을 좇는 자본주의 사회에 병합시켰다.

유교적 가치가 현대 한국사회의 자본주의에 남아 있다고 지적한 문장이다. 특히 케이팝 산업에서도 아이돌 가수들의 통제에 그것이 남아 있다고 보았다. 허트는 이러한 언급을 바탕으로 여성 아이돌의 성적인 어필에 관심의 초점을 모으고 글을 써내려 갔다.

그는 우선 '주류 포르노와 케이팝이 공유하는 언어가 있다. 두 매체는 순결함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다. …… 순진함을 환유해서 말하자면, 성욕을 더욱 자극하는 욕망의 대상이다.'고 하였다. 즉 케이팝의 뮤직비디오의 여성 아이돌에서 보이는 순진함은 가끔 성욕을 자극하는 도구로 사용되는데 그 부부분이 성리학적인 포르노라는 것이다.

미국 여성 팝가수들이 보여주는 노골적인 포르노와 비교해보면, 성리학적인 포르노라는 허트의 표현은 비난이나 비꼼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에 가깝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 케이팝은 자신을 예술로 변호하고자 한다. 그러나 자주 포르노의 문법 혹은 어휘를 종종 빌리곤 한다. 그렇다면 로타(가 찍은 K-pop사진)는 포르노인가? 나는 로타(의 사진이)가 사전적 정의를 엄밀하게 따른다면 포르노라고 주장한다.

허트가 보는 포르노란 그의 정리를 따르면 a) 명백한 성행위 수행, b) 현저하게 성적으로 호소하는 누드를 말한다. 포르노란, 포르노그라피(pornography), 즉 춘화(春畵), 애로사진이다. 허트에 따르면 K-pop의 뮤직비디오에는 자주 포르노의 방법을 동원하여 보는 사람, 듣는 사람을 유혹한다는 것이다.

그는 "케이팝 뮤직비디오는 실제로 포르노와 같은 기호적 문법과 어휘를 호소하기 때문"에 포르노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저자 나름대로의 해석이기 때문에 반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케이팝의 포르노는 주류 포르노와는 다르기 때문에 '신유교주의적(성리학적)'이라는 전제를 한 것이다.

그렇다면 유교주의란 무엇인가? 허트는 이 부분에 많은 서술을 하고 묘사를 하였다. 그는 기본적인 전제로 "오늘날 한국사회는 여전히 여성의 신체를 유교적으로 여긴다."고 보았다. 우리는 그의 이러한 선언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미국사회는, 혹은 영어권 사회는 여성의 신체

를 어떻게 보는가 이해를 해야 한다. 서양인들은 여성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여기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하기는 어렵다.

다만 우리는 허트가 말하는 우리 사회의 여성관이 허트가 가지고 있는 서양적인 여성관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그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한국인의 여성관의 대립항으로 미국인들의 여성관이 전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허트는 유교의 여성관에 대해서 Taeyeon Kim이 2003년에 집필한 "Neo-Confucian Body Techniques: Women's Bodies in Korea's Consumer Society."을 근거로 삼고 있다.

위의 논문에서 허트가 빌려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선 유교주의에서는 남성만이 심신을 단련하기 위해 자아 수양을 할 수 있다. 조선 유교는 여성은 현자가 될 수 없으며 자아와 신체를 초월하기 위한 필요나 능력도 없다고 상정한다. 남성은 고전을 연구하며 심적인 자아를 남기며 조상숭배 제도를 통해 육체적인 자아도 남긴다. 그러나 여성은 물리적인 신체를 통해 번식하고, 가족 구성원을 유지하기 위한, 육체적인 신체로서만 존재한다.

이러한 정의가 옳은지 틀린지 따져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600년 동안 유교의 세례를 듬뿍 받고 사회전체가 유교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현상으로 다양한 모습이 존재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문제는 미국인이 위에 인용한 내용에 공감을 표한다는 것은 미국적인 여성관에는 그러한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에서 여성

은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는다. 현실적으로는 남녀의 구분이 있겠지만 미국의 정신적 기반인 청교도 정신이나 기독교(개신교) 교리에는 적어도 위의 인용문에서 보이는 그러한 여성관은 없다. 허트는 그 점을 주목한 것이다.

그는 "조선 유교학자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한 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개념은 오늘날에도 여전하다."고 보고, 한국에서 "여성은 생명을 창조하는 데에 있어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여성은 아기와 자신의 번식능력에 의해 가치를 가진다. 여성의 신체에는 주체가 없다고 여겼다."고 보고 그래서 "한국에서의 '주체가 없는 신체'로서의 소녀는 결혼이 되기 전까지는 남자에게 닿을 수 없다는 개념과 더불어 소녀가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개념으로까지 나아간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주체성이 없는 여성의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된다. 미국적인 여성의 이미지와는 아마도 반대되는 이미지일 것이다. 미국 여성 가수들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자신의 활동을 펼치는지 알 수 있다. 이는 많은 부분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 K-pop여성 가수들과는 다르다.

허트는 나아가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한국식 신유교주의는 남성이 지배하는 사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이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유교의 문화적 잔향은 젠더와 여성, 권위의 수직적 흐름, 그리고 심지어 교육 방식에까지 뿌리를 내렸다."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소녀들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7살 때부터 성적인 뉘앙스로 인해 소년들과 분리된다. 아울러 사회는 자라서 아이를 낳는 능력으로

여성을 평가하며, 여성을 중요한 대상이자 미덕의 용기(容器)로서 여긴다. 그래서 여성은 자신의 심신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며 이는 유교주의의 잔향 때문이다."라고 설명한다. 심지어 그는 "유교 이데올로기 하에서 여성은 미덕의 용기이며, 종의 보존을 위한 도덕적이고 생물학적인 번식단위이다."라고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막스 베버(Max Weber)의 쇠창살(Iron Cages)론을 빌려 K-pop의 성적 측면을 정리했다. 쇠창살이란 사회 통제를 위해 혹은 어떤 사회적 행동에 주의를 집중하기 위해, 혹은 직접적으로 돈을 벌기위해 동원되는 사고 방식(혹은 이데올로기)이다.

허트는 "한국사회는 더 이상 전통 유교주의와 관련된 것들을 행하지 않으며 지양하기도 한다. 남녀 내외는 없으며 여성은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여성의 신체는 재산이 아니며 여자는 혼자 외출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현대 한국사회는 '유교주의적 쇠창살'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조선시대처럼 계속 여성을 타인에게 종속시키며 잔존한다."고 보았다.

그러한 '쇠창살'에 근거하여 K팝 시장에서 "여성은 성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고 남성을 유혹할 수 있어야 가치를 갖는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 현재 K팝 뮤직비디오는 여성의 지위를 한국 신유교주의 이데올로기가 오래전에 정한 성기와 정액을 받는 용기(容器)라는 지위로 하락시킨다. 여성이 곰이든 여우든 간에, 순결 판타지든지 포르노적 쾌락이든지, 성녀든지 창녀든지 간에 여성의 주체적인 지위는 수동적인 성적 용기(容器)가 되었다. 단어 사용이 다소 거칠 수 있지만 사

실이다. 사회 안정을 위해 여성의 지위를 성적 용기로 정의하는 것은 조선시대 이후로 변화가 존재했으며 모든 여성이 임신하길 요구하진 않지만 메시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 비디오의 여성들은 현대적인 옷을 입었을 뿐이지 여전히 신유교주의 성적 용기이다.

이러한 결론은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허트가 경험한 미국적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이해 못할 내용은 아니다. 특히 K-pop 비디오에서 여성이 주체성을 상실한 수동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적인 덕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외면하기 힘들다.

7. 맺음말

한류는 마치 살아 있는 생명체와도 같다. 그것은 이미 끝나버린 문화현상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서 움직이고, 역동적으로 변모해 가는 사회현상이다. 본문에서 소개한 전병서의 「중국인을 춤추게 하라」는 바로 그러한 한류의 역동성을 잘 보여준다. 2018년 현재, 전병서가 2017년에 예상하고 희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한류가 움직이고 있다. 한류는 그만큼 예측불허의 현상이다.

많은 한국인들은 '한류'가 마치 한국인 자신들 만이 독자적으로 만들어가는 문화현상인 것처럼 생각한다. 한류는 한국인들이 만들어내는 '한국문화'가 아니라 외국인들이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심지어는 제작과정까지 개입하는 한국문화이다. 만약에 지구상에 한국인들만

있다면 한류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외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한류'라는 개념이 생겨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류'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외국인들의 문화현상이다.

현재 국내에서 발표되는 한류관련 학위 논문 중에서 거의 50%에 육박하는 논문이 한국에 유학 온 외국인들에 의해서 제출되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그러한 점을 잘 설명해준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위에서 소개한 허트의 문장「케이팝은 신유교주의 포르노이다」를 보면 유교를 연구하는 사람, 혹은 케이팝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한국사람들이 읽어 본다면 상당히 불쾌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타인들이 행하는 나에 대한 평가에 내가 마음대로 개입할 수 없듯이, 한류를 해석하는 외국인들의 작업에 한국인들이 멋대로 개입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한류는 외국인들이 느끼고 즐기는 문화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사회적, 문화적인 배경을 전제로 한국의 문화를 수용하여 감상하고 평가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이 우리 문화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즐기는지 이해하는 일일 뿐이다. 좀 더 나간다면 우리는 그들이 한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고 우리 자신, 우리 문화, 그리고 우리 역사와 사회를 좀 더 심층적으로, 좀 더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이해하는 일이 우리, 즉 한국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